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에스더

EST · 역사서 · 히브리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10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에스더 1장

EST-001 · 역사서 · 히브리어

>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며 백팔십 일 잔치와 수산의 이레 잔치로 그 나라의 영화를 펼치되, 마음이 즐거울 때 왕후 와스디를 불러 아름다움을 백성에게 보이라 하나 와스디가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매 — 왕의 진노가 불 붙듯 일고, 므무간의 진언을 따라 와스디를 폐위해 다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각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 각 언어로 반포하는 —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호화와 권력의 무대에서, 한 거절이 제국 전체의 조서로 번지고 비어 버린 왕후의 처소가 한 장에 겹치는 장.

관찰된 사실

에스더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광대한 통치의 보좌(1~2절)→궁의 백팔십 일 잔치(3~4절)→후원 뜰의 이레 잔치(5~9절)→제칠 일의 부름과 거절(10~12절)→자문의 방(13~20절)→각 언어로 번진 조서(21~22절)로 옮겨 다님. 화려한 연회에서 차가운 조서로.
- 무대의 방향: 눈부신 잔치가 제칠 일의 한 거절로 흔들렸다가, 자문과 폐위와 조서로 차갑게 굳음.
- 소품: 흰색·자색 휘장과 베줄(6절), 금과 은 걸상(6절), 각기 다른 금잔(7절), 왕후의 관(11절), 일곱 내시(10절), 각 언어의 조서(22절).
- 소품의 도드라짐: 보이라고 부른 왕후의 관(11절)과 온 나라로 번진 조서(22절) — 무대에 세우려던 관과 비어 버린 처소가 같은 장에 놓임.
- 소재의 결: 처음은 과시(영화·위엄·잔치·금잔·마음껏), 가운데는 어긋남(부름·싫어함·진노·불 붙듯), 끝은 굳힘(자문·폐위·조서·각 언어).
- 형식 소재: 잔치(mishteh 3·5·9절)의 거듭됨, '일곱'의 반복(이레·제칠 일·일곱 내시·일곱 지방관), 보이다(raʾah 4·11절)와 진노(qetsep 12절)의 잇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눈부신 잔치의 들뜸 — 백팔십 일과 이레의 향연, 휘장·금잔·마음껏 마심(3~8절).
- 제칠 일의 팽팽함 — 부름과 거절, 불 붙는 듯한 진노(10~12절).
- 자문의 방의 차가운 굳음 — 때를 아는 자들, 므무간, 폐위와 조서(13~22절).
- 채워진 무대 속의 빈 데 — 가장 화려한 한복판에서 한 처소가 비고(12절),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음.
- 들뜸('영화를 보이니' 4절)·팽팽함('오기를 싫어하니' 12절)·차가움('조서를 내려' 22절)의 세 어조.
- '노가 불 붙는 듯하더라'(12절) — 화려함의 절정에서 일어난 진노가 다음의 폐위 조서를 끌어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그 지방에 보내어 모든 남자가 자기의 집을 다스리게 하니라."
- 광대한 제국의 통치로 열려, 각 지방 각 언어로 반포된 한 조서로 닫힘 — 압도하는 너름과 집 안의 법으로 좁혀진 끝.
-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1절)은 위엄·너름의 결, '각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라'(22절)는 한 거절이 집집마다로 번진 결.
- 1절(제국의 폭)과 22절(집 안의 법) 사이에 4절(영화를 보임)과 12절(거절)이 펼침과 어긋남으로 갈림.
- 너른 통치의 화면(1~2절)에서 흩어지는 조서의 화면(22절)으로 — 한 영화가 한 거절을 거쳐 집집마다의 법으로 굳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하수에로(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림·잔치를 베풂·와스디를 부름·거절에 진노함·자문을 거쳐 조서를 반포함), 와스디(여인 잔치를 베풂·부름에 오기를 싫어함·끝내 폐위됨), 일곱 내시(왕명을 와스디에게 전함), 때를 아는 자들과 일곱 지방관(왕이 의논한 자문단), 므무간(폐위와 조서를 진언함), 무대 뒤의 침묵(이 장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음).
- 중심 사상: '보이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와 '한 거절이 어디까지 번지는가' — 영화를 보이고(4절) 아리따움을 보이라 하나(11절), 그 부름이 거절되자 '모든 여인'과 '각 남자의 집'으로 번짐(17·22절). 본문이 그 번짐에 판단을 붙이지 않음.
- 세 겹의 잔치: 고관들의 백팔십 일(3~4절)·백성의 이레(5~8절)·와스디의 여인 잔치(9절) — 세 잔치가 다 펼쳐진 다음 제칠 일에 한 부름이 옴.
- 비워진 거절의 까닭: 와스디가 왜 싫어했는지를 본문이 한 절도 적지 않음(12절) — 사실만 두고 까닭은 비움.
- 왕후의 관(11절)·각 언어의 조서(22절)·비어 버린 처소(19절): 무대에 세우려던 관과 온 나라로 번진 조서 사이에 비워진 한 처소가 놓임.
- qetsep(진노 12절)와 dat(법도·조서 8·19절): 한 장의 두 결로 놓인 불 붙는 노와 굳어진 법.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광대한 통치의 보좌 — 인도에서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 수산 궁 보좌.
- 컷 2 (3~9절): 펼쳐진 잔치 — 고관들의 백팔십 일(3~4), 백성의 이레와 휘장·금잔·마음껏(5~8), 와스디의 여인 잔치(9).
- 컷 3 (10~12절): 거절과 진노 — 제칠 일 일곱 내시의 부름(10~11), 와스디의 싫어함과 불 붙는 진노(12).
- 컷 4 (13~20절): 자문의 방 — 때를 아는 자들에게 물음(13~15), 므무간의 진언과 폐위·조서 제안(16~20).
- 컷 5 (21~22절): 번진 조서 — 그 말을 좋게 여김(21), 각 지방 각 언어로 조서를 보냄(22).
- 컷 3의 경첩 위치: 펼쳐진 통치·잔치(컷 1·2)와 자문·조서(컷 4·5) 사이에 거절과 진노가 끼어듦 — 부름(10~11)→거절(12)→진노(12)가, 다음의 자문(13~)과 맞물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achashwerosh* — 아하수에로(1절). 인도에서 구스까지 다스린 왕. / *shushan*(שׁוּשַׁן) — 수산(2절).

• *birah*(בִּירָה) — 궁·요새(2절). 수산의 그 왕궁. / *mishteh*(מִשְׁתֶּה) — 잔치(3절). 마심에서 온 말.

• *kavod*(כָּבוֹד) — 영화·무게(4절). 보이려 한 그 영화. / *dat*(דָּת) — 법도(8절). 강요 없는 마심의 법도.

• *saris*(סָרִיס) — 내시(10절). 왕명을 전한 일곱. / *keter*(כֶּתֶר) — 왕후의 관(11절). 보이라 부름받은 관.

• *yapheh*(יָפֶה) — 아리따움(11절). 보이라 한 그것. / *qetsep*(קֶצֶף) — 진노(12절). 불 붙는 듯한 노.

• *pitgam*(פִּתְגָם) — 조서·칙령(19절). 와스디를 폐위해 반포된 칙령. / *melachah* 결의 다스림(22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통치 요약 틀(1~2절) 안에 잔치(3~9절)·거절(10~12절)·자문과 조서(13~22절)가 잇대어 놓인 구조 — 형태 관찰.

• 세 겹의 잔치: 고관(3~4절)→백성(5~8절)→여인(9절) — 펼침이 세 번 거듭된 뒤 제칠 일에 한 부름이 옴.

• '일곱'의 반복: 이레(5절)·제칠 일(10절)·일곱 내시(10절)·일곱 지방관(14절) — 한 수가 무대와 자문을 가로지름.

• 잔치(mishteh)와 조서(dat/pitgam): 3~9절은 마음껏 풀어 놓고(펼침), 19~22절은 다시 못 오게 닫음(굳힘) — 펼침은 길게, 굳힘은 한 번에.

• 보임(raʾah 4·11절)과 하나님 이름의 침묵: 사람이 펼쳐 보이는 영화로 가득하되,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음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페르시아 궁정 잔치 — 아케메네스 왕실은 대규모 향연으로 부와 권세를 과시함. 3~8절의 배경.

• 백이십칠 지방의 행정 — 인도에서 구스까지 광대한 영토를 지방으로 나눠 다스리던 제국 구조. 1절의 배경.

• 각 지방 각 언어 조서 — 다국어 제국에서 칙령을 여러 문자로 반포하던 우편·문서 행정. 22절의 배경.

• 왕 앞에 부름과 알현 규례 — 궁정에서 왕이 부를 때 응하는 예법과 그 거역의 무게. 12절의 배경.

• 수산 궁 — 페르시아 겨울 수도 수사의 왕궁·요새 정황. 2절의 배경.

• 왕후·후궁 제도 — 여인들 잔치가 남자들 잔치와 따로 베풀어지던 궁정 정황. 9절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에 1장 ↔ 스 4:6 (아하수에로 통치 초에 유다를 대적하는 글 — 같은 왕대의 배경)

• 에 1:3-8 ↔ 단 5:1-4 (벨사살의 큰 잔치와 그릇 — 궁정 향연의 호화가 위기로 기우는 같은 결)

• 에 1:19 ↔ 에 2:1-18 (와스디의 처소에 에스더가 왕후로 들어옴 — 비어 버린 곳을 다음 장이 채움)

• 에 1:22 ↔ 에 3:8-15 (하만의 조서가 각 지방 각 언어로 반포됨 — 조서 반포 방식의 평행)

• 에 1장 ↔ 에 9:20-32 (부림절을 정한 조서 — 진멸의 제비가 절기로 뒤집힌 끝, 권의 destination)

• 에 1:4 ↔ 왕상 10:1-13 (스바 여왕이 본 솔로몬의 영화 — 왕의 부를 과시하는 같은 결의 본문)

• 에 1:12 ↔ 잠 16:14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 같음 — 불 붙는 듯한 노의 배경)

• 에 1:2 ↔ 느 1:1 (수산 궁 — 같은 페르시아 수도의 무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광대한 통치의 보좌. 자막 — 아하수에로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린다. 그가 수산 궁 보좌에 앉아, 통치 제삼 년에 모든 고관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 자막 — 그 나라 부의 영화와 그 위엄의

혁혁함을 여러 날 곧 백팔십 일 동안 보이니라. 화면이 후원 뜰로 옮겨 간다. 그 날들이 다하매, 왕이 수산에 있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이레 동안 잔치를 베푼다. 흰색 면포와 푸른색 휘장이 자색 가는 베줄로 은 고리와 대리석 기둥에 매여 있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이 화반석 바닥에 놓여 있다. 자막 — 각기 다른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마시는 것을 규모 있게 하여 사람에게 억지로 권하지 아니하더라. 화면이 왕궁 안의 다른 방으로 간다.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 제칠 일에 왕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일곱 내시를 보내어 명한다 —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그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런데 자막이 흐른다 —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라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노가 불 붙는 듯하더라. 화면이 자문의 방으로 옮겨 간다. 왕이 때를 아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일곱 지방관에게 묻는다 — 왕후 와스디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어떻게 처치할꼬. 므무간이 왕과 지방관들 앞에서 말한다 —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방관과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 일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이 그 남편을 멸시하리이다. 자막 —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후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왕후의 처소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시며, 조서를 내려 변개함이 없게 하소서. 화면이 흩어지는 문서로 간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긴다. 자막 — 조서를 내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보내어 모든 남자가 자기의 집을 다스리게 하니라. 화면이 비어 버린 왕후의 처소 앞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불 붙는 듯한 진노와 비어 버린 처소 — 한 거절이 제국의 조서로 번지는 장"**
- 초벌 부제: "아하수에로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며 백팔십 일과 이레의 잔치로 그 나라의 영화를 펼치되, 제칠 일 마음이 즐거울 때 왕후 와스디를 불러 아름다움을 보이라 하나 와스디가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매 — 왕의 노가 불 붙듯 일고, 므무간의 진언을 따라 와스디를 폐위해 다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각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 각 언어로 반포하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호화와 권력의 무대에서 한 거절이 제국 전체의 조서로 번지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achashwerosh·washti·mishteh·shushan·kavod·pitgam·qetsep·birah·saris·dat·keter·yapheh 등 12+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세 겹의 잔치 + 잔치와 조서의 두 끝 + '일곱'의 반복 + 페르시아 향연·지방 행정·다국어 조서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12의 와스디의 거절을 '여성의 용기' 또는 '교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라 오기를 싫어했다는 본문 형태로만 둠. 그 까닭은 비워 둠.

- 1:12의 불 붙는 듯한 진노를 '왕의 폭정'으로 닫지 않고, 마음이 즐거울 때 일어난 진노가 자문을 거쳐 조서가 된 형태로만 기록.
- 1:19의 폐위 조서를 '하나님의 섭리적 예비'로 미리 끌고 가지 않고, 므무간의 진언이 받아들여져 와스디의 처소가 비었다는 본문 형태로만 둠 — 다음 장의 채움은 이월.
- 하나님 이름의 부재를 '신의 부재'나 '숨은 섭리'로 단정하지 않고, 이 장에 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는 형태 관찰로만 보존.
- 1:22의 '각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라'는 조서를 현대적 가치 평가로 닫지 않고, 한 거절이 자문을 거쳐 각 언어의 칙령으로 굳은 본문 형태로만 둠 — 그 평가는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더 1장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 제삼 년에 수산 궁에서 모든 고관과 신하를 위해 백팔십 일 동안 그 나라 부의 영화와 위엄의 혁혁함을 보이고, 이어 수산의 큰 자와 작은 자를 위해 이레 동안 후원 뜰에서 흰색·자색 휘장과 금잔의 잔치를 베풀어 마음껏 마시게 하며(1:3-8),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나 — 제칠 일 마음이 즐거울 때 왕이 일곱 내시를 보내어 와스디에게 관을 쓰고 아리따움을 보이라 하매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라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노가 불 붙는 듯하고(1:10-12) — 왕이 때를 아는 자들과 일곱 지방관에게 묻고 므무간이 진언하여 와스디의 거역이 모든 여인에게 퍼질 것을 말하며 와스디를 폐위해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처소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게 하며 각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 각 언어로 반포하는(1:13-22), 과시와 어긋남과 굳힘이 한 장에 겹치는 장이다.

한 문단: 광대한 통치의 보좌. 인도에서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가 수산 궁에서 백팔십 일 동안 부의 영화를 펼쳐 보인다. 화면이 후원 뜰로 옮겨 간다. 흰색·자색 휘장이 베줄로 대리석 기둥에 매여 있고, 금잔으로 마음껏 마신다.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푼다. 그런데 제칠 일, 마음이 즐거울 때 왕이 와스디를 불러 아름다움을 보이라 하나, 와스디가 오기를 싫어한다. 왕의 노가 불 붙듯 일어난다. 한 거절이 가장 화려한 한복판을 흔든다. 왕이 자문을 구하자 므무간이 진언한다 — 이 일이 모든 여인에게 퍼지리니,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그 처소를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긴다. 조서가 각 지방 각 언어로 반포되어 각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한다. 한 거절이 제국의 법으로 굳는다. 한 장이 비어 버린 왕후의 처소 앞에 멈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광대한 통치의 보좌→궁의 백팔십 일 잔치→후원 뜰의 이레 잔치→제칠 일의 부름과 거절→자문의 방→각 언어로 번진 조서로 옮겨 다니는 무대. 휘장·금잔·왕후의 관·일곱 내시·각 언어 조서 — 과시에서 어긋남을 거쳐 굳힘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눈부신 잔치의 들뜸. 제칠 일의 팽팽함. 자문의 방의 차가운 굳음. 채워진 무대 속의 빈 데. 들뜸·팽팽함·차가움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1절)으로 열려 '각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라'(22절)로 닫힘. 압도하는 너름과 집 안의 법 사이에 영화를 보임(4절)과 거절(12절)이 갈림.

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사상	잔치를 베풀고 진노하고 조서를 반포한 아하수에로. 부름에 오기를 싫어해 폐위된 와스디. 왕명을 전한 일곱 내시. 폐위를 진언한 므무간. 무대 뒤 — 한 번도 불리지 않은 하나님 이름. 중심은 '보임'과 '한 거절의 번짐'.
5 장면 컷	광대한 보좌(1~2)/펼쳐진 잔치(3~9)/거절과 진노(10~12)/자문의 방(13~20)/번진 조서(21~22) 다섯 컷. 컷 3은 펼침과 굳힘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잔치(mishteh)와 조서(dat/pitgam)가 쥔 두 끝. 보임과 하나님 이름의 침묵. 12절의 비워진 거절의 까닭. 폐위 조서가 연 비어 버린 처소.
7 동영상	광대한 보좌 → 백팔십 일과 이레의 잔치 → 제칠 일의 부름과 거절과 진노 → 자문과 므무간의 진언 → 각 언어로 번진 조서와 비어 버린 처소.
8 초벌 제목·부제	"불 붙는 듯한 진노와 비어 버린 처소 — 한 거절이 제국의 조서로 번지는 장"
9 기도·내면	펼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쓰면서 한복판이 비어 가는 것을 못 보고 있지 않은지, 한 거절이 제국의 법으로 번지고 한 처소가 비어 버린 자국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펼치는 손과 비우는 손**: 1장은 한 무대를 가득 펼쳤다가 한 처소를 비운다. 앞부분은 펼침이다 — 백팔십 일 동안 부의 영화를 보이고(1:4), 이레 동안 휘장과 금잔의 잔치를 베풀어 마음껏 마시게 한다(1:7-8). 그 펼침은 더할 데 없이 화려하다. 뒷부분은 비움이다 — 한 거절에 진노한 왕이 와스디를 폐위해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처소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게 한다(1:19). 본문은 가득 채운 무대와 비어 버린 처소를 같은 장에 둔다. 그 사이의 낙차를 변호로 메우지 않고, 잔치는 여러 절에 걸쳐 길게, 거절의 속과 폐위는 빠르게 적을 뿐이다. 가장 채워진 무대가 어떻게 한 빈 곳을 여는지 — 본문은 그 두 손을 나란히 둔다.

2. **결 2 — 보임과 불리지 않은 이름**: 본문의 또 한 갈림은 '무엇은 보이고 무엇은 불리지 않는가'다. 1장은 보이는 것을 정성껏 적는다 — 영화를 보이고(1:4), 아리따움을 보이라 하고(1:11), 휘장과 금잔을 늘어놓는다(1:6-7). 그런데 같은 장에 하나님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 한쪽은 사람이 펼쳐 보이는 영화로 가득하고, 한쪽은 그 무대 뒤의 이름이 침묵한다. 가장 화려한 장이 가장 침묵하는 장이다. 본문은 그 나란함을 평가로 닫지 않고, 보이는 것과 불리지 않는 이름을 같은 장에 둘 뿐이다.

3. **결 3 — 한 거절과 제국의 조서**: 1장의 위기는 한 사람의 거절에서 시작된다. 와스디가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라 오기를 싫어한다(1:12). 본문은 그 거절의 까닭을 한 절도 풀지 않는다 — 부끄러움인지 위엄인지 다른 사정인지 적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한 거절이 자문을 거쳐 커진다 — 므무간이 '이 일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리라' 하고(1:17), 그 거역이 폐위의 조서가 되어 각 지방 각 언어로 반포된다(1:22). 흥미롭게도 본문은 거절의 속은 비우고, 그 거절이 번지는 폭은 길게 적는다. 한 사람의 사사로운 일과 제국 전체의 법을 나란히 두되, 그 둘 사이의 비례는 설명하지 않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스 4:6 — 아하수에로 통치 초에 유다를 대적하는 글 — 같은 왕대의 배경.
- 단 5:1-4 — 벨사살의 큰 잔치와 그릇 — 궁정 향연의 호화가 위기로 기우는 같은 결의 장면.
- 에 2:1-18 — 와스디의 처소에 에스더가 왕후로 들어옴 — 비어 버린 곳을 다음 장이 채움.
- 에 3:8-15 — 하만의 조서가 각 지방 각 언어로 반포됨 — 1:22 조서 반포 방식의 평행.
- 에 9:20-32 — 부림절을 정한 조서 — 진멸의 제비가 절기로 뒤집힌 끝, 권의 destination.

- 왕상 10:1-13 — 스바 여왕이 본 솔로몬의 영화 — 왕의 부를 과시하는 같은 결의 본문.
- 잠 16:14 —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 같음 — 1:12 불 붙는 듯한 노의 배경.
- 느 1:1 — 수산 궁 — 같은 페르시아 수도의 무대.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4의 '부의 영화와 위엄의 혁혁함을 보이니'에서 시작한다 — 사람이 펼쳐 보이는 영화의 한복판에 선다.
- **멈춤 1**: 1:12에서 멈춘다 — '왕후 와스디가 오기를 싫어하니.' 가장 화려한 국면의 부름이 한 거절로 흔들리는 그 한 절을 쥔다.
- **멈춤 2**: 1:17에서 멈춘다 — '이 일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리니.' 한 거절이 한 사람의 일에서 제국의 일로 번지는 그 결을 쥔다.
- **끝**: 1:19에서 멈춘다 — '그 왕후의 처소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비어 버린 한 처소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다음 장의 등극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광대한 보좌(1~2)·펼쳐진 잔치(3~9)·거절과 진노(10~12)·자문의 방(13~20)·번진 조서(21~22)의 다섯 컷 완결
- [x] 잔치(mishteh)와 조서(dat/pitgam)가 쥔 두 끝과 세 겹의 잔치·'일곱'의 반복·통치 요약 액자 구조
- [x] '영화를 보임'(1:4)과 와스디의 거절(1:12)·왕후의 관(1:11)·불 붙는 진노(1:12)·번진 조서(1:22)의 소품 다리
- [x] 권 흐름(EST flow)의 첫 국면 '와스디 폐위·에스더 등극(1~2장)' 정박과 멀리 9:22 역전과의 거리
- [x] 에 2장의 채움·에 3장 조서의 평행·므무간의 '그보다 나은 사람'(1:19)으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EST flow 닻)

에스더서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며, destination은 9:22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부림절, 곧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힌 끝이다. 권의 흐름은 와스디 폐위와 에스더 등극(1~2장), 하만의 조서와 제비 곧 부르(3장), '이 때를 위함'과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잔치(4~5장), 잠 못 드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 반전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8~10장)로 움직인다. 1장은 그 첫 국면, '와스디 폐위·에스더 등극(1~2장)'의 개막이며, 그중에서도 와스디의 폐위로 왕후의 처소가 비는 장이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권의 결답게, 1장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 — 다만 한 왕의 진노와 한 왕후의 거절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들이 엮여, 왕후의 처소가 빈다(1:19). 권의 intent('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폐위·등극·불면의 밤 같은 우연들을 엮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 구원을 절기로 기억하게 하심')가, 1장에서는 그 첫 우연 — 한 처소를 비우는 폐위로 비친다. 권의 heart인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4:16)의 부름과 9:22의 뒤집힌 슬픔이 비추는, 흩어진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마음은, 1장에서는 아직 무대 뒤에 침묵한 채 한 빈 곳만 연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장의 빈 처소는 끝이 아니라 다리다 — 다음 장의 한 등극이 그 처소를 채우고, 멀리 9:22의 역전이 권의 끝에서 그 결을 다 거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부의 영화를 펼쳐 보이는 무대(1:4)에서 비어 버린 왕후의 처소(1:19)로, 가장 화려한 잔치(1:7)에서 변개 없는 조서(1:19)로, 한 사람의 거절(1:12)에서 각 언어로 번진 제국의 법(1:22)으로 / 한 처소의 빈 곳에서 다음 장의 한 채움으로(1:19) — 하나님 이름이 침묵한 무대 위에서, 인간의 결정 하나가 섭리의 무대를 여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한 왕이 영화를 펼쳐 보이고도 한 거절 앞에서 진노하고, 그 진노가 자문을 거쳐 한 처소를 비우는 데로 흘러가는 운동이다. 광대한 통치(1~2절)가 펼쳐진 잔치로(3~9절), 거절과 진노로(10~12절), 자문으로(13~20절), 번진 조서로(21~22절) 흘러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에스더서는 1~2장의 폐위와 등극에서 시작해 3장의 진멸 조서와 4~7장의 역전으로 가다가 9:22의 부림절에 닿는데, 1장은 그 첫 국면의 개막이다 — 모든 역전이 시작될 한 빈 곳을 여는 장. 그런데 1장의 벡터는 닫히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19절의 '그 왕후의 처소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가, 비어 버린 곳을 2장의 한 등극으로 잇는다. 한 장이 빈 곳으로 멈추고, 한 채움이 다음 장을 연다. 비움과 이음이 두 장의 이음매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왕의 잔치와 한 왕후의 폐위다 — 영화를 펼치고, 부르고, 거절당하고, 진노하고, 조서를 내린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신 채 우연 하나로 한 처소를 비우시는 손이다. 본문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 — 다만 한 왕의 진노와 한 왕후의 거절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들이 엮여, 왕후의 처소가 빈다(1:19). 둘째, 그 폐침의 화려함과 그 화려함 속의 빈 데다. 백팔십 일과 이레의 잔치로 무대가 가득 채워지는데(1:3-8), 정작 그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1:12)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 셋째, 그 빈 곳이 향하는 곳이다. 본문은 한 폐위로 장을 닫지 않는다 — 므무간의 진언 안에 '그보다 나은 사람'(1:19)이라는 한 말이 들어 있어, 비어 버린 처소가 다음의 채움을 향해 열린다. 권 전체로 보면 9:22의 뒤집힌 슬픔이 그 모든 우연의 결을 한 번에 거두는데, 1장은 그 첫 우연을 미리 둔다 — 이름을 숨기신 채, 한 왕후의 처소를 비워 다음 장의 한 등극(2장) 앞에 둔 그 침묵을 마지막에 들고 닫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 나는 펼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쓰면서, 정작 한복판이 비어 가는 것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가 — 가장 채워진 무대에서 가장 침묵하는 한 곳은. 그리고 한 거절을, 한 어긋남을, 사사로운 진노로 끝내지 않고 더 큰 법으로 굳혀 번지게 한 대목은 없는가 — 화려함이 절정에 이른 그 즐거운 날에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화려한 무대를 차리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부의 영화를 펼쳐 보인 한 왕을 보여 주고, 가장 즐거운 날에 한 부름을 거절한 한 왕후를 보여 주고, 불 붙는 듯한 진노가 자문을 거쳐 변개 없는 한 조서로 굳어 가는 방을 보여 주고, 그렇게 비어 버린 한 처소(1:19)를 새겨 둔다. 과시와 어긋남과 굳힘이 한 장에 겹친 이 침묵 —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그 침묵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펼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쓰며 비어 가는 한복판을 못 보는 곳이 어디인지 보는 일, 한 거절과 한 진노를 더 큰 법으로 굳혀 번지게 한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이름이 불리지 않는 그 무대 뒤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 잠잠히 보는 일. 한 장이 화려한 잔치로 일어서 비어 버린 처소로 멈추는데 — 그 빈 곳 너머로 한 등극(2장)이 다음 장을 향해 서 있고, 멀리 권의 끝에서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힌 부림절(9:22)이 드러난다. 그 빈 곳과 그 뒤집힘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1장이 비어 버린 왕후의 처소(1:19)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그 왕후의 처소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1:19) 하니, 비어 버린 한 처소가 다음 장의 한 채움으로 이어지고, 다음 장은 흩어진 백성의 한 딸 에스더가 그 처소에 왕후로 들어가는 데로 넘어가, 이름을 숨기신 채 엮으시는 우연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ishteh* — 잔치.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광대한 통치의 보좌. 자막 — 아하수에로가 인도에서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립니다. 그가 보좌에 앉아 고관들을 위하여 백팔십 일 동안 부의 영화를 보입니다. 화면이 후원 뜰로 옮겨 갑니다. 흰색·자색 휘장이 베줄로 대리석 기둥에 매여 있고, 금잔으로 마음껏 마십니다. 화면이 왕궁 안의 다른 방으로 갑니다 —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제칠 일, 왕이 일곱 내시를 보내 와스디를 부릅니다 — 관을 쓰고 아리따움을 보이라. 그런데 자막 — 와스디가 오기를 싫어하니 왕의 노가 불 붙는 듯하더라. 화면이 자문의 방으로 갑니다. 왕이 때를 아는 자들에게 묻고, 므무간이 진언합니다 — 이 일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리니,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그 처소를 주소서. 화면이 흩어지는 문서로 갑니다. 자막 — 조서를 각 지방 각 언어로 보내어 각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니라. 화면이 비어 버린 왕후의 처소 앞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광대한 통치의 보좌에서 열려, 백팔십 일과 이레의 잔치와 휘장과 금잔을 지나, 제칠 일의 한 부름과 한 거절과 불 붙는 진노를 거쳐 — 자문의 방과 므무간의 진언으로, 그렇게 한 거절이 각 언어의 조서로 굳어 나가고, 비어 버린 왕후의 처소 앞에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불 붙는 듯한 진노와 비어 버린 처소 — 한 거절이 제국의 조서로 번지는 장"

P02 이진우: "마음껏 풀어 놓은 잔치에서 다시 못 오게 닫은 조서로 — 펼침과 굳힘이 한 장에"

P04 최현국: "광대한 통치의 보좌에서 비어 버린 왕후의 처소로 — 화려한 무대가 연 한 빈 곳"

P05 김미영: "가장 채워진 한복판에서 빠져나간 한 사람 — 보이라는 관과 비워진 처소"

P07 오지혜: "사람이 영화를 보이는 무대, 그러나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이름 — 보임과 침묵"

P11 나경아: "*qetsep · dat* — 불 붙는 진노가 변개 없는 한 칙령으로 굳다"

부제 제안: "아하수에로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며 백팔십 일과 이레의 잔치로 영화를 펼치되, 제칠 일 마음이 즐거울 때 와스디를 불러 아름다움을 보이라 하나 와스디가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매 — 노가 불 붙듯 일고, 므무간의 진언을 따라 와스디를 폐위해 다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각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 각 언어로 반포하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호화와 권력의 무대에서 한 거절이 제국 전체의 조서로 번지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백팔십 일과 이레 동안 그 나라의 영화를 펼쳐 보이던 한 무대 곁으로, 가장 즐거운 그 제칠 일에 한 부름을 거절하던 한 왕후 곁으로, 불 붙는 듯한 진노가 자문을 거쳐 변개 없는 한 조서로 굳어 가던 그

방 곁으로, 그리고 그렇게 비어 버린 한 처소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사람이 부의 영화를 그토록 펼쳐 보이는 한 무대를 보았습니다 — 그런데 그 화려한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 빈 곳 위로 불 붙는 진노가 변개 없는 한 조서로 굳어 가는 것을요. 또 이 가득 채워진 장에서 당신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던 그 침묵도 보았습니다. 제가 펼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쓰면서, 정작 한복판이 비어 가는 것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한 거절이 제국의 법으로 번지고, 한 처소가 비어 버린 그 자국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에스더 1장은 **펼쳐진 잔치에서 변개 없는 조서로, 채워진 무대에서 비어 버린 처소로** 움직여요. 1~2절이 광대한 통치, 3~9절이 세 겹의 잔치, 10~12절이 거절과 진노, 13~20절이 자문, 21~22절이 번진 조서예요. 에스더서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2장이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3장이 하만의 조서와 제비(부르), 4~5장이 '이 때를 위함'과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잔치, 6~7장이 잠 못 드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 8~10장이 반전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예요. 권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고요. 1장은 그 첫 국면, **와스디의 폐위로 왕후의 처소가 비는** 개막이에요 — destination인 역전(9:22)을 향해 무대가 설치되는 국면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12의 *qetsep*(불 붙는 진노)와 1:19의 *pitgam*(변개 없는 칙령)이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 한 노가 한 법으로 굳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1장의 *mishteh*(잔치)예요 — 권 전체에서 잔치가 거듭 돌아오는데(에 5·7·9장), 그 첫 잔치가 여기서 한 처소를 비우는 데로 가요. 또 하나, 이 장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그 침묵이, 권 전체에 깔린 '이름을 숨기신 채 일하심'의 첫 결을 미리 둬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왕의 잔치와 한 왕후의 폐위예요 — 영화를 펼치고, 부르고, 거절당하고, 진노하고, 조서를 내려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신 채 우연 하나로 한 처소를 비우시는 손 같아요. 본문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한 왕의 진노와 한 왕후의 거절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들이 엮여 왕후의 처소가 비어요(1:19).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그 비어 버린 곳에 흩어진 백성의 한 딸이 들어가(2장), 끝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는(9:22) 데로 가는데, 1장은 그 모든 역전이 시작될 한 빈 곳을 여는 장이에요. 우연과 인간의 결정이 섭리의 무대를 여는, 그 첫 한 매듭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부의 영화와 위엄의 혁혁함을 보이니"(4절)와 "왕후 와스디가 오기를 싫어하니"(12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펼쳐 보인 영화고, 한쪽은 그 영화의 부름을 거절한 한 사람이에요. 더 큰 긴장은, 이렇게 가득 채워진 무대에서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 가장 화려한 장이 가장 침묵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비어 버린 왕후의 처소가 무엇으로 채워질지는, 다음 장을 읽어야 알게 돼요. 펼친 영화와 거절한 한 사람과 불리지 않은 이름이 한 장에 겹쳐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무대를 채우는 손에서 한 처소를 비우는 손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광대한 통치(1~2절)가 펼쳐진 잔치로(3~9절), 거절과 진노로(10~12절), 자문으로(13~20절), 번진 조서로(21~22절) 흘러가요. 그리고 1장이 끝나며 한 빈 처소 앞에 서요 — 폐위된 왕후의 그 곳이에요. **그런데 그 빈 곳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므무간이 "그 왕후의 처소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19절) 하니, 1장 끝의 빈 곳이 2장의 한 채움을 향해 열려요. 한 왕후가 폐위로 비운 그 처소를, 다음 장의 한 등극이 채워요. 한 장이 빈 곳으로 멈추고, 한 채움이 다음 장을 향해 서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19절과 22절이 다음을 미는 두 손 같아요. 19절의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와 22절의 각 언어로 번진 조서요. 그토록 화려한 무대도, 마음껏 풀어놓은 잔치도, 보이라던 관도, 한 거절 앞에서는 비어 버린 처소로 갔어요. 저는 가득 채워진 이 장이 마지막엔 한 빈 곳으로 닫히는 그 결이 묘하게 무거워요 — 그런데 바로 그 빈 곳 다음에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한 말이 와요. 비어 버린 처소가 다음 채움으로 이어져요. 그 이음이 어디로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광대한 통치와 펼쳐진 잔치에서, 한 거절과 불 붙는 진노로, 자문과 변개 없는 조서로 — 그러나 그 끝에 비어 버린 왕후의 처소가 곧바로 다음 장의 한 채움으로 이어지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신 채 우연 하나로 한 처소를 비우신 이 개막이, 다음 장에서 흩어진 백성의 한 딸이 그 처소에 들어가는 데로 이어지며, 멀리 권의 끝(9:22)에서야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힘이 드러납니다. 다음 장은 비어 버린 왕후의 처소에 에스더가 등극하는 데로 넘어갑니다.

에스더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3-8 — 백팔십 일과 이레의 잔치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왕이 고관들을 위해 백팔십 일 동안 부의 영화를 보이고(3~4절), 백성을 위해 이레 동안 후원 뜰에서 휘장·금잔의 잔치를 베푼다(5~8절). 본문은 이 호화를 옳다거나 그르다고 평하지 않는다 — 과시인지 관후인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왕의 허영'으로 닫지 않고, 영화를 보였고 마음껏 마시게 했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1:10-12 — 와스디가 부름을 따라 오기를 싫어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제칠 일 마음이 즐거울 때 왕이 일곱 내시를 보내 와스디에게 관을 쓰고 아리따움을 보이라 하나(10~11절),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라 오기를 싫어하니"(12절). 본문은 그 거절의 까닭을 한 절도 풀어 적지 않는다 — 부끄러움인지 위엄인지 다른 사정인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용기'나 '교만'으로 닫지 않고, 오기를 싫어했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까닭은 비워 둔다.

Q3. 1:12 — 불 붙는 듯한 진노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와스디의 거절에 "왕이 진노하여 노가 불 붙는 듯하더라"(12절). 본문은 이 진노가 정당한지를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 마음이 즐거울 때 일어난 노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폭군의 분노'로 닫지 않고, 불 붙는 듯한 진노가 곧바로 자문으로 이어진 본문 형태로만 보존.

Q4. 1:13-20 — 때를 아는 자들의 자문과 므무간의 진언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왕이 때를 아는 자들과 일곱 지방관에게 묻고(13~15절), 므무간이 와스디의 거역이 모든 여인에게 퍼질 것을 말하며 폐위와 조서를 진언한다(16~20절). 본문은 이 진언이 지혜로운지 과한지를 평하지 않는다. 이 일을 '간신의 부추김'으로 닫지 않고, 자문을 거쳐 한 거절이 제국의 일이 된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1:19 — 와스디의 폐위와 비어 버린 처소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므무간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왕후의 처소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19절) 진언하여 와스디가 폐위된다. 본문은 이 폐위를 옳다거나 그르다고 평하지 않는다 — 비워진 한 처소가 무엇을 향하는지 미리 말하지 않는다. 이 일을 '섭리적 예비'로 미리 끌고 가지 않고, 그 곳이 비고 다음 사람에게 주라는 말이 조서가 된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다음 장의 채움은 이월.

Q6. 1:22 — 각 언어로 반포된 조서와 하나님 이름의 침묵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조서가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반포되어 각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한다(22절). 그리고 이 가득 채워진 장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 본문은 그 침묵을 '신의 부재'나 '숨은 섭리'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현대적 가치 평가로 닫지 않고, 한 거절이 각 언어의 칙령으로 굳었다는 사실과 그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형태 관찰로만 보존 — 그 평가는 비워 둔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에스더 2장)*으로 이월한다.

에스더 2장

EST-002 · 역사서 · 히브리어

> 왕의 노가 그친 뒤 와스디로 비었던 왕후의 처소를 채우려 아리따운 처녀를 모으는 간택이 열리고, 사로잡혀 온 백성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양육 아래 궁으로 들어가 내시 헤개의 은총을 입어 몸을 가다듬되 자기 민족을 숨기고 —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그 머리에 관을 씌워 와스디를 대신한 왕후로 삼으매*(2:17)*, 그 즈음 모르드개가 두 내시의 왕 시해 음모를 알아내어 고하니 사실로 드러나 그 일이 궁중 일기에 기록되되 보상은 미뤄지는 — 비었던 처소가 흩어진 딸로 채워지고 한 충성이 기록만 되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권안에서 두 복선이 함께 놓이는 장.

관찰된 사실

에스더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비워진 처소를 돌아보는 알현실(1~4절)→흩어진 딸의 집과 궁의 어귀(5~11절)→후궁의 단장하는 처소(12~14절)→왕 앞의 알현실과 잔치(15~18절)→대궐 문의 적발과 기록(19~23절)으로 옮겨 다님. 빈 처소의 회상에서 한 줄의 기록으로.
- 무대의 방향: 환한 간택과 단장이 가장 밝은 등극으로 올라갔다가, 낮고 긴장된 대궐 문의 적발과 미뤄진 보상의 기록으로 내려앉음.
- 소품: 비워진 왕후의 처소(1·17절), 단장의 기름과 향품(12절), 일곱 시녀와 단장품(9절), 한 사람의 두 이름(7절), 머리에 씌운 관(17절), 궁중 일기(23절).
- 소품의 도드라짐: 머리에 씌워 곧 드러난 관(17절)과 적히되 미뤄진 충성의 일기(23절) — 곧 갚아진 관과 미뤄진 기록이 같은 장에 놓임.
- 소재의 결: 처음은 채움(빈 처소·모음·단장·은총·사랑·관·잔치), 가운데는 숨김(두 이름·고하지 아니함·명하여 막음), 끝은 적발과 적음(모의·알아냄·조사·나무·기록).
- 형식 소재: 은총(chen 9·15·17절)의 거듭됨, 고함(nagad 10·20·22절)의 숨김과 드러냄, '하닷사'와 '에스더'(7절)의 두 이름, '와스디를 대신하여'(17절)와 '와스디를 생각하거늘'(1절)의 호응.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화려한 간택의 분주함 — 도성에서 처녀를 모으고(3절) 열두 달을 단장함(12절).
- 숨죽인 한 줄 — 부모 없이 길러진 딸(7절)과 자기 민족을 숨긴 처녀(10절)가 그 분주함 가운데 가라앉음.
- 환한 등극의 올라감 —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관을 씌우고 잔치를 베풂(17~18절).
- 낮고 긴장된 적발과 미뤄진 보상의 무거움 — 대궐 문의 음모(21절)와 적힌 충성(23절), 그러나 들리지 않는 보상.
- 화려함('단장' 12절)·숨죽임('고하지 아니함' 10절)·긴장('모의' 21절)·미뤄짐('기록하니라' 23절)의 어조.

•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17절) — 흩어진 딸이 비워진 관을 쓰는 한 컷이 적히되 미뤄진 한 충성 바로 앞에 놓여 더 묵직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그가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 23절: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나니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 비워진 처소의 회상으로 열려, 한 음모가 적발되어 그 일이 일기에 적히는 데로 닫힘 — 빈 데의 결과 미뤄진 보상의 기록.

• '와스디를 생각하거늘'(1절)은 채워야 할 빈 데의 결,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23절)는 채워진 뒤 조용히 남는 한 줄의 결 — 본문은 끝을 등극이 아니라 기록으로 닫음.

• 1절(빈 처소)과 23절(기록) 사이에 7절(부모 없는 딸)과 17절(왕후가 됨)이 한 사람을 두고 멀리 마주 섬.

• 빈 처소의 알현실(1~4절)에서 대궐 문 곁의 처형과 책(23절)으로 — 한 간택이 양육·단장·등극을 거쳐 한 적발의 기록으로 가라앉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에스더(부모 없이 길러짐·궁으로 모아짐·은총을 입음·민족을 숨김·사랑받아 관을 씀·음모를 고함), 모르드개(사로잡혀 온 자손·에스더를 기름·민족을 숨기라 명함·대궐 문에서 음모를 알아냄), 아하수에로 왕(노가 그쳐 와스디를 돌아봄·새 간택을 좋게 여김·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관을 씌움), 내시 헤개(후궁을 맡아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풂),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대궐 문을 지키다 왕을 모의함), 그리고 한 번도 이름이 불리지 않는 무대 뒤의 분 — 이 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음.

• 중심 사상: '비워진 데가 어떻게 채워지는가'와 '드러남과 숨음' — 와스디로 비워진 처소가 흩어진 딸로 채워지고(1·17절), 그 채워진 사람은 정작 자기 민족을 숨김(10절). 본문이 등극과 숨김에 판단을 붙이지 않음.

• 두 국면의 간택: 모음과 단장(1~14절)과 한 사람의 등극(15~18절) — 본문이 등극의 환함을 도드라지게 둠.

• 채움과 기록의 다른 결: 처소는 곧 드러나 잔치까지 채워지되(3~18절), 모르드개의 충성은 적히되 보상이 미뤄짐(23절).

• 관(17절)과 궁중 일기(23절): 받아 곧 드러난 관과 적히고 미뤄진 기록이 한 장에 놓임.

• chen·chesed(은총·인애 17절)와 두 이름(하닷사·에스더 7절): 받은 사랑과 숨음·드러남이 한 장의 두 결로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비워진 처소의 의논 — 노가 그쳐 와스디를 돌아봄(1), 처녀를 모아 왕후 될 자를 고르자 청하니 왕이 좋게 여김(2~4).

• 컷 2 (5~11절): 흩어진 딸의 등장 — 사로잡혀 온 모르드개와 부모 없는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기름(5~7), 궁으로 모아져 헤개의 은총을 입되 민족을 고하지 아니함(8~11).

• 컷 3 (12~14절): 후궁의 단장 — 여섯 달은 몰약 기름, 여섯 달은 향품, 열두 달을 가다듬어 차례대로 나아감(12~14).

- 컷 4 (15~18절): 사랑과 관과 잔치 — 모든 자가 좋아하고 왕이 더 사랑하여 관을 씌워 와스디를 대신한 왕후로 삼고 잔치를 베풂(15~18).
- 컷 5 (19~23절): 대궐 문의 적발과 기록 — 두 내시의 모의(19~21), 모르드개가 알아내어 에스더를 통해 고하매 사실로 드러나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일기에 기록함(22~23).
- 컷 4·5의 경첩 위치: 빈 처소의 의논·단장(컷 1~3)과 등극(컷 4) 사이가 한 결로 이어지고, 등극의 환함 바로 다음에 적발과 기록(컷 5)이 잇대어짐 — 모음(2~4)→등장(5~11)→단장(12~14)→등극(15~18)이, 다음의 적발과 미뤄진 기록(19~23)과 맞물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hadassah*(הֲדַסָּה) — 도금양(7절). 본족의 이름. / *ester*(אֶסְתֵּר) — 에스더(7절). 제국에서 불린 이름.
- *chen*(חֵן) — 은총(9·15·17절). 눈에 거듭 입은 호의. / *chesed*(חֶסֶד) — 인애(17절). 왕의 사랑.
- *moledet*(מוֹלֶדֶת) — 친족·출신(10절). 고하지 아니한 그 민족. / *am*(עַם) — 민족(10절).
- *keter*(כֶּתֶר) — 관·왕관(17절). 머리에 씌운 그 관. / *malkah*(מַלְכָּה) — 왕후(17절).
- *saris*(סָרִיס) — 내시(3·21절). 헤개와 두 모반자의 호칭. / *mor*(מֹר) — 몰약(12절). 단장의 기름.
- *nagad*(נָגַד) — 고하다·알리다(10·20·22절). 숨김과 드러냄으로 갈림. / *divre hayyamim*(דִּבְרֵי הַיָּמִים) — 일기·연대기(23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한 간택 이야기(1~18절) 뒤에 한 음모 적발(19~23절)이 잇대어진 구조 — 형태 관찰.
- 간택의 두 국면: 모음과 단장(1~14절)→한 사람의 등극(15~18절) — 분주한 준비와 환한 등극의 결.
- 은총(chen)의 거듭됨: 헤개의 눈(9절)·보는 모든 자의 눈(15절)·왕의 눈(17절) — 한 어절이 세 번 돌며 한 사람을 따라감.
- 고함(nagad)의 두 갈래: 민족은 고하지 아니하고(10·20절), 음모는 고함(22절) — 숨김과 드러냄의 대비.
- '와스디를 생각하거늘'(1절)과 '와스디를 대신하여'(17절)의 호응 — 비워진 처소와 채워진 처소가 한 장의 두 끝에서 마주 봄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후궁 모집 — 제국의 왕이 도성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모아 후궁에 두고 내시가 관리하던 페르시아 궁정 정황. 3~4절의 배경.
- 미용 정결 규례 — 몰약 기름과 향품으로 여러 달 몸을 가다듬던 근동 궁정의 단장 관습. 12절의 배경.
- 디아스포라의 두 이름 — 흩어져 사는 백성이 본족 이름과 제국 통용 이름을 함께 쓰던 정황. 7절의 배경.
- 대궐 문 — 제국 행정의 관문이자 관리들이 드나들던 궁정 출입구. 모르드개가 앉아 있던 19·21절의 배경.
- 음모 적발과 궁정 기록 — 왕에 대한 모반을 적발해 처형하고 그 사건을 연대기에 적던 궁정 관습. 23절의 배경.
- 폐위 후의 빈 처소 — 왕후가 폐위되어 비어 있던 처소를 새 간택으로 채우던 궁정 정황. 1·17절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에 2장 ↔ 에 1:10-22 (와스디의 폐위 — 직전 장, 비워진 처소가 2장 간택의 배경)

- 에 2:23 ↔ 에 6:1-3 (왕이 잠 못 드는 밤에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개의 공로를 발견함 — 미뤄진 보상의 기록이 이르는 곳)
- 에 2:5-7 ↔ 창 41:14-45 (요셉이 이방 궁정에서 높여져 백성을 보존함 — 흩어진 한 사람이 제국의 처소로 들어가는 결)
- 에 2:7 ↔ 단 1:3-7 (느부갓네살이 소년을 뽑아 궁정에 두고 두 이름을 둠 — 디아스포라 궁정과 두 이름의 결)
- 에 2:17 ↔ 에 4:13-14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 등극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가 뒤에서 드러남)
- 에 2:23 ↔ 에 9:25 (하만의 악한 꾀가 그 머리로 돌아감 — 적힌 충성과 대비되는 권의 역전)
- 에 2:7·17 ↔ 삼하 7:8-16 (낮은 데서 들어 높이심 — 멀리 닿는 배경)
- 에 2:23 ↔ 에 10:3 (모르드개가 끝내 존귀하게 됨 — 기록된 충성이 권의 끝에서 거두어지는 곳)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비워진 처소를 돌아보는 알현실. 자막 —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그가 와스디를 생각하거늘,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도성으로 모아 왕후 될 자를 고르자 청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긴다. 화면이 한 집으로 옮겨 간다. 사로잡혀 온 자손 가운데 모르드개가 있고, 그에게 사촌 누이가 있으니 부모가 없으므로 그가 자기 딸같이 양육한 하닷사 곧 에스더라. 그가 용모가 곱고 아리땁더라. 자막 —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과 함께 궁으로 모아져 후궁을 맡은 내시 헤개의 손에 맡긴다. 헤개가 그를 좋게 보아 은총을 베풀어 단장품과 일용품과 일곱 시녀를 주고 후궁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긴다. 자막이 조용히 흐른다 —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그에게 명하여 고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화면이 단장하는 처소로 간다. 정한 규례대로 여섯 달은 몰약 기름으로, 여섯 달은 향품으로 열두 달을 가다듬은 뒤에야 처녀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간다. 화면이 왕 앞의 알현실로 옮겨 간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매 그를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좋아하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은총과 사랑을 그에게 입힌다. 자막 —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각 도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상을 준다. 화면이 다시 대궐 문으로 간다.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 모의한다. 모르드개가 그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다. 자막 —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나니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화면이 그 한 줄의 기록 위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비워진 처소에 씌운 관과 적히되 미뤄진 충성 — 흩어진 딸의 등극과 기록된 한 줄이 함께 놓인 장"**
- 초벌 부제: "왕의 노가 그친 뒤 와스디로 비었던 왕후의 처소를 채우려 처녀를 모으는 간택이 열리고, 사로잡혀 온 백성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양육 아래 궁으로 들어가 헤개의 은총을 입어 몸을 가다듬되 자기 민족을 숨기고 — 왕이 모든 여자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와스디를 대신한 왕후로 삼아 관을 씌우매(2:17), 그 즈음 모르드개가 두 내시의 시해 음모를 알아내어 고하니 사실로 드러나 그 일이 궁중 일기에 적히되 보상은 미뤄지는(2:23), 비워진 처소가 흩어진 딸로 채워지고 한 충성이 기록만 되는 두 복선이 한 장에 함께 놓이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hadassah·ester·chen·chesed·moledet·keter·malkah·saris·mor·nagad·divre_hayyamim 등 11+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간택의 두 국면 + 은총의 거듭됨 + 고함의 두 갈래 + 페르시아 후궁·미용 규례·궁정 기록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10·20의 숨긴 민족을 '에스더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단정하지 않고, 모르드개가 명하여 고하지 못하게 했다는 본문 형태로만 둠. 그 까닭은 비워 둠.
- 2:17의 등극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증거'로 끌고 가지 않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관을 씌웠다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이름이 부재한 권의 결을 그대로 가리킴.
- 2:12의 열두 달 단장을 '정결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여섯 달의 몰약과 여섯 달의 향품이라는 궁정 규례의 본문 형태로만 둠.
- 2:23의 기록된 충성을 '곧 갚아질 보상의 예고'로 단정하지 않고, 왕 앞에서 일기에 적혔다는 한 문장으로만 보존 — 그 보상의 매듭은 비워 둠.
- 2:21-23의 음모 적발을 '에스더 등극의 정당화'로 평하지 않고, 모르드개가 알아내어 에스더를 통해 고하매 사실로 드러나 적혔다는 본문 형태로만 둠 — 그 의미는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더 2장은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친 뒤 와스디로 비었던 왕후의 처소를 채우려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도성으로 모으자 청하매(2:1-4), 사로잡혀 온 자손 가운데 모르드개가 부모 없는 사촌 하닷사 곧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길렀고 그가 궁으로 모아져 내시 헤개의 눈에 은총을 입어 단장품과 시녀를 받되 모르드개의 명을 따라 자기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며(2:5-11), 여섯 달은 몰약 기름으로 여섯 달은 향품으로 열두 달을 가다듬은 뒤 왕에게 나아가매 그를 보는 모든 자가 좋아하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은총과 인애를 입은 그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매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큰 잔치를 베푸니(2:12-18) — 그즈음 대궐 문에 앉은 모르드개가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왕 시해 음모를 알아내어 왕후 에스더를 통해 고하매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나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는(2:19-23), 채워진 처소와 기록된 충성이라는 두 복선이 한 장에 함께 놓이는 장이다.

한 문단: 비워진 처소를 돌아보는 알현실. 왕의 노가 그쳐 폐위된 와스디를 생각하매, 신하들이 새 왕후를 고르려 도성에서 처녀를 모으자 청한다. 화면이 한 집으로 옮겨 간다. 사로잡혀 온 모르드개가 부모 없는 사촌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길렀고, 그가 궁으로 모아져 내시 헤개의 은총을 입는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을 숨긴다. 화면이 단장하는 처소로 간다. 여섯 달은 몰약 기름으로, 여섯 달은 향품으로 열두 달을 가다듬은 뒤에야 차례가 온다. 화면이 왕 앞으로 옮겨 간다. 에스더가 나아가매 모든 자가 좋아하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 머리에 관을 씌워 와스디를 대신한 왕후로 삼고 큰 잔치를 베푼다. 비워진 처소가 흩어진 딸로 채워진다. 그 즈음 대궐 문에서 두 내시가 왕을 모의하고, 모르드개가 그것을 알아내어 에스더를 통해 고한다.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나매 두 사람이 나무에 달리고, 그 일이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적힌다. 한 장이 그 한 줄의 기록 위에 멈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비워진 처소의 알현실→흩어진 딸의 집→후궁의 단장하는 처소→왕 앞의 알현실과 잔치→대궐 문의 적발과 기록으로 옮겨 다니는 무대. 빈 처소·단장의 기름·한 사람의 두 이름·머리에 씌운 관·궁중 일기 — 채움과 숨김에서 적발과 적음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화려한 간택의 분주함. 숨죽인 한 줄(부모 없는 딸·숨긴 민족). 환한 등극의 올라감. 낮고 긴장된 적발과 미뤄진 보상의 무거움. 화려함·숨죽임·긴장·미뤄짐의 어조.
3 시작과 끝	'와스디를 생각하거늘'(1절)로 열려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23절)로 닫힘. 빈 처소의 회상과 미뤄진 보상의 기록 사이에 부모 없는 딸(7절)과 왕후가 됨(17절)이 마주 섬.
4 등장인물·사상	은총을 거듭 입어 관을 쓰되 민족을 숨긴 에스더. 기르고 명하고 음모를 알아낸 모르드개. 와스디를 돌아보고 에스더를 사랑한 왕. 은총을 베푼 헤개. 왕을 모의한 두 내시. 중심은 '비워진 데가 채워짐'과 '드러남과 숨음'.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권.
5 장면 컷	비워진 처소의 의논(1~4)/흩어진 딸의 등장(5~11)/후궁의 단장(12~14)/사랑과 관과 잔치(15~18)/대궐 문의 적발과 기록(19~23) 다섯 컷. 컷 4·5는 환한 등극과 조용한 기록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고함(nagad)의 두 갈래(숨김 10·20절·드러냄 22절). 채움과 기록의 다른 결(곧 갚아진 관·미뤄진 일기). 10·20절의 두 번 적힌 숨김의 까닭. 미뤄진 보상의 한 줄.
7 동영상	비워진 처소의 회상 → 흩어진 딸의 등장과 숨긴 민족 → 열두 달의 단장 → 사랑과 관과 잔치 → 대궐 문의 음모와 적발 → 일기에 적힌 한 줄.
8 초벌 제목·부제	"비워진 처소에 씌운 관과 적히되 미뤄진 충성 — 흩어진 딸의 등극과 기록된 한 줄이 함께 놓인 장"
9 기도·내면	적히되 아직 갚아지지 않은 한 줄을 견디고 있는지, 환한 데서도 정작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이름이 불리지 않는 권에서 비워진 데가 채워지는 결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비워진 처소와 흩어진 딸**: 2장은 한 처소가 비워졌다가 채워지는 결로 열고 닫는다. 직전 1장에서 와스디가 폐위되어 왕후의 처소가 비었고(2:1), 2장은 그 빈 데를 채우려 처녀를 모은다(2:3). 그런데 그 처소를 채우는 사람이 하필 사로잡혀 온 백성의 한 딸이다 — 부모가 없어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기른 하닷사곧 에스더(2:7)다. 본문은 가장 높은 처소와 가장 낮은 내력을 한 사람 위에 둔다 —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2:17). 비워진 데가 흩어진 딸로 채워지는 그 호응을, 본문은 '와스디를 생각하거늘'(2:1)과 '와스디를 대신하여'(2:17) 두 어구로 멀리

마주 세운다. 무엇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설명으로 닫지 않고, 빈 처소와 그 처소를 쓴 한 딸을 같은 장에 둔다.

2. **결 2 — 숨긴 민족과 고한 음모**: 본문의 또 한 갈림은 '무엇은 숨기고 무엇은 알리는가'다. 같은 동사 '고하다(nagad)'가 한 장에서 두 갈래로 돈다. 한쪽은 숨김이다 —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모르드개가 명하여 고하지 못하게 하였고(2:10), 왕후가 된 뒤에도 여전히 고하지 아니한다(2:20). 다른 한쪽은 드러냄이다 — 모르드개가 알아낸 두 내시의 음모를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다(2:22). 한 사람을 통해 숨길 것은 숨겨지고 알릴 것은 알려진다. 본문은 그 두 동작에 옳다 그르다 판단을 붙이지 않고, 숨긴 민족과 고한 음모를 같은 장에 나란히 둘 뿐이다.

3. **결 3 — 곧 드러난 관과 미뤄진 기록**: 2장은 한 사람이 받는 두 가지를 나란히 둔다. 한쪽은 곧 드러난다 — 에스더가 은총을 거듭 입어(2:9·15·17) 와스디를 대신한 왕후로 관을 쓰고, 그를 위해 큰 잔치가 베풀어지며 세금이 면제된다(2:17-18). 다른 한쪽은 미뤄진다 — 모르드개가 왕을 살린 그 충성이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되되(2:23), 본문은 그가 무엇을 받았다고는 적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본문은 등극은 환히 잔치까지 적고, 충성은 한 줄로만 적고 닫는다. 곧 갚아진 관과 적히되 미뤄진 기록을 같은 장에 두되, 그 미뤄진 한 줄이 어디서 거두어지는지는 비워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에 1:10-22 — 와스디의 폐위 — 직전 장, 비워진 처소가 2장 간택의 배경.
- 에 6:1-3 — 왕이 잠 못 드는 밤에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개의 공로를 발견함 — 2:23 미뤄진 보상의 기록이 이르는 곳.
- 창 41:14-45 — 요셉이 이방 궁정에서 높여져 백성을 보존함 — 흩어진 한 사람이 제국의 처소로 들어가는 결.
- 단 1:3-7 — 느부갓네살이 소년을 뽑아 궁정에 두고 본족 이름과 제국 이름을 함께 둠 — 디아스포라 궁정과 두 이름의 결.
- 에 4:13-14 —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 2:17 등극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가 뒤에서 드러남.
- 에 9:25 — 하만의 악한 꾀가 그 머리로 돌아감 — 2:23 적힌 충성과 대비되는 권의 역전.
- 삼하 7:8-16 — 낮은 데서 들어 높이심 — 멀리 닿는 배경.
- 에 10:3 — 모르드개가 끝내 존귀하게 됨 — 2:23 기록된 충성이 권의 끝에서 거두어지는 곳.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7의 '그에게 부모가 없으므로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에서 시작한다 — 사로잡혀 온 백성의 부모 없는 한 딸이라는 낮은 내력에 선다.
- **멈춤 1**: 2:10에서 멈춘다 —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환히 드러난 사람이 정작 자기 출신은 감춘 그 두 결을 쥔다.
- **멈춤 2**: 2:17에서 멈춘다 —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비워진 처소가 흩어진 딸로 채워지는 그 등극을 쥔다.
- **끝**: 2:23에서 멈춘다 —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적히되 갚아지지 않은 한 충성이 어디로 가는지, 권의 뒤(6장·9:22)를 향해 잠든 그 한 줄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비워진 처소의 의논(1~4)·흩어진 딸의 등장(5~11)·후궁의 단장(12~14)·사랑과 관과 잔치(15~18)·적발과 기록(19~23)의 다섯 컷 완결
- [x] 은총(chen 9·15·17절)의 거듭됨과 고함(nagad 10·20·22절)의 두 갈래·간택과 음모 적발의 잇댐 구조
- [x] '와스디를 생각하거늘'(2:1)과 '와스디를 대신하여'(2:17)·두 이름(2:7)·관(2:17)·일기(2:23)의 소품 다리
- [x] 권 흐름(EST flow)의 첫째 국면 '와스디 폐위·에스더 등극(1~2장)' 정박과 멀리 6장·9:22 역전과의 거리
- [x] 1장 폐위의 배경·4:14 '이 때를 위함'·6:1 불면의 밤으로 이어지는 두 복선의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EST flow 닻)

에스더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며, destination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부림절(9:22)이다. 권의 흐름은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1~2장), 하만의 조서와 제비(부르) 뽑기(3장),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와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잔치(4~5장), 왕의 잠 못 드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 반전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8~10장)로 움직인다. 2장은 그 첫째 국면, '와스디 폐위·에스더 등극(1~2장)' 한복판이며, 그 중에서도 비워진 처소가 흩어진 백성의 딸로 채워지는 등극의 결이다. 직전 1장에서 와스디가 왕의 명을 따르지 않아 폐위되어 처소가 비었다면(1장), 2장은 그 빈 데가 하필 사로잡혀 온 백성의 한 딸로 채워진다 — 진멸의 제비가 던져지기 한참 전에, 흩어진 백성의 보존을 향한 한 매듭이 미리 지어진다. 권의 intent('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폐위·등극·불면의 밤 같은 우연들을 엮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 구원을 절기로 기억하게 하심')가, 2장에서는 폐위와 등극이라는 두 우연으로 비친다. 그런데 2장은 그 등극과 나란히 한 충성을 일기에 적되 보상은 미뤄 둔다(2:23) — 권의 heart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흩어진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마음'이, 2장에서는 누구의 손인지 적히지 않은 채 비워진 처소를 한 딸로 채우고 한 줄을 조용히 적어 두는 결로 미리 한 번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2장의 등극과 기록은 끝이 아니라 복선이다 — 비워진 처소로 들어간 왕후 에스더는 4:14의 '이 때를 위함'으로, 일기에 적힌 모르드개의 충성은 6:1의 불면의 밤으로 이어지며, 멀리 9:22의 부림절이 권의 끝에서 그 두 결을 다 거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와스디로 비워진 왕후의 처소(2:1)에서 흩어진 백성의 딸이 쓴 관(2:17)으로, 거듭 입은 은총(2:9·15·17)에서 와스디를 대신한 등극으로, 숨긴 민족(2:10)과 고한 음모(2:22)가 한 사람을 통해 갈리는 채로 / 환한 잔치에서 적히되 미뤄진 한 줄의 기록(2:23)으로 — 이름이 불리지 않는 권 안에서 비워진 데가 한 딸로 채워지고 한 충성이 잠든 채 적히는, 뒤의 역전을 향한 두 복선이 놓이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와스디로 비워진 처소가 흩어진 백성의 한 딸로 채워지고, 그 곁에서 한 충성이 적히되 아직 갚아지지 않은 채 잠드는 데로 흘러가는 운동이다. 빈 처소의 의논(1~4절)이 흩어진 딸의 등장으로(5~11절), 단장으로(12~14절), 사랑과 관과 잔치로(15~18절), 대궐 문의 적발과 일기로(19~23절) 흘러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에스더는 1~2장의 폐위와 등극에서 시작해 3장의 진멸 조서와 제비로 위협이 솟고, 6~7장의 불면의 밤과 역전으로 뒤집혀 9:22의 부림절에 닿는데, 2장은 그 첫째 국면의 한 매듭이다 — 위협이 아직 오르기 전에, 역전을 향한 두 복선이 조용히 놓이는 국면. 그런데 2장의 벡터는 닫히는 동시에 권의 뒤를 향해 두 손잡이를 내민다 — 17절의 등극은 4:14의 '이 때를 위함'으로, 23절의 기록은 6:1의 잠 못 드는 밤으로

이어진다. 한 장이 한 줄의 기록으로 멈추고, 그 기록이 권 전체의 역전을 향해 잠들어 누워 있다. 채움과 잠든 한 줄이 권의 이음매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제국의 간택과 한 음모의 적발이다 — 처녀를 모으고, 단장하고, 사랑받아 관을 쓰고, 음모를 적발해 기록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권 안에서 흩어진 백성을 비워진 처소로 들이시는 손이다. 직전 1장에서 와스디가 폐위되어 처소가 비었다면, 2장은 그 빈 데가 하필 사로잡혀 온 백성의 한 딸로 채워지는 결이다 — 흩어진 백성의 보존이 한 등극으로 미리 한 매듭을 짓는다(2:7-17). 둘째, 그 등극이 곧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본문이 비워 둔 미완이다. 에스더는 환히 관을 쓰되 자기 민족을 숨기고(2:10·20), 그 등극이 무엇을 위함인지는 이 장이 말하지 않는다 — 4:14의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에 가서야 그 비워 둔 매듭이 채워진다. 셋째, 적히되 잠든 한 충성이다. 본문은 한 등극으로 장을 닫지 않는다 — 대궐 문에서 알아낸 한 음모가 고해지고, 그 충성이 일기에 적히되 보상은 미뤄진다(2:23). 권 전체로 보면 6:1의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여' 일기를 읽다가 바로 그 적힌 한 줄을 발견하는 데서 역전이 시작되는데, 2장은 그 잠든 한 줄을 미리 적어 둔다 — 누구의 손인지 적히지 않은 채, 비워진 처소를 한 딸로 채우고 한 충성을 잠재워 둔 그 침묵을 마지막에 들고 닫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 나는 적히되 아직 갚아지지 않은 한 줄을 견디고 있는가 — 옳은 일을 했으나 보상이 들리지 않는 그 미뤄진 데서. 그리고 환히 드러난 데서도 정작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 비워진 처소를 채운 그 영광 곁에서도, 본족을 고하지 못한 한 사람처럼.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빛나는 왕후가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비워진 처소를 흩어진 한 딸로 채우신 한 결을 보여 주고, 부모 없는 딸을 자기 딸같이 기른 한 사람을 보여 주고, 본족을 숨긴 채 제국의 관을 쓴 한 처녀를 보여 주고, 왕을 살린 한 충성이 적히되 갚아지지 않은 채 잠든 한 줄(2:23)을 새겨 둔다. 채움과 숨김과 등극과 미뤄진 기록이 한 장에 겹친 이 침묵 — 그 침묵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도 보상이 들리지 않는 미뤄진 데를 어떻게 견디는지 보는 일, 환한 데서도 끝내 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일, 그리고 이름이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비워진 데가 채워지는 그 결 앞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채워진 처소로 일어서 적히되 잠든 한 줄로 멈추는데 — 그 한 줄 너머로 6:1의 불면의 밤이 권을 향해 누워 있고, 멀리 권의 끝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힌 부림절(9:22)이 그 결을 다 거둔다. 그 잠듦과 그 거둠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2장이 채워진 처소와 적히되 잠든 한 줄(2:23)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비워진 처소로 들어간 한 왕후와 일기에 적힌 한 충성이라는 두 복선이 권의 뒤를 향해 누워 있고, 다음 장은 하만의 등용과 유다인 진멸의 조서와 제비(부르) 뽑기로 넘어가, 흩어진 백성을 향한 한 위협이 권의 무대 위에 올라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en* — 은총.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비워진 처소를 돌아보는 알현실. 자막 —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를 생각하거늘,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모아 왕후 될 자를 고르자 청하니 왕이 좋게 여깁니다. 화면이 한 집으로 옮겨 갑니다. 사로잡혀 온 모르드개가 부모 없는 사촌 하닷사 곧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길렀습니다. 자막 — 에스더가 궁으로 모아져 내시 헤개의 은총을 입어 단장품과 시녀를 받습니다. 조용히 자막이 흐릅니다 —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모르드개가 그리 명하였음이라. 화면이 단장하는 처소로 갑니다. 여섯 달은 몰약 기름으로, 여섯 달은 향품으로 열두 달을 가다듬은 뒤에야 차례가 옵니다. 화면이 왕 앞의 알현실로 옮겨 갑니다. 에스더가 나아가매 보는 모든 자가 좋아하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하여 그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자막 —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큰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합니다. 화면이 다시 대궐 문으로 갑니다. 모르드개가 문에 앉았을 때 두 내시가 왕을 모의합니다. 모르드개가 알아내어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고합니다. 자막 —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나니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화면이 그 한 줄의 기록 위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비워진 처소를 돌아보는 데서 열려, 흩어진 딸의 등장과 후궁의 단장과 숨긴 민족을 지나,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받아 씌워진 관과 잔치를 거쳐 — 그 즈음 대궐 문에서 알아낸 한 음모가 고해지고 적발되어, 한 충성이 왕 앞에 적히되 보상은 들리지 않는, 한 줄의 기록 위에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비워진 처소에 씌운 관과 적히되 미뤄진 충성 — 흩어진 딸의 등극과 기록된 한 줄이 함께 놓인 장"

P02 이진우: "은총이 세 번 거듭되고 — 그러나 한 충성은 기록만 되고 보상은 미뤄지다"

P04 최현국: "환한 등극에서 대궐 문의 한 줄로 — 잔치 곁에 조용히 적힌 충성"

P05 김미영: "머리에 씌운 관과 일기에 적힌 한 줄 — 곧 드러난 영광과 미뤄진 갚음"

P07 오지혜: "민족은 고하지 아니하고 음모는 고하다 — 숨김과 드러냄이 한 사람을 통해 갈리다"

P11 나경아: "*hadassah · ester* — 본족의 이름을 숨긴 채 제국의 관을 쓴 한 사람"

부제 제안: "왕의 노가 그친 뒤 비워진 처소를 채우려 처녀를 모으매, 사로잡혀 온 백성의 딸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양육 아래 궁으로 들어가 헤개의 은총을 입되 자기 민족을 숨기고 — 왕이 모든 여자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와스디를 대신한 왕후로 삼아 관을 씌우매(2:17), 그 즈음 모르드개가 두 내시의 시해 음모를 알아내어 고하니 사실로 드러나 그 일이 궁중 일기에 적히되 보상은 미뤄지는, 채워진 처소와 기록된 충성이라는 두 복선이 한 장에 함께 놓이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비워진 처소를 돌아보던 한 왕 곁으로, 부모 없는 흩어진 딸을 자기 딸같이 기르던 한 사람 곁으로, 본족을 숨긴 채 제국의 관을 쓴 한 처녀 곁으로, 그리고 한 음모를 알아내어 고하고도 기록만 받은 그 충성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비워진 처소가 흩어진 백성의 한 딸로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 부모 없이 길러진 한 사람이 가장 높은 관을 쓰는 것을요. 또 그 환한 등극 곁에서, 한 충성이 적히되 보상은 들리지 않은 채 한 줄로만 남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이 권 안에서, 비워진 데가 채워지고 한 줄이 조용히 적히는 그 결 앞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적히되 아직 갚아지지 않은 한 줄을 견디고 있는지, 환한 데서도 정작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답을 구하지 않고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2장은 **비워진 처소를 채우는 등극에서, 적히되 미뤄진 한 충성으로** 움직여요. 1~4절이 빈 처소의 의논, 5~11절이 흩어진 딸의 등장과 숨긴 민족, 12~14절이 단장, 15~18절이 사랑과 관과 잔치, 19~23절이 음모 적발과 일기의 기록이에요. 에스더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2장이 와스디 폐위와 에스더 등극, 3장이 하만의 조서와 제비(부르), 4~5장이 '이 때를 위함'과 잔치, 6~7장이 잠 못 드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 8~10장이 반전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예요. 권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고요. 2장은 그 첫째 국면인 **와스디 폐위·에스더 등극(1~2장)** 한복판이에요. 진멸의 제비가 아직 던져지기 전에, 한 딸이 비워진 처소로 들어가 왕후가 되고 한 충성이 일기에 적히는 — 뒤의 역전을 향한 두 복선이 미리 한 결로 놓이는 국면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2:17의 *keter*(머리에 씌운 관)와 2:23의 *katav*(일기에 기록함)가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곧 드러난 관과 미뤄진 기록이 같은 장에 놓여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nagad*(고하다 10·20·22절)예요 — 같은 동작이 한 번은 민족을 숨기는 데로, 한 번은 음모를 드러내는 데로 갈려요. 또 하나, *chen*(은총 9·15·17절)이 세 번 거듭되며 한 사람을 비워진 관까지 데려가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제국의 간택과 한 음모의 적발이에요 — 처녀를 모으고, 단장하고, 사랑받아 관을 쓰고, 음모를 적발해 기록해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권 안에서 흩어진 백성을 비워진 처소로 들여 보존하시는 손 같아요. 직전 1장에서 와스디가 폐위되어 처소가 비었다면, 2장은 그 빈 데가 하필 사로잡혀 온 백성의 한 딸로 채워지는 결이에요 — 흩어진 백성의 보존이 한 등극으로 미리 한 매듭을 지어요. 그런데 그 등극과 나란히, 한 충성이 적히되 아직 갚아지지 않은 채로 남아요(23절).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는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히는 권인데, 2장은 그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두 복선을 미리 깔아 둬요 — 비워진 처소로 들어간 한 왕후와, 일기에 적혀 잠든 한 충성을요. 권의 destination(9:22의 부림절)에서야 그 두 복선이 다 거두어지는데, 2장은 그 복선이 조용히 놓이는 한 매듭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17절)와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23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곧 드러나 잔치까지 간 영광이고, 한쪽은 적히되 보상이 들리지 않는 한 줄이에요. 같은 장에서 한 사람은 환히 관을 쓰고, 한 사람은 일기에 적히고 잠들어요. 더 큰 긴장은,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 폐위도, 등극도, 적발도, 기록도, 누구의 손인지 적히지 않은 채로 움직여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비워진 처소로 들어간 한 왕후와 잠든 한 충성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4장의 '이 때를 위함'과 6장의 불면의 밤까지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비워진 처소를 채우는 손에서 적히되 미뤄진 한 줄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빈 처소의 의논(1~4절)이 흩어진 딸의 등장으로(5~11절), 단장으로(12~14절), 사랑과 관과 잔치로(15~18절), 대궐 문의 적발과 일기로(19~23절) 흘러가요. 그리고 2장이 끝나며 한 줄의 기록 위에 서요 — 궁중 일기예요. **그런데 그 한 줄이 곧바로 다음 장면들로 손잡이를 내밀어요** — 비워진 처소로 들어간 왕후 에스

더는 4장의 '이 때를 위함'으로, 일기에 적힌 모르드개의 충성은 6장의 잠 못 드는 밤으로 이어져요. 2장 끝의 한 줄이, 뒤에서 권 전체를 뒤집는 두 손잡이가 돼요. 한 장이 한 기록으로 멈추고, 그 기록이 다음 장들을 향해 잠들어 누워 있어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17절과 23절이 다음을 미는 두 손 같아요. 17절의 '관을 씌우고'와 23절의 '일기에 기록하니라'요. 흩어진 한 딸이 비워진 처소로 들어가 관을 썼고, 왕을 살린 한 충성은 적히되 갚아지지 않은 채 남았어요. 저는 이 두 복선이 둘 다 아직 풀리지 않은 채 한 장을 닫는 그 결이 묵직해요 — 무엇을 위한 등극이고 무엇을 위한 기록인지, 본문이 이 장에서 말하지 않은 그 미완이요. 그런데 바로 그 미완이 다음 장들을 끌어당겨요. 채워진 처소도, 적힌 한 줄도, 어디로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비워진 처소의 의논에서 흩어진 딸의 등극으로, 그리고 적히되 미뤄진 한 충성으로 — 그 한 줄의 기록이 곧바로 권 전체의 역전을 향해 잠들어 누워 있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이 권에서, 비워진 처소로 들어간 한 왕후와 일기에 적힌 한 충성이라는 두 복선은, 4장의 '이 때를 위함'과 6장의 불면의 밤을 거쳐, 권의 끝(9:22)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힌 부림절로 다 거두어집니다. 다음 장은 하만의 등용과 유다인 진멸의 조서, 그리고 제비(부르) 뽑기로 이어지며, 흩어진 백성을 향한 한 위협이 권의 무대 위에 올라섭니다.

에스더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1-4 — 비워진 처소를 채우려는 간택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왕의 노가 그친 뒤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모아 왕후 될 자를 고르자 청하니 왕이 좋게 여긴다(1~4절). 본문은 그 간택을 옳다거나 그르다고 평하지 않는다 — 폐위로 비워진 처소를 어떻게 채우는지를 단정하지 않고 적는다. 이 일을 '제국의 향락'이나 '예비된 통로'로 닫지 않고, 노가 그쳐 와스디를 돌아보고 처녀를 모았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2:7 — 부모 없는 한 딸을 자기 딸같이 기른 모르드개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사로잡혀 온 모르드개에게 부모 없는 사촌 하닷사 곧 에스더가 있어 그가 자기 딸같이 양육한다(7절). 본문은 그 양육의 마음이나 두 이름(하닷사·에스더)의 까닭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일을 '신앙의 가정 교육'으로 단정하지 않고, 부모가 없으므로 자기 딸같이 길렀다는 한 줄과 두 이름이 병기된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2:10·20 — 두 번 적힌 '민족을 고하지 아니함'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하여 고하지 못하게 하였음이며(10절), 왕후가 된 뒤에도 여전히 고하지 아니한다(20절). 본문은 그 숨김의 까닭을 풀어 적지 않는다 — 무엇을 위한 숨김인지, 왜 두 번 거듭 적었는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지혜로운 처신'으로 닫지 않고, 모르드개의 명을 따라 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까닭은 비워 둔다.

Q4. 2:12-17 — 단장과 은총을 거쳐 씌워진 관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여섯 달의 몰약 기름과 여섯 달의 향품으로 가다듬은 뒤(12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모든 여자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 머리에 관을 씌워 와스디를 대신한 왕후로 삼는다(17절). 본문은 그 사랑과 등극

의 까닭을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고, 은총을 거듭 입어 관을 썼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이름이 부재한 권의 결을 그대로 가리킨다.

Q5. 2:21-23 — 모르드개의 적발과 적히되 미뤄진 보상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모의한 것을 모르드개가 알아내어 에스더를 통해 고하매(21~22절), 사실로 드러나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한다(23절). 본문은 이 일을 평하지 않으며, 모르드개가 무엇을 받았다고도 적지 않는다 — 충성이 적히되 보상은 들리지 않는다. 이 일을 '곧 갚아질 보상의 예고'로 단정하지 않고, 적발과 처형과 기록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보상의 매듭은 비워 둔다.

Q6. 2:17·23 — 채워진 처소와 기록된 충성이라는 두 복선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한 장 안에 흩어진 딸의 등극(17절)과 적히되 미뤄진 충성(23절)이 함께 놓인다. 본문은 이 둘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이 장에서 말하지 않는다 — 등극도 기록도 그 쓰임을 비워 둔 채 한 장을 닫는다. 이 일을 미리 풀어 닫지 않고(그 거둠은 4장·6장·9:22가 적는다), 채워진 처소와 잠든 한 줄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권의 뒤로 이어지는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에스더 3장)*으로 이월한다.

에스더 3장

EST-003 · 역사서 · 히브리어

> 아각 사람 하만이 모든 신하 위로 높여지고 대궐 문의 신하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만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매*(3:2)* — 하만이 노하여 모르드개 한 사람을 죽이기를 가볍게 여기고 그 민족 곧 온 나라의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하여, 첫째 달 니산월에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아달월을 얻고, 왕의 반지로 인친 진멸 조서가 노소·부녀를 막론하고 하루에 죽이고 도륙하라 모든 지방에 반포되니 — 절 하나의 거절이 한 민족 진멸의 조서로 폭발하고, 제비가 그 날을 정하며, 왕과 하만은 마주 앉아 마시는데 수산 성은 어지러운, 이름을 숨기신 채 던져진 제비가 한 장에 겹치는 장.

관찰된 사실

에스더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대궐 문의 거절(1~2절)→부풀어 오른 노여움의 실내(3~6절)→하만 앞의 제비와 보좌 앞의 거래(7~11절)→서기관의 사무실에서 온 제국으로 퍼지는 조서의 길(12~14절)→마주 앉은 잔과 어지러운 성(15절)으로 옮겨 다님. 한 문 앞의 거절에서 온 제국의 조서로.
- 무대의 방향: 환한 영예가 부풀어 오른 노여움으로 어두워졌다가, 제비와 인침을 거쳐 온 제국의 진멸 조서로 굳어지고, 마지막에 태연한 잔과 혼란한 성으로 갈림.
- 소품: 굽히지 않은 무릎(2절), 제비 곧 부르(7절), 왕의 반지(10절), 인친 조서(12절), 일만 달란트의 은(9절), 파발꾼의 말발굽(13·15절), 마주 놓인 잔과 어지러운 성(15절).
- 소품의 도드라짐: 날을 정한 제비(7절)와 권한을 옮긴 반지(10절) — 던져진 우연과 건네진 인장이 한 민족의 운명을 같은 장에서 정함.
- 소재의 결: 처음은 한 사람(절·거절·한 사람·모르드개), 가운데는 폭발(노여움·온 민족·제비·진멸·인침), 끝은 갈라진 둘(마심·어지러움).
- 형식 소재: 절하다(kara 2·5절)의 있고 없음, 민족(am 6·8·11절)의 부풀어 오름, 진멸(shamad/abad/harag 6·9·13절) 세 동사의 겹침, 잔과 어지러움(15절)의 마주 놓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대궐 문의 팽팽한 긴장 — 다들 꿇는데 한 사람만 안 꿇고(2절),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는 시선(3~4절).
- 차갑게 폭발하는 노여움 — 한 사람에서 온 민족으로 번지고(6절), 제비가 날을 정하고(7절), 반지가 건네짐(10절).
- '다른 법률'의 차가움 — 이름을 대지 않고 '한 민족'이라 부르며 다르다는 것 하나로 진멸을 청함(8절).
- 태연함의 서늘함 — 진멸의 조서가 온 제국으로 나가는데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마심(15절).
- 긴장('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니' 2절)·폭발('다 멸하고자' 6절)·서늘함('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15절)의 세 어조.

-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막론하고'(13절) — 세 동사와 모두를 묶는 그 철저함이 태연한 잔(15절) 바로 앞에 놓여 더 서늘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그의 지위를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빨리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 한 사람을 높이는 데서 열려, 진멸의 조서가 반포되고 두 사람은 마시되 성은 어지러운 데로 닫힘 — 영예의 높임과 온 성의 혼란.
- '그 후에'(1절)는 모르드개가 왕을 구한 일(2:21-23) 바로 뒤인데 높여진 건 하만 — 본문은 그 어긋남의 까닭을 풀지 않음.
- 1절(높임)과 15절(잔·혼란) 사이에 7절(던져진 제비)이 한가운데 놓여 진멸의 날을 먼 훗날(아달월)로 정함.
- 환한 보좌(1~2절)에서 어지러운 거리(15절)로 — 한 사람의 높임이 거절·노여움·제비·인침을 거쳐 온 제국의 조서로 굳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하만(아각 사람으로 높여짐·거절에 노함·한 민족 진멸을 꾀함·제비를 던지게 함·반지를 받음·조서를 인쳐 반포함·왕과 마심), 모르드개(다들 꿇어도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함·'유다인이라' 함이 도화선), 아하수에로 왕(하만을 높임·반지를 빼어 건네며 '소견대로 행하라' 함), 대궐 문의 신하들(다 꿇어 절하며 날마다 권하고 하만에게 고함), 서기관과 파발꾼(각 지방 문자로 베끼고 인침·빨리 전함), 진멸 대상이 된 온 나라의 유다인(노소·어린아이·부녀까지 묶임), 그리고 한 번도 불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 중심 사상: '한 사람의 거절'과 '온 민족의 진멸' — 모르드개 한 사람이 꿇지 않은 일(2절)이 한 절 만에 그 민족을 다 멸하려는 데로 부풀음(6절). 본문이 그 건너뜀에 판단을 붙이지 않음. 그리고 이 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재함.
- 세 국면: 거절과 노여움(1~6절)·날을 정하고 권한을 얻음(7~11절)·법으로 굳혀 반포(12~15절) — 진멸의 날을 정하는 제비(7절)가 왕의 허락(11절)보다 먼저 옴.
- 제비와 반지(7·10절): 던져진 우연이 날을 정하고, 건네진 인장이 법을 정함 — 무엇이 한 민족의 운명을 정하느냐의 두 결.
- pur/goral(제비 7절)와 dat(법률 8절): 권 끝(9:26) '부림'의 뿌리가 되는 제비, 그리고 '만민과 다른 법률'을 또 하나의 진멸 '법률'이 맞받아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굽히지 않은 무릎 — 하만이 높여지매(1), 신하들이 다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만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함(2).
- 컷 2 (3~6절): 부풀어 오른 노여움 —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다 고하고(3~4), 하만이 노하여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온 민족을 멸하고자 함(5~6).
- 컷 3 (7~11절): 던져진 제비와 건네진 반지 — 니산월에 제비를 뽑아 아달월을 얻고(7), 하만이 진멸을 아뢰며 은 일만 달란트를 약속하니(8~9), 왕이 반지를 빼어 줌(10~11).

- 컷 4 (12~14절): 인쳐 반포된 조서 — 각 지방 문자로 조서를 쓰고 인쳐(12), 아달월 십삼일 하루에 노소·부녀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전하며 초본을 두어 준비하게 함(13~14).
- 컷 5 (15절): 마주 앉은 잔과 어지러운 성 — 역졸이 빨리 나가 조서가 수산에도 반포되니(15a), 왕은 하만과 함께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15b).
- 컷 2·3의 경첩 위치: 한 무릎의 거절(컷 1)과 온 제국의 조서·혼란(컷 4·5) 사이에 부풀음과 제비·반지가 끼어듦 — 거절(2)→부풀음(5~6)→날 정함(7)→권한(8~11)→법으로 굳힘(12~14)이, 다음의 잔과 혼란(15)과 맞물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agagi*(אֲגָגִי) — 아각 사람(1절). 사울이 살려 둔 아각의 먼 메아리(배경). / *kara*(כָּרַע) — 무릎 꿇다(2절).
- *hishtachavah*(הִשְׁתַּחֲוָה) — 절하다·엎드리다(2절). / *am*(עַם) — 민족·백성(6절). 한 사람에서 온 민족으로 부풂.
- *shamad*(שָׁמַד) — 진멸하다(6절). / *pur*(פּוּר) — 제비(외래어 7절). 권 끝 '부림'의 뿌리.
- *goral*(גּוֹרָל) — 제비(히브리어 7절). 본문이 pur를 곧바로 풀어 줌. / *dat*(דָּת) — 법률·조서(8절).
- *kesef*(כֶּסֶף) — 은(9절). 일만 달란트. / *tabbaat*(טַבַּעַת) — 인장 반지(10절). 빼어 건넨 권한.
- *harag*(הָרַג) — 죽이다(13절). / *bukah*(혼란 결 15절) — 어지러움. 태연한 잔과 마주 놓인 성.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거절(1~6절)→날을 정하고 권한을 얻음(7~11절)→법으로 굳혀 반포(12~15절)의 세 국면 — 형태 관찰.
- 한 사람→온 민족의 건너뜀: 노여움의 대상이 모르드개 한 사람(2~5절)에서 한 절 만에 온 나라의 유다인(6절)으로 부풂 — 거절은 길게, 부풀음은 짧게.
- 제비(7절)가 왕의 허락(11절)보다 먼저: 죽일 날이 먼저 굴러 나오고, 그 뒤에 죽일 권한이 건네짐 — 순서 관찰.
- 제비와 먼 날: 첫째 달 니산월에 던진 제비가 열두째 달 아달월을 얻음(7절) — 거의 일 년의 거리, 본문은 그 여백을 설명하지 않음.
- '다른 법률'(dat 8절)과 '진멸 조서'(dat 14절)의 맞받아침: 만민과 다른 한 백성의 삶을, 또 하나의 법이 없애려 함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제비(부르) 점 — 근동에서 길흉의 날을 정하려 점구를 던지던 관습. 수사에서 'puru'라 새긴 점토 주사위 유물이 알려짐. 7절의 배경.
- 왕의 인장 반지 — 페르시아 왕이 반지를 신하에게 넘겨 칙령에 인치게 하던 행정 관습. 10~12절의 배경.
- 다지방 칙령 반포 — 각 지방 문자·언어로 조서를 베껴 역참 파발로 전하던 광역 행정. 12~14절의 배경.
- 역참 파발꾼 — 왕명을 신속히 전하던 페르시아의 말 탄 전령 체계. 13·15절의 배경.
- 조공·몰수 재정 — 진멸 대상의 재산을 탈취해 왕의 부고에 드리던 재정 동기. 9·13절의 배경.
- 궁정 절 예식 — 높은 신하 앞에 무릎 꿇어 절하던 페르시아 궁정 예법. 2절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에 3:7 ↔ 에 9:24-26 (하만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진멸하려 한 일에서 '부림'이라 칭함 — 제비의 뒤집힌 결말, 권의 destination)

- 에 3:1 ↔ 삼상 15:1-33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 둠 — '아각 사람' 하만의 먼 배경)
- 에 3:6 ↔ 출 17:8-16 (아말렉과의 대대로의 다툼 — 모르드개와 하만 대립의 먼 메아리)
- 에 3:4 ↔ 에 2:5 (모르드개가 베냐민 사람 기스의 자손 — 사울의 가문과 닿는 배경)
- 에 3:12 ↔ 단 6:7-9 (메대·바사의 법은 변개하지 못함 — 반지로 인친 조서의 불가역성 배경)
- 에 3:12 ↔ 스 1:1-4 (고레스의 다지방 조서 반포 — 페르시아 광역 행정의 같은 결)
- 에 3:12-14 ↔ 에 8:9-14 (모르드개의 반전 조서가 같은 방식으로 반포됨 — 진멸 조서와 정반대로 호응)
- 에 3:1 ↔ 신 25:17-19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 아각 사람 하만의 율법 배경)
- 에 3:13 ↔ 에 9:20-22 (진멸의 달이 구원의 절기로 뒤집힘 — 아달월의 결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환한 영예의 보좌 앞. 자막 —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그의 지위를 모든 대신 위에 둔다. 대궐 문의 신하들이 다 무릎 꿇어 하만에게 절한다. 그런데 한 사람이 꼿꼿이 서 있다 — 모르드개는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한다. 자막 — 대궐 문에 있는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니, 그들이 하만에게 고하여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한다. 모르드개가 자기는 유다인임을 말하였더라. 화면이 하만의 얼굴로 다가간다. 하만이 모르드개가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한다. 그러나 모르드개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모르드개의 민족 곧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한다. 화면이 하만 앞의 한 손으로 간다. 자막 — 아하수에로 왕 제십이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날과 달에 대하여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는다. 화면이 보좌 앞으로 간다. 하만이 왕에게 아뢴다 — 한 민족이 왕국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은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자막 — 왕이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며 이른다.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네게 주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화면이 서기관들의 사무실로 옮겨 간다. 첫째 달 십삼일에 서기관이 소집되어, 각 지방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하만의 명령대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다. 파발꾼이 그 조서를 모든 지방에 전한다. 자막 —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두어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한다. 화면이 두 장면으로 갈린다. 한쪽에는 역졸이 왕명으로 빨리 나가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된다. 다른 한쪽에는 왕과 하만이 마주 앉아 마신다. 자막 —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화면이 마시는 한 방과 어지러운 거리 사이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굽히지 않은 한 무릎과 던져진 제비 — 한 사람의 거절이 한 민족 진멸의 조서로 폭발하는 장"**
- 초벌 부제: "아각 사람 하만이 높여지고 다들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만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매 — 하만이 노하여 한 사람을 죽이기를 가볍게 여기고 온 나라의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하여, 첫째 달 니산월에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아달월을 얻고, 왕의 반지로 인친 진멸 조서가 노소·부녀를 막론하고 하루에 죽이라 모든 지방에 반포되니, 왕과 하만은 마주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러운 — 한 동작의 거절이 한 민족 진멸의 조서로 폭발하고 제비가 그 날을 먼 훗날로 정하는, 이름을 숨기신 채 던져진 제비가 한 장에 겹치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haman·agagi·kara·hishtachavah·am·pur·goral·dat·kesef·tabbaat·shamad·abad·harag·bukah 등 14+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세 국면 구조 + 한 사람→온 민족 건너뜀 + 제비와 먼 날 + ANE 제비 점·인장 반지·다지방 반포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2의 모르드개의 거절을 '교만'이나 '신앙의 모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다들 꿇어도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까닭으로 '유다인'을 댄 본문 형태로만 둠. 아말렉(삼상 15장)과의 잇댐은 배경으로만 가리킴.
- 3:6의 한 사람에서 온 민족으로의 부풀음을 '하만의 악의 본질'로 닫지 않고,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온 민족을 겨눴다는 사실의 형태로만 기록. 그 까닭은 비워 둠.
- 3:7의 던져진 제비를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로 끌고 가지 않고, 첫째 달에 던진 제비가 열두째 달을 얻은 본문 형태로만 둠. 먼 날의 여백은 보존.
- 3:8의 '다른 법률'이라는 고발을 '반유대 정서의 전형'으로 단정하지 않고, 한 민족이 흩어져 거하며 법률이 만민과 다르다는 하만의 말의 형태로만 보존.
- 3:15의 마시는 잔과 어지러운 성을 '악인의 무감각'이나 '심판의 전조'로 평하지 않고, 두 사람이 마시되 성은 어지럽더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 그 까닭과 평가는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더 3장은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신하 위로 높여 대궐 문의 신하들이 다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만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매(3:2), 하만이 노하여 모르드개 한 사람을 죽이기를 가볍게 여기고 그 민족 곧 온 나라의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하여 —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아달월을 얻고(3:7), 하만이 왕에게 한 민족이 흩어져 거하며 법률이 만민과 다르다 아뢰며 은 일만 달란트를 약속하니 왕이 반지를 빼어 주며 소견대로 행하라 하매 — 첫째 달 십삼일에 서기관이 각 지방 문자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쳐, 파발꾼이 아달월 십삼일 하루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모든 지방에 전하니(3:12-14),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러운(3:15), 한 동작의 거절과 부풀어 오른 노여움과 던져진 제비와 인친 조서와 태연한 잔과 혼란이 한 장에 겹치는 장이다.

한 문단: 환한 영예의 보좌 앞.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신하 위로 높이매, 대궐 문의 신하들이 다 꿇어 절한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굽히지 않는다 — 모르드개는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한다. 화면이 하만의 노한 얼굴로 다가간다. 하만이 한 사람을 죽이기를 가볍게 여기고, 그 민족 곧 온 나라의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한다. 한 사람의 거절이 온 민족의 진멸로 부푼다. 화면이 하만 앞의 한 손으로 간다 — 니산월에 던진 제비가 열두째 달 아달월을 얻는다. 죽음의 날이 정해지되, 거의 일 년이나 떨어진 먼 훗날이다. 화면이 보좌 앞으로 간다. 하만이 아뢰고, 왕이 반지를 빼어 건넨다 — 그 은과 그 백성을 네게 주노니 소견대로 행하라. 화면이 온 제국으로 퍼진다. 각 지방 문자로 조서를 쓰고 인쳐, 파발꾼이 노소·부녀를 막론하고 하루에 죽이라 전하며 달려 나간다. 그런데 그 조서가 다 나간 그때, 왕과 하만은 마주 앉아 마신다. 정해진 진멸과 태연한 잔이 한 화면에 마주 선다. 한 장이 마시는 한 방과 어지러운 거리 사이에 멈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대궐 문의 거절→부풀어 오른 노여움→하만 앞의 제비와 보좌 앞의 거래→온 제국으로 퍼지는 조서의 길→마주 앉은 잔과 어지러운 성으로 옮겨 다니는 무대. 굽히지 않은 무릎·제비·반지·인친 조서·일만 달란트·파발꾼·마주 놓인 잔과 혼란 — 한 사람과 폭발에서 갈라진 둘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대궐 문의 팽팽한 긴장. 차갑게 폭발하는 노여움. '다른 법률'의 차가움. 진멸을 내려놓고 마시는 태연함의 서늘함. 긴장·폭발·서늘함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하만을 높여'(1절)로 열려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15절)로 닫힘. 영예의 높임과 온 성의 혼란 사이에 던져진 제비(7절)가 진멸의 날을 먼 훗날로 정함.
4 등장인물·사상	높여지고 노하여 제비를 던지게 하고 조서를 인친 하만. 굽히지 않은 모르드개. 반지를 빼어 건넨 왕. 다 꿇어 절한 신하들. 베끼고 전한 서기관과 파발꾼. 진멸 대상이 된 온 유다인. 그리고 한 번도 불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중심은 '한 사람의 거절'과 '온 민족의 진멸'.
5 장면 컷	굽히지 않은 무릎(1~2)/부풀어 오른 노여움(3~6)/던져진 제비와 건네진 반지(7~11)/인쳐 반포된 조서(12~14)/마주 앉은 잔과 어지러운 성(15) 다섯 컷. 컷 2·3은 거절과 조서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한 사람에서 온 민족으로의 건너뜀(6절). 제비와 먼 날 사이의 여백(7절). 제비가 왕의 허락보다 먼저 옴. 마시는 잔과 어지러운 성의 비워진 까닭(15절).
7 동영상	한 사람의 높임 → 굽히지 않은 무릎 → 부풀어 오른 노여움 → 던져진 제비와 건네진 반지 → 인쳐 반포된 조서 → 마시는 한 방과 어지러운 거리.
8 초벌 제목·부제	"굽히지 않은 한 무릎과 던져진 제비 — 한 사람의 거절이 한 민족 진멸의 조서로 폭발하는 장"
9 기도·내면	보이는 잔만 들고 어지러운 거리는 못 본 척한 곳은 없는지, 한 사람의 거절이 한 민족의 운명으로 번지고 던져진 제비가 먼 날에 멈춰 선 자국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한 무릎과 온 민족**: 3장은 한 사람의 한 동작에서 온 민족의 진멸로 부푼다. 발단은 좁다 — 다들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개만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한다(3:2). 한 무릎의 거절이다. 그런데 하만의 노여움은 그 한 사람에 머물지 않는다 — "모르드개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민족을 다 멸하고자"(3:6) 한다. 한 절 만에 대상이 한 사람에서 온 나라의 유다인으로, 노소·어린아이·부녀까지(3:13) 부푼다. 본문은 그 건너뜀의 까닭을 길게 메우지 않고, 한 사람의 거절은 다섯 절에 걸쳐 자세히, 온 민족으로의 부풀음은 한 절

로 빠르게 적는다. 좁은 한 무릎과 부푼 온 민족을 같은 노여움이 가로지른다 — 본문은 그 크기 차를 설명으로 닫지 않고 나란히 둔다.

2. **결 2 — 던져진 제비와 먼 날**: 본문의 또 한 갈림은 '무엇이 그 날을 정하는가'다. 3장은 진멸의 날을 한 점구의 우연에 맡긴다 —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부르 곧 제비를 날과 달에 대하여 하만 앞에서 뽑게 하매"(3:7). 그런데 그 제비가 얻은 날이 묘하다 — 던진 건 첫째 달인데 얻은 날은 열두째 달 아달월이다. 진멸이 정해지되 거의 일 년이나 떨어진 먼 훗날로 미뤄진다. 본문은 이 먼 거리에 어떤 설명도 붙이지 않는다 — 섭리라 부르지도, 우연이라 평하지도 않는다. 다만 첫째 달에 던진 제비가 열두째 달을 얻었다는 사실만 적는다. 정해진 죽음과 미뤄진 날 사이의 그 여백 — 본문은 그 여백을 평가로 닫지 않고, 던져진 제비와 먼 날을 같은 절에 둘 뿐이다.

3. **결 3 — 인친 조서와 태연한 잔**: 3장의 마지막 갈림은 '명령과 마음'의 어긋남이다. 진멸은 가장 철저한 법으로 굳어진다 — 각 지방 문자로 베껴 왕의 반지로 인치고(3:12), 파발꾼이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3:13) 전하며 온 제국으로 달려 나간다. 세 동사가 한 줄에 겹치고 모두가 한데 묶이는 그 철저함이다. 그런데 본문은 그 명령이 다 나간 직후를 한 문장으로 닫는다 —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3:15). 진멸을 내려놓고도 잔을 드는 두 사람과, 말없이 어지러운 성이 한 화면에 마주 선다. 본문은 그 어긋남을 평가하지 않고, 인친 조서와 태연한 잔과 혼란한 성을 같은 장에 둘 뿐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에 9:24-26 — 하만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유다인을 진멸하려 한 일에서 '부림'이라 칭함 — 3:7 제비의 뒤집힌 결말, 권의 destination.
- 삼상 15:1-33 —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 둠 — 3:1 '아각 사람' 하만의 먼 배경.
- 출 17:8-16 — 아말렉과의 대대로의 다툼 — 모르드개와 하만 대립의 먼 메아리.
- 단 6:7-9 — 메대·바사의 법은 변개하지 못함 — 3:12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의 불가역성 배경.
- 스 1:1-4 — 고레스의 다지방 조서 반포 — 페르시아 광역 행정의 같은 결.
- 에 8:9-14 — 모르드개의 반전 조서가 같은 방식으로 반포됨 — 3:12-14의 진멸 조서와 정반대로 호응.
- 신 25:17-19 —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 아각 사람 하만의 율법 배경.
- 잠 16:33 —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음 — 3:7 던져진 제비의 배경(본문 밖).
- 에 9:20-22 — 진멸의 달이 구원의 절기로 뒤집힘 — 3:13 아달월의 결말.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3:2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에서 시작한다 — 다들 굽힌 무리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그 한 무릎에 선다.
- **멈춤 1**: 3:6에서 멈춘다 —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한 사람의 거절이 온 민족으로 건너뛰는 그 부풀음을 쥔다.
- **멈춤 2**: 3:7에서 멈춘다 — '제비를 뽑아… 아달월을 얻은지라.' 첫째 달에 던진 제비가 열두째 달을 얻은, 정해진 죽음과 미뤄진 날 사이의 여백을 쥔다.
- **끝**: 3:15에서 멈춘다 —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진멸의 조서와 태연한 잔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장의 통곡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굽히지 않은 무릎(1~2)·부풀어 오른 노여움(3~6)·던져진 제비와 건네진 반지(7~11)·인쳐 반포된 조서(12~14)·마주 앉은 잔과 어지러운 성(15)의 다섯 컷 완결
- [x] 한 사람→온 민족의 건너뜀(6절)과 제비·먼 날의 여백(7절)·거절·결정·반포 세 국면 구조
- [x] 절하다(3:2)·제비 pur(3:7)·다른 법률 dat(3:8)·인장 반지(3:10)·진멸 세 동사(3:13)·마시는 잔과 혼란(3:15)의 소품 다리
- [x] 권 흐름(EST flow)의 둘째 국면 '위기의 정점' 정박과 멀리 9:22 '뒤집힌 슬픔'과의 거리
- [x] 부림(9:26) 제비의 뿌리·아말렉(삼상 15장) 배경·다음 장(4장) 통곡으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EST flow 닻)

에스더의 spine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제비·조서 같은 우연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며, destination은 9:22의 뒤집힘 곧 진멸의 달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통에서 길한 날로 변하여 부림절이 되는 데 두어진다. 권의 흐름은 와스디 폐위와 에스더 등극(1~2장), 하만의 조서와 던져진 제비(3장), '이 때를 위함'과 에스더의 잔치(4~5장), 왕의 불면의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 반전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8~10장)로 움직인다. 3장은 그 둘째 국면, 곧 위기의 정점이다 — 진멸의 제비(pur)가 가장 깊이 던져지는 한복판이다. 직전 1~2장에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지며 모르드개가 음모를 고발해 왕을 구한 일이 일지에 적혔다면(1~2장), 3장은 그 평온해 보이던 궁정 안에 한 진멸의 도화선이 깔리는 결로 채워진다 — 한 무릎의 거절이 온 민족의 조서로 폭발한다. 권의 intent('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제비·조서 같은 우연을 엮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가, 3장에서는 그 우연이 가장 어둡게 던져지는 결로 비친다 — 제비가 진멸의 날을 정하고, 반지가 그 법을 인친다. 그런데 본문은 한 분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 권의 heart인 '침묵 속에서도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마음'이, 3장에서는 그 침묵이 가장 짙은 곳 — 곧 진멸의 제비가 던져지는 한복판에서도 이름이 부재하는 결로 미리 한 번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3장의 던져진 제비는 끝이 아니라 발판이다 — 첫째 달에 던진 제비가 하필 열두째 달을 얻어(3:7) 그 사이에 한 사람의 결단이 움직일 여백이 생기고, 멀리 9:22의 뒤집힘이 권의 끝에서 이 던져진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거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굽히지 않은 한 무릎의 거절(3:2)에서 온 민족 진멸의 인친 조서(3:13)로, 하만 앞에 던져진 제비(3:7)에서 먼 훗날 아달월의 정해진 날로, 한 신하의 손에 통째로 쥐어진 권한(3:11)에서 어지러운 성(3:15)으로 / 진멸의 제비가 가장 깊이 던져진 한복판에서 그 제비가 뒤집힐 여백으로 — 이름을 숨기신 채 던져진 우연이 가장 어둡게 깔리되, 먼 날의 틈에 반전이 자라날 발판을 두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한 사람의 거절이 한 민족의 진멸로 부풀어, 던져진 제비와 인친 조서로 온 제국에 깔리는 데로 흘러가는 운동이다. 굽히지 않은 무릎(1~2절)이 부풀어 오른 노여움으로(3~6절), 던져진 제비와 건네진 반지로(7~11절), 인쳐 반포된 조서로(12~14절), 마주 앉은 잔과 어지러운 성으로(15절) 번져 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에스더는 1~2장의 등극에서 시작해 3장의 진멸의 제비로 가장 깊이 가라앉았다가, 4~7장의 잔치와 불면의 밤과 역전을 거쳐 8~10장의 반전 조서와 부림절로 솟아오르는데, 3장은 그 둘째 국면의 바닥이다 — 위기의 정점, 곧 가장 어두운 매듭. 그런데 3장의 벡터는 닫히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진멸의 조서가 모든 지방에 반포되었으니(3:14), 다음 장(4장)은 그 조서를 들은 모르드개가 굵은

베를 입고 대성통곡하는 데서 열린다. 3장 끝의 어지러운 성이, 4장의 통곡과 '이 때를 위함'의 부름으로 이어진다. 한 장이 진멸의 조서로 멈추고, 그 조서를 들은 통곡이 다음 장을 연다. 진멸과 통곡이 두 장의 이음매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신하의 음모 행정이다 — 노하고, 제비를 던지고, 아뢰고, 인치고, 반포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름을 숨기신 채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시려는 손이다. 이 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없다 — 제비가 굴러 날을 정하고, 반지가 조서를 인치는 동안, 본문은 한 분을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그 이름의 부재 아래서 한 우연이 묘하게 비껴간다 — 첫째 달에 던진 제비가 하필 열두째 달을 얻어(3:7), 진멸의 날이 거의 일 년이나 미뤄진다. 그 미뤄짐이 한 사람의 결단이 움직일 여백을 연다. 둘째, 그 진멸의 철저함과 그것이 닿는 한계다. 세 동사가 한 줄에 겹치고 노소·부녀까지 묶이는 그 인친 조서(3:13)는 가장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굳어지지만(단 6장 배경), 본문은 그 굳은 법이 권에서 새 조서로 덮어 씌워질 것을(8:11) 미리 알지 못한 채 가장 어둡게 깔린다. 셋째, 침묵 속의 인내다. 본문은 한 진멸로 장을 닫는다 — 제비가 날을 정하고, 반지가 법을 인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마신다(3:15). 흩어진 백성을 끝내 놓지 않으시는 그 손이, 진멸의 제비가 가장 깊이 던져지는 그 한복판에서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권 전체로 보면 9:22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뒤집힘이 그 침묵의 결을 한 번에 거두는데, 3장은 그 뒤집힐 슬픔이 가장 어둡게 깔리는 한 매듭이다 — 제비를 던지게 두시고도, 그 제비가 먼 날을 얻은 여백(3:7) 위에 반전의 발판을 둔 채 침묵으로 닫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 나는 인친 조서가 온 제국으로 달려 나가는 그때, 어지러운 거리는 못 본 척하고 마주 앉아 잔만 든 곳은 없는가 — 정해진 듯한 어둠 앞에서. 그리고 첫째 달의 제비가 열두째 달을 얻은 그 먼 날의 여백을, 나는 끝난 일로 닫아 버리지는 않는가 —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은 그 침묵 속에서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담대한 거절자가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다들 꿇어도 굽히지 않은 한 무릎을 보여 주고, 한 사람의 거절이 온 민족으로 부푼 노여움을 보여 주고, 하만 앞에 던져져 먼 훗날을 얻은 한 제비와 왕의 반지로 인친 진멸의 조서를 보여 주고, 그 조서가 다 나간 뒤에도 마주 앉아 마시던 두 사람과 어지러운 성을 새겨 둔다. 거절과 노여움과 제비와 인침과 태연한 잔이 한 장에 겹치되,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이 침묵 — 그 침묵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정해진 듯한 어둠 앞에서 나는 어지러운 거리를 못 본 척한 곳이 어디인지 보는 일, 던져진 제비가 먼 날을 얻은 그 여백을 끝난 일로 닫지 않는 일, 그리고 이름이 부재한 그 침묵 한복판에서도 무엇이 비껴가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진멸의 제비로 가장 어둡게 가라앉는데 — 그 어둠 너머로 한 통곡(4장)이 다음 장을 향해 서 있고, 멀리 권의 끝에서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9:22)로 뒤집힌다. 그 가장 깊은 위기와 그 뒤집힘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3장이 인친 진멸의 조서와 어지러운 성(3:15)으로 가장 어둡게 멈추는 그 끝 너머 — 그 조서를 들은 모르드개가 굵은 베를 입고 대성통곡하며(4장 초), 던져진 제비를 뒤집을 한 사람을 향해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4:14)는 부름이 자라나, 다음 장은 던져진 제비를 뒤집을 한 결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pur* — 던져진 제비.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환한 영예의 보좌 앞. 자막 —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신하 위로 높입니다. 대궐 문의 신하들이 다 꿇어 절하는데, 한 사람이 꼿꼿이 섭니다 — 모르드개는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화면이 그 거절을 날마다 지켜보는 신하들로 갑니다. 그들이 하만에게 고합니다 — 저 사람이 유다인이라 하더이다. 화면이 하만의 노한 얼굴로 다가갑니다. 자막 — 하만이 모르드개 한 사람을 죽이기를 가볍게 여기고, 그 민족 곧 온 나라의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화면이 하만 앞의 한 손으로 갑니다. 니산월에 무리가 제비를 던져 아달월을 얻습니다. 화면이 보좌 앞으로 갑니다. 하만이 아룁니다 — 한 민족이 흩어져 거하는데 법률이 만민과 다르오니 진멸하소서, 은 일만 달란트를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빼어 건넵니다 — 그 은과 그 백성을 네게 주노니 소견대로 행하라. 화면이 서기관의 사무실로 퍼집니다. 각 지방 문자로 조서를 쓰고 인쳐, 파발꾼이 달려 나갑니다. 자막 — 아달월 십삼일 하루에 노소·어린아이·부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화면이 두 장면으로 갈립니다. 한쪽엔 조서가 수산에도 반포되고, 다른 한쪽엔 왕과 하만이 마주 앉아 마십니다. 자막 —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화면이 마시는 한 방과 어지러운 거리 사이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한 사람을 높이는 데서 열려, 굽히지 않은 한 무릎과 날마다의 권함을 지나, 한 사람에서 온 민족으로 번진 노여움과 던져진 제비와 건네진 반지를 거쳐 — 각 지방 문자로 인친 진멸의 조서가 온 제국으로 달려 나가고, 왕과 하만은 마주 앉아 마시되 성은 어지러운, 마시는 한 방과 어지러운 거리 사이에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굽히지 않은 한 무릎과 던져진 제비 — 한 사람의 거절이 한 민족 진멸의 조서로 폭발하는 장"

P02 이진우: "한 사람에서 온 민족으로 — 거절·노여움·제비·인침이 차례로 굳어 가는 장"

P04 최현국: "환한 보좌에서 어지러운 거리로 — 들어 올린 한 사람과 혼란한 온 성"

P05 김미영: "날을 정한 제비와 권한을 옮긴 반지 — 그러나 마주 앉아 마시는 두 사람"

P07 오지혜: "이름이 없는 한 장 — 던져진 제비가 진멸의 날을 먼 훗날로 정하다"

P11 나경아: "*pur · dat* — 던져진 제비와 만민과 다른 법률을 맞받은 또 하나의 법"

부제 제안: "아각 사람 하만이 높여지고 다들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만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매 — 하만이 노하여 한 사람을 죽이기를 가볍게 여기고 온 나라의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하여, 니산월에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아달월을 얻고, 왕의 반지로 인친 진멸 조서가 노소·부녀를 막론하고 하루에 죽이라 온 지방에 반포되니, 왕과 하만은 마주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러운, 한 동작의 거절이 한 민족 진멸의 조서로 폭발하고 제비가 그 날을 먼 훗날로 정하는, 이름을 숨기신 채 던져진 제비가 한 장에 겹치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다들 꿇어도 굽히지 않은 한 무릎 곁으로, 그 거절을 날마다 지켜보던 시선 곁으로, 한 사람의 노여움이 온 민족으로 번져 던져진 제비와 인친 조서가 온 제국으로 달려 나가던 길 곁으로, 그리고 진멸을 내려놓고도 마주 앉아 마시던 두 사람과 어지러운 성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다들 꿇는데 홀로 굽히지 않은 한 무릎을 보았습니다 — 그 한 동작의 거절이 한 절 만에 온 민족의 진멸로 부풀어 오르던 것을요. 또 첫째 달에 던진 제비가 열두째 달을 얻어, 진멸의 날이 먼 훗날로 정해지던 그 여백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조서가 다 나간 뒤에도 마주 앉아 마시던 두 사람과, 말없이 어지러운 성도요.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이 장에서, 제가 보이는 잔만 들고 정작 어지러운 거리는 못 본 척한 곳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한 사람의 거절이 한 민족의 운명으로 번지고, 던져진 제비가 먼 날에 멈춰 선 그 자국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3장은 **한 사람의 거절에서 한 민족의 진멸로, 던져진 제비에서 인친 조서로** 움직여요. 1~6절이 거절과 부풀어 오른 노여움, 7~11절이 제비와 건네진 반지, 12~15절이 인쳐 반포된 조서와 어지러운 성이에요. 에스더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2장이 와스디 폐위와 에스더 등극, 3장이 하만의 조서와 제비, 4~5장이 '이 때를 위함'과 에스더의 잔치, 6~7장이 왕의 불면의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 8~10장이 반전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예요. 권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고요. 3장은 그 둘째 국면, **위기의 정점**이에요 — 진멸의 제비(pur)가 던져지는 한복판이에요. 이 던져진 제비가 권 끝(9:22)에서 정반대로, 곧 구원의 절기로 뒤집히는 게 권의 destination이니, 3장은 그 뒤집힘이 일어날 바닥을 까는 국면이에요. 가장 깊은 위기가 가장 큰 반전의 발판이 되는 그 자국이 여기서 놓여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3:7의 *pur*(제비)와 권 끝 9:26의 '부림(purim)'이 한 어근으로 호응해요. 진멸을 위해 던진 그 제비의 이름이,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의 이름으로 돌아와요 — 같은 단어가 한 장에선 죽음의 날을, 권 끝에선 살아남의 절기를 가리켜요. 그리고 3:13의 진멸 조서가 8:11의 반전 조서와 같은 어구·같은 방식으로 맞물려요 — 같은 인장, 같은 파발, 정반대의 명령이에요. 또 하나, *dat*(법률 3:8·14)가 '변개하지 못하는' 페르시아 법의 결을 두는데(단 6장 배경), 이 못 바꾸는 법이 권에서 새 조서로 덮어 씌워지는 게 반전의 한 길이에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신하의 음모 행정이에요 — 노하고, 제비를 던지고, 아뢰고, 인치고, 반포해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이름을 숨기신 채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시려는 손 같아요. 이 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없어요 — 제비가 굴러 날을 정하고, 반지가 조서를 인치는 동안, 본문은 한 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이름의 부재 아래서 한 우연이 묘하게 비껴가요 — 첫째 달에 던진 제비가 하필 열두째 달을 얻어요(7절). 진멸의 날이 거의 일 년이나 미뤄져, 그 사이에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움직일 여백이 생겨요. 본문은 이걸 섭리라 부르지 않아요 — 다만 제비가 먼 날을 얻었다는 사실만 적어요.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는 이름 없는 분이 우연들을 엮어 진멸을 구원으로 뒤집는 권인데, 3장은 그 진멸이 가장 깊이 던져지는 한 매듭이에요. 권의 끝(9:22)에서야 이 슬픔이 기쁨으로, 진멸의 달이 절기로 뒤집힘이 드러나는데, 3장은 그 뒤집힐 슬픔이 가장 어둡게 깔리는 국면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그 백성도 네게 주노니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11절)는 권한의 절정과,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15절)는 혼란이 같이 있어요. 한쪽은 한 신하의 손에 온 민족의 운명이 통째로 쥐

어진 결이고, 한쪽은 그 손이 만든 어지러움이에요. 더 큰 긴장은, 진멸의 날을 정한 제비가 하필 먼 훗날을 얻었다는 거예요(7절) — 죽음이 정해졌는데, 그 죽음이 바로 오지 않고 일 년을 미뤄져요. 정해진 진멸과 미뤄진 날 사이의 그 여백이 한 장에 겹쳐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던져진 제비가 어디로 가는지, 그 먼 날의 여백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는, 권의 끝까지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한 무릎의 거절에서 온 제국의 조서로** 퍼져 가는 운동이에요. 굽히지 않은 무릎(1~2절)이 부풀어 오른 노여움으로(3~6절), 던져진 제비와 건네진 반지로(7~11절), 인쳐 반포된 조서로(12~14절), 마주 앉은 잔과 어지러운 성으로(15절) 번져 가요. 그리고 3장이 끝나며 한 갈라진 화면 앞에 서요 — 마시는 한 방과 어지러운 거리예요. **그런데 그 어지러움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진멸의 조서가 모든 지방에 반포되었으니, 다음 장(4장)은 그 조서를 들은 모르드개가 굵은 베를 입고 재를 무릅쓰며 대성통곡하는 데서 열려요. 3장 끝의 어지러운 성이, 4장의 통곡과 '이 때를 위함'의 부름으로 이어져요. 한 장이 진멸의 조서로 멈추고, 그 조서를 들은 통곡이 다음 장을 향해 서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13절과 15절이 다음을 미는 두 손 같아요. 13절의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와 15절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요. 던져진 제비도, 건네진 반지도, 인친 조서도, 다 한 민족의 진멸을 향해 굳어 갔어요. 저는 한 사람의 거절이 온 민족의 죽음으로 번진 이 장이, 마지막엔 태연한 잔과 어지러운 성으로 닫히는 그 서늘함이 무거워요 — 정해진 진멸이 가장 어둡게 깔린 그 자국이요. 그런데 바로 그 어지러움 다음에 한 통곡이 와요(4장). 그 무거움이 어디로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한 무릎의 거절에서 부풀어 오른 노여움으로, 던져진 제비와 건네진 반지로, 그러나 진멸의 날이 먼 훗날로 정해진 여백과 어지러운 성으로 — 그 어지러움이 곧바로 다음 장의 통곡으로 이어지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름을 숨기신 채 던져진 진멸의 제비가, 권의 끝(9:22)에서야 슬픔을 기쁨으로, 진멸의 달을 구원의 절기로 뒤집습니다. 다음 장은 그 조서를 들은 모르드개의 통곡과 에스더를 향한 '이 때를 위함'의 부름으로 이어지며, 던져진 제비를 뒤집을 한 사람의 결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스더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3:1-2 — 한 사람의 높임과 굽히지 않은 한 무릎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신하 위로 높이매 다들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2절). 본문은 그 거절의 까닭을 풀어 평가하지 않는다 — 왜 다들 꿇는데 그만 굽히지 않았는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교만'이나 '신앙의 모범'으로 닫지 않고, 다들 꿇어도 꿇지 아니하였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아말렉(삼상 15장)과의 잇댐은 배경으로만 가리킴.

Q2. 3:5-6 — 한 사람의 거절이 온 민족의 진멸로 부푼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하만이 모르드개의 거절을 보고 노하나, "모르드개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민족을 다 멸하고자"(6절) 한다. 본문은 그 부풀음의 까닭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한 사람의 거절이 어떻게 온 민족의 진멸로 건너뛰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하만의 악의 본질'로 닫지 않고,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온 민족을 겨눴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까닭은 비워 둔다.

Q3. 3:7 — 던져진 제비와 먼 날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아달월을 얻는다(7절). 본문은 그 제비가 왜 하필 거의 일 년이나 떨어진 먼 날을 얻었는지를 풀이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고, 첫째 달에 던진 제비가 열두째 달을 얻었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던져진 우연과 먼 날 사이의 여백만 둔다.

Q4. 3:8-9 — '다른 법률'이라는 고발과 일만 달란트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하만이 "한 민족이…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8절) 진멸을 청하며 은 일만 달란트를 약속한다(9절). 본문은 그 고발이 참인지, 그 은이 무엇을 사려는지를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이 일을 '반유대 정서의 전형'으로 닫지 않고, 만민과 다른 법률이라는 하만의 말과 약속된 은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3:10-11 — 반지를 빼어 건네며 '소견대로 행하라' 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왕이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며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네게 주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10~11절) 한다. 본문은 이 손쉬운 넘김을 옳다거나 그르다고 평하지 않는다 — 온 민족의 운명이 한 신하의 손에 통째로 쥐어진 일에 어떤 판단도 붙이지 않는다. 이 일을 '왕의 무책임'으로 단정하지 않고, 반지를 빼어 건넸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평가는 비워 둔다.

Q6. 3:15 — 마시는 잔과 어지러운 성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역졸이 조서를 빨리 전하여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15절). 본문은 두 사람이 왜 마시는지, 성이 왜 어지러운지를 풀이하지 않는다 — 잔을 든 마음도, 거리의 술렁임의 까닭도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악인의 무감각'이나 '심판의 전조'로 닫지 않고, 마시되 성은 어지럽더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다음 장의 통곡으로 이어지는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에스더 *4*장*)*으로 이월한다.

에스더 4장

EST-004 · 역사서 · 히브리어

> 모르드개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서 대성통곡하고 각 지방의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4:1-3)*, 왕후 에스더가 하닥을 보내 그 까닭을 알아보고 —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가면 죽는 법이라 머뭇거리자, 모르드개가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4:14)* 도전하매, 에스더가 사흘 금식을 청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4:16)* 결단하는 — 이름을 숨기신 그분이 '이 때'*('ēt)*라는 한 단어로 가장 가까이 비추는, 권의 경첩이 도는 장.

관찰된 사실

에스더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성중의 광장(1~2절)→조서가 이른 각 지방(3절)→왕후의 거처와 광장을 잇는 내시의 동선(4~9절)→닫힌 궁문을 둔 두 목소리의 회답(10~14절)→결단의 한 대목(15~17절)로 옮겨 다님. 광장의 통곡에서 결단의 한 걸음으로.
- 무대의 방향: 막막한 잿빛 통곡이 닫혀 가는 회답을 지나, 한 물음으로 돌아서서 결단의 한 점으로 모임.
- 소품: 굵은 베옷과 재(1절), 닫힌 궁문(2절), 에스더가 보낸 옷(4절), 내시 하닥(5절), 정확한 은의 액수와 조서 초본(7~8절), 왕의 금홀(11절), 사흘 금식의 청(16절).
- 소품의 도드라짐: 애통이 입은 베옷(1절)과 생사를 가르는 금홀(11절) — 닫힌 궁문 밖의 옷과 그 문 안의 규가 같은 장에 놓이고, 사흘 금식(16절)이 그 둘을 잇댐.
- 소재의 결: 처음은 애통(베옷·재·통곡·금식·부르짖음), 가운데는 망설임(부름 없음·삼십 일·죽이는 법·홀로 면함), 끝은 결단(이 때·누가 알겠느냐·다 모음·죽으면 죽으리이다).
- 형식 소재: '이 때(et 14절)'의 두 번 울림, '멸망(abad 14·16절)'의 두 끝 호응, '잠잠함'과 '나아감'의 두 축.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막막한 애통의 무거움 —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통곡(1절)과 각 지방의 부르짖음(3절).
- 닫혀 가는 회답의 팽팽함 — 받지 못한 옷(4절), 죽이는 법과 삼십 일의 침묵(11절).
- 한 물음으로 돌아서는 빛 —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14절)가 막막함 속으로 들어옴.
- 결단으로 단단해지는 공기 — 사흘 금식의 청과 '죽으면 죽으리이다'(16절).
- 막막함('대성통곡' 1절)·두려움('죽이는 법' 11절)·단단함('죽으면 죽으리이다' 16절)의 세 어조.
- '의복을 보내어… 그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받지 아니한지라'(4절) — 덮으려던 손이 끝에서 함께 짊어지는 손(16절)으로 바뀌어 더 단단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 17절: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 막막한 통곡으로 열려, 결단을 받아 명령한 대로 다 행하는 데로 닫힘 — 슬픔의 큰 소리와 조용한 순종의 행함.
- '대성통곡'(1절)은 막힌 애통의 결, '다 행하니라'(17절)는 한 길이 열려 그 길을 걷는 결 — 본문은 그 사이를 음성이나 기적으로 메우지 않음.
- 1절(통곡)과 17절(행함) 사이에 14절(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과 16절(죽으면 죽으리이다)이 한 사람을 두고 마주 섬.
- 부탁하던 손(1·8절)과 따르는 손(17절)이 한 장에서 위치를 바꿈 — 모르드개가 길을 내고, 끝엔 에스더의 명령대로 행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모르드개(조서를 알고 통곡함·당한 일과 은의 액수와 조서 초본을 고함·'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도전함·명령한 대로 다 행함), 에스더(곡함을 듣고 근심함·하닥을 보내 까닭을 알아봄·죽이는 법과 삼십 일을 회답함·사흘 금식을 청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함), 내시 하닥(안과 밖을 오가며 전갈을 나르는 통로), 각 지방의 유다인(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재에 누운 무수한 사람들), 무대 밖의 하만과 아하수에로(조서·은·금홀의 법이 그들로부터 옴), 이름 불리지 않는 한 분('다른 데로 말미암아' 14절이 가리키되 이름을 대지 않는 처소).
- 중심 사상: '감추어진 부름'과 '이 때를 위함' —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으면서, 14절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이 일어나리라'로 한 손길을 가리키고,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물음으로 둠.
- 두 국면의 회답: 막힌 회답(9~11절, 죽이는 법과 삼십 일의 머뭇거림)과 도는 회답(12~14절, 홀로 면하리라 생각 말라·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 본문이 도는 쪽을 더 도드라지게 둠.
- 이름을 부르지 않음과 가장 가까이 비춤의 함께 있음: 권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지 않되, 14절이 구원의 일어남을 정해진 일처럼 가리킴.
- 베옷(1절)·금홀(11절)·사흘 금식(16절): 닫힌 궁문 밖의 애통의 옷과 그 문 안의 생사의 규 사이를, 한 금식이 잇댐.
- et(이 때 14절)와 maqom acher(다른 처소 14절): 이름을 대지 않은 채 한 때와 한 손길을 가리키는 두 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성중의 통곡 —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쓴 대성통곡, 베옷 입은 자는 궁문 안에 들지 못함.
- 컷 2 (3절): 각 지방의 애통 — 조서가 이른 곳마다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함.
- 컷 3 (4~9절): 내시를 통한 오감 — 보낸 옷을 받지 못함(4), 하닥을 보내 까닭을 알아봄(5~6), 당한 일과 은의 액수와 조서 초본을 고하며 간구를 부탁함(7~8), 하닥이 전함(9).
- 컷 4 (10~14절): 닫힌 문을 둔 도전 — 죽이는 법과 삼십 일을 회답함(10~11), '홀로 면하리라 생각 말라'·'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려니와'·'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로 도전함(12~14).

- 컷 5 (15~17절): 사흘 금식의 결단 — 수산의 유다인을 다 모아 사흘 금식을 청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함(15~16),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함(17).
- 컷 4의 경첩 위치: 막막한 애통(컷 1·2)과 결단의 행함(컷 5) 사이에 도전이 끼어듦 — 머뭇거림(11)→첫 도전(13)→가리킴(14절 앞)→물음(14절 뒤)이, 다음의 결단(15~16)과 맞물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aq*(שַׂק) — 굵은 베옷(1절). 애통이 입은 옷. / *eber*(אֵפֶר) — 재(1절). 뒤집어쓴 재.
- *ebel*(אֵבֶל) — 애통(3절). / *tsom*(צוֹם) — 금식(3·16절). 각 지방의 큰 금식이 사흘 금식으로 좁혀짐.
- *et*(עֵת) — 때·시기(14절). 경첩을 도는 한 단어. / *abad*(אָבַד) — 멸망하다(14·16절). 잠잠할 때의 멸망과 나아갈 때의 멸망이 호응.
- *revach*(רֶוַח) — 놓임·숨통(14절). / *hatstsalah*(הַצָּלָה) — 구원·구출(14절). 이름 없이 가리켜진 일어남.
- *maqom acher*(מָקוֹם אַחֵר) — 다른 처소·다른 데(14절). 누구인지 이름을 대지 않은 빈 칸. / *malkut* — 왕후의 지위(14절).
- *hatak* — 하닥(5절). 전갈을 나른 내시. / *parshegen*(פַּרְשֶׁגֶן) — 초본·베낀 본(8절). 반포된 조서의 사본.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애통(1~3절)과 결단(15~17절) 사이에 닫힌 궁문을 둔 회답(4~14절)이 끼인 액자 구조 — 형태 관찰.
- 회답의 두 국면: 막힌 회답(9~11절, 죽이는 법과 삼십 일)→도는 회답(12~14절, 홀로 면하리라 생각 말라·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 머뭇거림과 돌아섬의 대비.
- '이 때(et)'의 두 번 울림(14절): '이 때에 잠잠하면'(침묵의 위험)과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처소의 까닭) — 한 단어가 멸망과 부름을 함께 가리킴.
- '멸망(abad)'의 두 끝 호응: 14절 '아버지 집이 멸망하리라'와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 같은 어근의 마주 섬.
- 이름을 부르지 않음과 '다른 데로 말미암아'(14절)의 가리킴 — 침묵과 확신이 한 절에 함께 놓임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페르시아 궁정의 출입 법 — 부름 없이 안뜰에 든 자를 죽이는 법, 왕이 금홀을 내밀면 사는 정황. 4:11의 배경.
- 굵은 베옷과 재 — 근동에서 애통·통회·재난 앞의 자기 낮춤을 표하던 몸짓. 4:1-3의 배경.
- 왕의 부고에 바치는 은 — 큰 사업의 비용을 왕의 금고에 약속해 칙령을 사던 행정 정황. 4:7의 배경.
- 조서 초본(parshegen) 반포 — 칙령을 각 지방 문자와 언어로 베껴 도성마다 공포하던 관습. 4:8의 배경.
- 내시의 시중 — 페르시아 궁정에서 내시가 왕후의 거처를 출입하며 전갈을 나르던 정황. 4:5-9의 배경.
- 왕궁 문(shaar ha-melek) — 행정과 진정이 오가던 궁문, 베옷 입은 자는 그 문 안으로 들지 못하는 경계. 4:2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에 4장 ↔ 에 9:20-22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부림절 — 4장의 베옷·금식·통곡이 끝내 닿는 데)

- 에 4:1 ↔ 에 3:8-15 (하만의 조서와 제비·은 일만 달란트 — 4장 애통의 직접 원인)
- 에 4:14 ↔ 에 2:5-7·17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내력, 에스더가 왕후가 됨 — '왕후의 지위'의 배경)
- 에 4:11·16 ↔ 에 5:1-3 (사흘 후 규례를 어기고 안뜰에 서매 왕이 금홀을 내민 장면 — 결단이 이어지는 곳)
- 에 4:14 ↔ 창 50:20 (사람은 악을 꾀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심 — '다른 데로 말미암아'의 감추어진 섭리와 닿는 결)
- 에 4:16 ↔ 단 3:17-18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 —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같은 결의 결단)
- 에 4:3 ↔ 욘 3:5-9 (니느웨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부르짖음 — 재난 앞 통회의 같은 결)
- 에 4:14 ↔ 사 45:15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 이름을 부르지 않는 4장의 감추어진 얼굴과 닿는 결)
- 에 4:3 ↔ 느 1:4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통곡함 — 같은 디아스포라의 애통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중의 한 광장. 자막 — 모르드개가 그 행해진 모든 일을 알게 된다.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한다. 화면이 왕궁 문 앞에서 멈춘다. 자막 — 베옷을 입은 자는 왕궁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화면이 넓어진다. 자막 —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르는 각 지방에서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화면이 왕후의 거처로 옮겨 간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들어와 모르드개의 일을 고하매, 왕후가 심히 근심한다. 자막 — 왕후가 의복을 보내어 모르드개에게 입히고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한다. 에스더가 시중드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개에게 가서 무슨 일이며 어찌 됨인지 알아보게 한다. 하닥이 성중 광장의 모르드개에게 나아간다.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고한다. 또 도성 수산에 반포된 조서 초본을 주어 에스더에게 보이고 알리며, 왕께 나아가 그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부탁한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전한다.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한다 — 부름을 받지 못하고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오직 죽이는 한 법이 있고, 왕이 금홀을 내밀어야 살거니와,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삼십 일이라.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한다. 자막이 흐른다. 모르드개가 회답한다 —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의 놓임과 구원이 일어나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화면이 다시 왕후의 거처로 온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한다 —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주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화면이 한 걸음을 떼는 모르드개를 따라간다. 자막 —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화면이 사흘 금식으로 들어가는 한 도성 앞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 베옷의 애통이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결단으로 도는 장"**
- 초벌 부제: "모르드개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고 각 지방의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왕후 에스더가 하닥을 보내 까닭을 알아보고 —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가면 죽는 법이라 머뭇거리자, 모르드개가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4:14) 도전하매, 에

스더가 사흘 금식을 청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4:16) 결단하는 — 이름을 숨기신 그분이 '이 때'(ʿēt) 한 단어로 가장 가까이 비추는, 권의 경첩이 도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aq·eber·ebel·tsom·zeaqah·et·revach·hatstsalah·maqom_acher·abad·hatak·parshegen·malkut 등 13+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회답의 두 국면 + '이 때(et)'의 경첩 + 액자 구조 + ANE 궁정 출입 법·베옷과 재·조서 초본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4:1의 베옷과 통곡을 '모르드개의 믿음의 모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조서를 알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통곡한 본문 형태로만 둠.
- 4:11의 삼십 일과 죽이는 법을 '에스더의 믿음 없음'으로 닫지 않고, 부름 없이 나아가면 죽는 법과 삼십 일째 부름이 없다는 사실로만 기록. 그 머뭇거림의 속은 비워 둠.
- 4:14의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를 '섭리 교리의 증거 구절'로 끌고 가지 않고, 단정이 아니라 물음으로 둔 본문 형태로만 보존. '다른 데로 말미암아'의 이름은 비워 둠.
- 4:16의 '죽으면 죽으리이다'를 '용기의 교훈'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흘 금식을 청하며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는 한 결단의 말로만 보존.
- 4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점을 '신학적 결함'이나 '숨은 임재의 증명'으로 평하지 않고, 이름이 비어 있되 14절이 구원의 일어남을 가리키는 본문 형태로만 둠 — 그 평가는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더 4장은 모르드개가 하만의 조서를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서 대성통곡하며 왕궁 문 앞까지 이르되 베옷 입은 자는 그 문 안에 들지 못하고 각 지방의 유다인이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한 가운데(4:1-3), 왕후 에스더가 근심하여 보낸 옷이 되돌아오매 내시 하닥을 보내 까닭을 알아보니 모르드개가 당한 일과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와 반포된 조서 초본을 고하며 왕께 나아가 간구하라 부탁하나 — 에스더가 부름 없이 안뜰에 드는 자는 오직 죽이는 법이요 부름받지 못한 지 삼십 일이라 머뭇거리매 모르드개가 "홀로 면하리라 생각 말라 이 때에 잠잠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이 일어나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4:13-14) 도전하니 — 에스더가 수산의 유다인을 다 모아 사흘 주야 금식을 청하고 규

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며 "죽으면 죽으리이다"(4:16) 결단하매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는(4:17), 애통과 머뭇거림과 도전과 결단이 한 장에 겹치는 장이다.

한 문단: 성중의 한 광장. 모르드개가 조서를 알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한다. 그러나 베옷 입은 자는 왕궁 문 안에 들지 못한다. 화면이 넓어진다 — 각 지방마다 유다인이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 화면이 왕후의 거처로 옮겨 간다. 에스더가 근심하여 옷을 보내나 되돌아오고, 내시 하닥을 보내 까닭을 묻는다. 모르드개가 당한 일과 은의 정확한 액수와 조서 초본을 고하며 간구를 부탁한다. 에스더가 회답한다 — 부름 없이 나아가면 죽는 법이요, 부름받지 못한 지 삼십 일이라. 한 머뭇거림이 닫힌 문 앞에 선다. 그런데 모르드개의 회답이 그 문을 돌려세운다 — 홀로 면하리라 생각 말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려니와, 왕후의 지위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사흘 금식을 청하고 결단한다 —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개가 가서 명령한 대로 다 행한다. 한 장이 사흘 금식으로 들어가는 한 도성의 입구 앞에 멈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성중의 광장→각 지방→내시의 동선→닫힌 궁문을 둔 회답→결단의 한 대목으로 옮겨 다니는 무대. 베옷·재·보낸 옷·내시·은의 액수·조서 초본·금홀·사흘 금식 — 애통과 망설임에서 결단으로 도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막막한 애통의 무거움. 닫혀 가는 회답의 팽팽함. 한 물음으로 돌아서는 빛. 결단으로 단단해지는 공기. 막막함·두려움·단단함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대성통곡'(1절)으로 열려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17절)로 닫힘. 막힌 애통과 열린 행함 사이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14절)와 '죽으면 죽으리이다'(16절)가 마주 섬.
4 등장인물·사상	통곡하고 도전한 모르드개. 근심에서 결단으로 옮겨 간 에스더. 전갈을 나른 하닥. 부르짖는 각 지방의 유다인. 이름 불리지 않는 한 분. 중심은 '감추어진 부름'과 '이 때를 위함'.
5 장면 컷	성중의 통곡(1~2)/각 지방의 애통(3)/내시를 통한 오감(4~9)/닫힌 문을 둔 도전(10~14)/사흘 금식의 결단(15~17) 다섯 컷. 컷 4는 애통과 결단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이 때(et)'의 두 번 울림(14절). 이름을 부르지 않음과 가장 가까이 비춤의 함께 있음. 14·16절 사이의 비워진 속마음. 사흘 금식의 비워진 향함.
7 동영상	성중의 통곡 → 각 지방의 애통 → 받지 못한 옷과 내시의 오감 → 죽이는 법과 삼십 일 →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의 도전 → 사흘 금식과 결단의 한 걸음.
8 초벌 제목·부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 베옷의 애통이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결단으로 도는 장"
9 기도·내면	잠잠히 지나려는 '이 때'는 없는지, 내가 놓인 한 지점이 한 때를 향했을 가능성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애통이 한 물음으로 돌아서던 경첩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잠잠함과 나아감**: 4장은 한 사람을 잠잠함과 나아감 사이에 세운다. 모르드개의 도전은 그 둘 다에 위험을 둔다 —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4:14)는 잠잠함의 멸망이고, 부름 없이 안뜰에 들면 "오직 죽이는 한 법"(4:11)이라는 나아감의 죽음이다. 안전한 길이 없다. 본문은 그 막다른 사이에서 에스더가 나아감을 택하게 하되, 그 선택의 속마음을 풀어 적지 않는다. 다만 '잠잠하면 멸망(abad)'과 '나아가 죽으면(abad) 죽으리이다'를 같은 어근으로 두 끝에 둔다. 잠잠해도 무릅쓰는 멸망과 나아가도 무릅쓰는 멸망을, 본문은 한 사람의 결단 앞에 나란히 놓을 뿐이다.

2. **결 2 — 비어 있는 이름과 가까운 손길**: 본문의 또 한 갈림은 '이름'과 '손길'이다. 4장은, 권 전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적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장의 14절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mi-maqom acher) 놓임과 구원이 일어나려니와"라며, 그 구원의 일어남을 정해진 일처럼 가리킨다. 이름은 비어 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손길은 가장 또렷이 가깝다. '다른 처소(maqom acher)'가 누구인지 본문은 끝내 이름을 대지 않는다 — 빈 칸으로 둔다. 침묵과 확신이 한 절에 함께 놓인다. 본문은 그 빈 칸을 설명으로 메우지 않고, 부재하는 듯한 이름과 임재하는 듯한 손길을 같은 문장에 둘 뿐이다.

3. **결 3 — 막힌 회답과 도는 회답**: 4장의 회답은 두 국면으로 갈린다. 첫 회답은 막힌다 — 에스더가 죽이는 법과 삼십 일의 침묵을 들어 머뭇거린다(4:11). 본문은 그 머뭇거림을 길게 비난하지 않는다 — 두려움인지 분별인지 적지 않는다. 모르드개의 회답이 그 막힘을 돌려세운다 — "홀로 면하리라 생각 말라"(4:13),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4:14). 그러자 회답이 돈다 — 에스더가 사흘 금식을 청하고 결단한다(4:16). 흥미롭게도 본문은 막힌 회답의 머뭇거림을 길게 적지 않고, 도는 회답의 도전과 결단을 더 또렷이 적는다. 막힌 회답과 도는 회답을 나란히 두되, 도는 쪽을 더 도드라지게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에 9:20-22 —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부림절 — 4장의 베옷·금식·통곡이 끝내 닿는 데.
- 에 3:8-15 — 하만의 조서와 제비·은 일만 달란트 — 4장 애통의 직접 원인.
- 에 2:5-7·17 —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내력, 에스더가 왕후가 됨 — '왕후의 지위'의 배경.
- 에 5:1-3 — 사흘 후 규례를 어기고 안뜰에 서매 왕이 금홀을 내민 장면 — 결단이 이어지는 곳.
- 창 50:20 — 사람은 악을 꾀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심 — '다른 데로 말미암아'의 감추어진 섭리와 닿는 결.
- 단 3:17-18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 —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같은 결의 결단.
- 욘 3:5-9 — 니느웨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부르짖음 — 재난 앞 통회의 같은 결.
- 사 45:15 —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 이름을 부르지 않는 4장의 감추어진 얼굴과 닿는 결.
- 느 1:4 —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통곡함 — 같은 디아스포라의 애통의 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4:2의 닫힌 궁문에서 시작한다 — 베옷 입은 자는 그 문 안에 들지 못하는, 애통이 멈춰 선 그 문지방에 선다.
- **멈춤 1**: 4:11에서 멈춘다 — '부름을 받지 못하고 안뜰에 들어가면 오직 죽이는 한 법이 있고… 내가 부름받지 못한 지 삼십 일이라.' 안전한 길이 없는 그 사이의 머뭇거림을 쥔다.
- **멈춤 2**: 4:14에서 멈춘다 —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단정이 아니라 물음으로, 한 국면이 한 때를 향했을 가능성을 쥔다.
- **끝**: 4:16에서 멈춘다 — '죽으면 죽으리이다.' 살길을 보장받지 못한 채 무릅쓴 그 한 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장의 안뜰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성중의 통곡(1~2)·각 지방의 애통(3)·내시를 통한 오감(4~9)·닫힌 문을 둔 도전(10~14)·사흘 금식의 결단(15~17)의 다섯 컷 완결

- [x] '이 때(et 14절)'의 두 번 울림과 '멸망(abad 14·16절)'의 두 끝 호응·회답의 두 국면(막힌 회답·도는 회답)·애통과 결단의 액자 구조
- [x] 베옷(4:1)·금홀(4:11)·사흘 금식(4:16)·'다른 데로 말미암아'(4:14)·'왕후의 지위'(4:14)의 소품 다리
- [x] 권 흐름(EST flow)의 셋째 국면 '권의 경첩(4~5장)' 정박과 멀리 9:22 부림절(애통→길한 날)과의 거리
- [x] 하만의 조서(3장)·제삼일의 안뜰(5:1)·9:22 부림절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EST flow 닻)

에스더서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며, destination은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부림절(9:22)이다. 권의 흐름은 와스디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1~2장), 하만의 조서와 제비(3장), '이 때를 위함'과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잔치(4~5장), 불면의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 반전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8~10장)로 움직인다. 4장은 그 셋째 국면, '권의 경첩(전환점)'이며, 진멸의 조서(3장)와 역전(6~7장) 사이에서 권 전체를 돌려세우는 매듭이다. 직전 3장에서 하만이 제비(부르)로 진멸의 날을 정해 조서를 반포했다면, 4장은 그 조서가 닿은 지점에서 애통이 한 사람의 결단으로 도는 결로 채워진다 —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히는 그 운동이 여기서 처음 돈다. 권의 intent('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이 때를 위한 부름으로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가, 4장에서는 이름을 숨기신 그분이 '이 때'(et)라는 한 단어로 가장 가까이 비추는 결로 나타난다.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으면서도, 14절의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이 일어나리라'로 그 보존을 정해진 일처럼 가리킨다 — 권의 heart인 "침묵 속에서도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4:14)의 부름이 비추는,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마음"이, 4장에서 한 물음으로 가장 또렷이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4장의 사흘 금식은 끝이 아니라 다리다 — 결단의 한 걸음(4:16)이 제삼일의 안뜰(5:1)로 이어지고, 멀리 9:22의 부림절이 권의 끝에서 그 애통을 길한 날로 다 거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닫힌 궁문 밖의 베옷의 통곡(4:1-2)에서 그 문을 넘기로 한 사흘 금식의 결단(4:16)으로, 잠잠함의 멸망(4:14)에서 나아감의 '죽으면 죽으리이다'(4:16)로, 비어 있는 이름과 '다른 데로 말미암아'의 가까운 손길(4:14)이 한 절에 함께한 채로 / 한 도성의 금식 입구에서 다음 장의 안뜰로(5:1) —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도는 권의 경첩이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처음 돌기 시작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막막한 애통이 한 도전을 지나 죽음을 안은 결단으로 돌아서는 운동이다. 베옷의 통곡(1~3절)이 내시를 통한 오감으로(4~9절), 막힌 회답으로(10~11절),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의 도전으로(12~14절), 사흘 금식의 결단으로(15~17절) 돌아선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에스더서는 1~2장의 와스디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에서 시작해 3장의 진멸 조서로 내려갔다가, 6~7장의 역전과 8~10장의 부림절로 올라가 9:22의 길한 날에 닿는데, 4장은 그 내려감과 올라감 사이의 경첩이다 —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도는 전환점. 그런데 4장의 벡터는 멈추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16절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다음에 5:1의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서니라"가 맞물려, 금식의 입구가 곧 안뜰의 한 걸음으로 이어진다. 한 장이 금식으로 멈추고, 한 사람의 한 걸음이 다음 장의 안뜰을 연다. 결단과 안뜰이 두 장의 이음매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왕후가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가기로 한 궁정의 한 결단이다 — 통곡하고, 묻고, 머뭇거리고, 도전을 듣고, 금식하며 나아간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름을 숨기신 분이 흩어진 백

성을 한 사람의 처소를 통해 보존하시는 손길이다.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되, 14절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하며 그 보존을 정해진 일처럼 가리킨다 — 한 사람이 왕후가 된 우연(2장)이 '이 때를 위함'으로 다시 읽힌다. 둘째, 그 부름의 결이다.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4:14)는 한 사람의 처소를 한 때에 잇대는 부름인데, 본문은 그것을 단정이 아니라 물음으로 둔다 — 강요하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여는 그 결이 표면의 궁정 행정 아래에서 움직인다. 셋째, 애통이 결단으로 도는 그 경첩이다. 본문은 베옷의 통곡(4:1)을 결단(4:16)으로 돌리되, 그 사이를 음성이나 표적으로 메우지 않는다 — 한 사람의 도전과 한 사람의 사흘 금식으로만 돌린다. 이름을 숨기신 그 손길이, 하늘의 음성 대신 한 사람의 처소와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권을 돌려세운다. 권 전체로 보면 9:22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됨'이 그 도는 결을 한 번에 거두는데, 4장은 그 애통이 결단으로 처음 도는 한 매듭을 — 이름이 비어 있되 그 손길이 가장 가까운 한 절(4:14)을 마지막에 들고 닫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 나는 잠잠히 지나려는 '이 때'는 없는가 — 말이 없으면 멸망에 닿을 그 한 국면을. 그리고 내가 놓인 한 지점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물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 우연으로만 여기고 지나친 한 처소가. 안전한 길이 없는 사이에서, 잠잠함도 나아감도 무릅써야 하는 그 막다른 결단 앞에서.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용감한 사람이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베옷을 입고 닫힌 문 앞에서 통곡한 한 사람을 보여 주고, 받지 못한 옷을 보내고 까닭을 물어야 했던 한 왕후를 보여 주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를 닫힌 문 너머로 건넨 한 목소리를 보여 주고, 사흘 금식을 청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4:16) 하고 한 걸음을 뗀 그 결단을 새겨 둔다. 애통과 머뭇거림과 도전과 결단이 한 장에 겹친 이 침묵 — 이름이 비어 있되 손길은 가장 가까운 그 결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잠잠히 지나려는 '이 때'가 어디인지 보는 일, 내가 놓인 한 지점이 한 때를 향했을 가능성을 묻는 일, 그리고 안전한 길이 없는 그 사이에서 나아감을 택하는 한 걸음 앞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베옷의 통곡으로 열려 사흘 금식의 한 걸음으로 멈추는데 — 그 금식 너머로 제삼일의 안뜰(5:1)이 다음 장을 향해 서 있고, 멀리 권의 끝에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부림절(9:22)이 그 결을 다 거둔다. 그 막막함과 그 길한 날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4장이 사흘 금식과 '죽으면 죽으리이다'(4:16)의 결단으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4:17) 하니, 그 결단이 제삼일의 안뜰(5:1)로 이어지고, 다음 장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의 금홀 앞에 나아가 두 잔치를 베푸는 데로 넘어가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도는 역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ʿēt* — 이 때.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성중의 한 광장. 자막 — 모르드개가 조서를 알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합니다. 화면이 왕궁 문 앞에서 멈춥니다. 자막 — 베옷 입은 자는 그 문 안에 들지 못합니다. 화면이 넓어집니다. 자막 — 각 지방마다 유다인이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합니다. 화면이 왕후의 거처로 옮겨 갑니다. 왕후가 모르드개의 곡함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자막 — 왕후가 옷을 보내어 그 베옷을 벗

기고자 하나 받지 아니합니다.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보내 까닭을 알아보게 합니다. 하닥이 광장의 모르드개에게 나아갑니다. 모르드개가 당한 일과 하만이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고하고, 수산에 반포된 조서 초본을 주어 왕께 나아가 간구하라 부탁합니다. 하닥이 돌아와 전합니다. 에스더가 회답합니다 — 부름 없이 안뜰에 드는 자는 오직 죽이는 법이 있고 왕이 금홀을 내밀어야 살거니와, 내가 부름받지 못한 지 삼십 일입니다. 모르드개가 회답합니다 — 홀로 면하리라 생각 말라. 이 때에 잠잠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화면이 다시 거처로 옵니다. 에스더가 회답합니다 — 수산의 유다인을 다 모아 사흘 동안 주야로 금식하소서. 나도 그리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화면이 한 걸음을 떼는 모르드개를 따라갑니다. 자막 — 모르드개가 가서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화면이 사흘 금식으로 들어가는 한 도성 앞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베옷의 큰 통곡에서 열려, 각 지방의 애통과 받지 못한 옷과 한 내시의 오감을 지나, 죽이는 법과 삼십 일의 머뭇거림을 거쳐 —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의 도전에 한 번 돌아서고, 사흘 금식과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결단으로, 명령한 대로 다 행하는 한 걸음 앞에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 베옷의 애통이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결단으로 도는 장"

P02 이진우: "막힌 회답에서 도는 회답으로 — 한 단어 '이 때'가 경첩을 돌리다"

P04 최현국: "잿빛 광장의 통곡에서 사흘 금식의 한 걸음으로 — 닫힌 궁문을 둔 두 목소리"

P05 김미영: "베옷을 벗기려던 손이 함께 짊어지는 손으로 — 옷과 금홀 사이를 잇는 사흘 금식"

P07 오지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이 — '다른 데로 말미암아'의 빈 칸"

P11 나경아: "*et · abad* — 잠잠할 때의 멸망과 나아갈 때 무릅쓰는 멸망이 한 어근으로"

부제 제안: "모르드개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각 지방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에스더가 하닥을 보내 까닭을 알아보고 — 죽이는 법과 삼십 일에 머뭇거리자 모르드개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4:14) 도전하매, 에스더가 사흘 금식을 청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4:16) 결단하는, 이름을 숨기신 그분이 '이 때'(ʿēt) 한 단어로 가장 가까이 비추는 권의 경첩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베옷을 입고 닫힌 궁문 앞에서 통곡하던 한 사람 곁으로, 받지 못한 옷을 보내고 까닭을 물어야 했던 그 왕후 곁으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를 닫힌 문 너머로 건네던 그 목소리 곁으로, 그리고 사흘 금식을 청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한 걸음을 떼던 그 결단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은 한 장 안에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이 일어나리라'는 한 어구를 보았습니다 — 비어 있는 이름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가까운 손길을요. 또 베옷의 큰 통곡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한 물음을 지나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결단으로 도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잠잠히 지나려는 '이 때'는 없는지, 제가 놓인 한 지점이 한 때를 향했을 가능성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막막한 애통이 한 물음으로 돌아서던 그 경첩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4장은 **막막한 애통에서 결단의 행함으로, 잠잠함의 위험에서 나아감의 결단으로** 움직여요. 1~3절이 애통, 4~9절이 내시를 통한 오감, 10~11절이 막힌 회답, 12~14절이 도전, 15~17절이 사흘 금식의 결단이에요. 에스더서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2장이 와스디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3장이 하만의 조서와 제비, 4~5장이 '이 때를 위함'과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잔치, 6~7장이 불면의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 8~10장이 반전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예요. 권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고요. 4장은 그 셋째 국면 **권의 경첩(전환점)**이에요. 진멸의 조서(3장)와 역전(6~7장) 사이에서, '이 때'(et)라는 한 단어가 권 전체를 돌려세우는 매듭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4:14의 *et*(이 때)와 4:16의 *abad*(멸망하면 멸망하리이다)가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잠잠할 때 닥칠 멸망과, 나아갈 때 무릅쓰는 멸망이 같은 어근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4:14의 *maqom acher*(다른 처소)예요 — 이름을 대지 않은 채 한 손길을 가리켜요. 또 하나, 4:3의 *tsom*(큰 금식)이 4:16의 사흘 *tsom*(결단의 금식)으로 좁혀져, 권 전체에 돌아오는 '애통→길한 날'(9:22)의 한 결을 미리 둬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왕후가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가기로 한 궁정의 한 결단이에요 — 통곡하고, 묻고, 머뭇거리고, 도전을 듣고, 금식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이름을 숨기신 분이 흩어진 백성을 한 사람의 처소를 통해 보존하시는 손길 같아요.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 그런데 14절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하며, 그 보존을 정해진 일처럼 가리켜요. 한 사람이 왕후가 된 우연이 '이 때를 위함'으로 다시 읽혀요.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부림)로 뒤집히는 권인데, 4장은 그 뒤집힘이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돌기 시작하는 매듭이에요. 권의 destination(9:22,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부림절)에서야 그 결이 다 거둬지는데, 4장은 그 애통이 결단으로 처음 도는 한 매듭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14절)와 "죽으면 죽으리이다"(16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잠잠할 때의 멸망이고, 한쪽은 나아갈 때 무릅쓰는 멸망이에요. 잠잠해도 멸망의 위험이 있고, 나아가도 죽음의 위험이 있어요 — 안전한 길이 없는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나아감을 택해요. 더 큰 긴장은,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으면서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리라'(14절)는 확신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의 부재와 손길의 확신이 한 절에 겹쳐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사흘 금식 후 왕께 나아간 결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장부터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닫힌 궁문 밖의 통곡에서 그 문을 넘기로 한 결단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애통(1~3절)이 내시를 통한 오감으로(4~9절), 막힌 회답으로(10~11절),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의 도전으로(12~14절), 사흘 금식의 결단으로(15~17절) 돌아서요. 그리고 4장이 끝나며 한 도성이 사흘 금식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 서요. **그런데 그 금식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16절의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5장 첫머리의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안뜰에 서니라'가 맞물려요. 4장 끝의 결

단이 5장의 안뜰로 이어져요. 한 장이 금식의 입구로 멈추고, 한 사람의 한 걸음이 다음 장의 안뜰을 향해 서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16절과 17절이 다음을 미는 두 손 같아요. 16절의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17절의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요. 베옷의 통곡도, 받지 못한 옷도, 삼십 일의 머뭇거림도, 한 도전 앞에서는 다 사흘 금식의 결단으로 모였어요. 저는 막막한 애통이 한 물음으로 돌아서서 죽음을 안은 결단으로 닫히는 그 결이 무거우면서도 단단해요 — 잠잠함과 나아감 사이에서 나아감을 택한 그 한 걸음이요. 그런데 바로 그 결단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이 와요(17절). 한 결단이 곧 한 행함으로 이어져요. 그 한 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막막한 애통에서 닫힌 문을 둔 도전으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의 물음으로, 그리고 사흘 금식과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결단으로 — 그 금식의 입구가 곧바로 다음 장의 안뜰로 이어지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름을 숨기신 그분이 '이 때' 한 단어로 한 사람의 처소를 한 때에 잇대시고, 그 결단을 따라 권은 제삼일의 안뜰로 들어갑니다. 다음 장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안뜰에 서서 왕의 금홀 앞에 나아가, 두 번의 잔치를 베푸는 데로 이어지며,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도는 역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에스더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4:1-3 — 베옷·재·통곡의 애통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모르드개가 조서를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며(1절), 각 지방의 유다인이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3절). 본문은 그 애통이 향한 데를 풀어 적지 않는다 —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통곡인지 이름을 대지 않는다. 이 일을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닫지 않고, 베옷·재·통곡·금식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4:4-5 — 보낸 옷이 되돌아온 것과 까닭을 물음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에스더가 곡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옷을 보내 베옷을 벗기려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고(4절), 에스더가 하닥을 보내 무슨 까닭인지 알아보게 한다(5절). 본문은 왕후의 거처 안에서 성 밖의 조서가 곧바로 닿지 않았던 그 거리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일을 '에스더의 무관심'으로 단정하지 않고, 보낸 옷이 되돌아오고 까닭을 물어야 했던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4:11 — 죽이는 법과 삼십 일의 머뭇거림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부름 없이 안뜰에 드는 자는 오직 죽이는 한 법이 있고 왕이 금홀을 내밀어야 살거니와, 내가 부름받지 못한 지 삼십 일이라 회답한다(11절). 본문은 그 머뭇거림의 속을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 두려움인지 분별인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에스더의 믿음 없음'으로 닫지 않고, 죽이는 법과 삼십 일의 침묵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속은 비워 둔다.

Q4. 4:13-14 —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모르드개가 '홀로 면하리라 생각 말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이 일어나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13~14절)로 도전한다. 본문은 이를 단정이 아니라 물음으로 둔다 — '이 때를 위함이다'가 아니라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다. 이 일

을 '섭리 교리의 증명'으로 끌고 가지 않고, 물음으로 열린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다른 데로 말미암아'의 이름은 비워 둔다.

Q5. 4:16 — 사흘 금식과 '죽으면 죽으리이다'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에스더가 수산의 유다인을 다 모아 사흘 동안 주야로 금식하기를 청하고, 자기도 그리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한다(16절). 본문은 그 금식이 향한 데와 결단의 속마음을 풀어 적지 않는다 — 두려움을 어떻게 넘었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용기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사흘 금식의 청과 결단의 말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6. 4장 전체 —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음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4장은, 사실 권 전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적지 않는다. 그런데 14절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하며, 이름을 대지 않은 채 한 손길을 정해진 일처럼 가리킨다. 본문은 이 침묵을 '신학적 결함'이나 '숨은 임재의 증명'으로 평하지 않는다. 이름이 비어 있되 그 손길은 가장 또렷이 가까운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에스더 5장)*으로 이월한다.

에스더 5장

EST-005 · 역사서 · 히브리어

> 에스더가 사흘 만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의 보좌를 마주한 안뜰에 서니, 왕이 그를 보고 손에 잡았던 금 규를 내밀어 그가 가까이 가 그 끝을 만지고*(5:2)* — 소원을 묻는 왕에게 곧 청하지 않고 한 잔치로, 다시 둘째 잔치로 두 번 미루어 다음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리며 — 의기양양하던 하만은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에게 분이 가득하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말을 따라 오십 규빗 높이의 한 나무를 스스로 세우는 — 죽음을 각오한 접근이 금 규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미룬 잔치의 시간차가 역전의 밤을 예비하며,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한 나무를 세우는,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을 엮어 가는 장.

관찰된 사실

에스더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보좌를 마주한 왕궁 안뜰(1~2절)→에스더가 베푼 두 번의 포도주 잔치(3~8절)→즐거움이 분으로 뒤집히는 대궐 문(9절)→자랑과 모의가 도는 하만의 집(10~14절)으로 옮겨 다님. 받아들여진 처소에서 한 나무가 서는 마당으로.
- 무대의 방향: 긴장된 보좌의 접근이 잔치의 환함으로 한 번 풀렸다가, 대궐 문의 분노와 한 집의 모의로 가라앉음.
- 소품: 왕후의 예복(1절), 금 규(2절), 포도주의 잔치 상(4~6절), 앉은 신하 모르드개(9절), 자랑의 목록(11~12절), 오십 규빗 나무(14절).
- 소품의 도드라짐: 한 생명을 살린 금 규(2절)와 한 생명을 끊으려 세운 나무(14절) — 살림의 막대와 끊음의 막대가 같은 장의 두 끝에 놓임.
- 소재의 결: 처음은 받아들임(예복·금 규·은혜·가까이 감·절반의 나라), 가운데는 미룸(오늘·내일·둘째 잔치·말씀대로 하리이다), 끝은 분과 모의(분·만족 없음·오십 규빗·나무).
- 형식 소재: 잔치(mishteh 4·5·6·8·12·14절)의 거듭됨, 같은 물음('소원이 무엇이냐 절반의 나라라도' 3·6절)의 두 번, 받아들여진 규(2절)와 세워진 나무(14절)의 마주 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숨죽인 접근의 긴장 — 부르지 않은 왕후가 보좌 앞에 서고(1절), 한 동작에 죽음과 삶이 걸림.
- 받아들여진 안도 — 내밀어진 금 규와 만진 그 끝(2절), 절반의 나라라도 주겠다는 환대(3절).
- 미뤄진 긴장의 늦춤 — 곧 청하지 않고 오늘 잔치로, 내일 잔치로 두 번 미루는 시간차(4·8절).
- 분과 모의의 무거움 — 즐거이 나오던 하만이 앉은 모르드개에게 분이 가득하고(9절), 한 나무가 세워짐(14절).
- 긴장('보좌 맞은편에 서니' 1절)·안도('금 규를 내미니' 2절)·서늘함('나무를 세우니라' 14절)의 세 어조.

•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13절) — 부귀로 가득한 자의 한 비어 있음이 잔치의 자랑 바로 뒤에 놓여 더 시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보좌에 앉았더라."

• 14절: "오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라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니라."

• 죽음을 각오한 한 접근으로 열려, 한 사람을 끊으려 세운 한 나무로 닫힘 — 살기를 구한 시작과 죽이려는 끝.

• '제삼일에'(1절)는 한 생명을 건 결, '나무를 세우니라'(14절)는 한 생명을 노린 결 — 본문은 두 번 미룬 까닭을 적지 않고 잔치로 넘어감.

• 1절(접근)과 14절(나무) 사이에 2절(내밀어진 금 규)과 9절(가득한 분)이 두 사람을 두고 갈림.

• 긴장된 보좌(1~2절)에서 자랑의 한 집(13~14절)으로 — 한 접근이 받아들여지고, 미룬 잔치를 거쳐, 분으로 가라앉아 나무를 세움.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에스더(사흘 금식 뒤 예복을 입고 보좌 앞에 섬·금 규를 받음·소원을 곧 말하지 않고 두 번 미룸), 왕 아하수에로(은혜를 베풀어 금 규를 내밀고 두 번 절반의 나라를 물음), 하만(청함받은 손님·즐거이 나오다 분이 가득함·부귀를 자랑하다 나무를 세움), 모르드개(대궐 문에 앉아 일어나지도 떨지도 않음), 세레스와 친구들(부귀의 자랑을 듣고 나무를 세우라 권함), 그리고 무대 뒤의 이름 — 이 장에도 한 번도 불리지 않은 한 분.

• 중심 사상: '받아들여진 한 사람과 거절당한 한 사람'과 '가득함과 비어 있음' —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는 금 규로 받아들여지고(2절), 절하지 않은 모르드개는 한 사람의 분을 삼(9절). 부귀로 가득한 하만이 앉은 한 사람으로 비어 보임(13절). 본문이 그 비어 있음에 판단을 붙이지 않음.

• 두 국면의 잔치: 첫 잔치 초대(3~5절, 묻고 오늘로 미룸)와 둘째 잔치 예고(6~8절, 또 묻고 내일로 미룸) — 같은 물음과 같은 미룸이 두 번 돌며 답을 뒤로 늦춤.

• 받아들임과 거절의 다른 결: 보좌 앞에서 받아들여진 에스더(2절)와 대궐 문에서 절하지 않은 모르드개(9절) — 환대와 분노로 갈림.

• 금 규(2절)·잔치(4·8절)·나무(14절): 한 생명을 살린 막대와 답을 미루는 틈과 한 생명을 끊으려 세운 막대가 한 장에 놓임.

• chemah(분 9절)와 ets(나무 14절): 한 사람의 가득 찬 분과 그 분이 세운 한 장대가 한 단락의 두 결로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받아들여진 접근 — 제삼일에 예복을 입고 보좌 앞 안뜰에 섬(1), 왕이 금 규를 내밀매 가까이 가 그 끝을 만짐(2).

• 컷 2 (3~5절): 첫 잔치의 미룸 — 소원을 물으며 절반의 나라라도 함(3), 곧 청하지 않고 오늘 잔치에 청함(4), 왕이 하만을 급히 부름(5).

• 컷 3 (6~8절): 둘째 잔치의 예고 — 포도주의 국면에서 다시 물으매(6), 또 미루어 내일 잔치에 오시면 그 때 아뢰겠다 함(7~8).

- 컷 4 (9절): 대궐 문의 분노 — 즐거이 나오다가 앉은 모르드개가 일어나지도 떨지도 않음을 보고 심히 분이 가득함(9).
- 컷 5 (10~14절): 자랑과 세워진 나무 — 친구들과 세레스를 불러 부귀·자녀·영예·잔치 초대를 자랑함(10~12), 앉은 모르드개로 만족이 없다 하매(13), 권유로 오십 규빗 나무를 세움(14).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chatser*(חָצֵר) — 뜰·안뜰(1절). 보좌를 마주한 내정. / *malkut*(מַלְכוּת) — 왕권·예복 결(1절).
- *sharbit*(שַׁרְבִּיט) — 규·왕홀(2절). 내밀어 살린 막대. / *zahav*(זָהָב) — 금(2절). / *chen*(חֵן) — 은혜(2절).
- *shealah*(שְׁאֵלָה) — 소원(3절). / *baqashah*(בַּקָּשָׁה) — 요구(3절). / *chatsi malkut* — 나라의 절반(3절).
- *mishteh*(מִשְׁתֶּה) — 잔치(4절). 미룸의 통로이자 자랑의 표지. / *yayin*(יַיִן) — 포도주(6절).
- *chemah*(חֵמָה) — 분(9절). 즐거움 바로 뒤의 가득함. / *shaar*(שַׁעַר) — 대궐 문(9절). / *hon*(הוֹן) — 부(11절).
- *ets*(עֵץ) — 나무·장대(14절). 한 사람을 끊으려 세운 막대. / *chamishshim*(חֲמִשִּׁים) — 오십(14절). / *Zeresh* — 세레스(14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알현(1~2절)→두 번의 잔치 청원(3~8절)→분과 모의(9~14절)의 삼분 구조 — 형태 관찰.
- 잔치의 두 국면: 첫 잔치 초대(3~5절, 묻고 오늘로 미룸)→둘째 잔치 예고(6~8절, 또 묻고 내일로 미룸) — 같은 물음·같은 미룸의 두 번 돎.
- 받아들임과 거절의 마주 봄: 보좌 앞에서 받아들여진 에스더(2절)와 대궐 문에서 절하지 않은 모르드개(9절) — 환대는 한 동작, 거절도 한 동작.
- 금 규와 나무: 한 생명을 살린 막대(2절)와 한 생명을 끊으려 세운 막대(14절)가 장의 두 끝에서 마주 봄 — 살림과 끊음의 대비.
- 가득함과 비어 있음: 부귀·자녀·영예의 자랑(11~12절)과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13절)의 거리 — 가득 가진 자의 한 비어 있음,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금 규의 알현 — 페르시아 왕홀은 통치권의 표지였고, 부르지 않은 자가 안뜰에 들면 죽이되 왕이 규를 내밀면 살리던 알현 관례. 1~2절의 배경.
- 포도주의 잔치 — 궁정 연회가 청원과 결정이 오가던 정치적 국면이었던 정황. 4~8절의 배경.
- 대궐 문 — 왕의 신하와 관원이 앉아 직무를 보던 궁문, 모르드개가 앉은 곳. 9·13절의 배경.
- 왕이 존귀하게 함 — 왕이 신하를 승진·치하하던 궁정 영예 제도. 하만이 자랑한 부귀의 배경(11절).
- 교수와 나무 — 죄인을 높은 장대 위에 본보기로 내걸던 페르시아 형벌 정황. 14절의 배경.
- 왕후의 예복 — 왕족의 의복을 갖춰 입고 알현에 나아가던 궁정 복식 정황. 1절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에 5장 ↔ 에 4:11-16 (부르지 않고 나아가면 죽이되 금 규를 내밀면 사는 규례와 사흘 금식 — 직전 장, 5장 접근의 배경)
- 에 5:1-2 ↔ 에 4:16 ('죽으면 죽으리이다' — 죽음을 각오한 접근의 배경)

- 에 5:8 ↔ 에 6:1-14 (미룬 잔치가 벌린 틈으로 들어온 그 밤, 왕이 잠 못 이루고 모르드개의 공을 발견함 — 다음 장)
- 에 5:14 ↔ 에 7:9-10 (하만이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림 — 14절의 나무가 돌아온 역전)
- 에 5:9 ↔ 에 3:1-5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함 — 분노의 배경)
- 에 5:8 ↔ 에 2:21-23 (모르드개가 암살 음모를 고발해 역대 일기에 기록됨 — 6장 발견의 복선)
- 에 5:3 ↔ 막 6:23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함 — 같은 어법의 신약 장면)
- 에 5:14 ↔ 잠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 — 자기 나무를 세운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5:14 ↔ 에 9:25 (하만의 악한 꾀가 자기 머리로 돌아감 — 부림절 회상에서 그 나무를 거두는 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긴장된 보좌의 안뜰. 자막 —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왕궁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더라. 왕이 안뜰에 선 왕후 에스더를 보고 그가 은혜를 입으매,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민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 규 끝을 만진다. 자막 —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런데 에스더가 곧 청하지 않고 이른다 —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이 오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이른다 — 하만을 급히 부르라 에스더의 말대로 하리라. 화면이 첫 잔치의 마당으로 옮겨 간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함께 앉는다. 포도주를 마실 때에 왕이 다시 이른다 —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또 미루어 이른다 — 내 소원, 내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왕의 은혜를 입어 왕이 내 소원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려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시면 내일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화면이 대궐 문으로 간다. 그 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다가,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아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함을 본다. 자막 — 하만이 그에게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온다. 화면이 한 집의 방으로 옮겨 간다. 하만이 사람을 보내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불러, 자기의 큰 부귀와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높여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 위에 둔 것을 다 말한다. 또 이른다 —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청한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노라. 자막 —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음을 볼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른다 — 오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긴다. 화면이 한 마당에 선 오십 규빗 높이의 나무 앞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내밀어진 금 규와 세워진 나무 — 받아들여진 접근과 자기를 위한 모의가 겹치는 장"**
- 초벌 부제: "에스더가 사흘 금식 뒤 죽음을 각오하고 보좌 앞에 서니 왕이 금 규를 내밀어 받아들이고(5:2), 소원을 묻는 왕에게 곧 청하지 않고 오늘 잔치로 또 내일 잔치로 두 번 미루어 다음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리며 — 의기양양하던 하만이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에게 분이 가득하나 참고,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말을 따라 오십 규빗 높이의 한 나무를 스스로 세우는, 받아들여진 규와 세워진 나무가 한 장에 겹치고 그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chatser·malkut·sharbit·zahav·chen·shealah·baqashah·mishteh·yayin·chemah·shaar·hon·ets·chamishshim·Zeresh 등 15+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잔치의 두 국면 + 받아들임과 거절의 마주 봄 + 삼분 구조 + ANE 금 규·잔치·교수형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5:2의 내밀어진 금 규를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고, 왕이 은혜를 베풀어 규를 내밀매 에스더가 가까이 가 끝을 만진 본문 형태로만 둠. 이름의 부재는 적되 그 의미는 비워 둠.
- 5:4·8의 두 번 미룬 잔치를 '에스더의 지혜로운 전략'으로 닫지 않고, 곧 청하지 않고 오늘로 또 내일로 미룬 사실과 그 미룸이 한 틈을 벌린 형태로만 기록. 그 까닭은 비워 둠.
- 5:9의 가득한 분을 '하만의 악함의 표지'로 단정하지 않고, 즐거이 나오다 일어나지 않는 모르드개를 보고 분이 가득해진 본문 형태로만 둠.
- 5:13의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를 '교만의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부귀로 가득한 자가 앉은 한 사람으로 비어 보인다는 한 문장으로만 보존.
- 5:14의 세워진 나무를 '자업자득의 복선'으로 미리 평하지 않고, 권유를 좋게 여겨 나무를 세웠다는 본문 형태로만 둠 — 그 위에 누가 달릴지는 이 장에서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더 5장은 사흘 금식을 마친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보좌 앞 안뜰에 서니 왕이 은혜를 베풀어 손에 잡았던 금 규를 내밀매 에스더가 가까이 가 그 끝을 만지고(5:2), 소원을 묻는 왕에게 곧 청하지 아니하고 오늘 잔치로(5:4) 또 내일 잔치로(5:8) 두 번 미루어 다음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리며 — 의기양양하던 하만이 즐거이 나오다 대궐 문에 앉은 모르드개가 일어나지도 떨지도 아니함을 보고 분이 가득하나 참고(5:9), 집에 돌아와 부귀와 자녀와 왕의 치하와 잔치의 초대를 자랑하되 앉은 한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5:13) 하매,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말을 따라 오십 규빗 높이의 한 나무를 좋게 여겨 스스로 세우는(5:14), 받아들임과 미룸과 분과 모의가 한 장에 겹치고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장이다.

한 문단: 긴장된 보좌의 안뜰. 사흘 금식을 마친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복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선다. 왕이 그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손에 잡았던 금 규를 내민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 그 끝을 만진다 — 죽음의 규례가 풀린다. 화면이 잔치로 옮겨 간다. 왕이 두 번이나 "절반의 나라라도" 물으나, 에스더는 곧 말하지 않고 오늘 잔치로, 다시 내일 잔치로 미룬다. 답이 한 박자씩 뒤로 늦춰지며 다음 밤을 향해 한 틈이 벌어진다. 화면이 대궐 문으로 간다. 즐거이 나오던 하만이 앉은 모르드개를 보고 분이 가득해진다. 참고 집에 돌아와 부귀를 자랑하나, 앉은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비어 보인다. 아내와 친구들이 권하자, 그가 좋게 여겨 한 나무를 세운다. 한 장이 한 마당에 선 오십 규빗 나무 앞에 멈춘다 —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로.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보좌의 안뜰→두 번의 포도주 잔치→분으로 뒤집히는 대궐 문→자랑과 모의의 한 집으로 옮겨 다니는 무대. 예복·금 규·잔치 상·앉은 신하·자랑의 목록·오십 규빗 나무 — 받아들임과 미룸에서 분과 모의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숨죽인 접근의 긴장. 받아들여진 안도. 미뤄진 긴장의 늦춤. 분과 모의의 무거움. 긴장·안도·서늘함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제삼일에'(1절)로 열려 '나무를 세우니라'(14절)로 닫힘. 살기를 구한 접근과 죽이려는 모의 사이에 내밀어진 금 규(2절)와 가득한 분(9절)이 갈림.
4 등장인물·사상	각오하고 나아가 받아들여진 에스더. 금 규를 내민 왕. 즐거움이 분으로 뒤집혀 나무를 세운 하만. 절하지 않은 모르드개. 권유한 세레스와 친구들. 중심은 받아들여진 자와 거절당한 자, 가득함과 비어 있음. 그 이름의 부재.
5 장면 컷	받아들여진 접근(1~2)/첫 잔치의 미룸(3~5)/둘째 잔치의 예고(6~8)/대궐 문의 분노(9)/자랑과 세워진 나무(10~14) 다섯 컷. 컷 2·3은 접근과 모의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잔치(mishteh)의 두 얼굴(미룸의 통로·자랑의 표지). 받아들임과 거절의 다른 결. 4·8절 사이의 비워진 까닭. 세워진 나무의 비워진 결말. 이름의 부재.
7 동영상	받아들여진 접근 → 첫 잔치의 미룸 → 둘째 잔치의 예고 → 대궐 문의 분노 → 자랑과 한 마당의 나무.
8 초벌 제목·부제	"내밀어진 금 규와 세워진 나무 — 받아들여진 접근과 자기를 위한 모의가 겹치는 장"
9 기도·내면	가진 가득함 속에도 앉은 한 사람 때문에 비어 보이는 곳은 없는지, 받아들여진 규와 세워진 나무가 겹치고 그 이름은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이 엮여 가던 자국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내밀어진 규와 세워진 나무**: 5장은 한 막대로 열려 다른 한 막대로 닫힌다. 앞부분은 살림이다 — 죽음을 각오하고 보좌 앞에 선 에스더에게 왕이 은혜를 베풀어 금 규를 내밀매(5:2) 그가 가까이 가 그 끝을 만진다. 부르지 않은 자를 죽이던 규례가 한 동작으로 풀린다. 뒷부분은 끊으려는 모의다 — 하만이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를 끊으려 오십 규빗 높이의 한 나무를 좋게 여겨 세운다(5:14). 본문은 한 생명을 살린 금 규와 한 생명을 끊으려 세운 나무를 같은 장의 두 끝에 둔다. 그 사이의 낙차를 설명으로 메우지 않고, 살림은 한 동작으로, 모의도 한 동작으로 적을 뿐이다. 받아들여진 규가 어떻게 세워진 나무와 한 장에 놓이는지 — 본문은 그 두 막대를 마주 둔다.

2. **결 2 — 두 번 묻고 두 번 미룸**: 본문의 또 한 갈림은 '왜 곧 말하지 않는가'다. 왕은 같은 물음을 두 번 똑같이 던진다 —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5:3·6). 에스더는 두 번 똑같이 미룬다 — 오늘 잔치로(5:4), 다시 내일 잔치로(5:8). 같은 구조가 두 번 돌면서 답이 한 박자씩 내일로 밀린다. 본문은 그 미룸의 까닭을 풀

지 않는다 — 때를 보았는지, 왕의 마음을 더 기다렸는지 적지 않는다. 그런데 그 미뤄진 한 박자가, 마침 다음 장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린다. 본문은 그 시간차의 까닭을 비워 두되, 두 번 묻고 두 번 미룬 그 반복만 또렷이 적는다.

3. **결 3 — 가득함과 한 비어 있음**: 5장의 하만은 두 결로 적힌다. 한편으로 그는 가득하다 — 부귀와 많은 자녀와 왕의 치하와, 왕후가 자기와 왕만 청한 잔치의 영예를 다 자랑한다(5:11-12). 또 한편으로 그는 비어 있다 — "그러나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음을 볼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5:13). 앉은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비어 보인다. 본문은 그 비어 있음에 옳다 그르다 판단을 붙이지 않고, 가득 가진 자의 한 비어 있음을 적을 뿐이다. 그리고 그 비어 있음이 곧 한 나무를 세우는 데까지 흘러간다 — 가득함이 한 사람으로 비어 보이는 그 결을, 본문은 평가 없이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에 4:11-16 — 부르지 않고 나아가면 죽이되 금 규를 내밀면 사는 규례와 사흘 금식 — 직전 장의 접근의 배경.
- 에 4:16 — '죽으면 죽으리이다' — 죽음을 각오한 접근(5:1-2)의 배경.
- 에 6:1-14 — 미룬 잔치가 벌린 틈으로 들어온 그 밤, 왕이 잠 못 이루고 모르드개의 공을 발견함 — 다음 장.
- 에 7:9-10 — 하만이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림 — 5:14의 나무가 돌아온 역전.
- 에 3:1-5 —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함 — 5:9 분노의 배경.
- 에 2:21-23 — 모르드개가 암살 음모를 고발해 역대 일기에 기록됨 — 6장 발견의 복선.
- 막 6:23 —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함 — 5:3 어법의 신약 장면.
- 잠 16:18 — 교만은 패망의 선봉 — 자기 나무를 세운 5:14의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9:25 — 하만의 악한 꾀가 자기 머리로 돌아감 — 부림절 회상에서 5:14의 나무를 거두는 절.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5:1의 '제삼일에 에스더가 보좌 앞에 서니'에서 시작한다 — 사흘 금식의 끝에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무게에 선다.
- **멈춤 1**: 5:2에서 멈춘다 — '왕이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 한 막대에 한 생명이 걸렸다가 풀리는 그 한 동작을 쥔다.
- **멈춤 2**: 5:13에서 멈춘다 —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가득 가진 자가 앉은 한 사람으로 비어 보이는 그 한 비어 있음을 쥔다.
- **끝**: 5:14에서 멈춘다 —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니라.' 받아들여진 규와 세워진 나무가 한 장에 겹친 그 자국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장의 밤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받아들여진 접근(1~2)·첫 잔치의 미룸(3~5)·둘째 잔치의 예고(6~8)·대궐 문의 분노(9)·자랑과 세워진 나무(10~14)의 다섯 컷 완결
- [x] 잔치(mishteh)의 두 얼굴(4·8·12절)과 같은 물음의 두 번(3·6절)·알현→잔치→모의의 삼분 구조
- [x] 금 규(5:2)와 나무(5:14)·즐거움과 분(5:9)·가득함과 비어 있음(5:11-13)의 소품 다리
- [x] 권 흐름(EST flow)의 셋째 국면 '이 때를 위함과 잔치(4~5장)' 정박과 6~7장 역전·9:22 부림절과의 거리
- [x] 6장의 밤(5:8 미룸)·7장의 나무 역전(5:14)으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EST flow 닻)

에스더서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며, destination은 9:22에 두어진 부림절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 절기다. 권의 흐름은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1~2장), 하만의 조서와 부르(제비)(3장), '이 때를 위함'과 잔치(4~5장), 잠 못 이루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 반전의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8~10장)로 움직인다. 5장은 그 셋째 국면, '이 때를 위함과 잔치(4~5장)' 한복판이다. 직전 4장에서 모르드개가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다면, 5장은 그 각오가 실제로 보좌 앞에 서고 금 규로 받아들여지는 결로 채워진다 — 진멸의 제비가 던져진 권 한가운데서, 한 백성을 위한 청원이 보좌 앞에 다다른다. 권의 intent('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잔치·시간차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심')가, 5장에서는 받아들여진 규와 두 번 미뤄진 잔치와 세워진 나무로 그 엮임을 시작한다. 그런데 5장은 그 청원을 곧장 풀지 않고 둘째 잔치로 미루며(5:8),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한 분(5:9)과 스스로 세운 한 나무(5:14)를 둔다 — 권의 heart인 '침묵 속에서도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마음'이, 5장에서는 이름이 불리지 않는 채로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맞물려 가는 결로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5장의 한 나무는 끝이 아니라 다리다 — 미룬 잔치(5:8)가 6장의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리고, 세워진 나무(5:14)가 7장의 역전을 향해 한 도구를 미리 두며, 멀리 9:22의 부림절이 권의 끝에서 그 결을 다 거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죽음을 각오하고 보좌 앞에 선 한 접근(5:1)이 금 규로 받아들여지는 데(5:2)에서, 한 청을 두 번 미루는 잔치의 시간차(5:4·8)로, 다시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한 분(5:9)과 스스로 세운 한 나무(5:14)로, 받아들여진 규와 세워진 나무가 한 장에 겹친 채로 / 한 마당의 나무에서 다음 밤의 역전으로(5:8·14) — 이름을 숨기신 손이 받아들임과 미룸과 모의를 한 방향으로 엮어 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5장은 죽음을 각오한 한 접근이 받아들여지고도 곧 풀리지 않고, 잔치로 두 번 미뤄지며 다음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리고, 한 사람의 분이 스스로 한 나무를 세우는 데로 흘러가는 운동이다. 받아들여진 접근(1~2절)이 미룬 잔치로(3~8절), 대궐 문의 분노로(9절), 자랑과 세워진 나무로(10~14절) 빠져나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에스더서는 1~2장의 등극에서 시작해 3장의 제비, 6~7장의 역전, 8~10장의 부림절로 움직이며 9:22의 뒤집힘에 닿는데, 5장은 그 셋째 국면의 한 매듭이다 — 청원이 보좌 앞에 다다르고, 우연들이 역전을 향해 모이기 시작하는 국면. 그런데 5장의 벡터는 닫히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두 손잡이를 내민다 — 8절의 '내일 잔치에'가 6장의 그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려 두고, 14절의 세워진 나무가 7장의 역전을 향해 한 도구를 마련해 둔다. 한 장이 한 나무 앞에서 멈추고, 그 멈춤이 다음 밤을 향해 두 틈을 벌린 채 선다. 미룸과 모의가 두 장의 이음매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알현과 두 잔치와 한 모의다 — 보좌 앞에 서고, 미루고, 분이 가득하고, 나무를 세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을 엮어 가는 한 손이다. 본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 — 받아들여진 금 규도, 두 번 미뤄진 잔치도, 세워진 나무도 다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힌다. 그런데 그 동작들이 묘하게 한 방향으로 맞물린다 — 미룬 잔치(5:8)가 마침 다음 밤의 한 틈을 벌리고, 하만이 세운 나무(5:14)가 마침 그를 향해 서게 된다. 둘째, 죽음을 각오한 한 접근이 받아들여지는 그 한 동작이다.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각오가, 5장에서 내밀어진 금 규(5:2)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 한 막대에 한 생명이 걸렸다 풀린다. 셋째, 가득함 속의 한 비어 있음과 그 비어 있음이 끌고 가는 모의다. 부귀로 가득한

하만이 앉은 한 사람으로 비어 보이고(5:13), 그 비어 있음이 곧 한 나무를 세우는 데까지 간다.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잔치와 시간차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는 권인데, 5장은 그 엮임이 가장 촘촘해지는 한 국면이다 — 받아들임과 미룸과 모의가 각각 다음 장의 역전을 향해 한 틈씩 벌린다. 그 이름을 끝내 적지 않은 채, 본문은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그 결을 들고 한 나무 앞에서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 나는 가진 가득함 속에도, 앉은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비어 보이는 곳은 없는가 — 부귀도 영예도 다 가진 처지에서도.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보좌 앞에서, 내밀어진 한 규를 기다려야 할 대목은 어디인가 — 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용감한 청원자가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죽음을 각오하고 보좌 앞에 선 한 왕후를 보여 주고, 그를 받아들여 금 규를 내민 한 손을 보여 주고, 소원을 곧 말하지 않고 한 박자 미루던 그 입술을 보여 주고, 즐거움이 분으로 뒤집혀 스스로 한 나무를 세운 한 마음을 새겨 둔다. 받아들임과 미룸과 분과 모의가 한 장에 겹친 이 침묵 — 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그 침묵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가득함 속에 앉은 한 사람으로 비어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보는 일,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이름이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엮여 가는 그 결 앞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받아들여진 규로 열려 세워진 나무 앞에서 멈추는데 — 그 나무 너머로 미룬 잔치(5:8)가 다음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려 두었고, 멀리 권의 끝에서 부림절(9:22)이 슬픔을 기쁨으로 뒤집은 채 드러난다. 그 멈춤과 그 뒤집힘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5장이 받아들여진 규와 세워진 나무(5:14)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내일 잔치에 오시면 그 때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5:8) 한 그 미룸이 다음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려 두니, 다음 장은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개의 공을 발견하는 그 밤으로 넘어가, 진멸의 제비가 역전을 향해 한 걸음 돌아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arbit* — 내밀어진 금 규.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긴장된 보좌의 안뜰. 자막 — 제삼일에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섭니다. 왕이 그를 보고 손에 잡았던 금 규를 내밉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 그 끝을 만집니다. 자막 — 왕이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런데 에스더가 곧 말하지 않고 청합니다 — 오늘 내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이 오소서. 화면이 첫 잔치로 옮겨 갑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왕이 다시 묻습니다 —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에스더가 또 미룹니다 — 내일 잔치에 오시면 그 때 아뢰겠나이다. 화면이 대궐 문으로 갑니다. 하만이 즐거이 나오다가, 앉은 모르드개가 일어나지도 떨지도 않음을 봅니다. 자막 — 하만이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갑니다. 화면이 한 집의 방으로 옮겨 갑니다. 하만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 부귀와 자녀와 왕의 치하와 잔치의 초대를 자랑합니다. 자막 — 그러나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음을 볼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아내와 친구들이 권합니다 — 오십 규빗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내일 그를 달기를 구하소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화면이 한 마당에 선 그 나무 앞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죽음을 각오한 한 접근이 금 규로 받아들여지는 데서 열려, 소원을 곧 말하지 않고 오늘 잔치로 또 내일 잔치로 미루며 한 틈을 벌리고 — 즐거이 나오던 한 사람이 앉은 한 사람으로 분이 가득해져, 부귀의 자랑 끝에 스스로 한 나무를 세우는, 한 마당에 선 그 나무 앞에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내밀어진 금 규와 세워진 나무 — 받아들여진 접근과 자기를 위한 모의가 겹치는 장"

P02 이진우: "두 번 묻고 두 번 미룬 잔치 — 다음 밤을 향해 벌어진 한 틈"

P04 최현국: "긴장된 보좌에서 어두운 한 집으로 — 받아들임이 분으로 가라앉다"

P05 김미영: "한 생명을 살린 막대와 한 생명을 노린 막대 — 금 규와 나무"

P07 오지혜: "받아들여진 한 사람과 절하지 않은 한 사람 — 가득함 속의 한 비어 있음"

P11 나경아: "*sharbit · ets* — 내밀어 살린 규, 세워 끊으려는 나무"

부제 제안: "에스더가 사흘 금식 뒤 죽음을 각오하고 보좌 앞에 서니 왕이 금 규를 내밀어 받아들이고(5:2), 소원을 묻는 왕에게 곧 청하지 않고 오늘 잔치로 또 내일 잔치로 두 번 미루어 다음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리며 — 의기양양하던 하만이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에게 분이 가득하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말을 따라 오십 규빗 높이의 한 나무를 스스로 세우는, 받아들여진 규와 세워진 나무가 한 장에 겹치고 그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죽음을 각오하고 보좌 앞에 섰던 한 왕후 곁으로, 그를 받아들여 금 규를 내민 그 손 곁으로, 소원을 곧 말하지 않고 한 박자 미루던 그 입술 곁으로, 그리고 즐거움이 분으로 뒤집혀 스스로 한 나무를 세우던 그 마음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 한 사람이 금 규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 한 막대에 한 생명이 걸렸다가 풀리는 그 동작을요. 또 부귀와 영예로 가득하면서도 앉은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던 한 마음과, 그 비어 있음이 스스로 한 나무를 세우는 데까지 가던 결도 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가득함 속에도, 앉은 한 사람 때문에 비어 보이는 곳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받아들여진 규와 세워진 나무가 한 장에 겹쳐 있고,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이 엮여 가던 그 결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5장은 **죽음을 각오한 접근이 받아들여지는 데서, 한 청을 두 번 미루는 시간차로, 다시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한 나무를 세우는 데로** 움직여요. 1~2절이 받아들여진 접근, 3~5절이 첫 잔치의 미룸, 6~8절이 둘째 잔치의 예고, 9절이 대궐 문의 분노, 10~14절이 자랑과 세워진 나무예요. 에스더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2장이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3장이 하만의 조서와 부르(제비), 4~5장이 '이 때를 위함'과

잔치, 6~7장이 잠 못 이루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 8~10장이 반전의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예요. 권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고요. 5장은 그 셋째 국면인 **'이 때를 위함과 잔치(4~5장)'** 한복판이에요. 4장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다면, 5장은 그 각오가 실제로 보좌 앞에 서고 받아들여지는 결이에요 — 그리고 미룬 잔치가 다음 장의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리고, 세워진 나무가 그 역전의 한 도구를 미리 마련해 둬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5:2의 *sharbit*(내밀어 살린 규)와 5:14의 *ets*(세워 끊으려는 나무)가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한 막대는 죽음을 각오한 자를 받아들이고, 한 막대는 절하지 않은 자를 끊으려 서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mishteh*(잔치 4·8절)예요 — 같은 잔치가 한 번은 미룸의 통로로, 한 번은 자랑의 표지로 갈려요. 또 하나, *chemah*(분 9절)가 즐거움 바로 뒤에 한 번 놓여, 다음 장들에서 그 분이 어디로 돌아오는지를 향해 한 결을 미리 둬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알현과 두 잔치와 한 모의예요 — 보좌 앞에 서고, 미루고, 분이 가득하고, 나무를 세워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가는 한 손 같아요. 본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 받아들여진 금 규도, 두 번 미뤄진 잔치도, 세워진 나무도 다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혀요. 그런데 그 동작들이 묘하게 한 방향으로 맞물려요 — 미룬 잔치가 마침 다음 밤의 한 틈을 벌리고, 하만이 세운 나무가 마침 그를 향해 서게 돼요.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잔치와 시간차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는 권인데, 5장은 그 엮임이 가장 촘촘해지는 한 매듭이에요 — 받아들임과 미룸과 모의가 각각 다음 장의 역전을 향해 한 틈씩 벌려요. 권의 끝(9:22)에서야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힌 부림절로 그 결이 다 거둬지는데, 5장은 그 뒤집힘을 향해 우연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한 국면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왕이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2절)와 "오십 규빗 나무를 세우니라"(14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한 생명을 살린 막대고, 한쪽은 한 생명을 끊으려 세운 막대예요. 같은 장에서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끊으려 나무를 세워요. 더 큰 긴장은, 모든 일이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히는데 그 동작들이 묘하게 한 방향으로 맞물린다는 거예요 — 이름은 불리지 않는데, 미룬 잔치도 세워진 나무도 다음 장의 무언가를 향해 서 있어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세워진 그 나무 위에 누가 달리게 될지는, 다음 장들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받아들여진 한 접근에서 세워진 한 나무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긴장된 보좌의 접근(1~2절)이 미룬 잔치로(3~8절), 대궐 문의 분노로(9절), 자랑과 세워진 나무로(10~14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5장이 끝나며 한 마당의 나무 앞에 서요 — 오십 규빗 높이의 그 장대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리고 그 미룬 잔치가 곧바로 다음 장으로 두 손잡이를 내밀어요** — 8절의 '내일 잔치에'가 6장의 그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려 두고, 14절의 세워진 나무가 다음 장들의 역전을 향해 한 도구를 마련해 둬요. 한 장이 한 나무 앞에서 멈추는데, 그 멈춤이 다음 밤을 향해 두 틈을 벌린 채 서 있어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8절과 14절이 다음을 미는 두 손 같아요. 8절의 '내일 잔치에 오시면 그 때 아뢰겠나이다'와 14절의 '나무를 세우니라'요. 죽음을 각오한 접근도, 받아들여진 금 규도, 두 번 미룬 잔치도 다 한 박자 뒤로 답을 미뤘어요. 저는 한 사람이 받아들여진 같은 장이, 마지막엔 한 사람을 끊으려는 나무로 닫히는 그 결이 무거워요 — 살린 막대와 끊으려는 막대가 한 장에 겹친 그 자국이요. 그런데 바로 그 미룸과 그 나무가 다음 장의 밤을 향해 서 있어요. 그 이음이 어디로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받아들여진 접근에서 두 번 미룬 잔치로, 대궐 문의 분노에서 세워진 나무로 — 그 미룸과 그 나무가 곧바로 다음 밤의 역전을 향해 두 틈을 벌리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

갑니다. 죽음을 각오한 한 접근이 받아들여지고, 한 청이 두 번 미뤄져 다음 밤을 향해 틈이 벌어졌어도, 그 엮임은 권의 끝(9:22)에서야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힌 부림절로 그 결을 다 거둡니다. 다음 장은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개의 공을 발견하는 그 밤으로 이어지며, 미룬 잔치가 벌린 틈으로 역전의 경첩이 들어섭니다.

에스더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5:1-2 — 받아들여진 금 규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제삼일에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보좌 앞에 서니(1절), 왕이 은혜를 베풀어 손에 잡았던 금 규를 내밀매 에스더가 가까이 가 그 끝을 만진다(2절). 본문은 그가 왜 은혜를 입었는지를 풀어 적지 않는다 — 왕의 마음이 어떻게 기울었는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로 닫지 않고, 죽음을 각오한 한 접근이 한 동작으로 받아들여진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이름은 여기서도 불리지 않은 채 둔다.

Q2. 5:4·5:8 — 소원을 두 번 미룬 까닭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왕이 두 번 "절반의 나라라도 주겠노라"(3·6절) 묻되, 에스더가 곧 청하지 않고 오늘 잔치로(4절), 다시 내일 잔치로(8절) 미룬다. 본문은 그 두 번 미룬 까닭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때를 보았는지, 왕의 마음을 더 기다렸는지, 하만을 한 번 더 같은 상에 두려 했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지혜로운 전략'으로 닫지 않고, 두 번 묻고 두 번 미룬 사실과 그 미룸이 한 틈을 벌린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까닭은 비워 둔다.

Q3. 5:9 — 즐거움이 분으로 뒤집힌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하만이 그 날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다가, 대궐 문에 앉은 모르드개가 일어나지도 떨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분이 가득하나 참는다(9절). 본문은 그 기쁨과 분이 한 호흡에 뒤집힌 까닭을 길게 풀지 않는다. 이 일을 '악인의 본성'으로 단정하지 않고, 즐거이 나오다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분이 가득해진 본문 형태로만 보존 — 즐거움과 분이 한 문장에 붙은 그 나란함만 둔다.

Q4. 5:11-13 — 가득함 속의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하만이 부귀와 자녀와 왕의 치하와 잔치의 초대를 다 자랑하되(11~12절), "그러나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음을 볼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13절) 한다. 본문은 왜 가득함이 한 사람으로 비어 보이는지를 길게 풀지 않는다. 이 일을 '교만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가득 가진 자가 앉은 한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이 비어 보인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5:14 — 스스로 세운 나무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오십 규빗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내일 모르드개를 그 위에 달기를 구하라"(14절) 하매,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 나무를 세운다. 본문은 이 일을 옳다거나 그르다고 평하지 않는다 — 한 사람을 끊으려 세운 그 나무에 어떤 판단도 붙이지 않는다. 이 일을 '자업자득의 복선'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고, 권유를 좋게 여겨 나무를 세웠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위에 누가 달릴지는 이 장에서 비워 둔다.

Q6. 5장 전체 — 이름의 부재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받아들여진 금 규도(2절), 두 번 미뤄진 잔치도(4·8절), 세워진 나무도(14절) 다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 장에도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 본문은 그 부재를 설명하거나 메우지 않는다 — '숨어 계심'이라고도, '부재'라고도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한 신학으로 닫지 않고,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맞물리되 그 이름은 적히지 않은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침묵을 그대로 둔다. 다음 장의 역전을 향한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에스더 *6*장*)*으로 이월한다.

에스더 6장

EST-006 · 역사서 · 히브리어

>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역대 일기를 읽히다가, 모르드개가 시해 음모를 고발하고도 아무 상을 받지 못한 일이 드러나니*(6:1-3)* — 마침 자기가 세운 나무에 그를 달기를 구하러 들어온 하만이, 자기를 높이려는 줄로 알고 답한 그 영예를 도리어 모르드개에게 손수 행하며 거리에서 외치게 되고*(6:11)* —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돌아온 그에게 아내 세레스와 지혜자들이 '반드시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6:13)* 하여 몰락을 예고하는 — 잠 못 드는 한 밤이 권 전체의 경첩이 되어, 미뤄졌던 보상이 정확히 이 밤에 펼쳐지고 자기를 높이려던 자가 원수를 높이게 되는, 이름을 숨기신 손이 역전을 돌려세우는 장.

관찰된 사실

에스더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잠이 달아난 왕의 침소(1~3절)→마침 하만이 든 왕궁 바깥뜰(4~6절)→왕복을 입은 한 사람이 지나는 성중 거리(10~11절)→머리를 싸고 돌아온 하만의 집(12~13절)으로 옮겨 다님. 묻힌 공이 떠오른 한 밤에서 한 사람이 가라앉는 한 집으로.
- 무대의 방향: 고요한 한 밤의 발견이 어긋난 헤아림을 거쳐, 거리의 뒤집힌 영예와 한 집의 예고로 출렁임.
- 소품: 역대 일기(1절), 묻혔던 고발(2절), 왕의 말(8절), 왕복(8절), 거리의 외침(11절), 싸맨 머리(12절).
- 소품의 도드라짐: 묻혔던 공을 떠올린 두루마리(1절)와 그 공에 입혀진 왕복(11절) — 떠올림의 종이와 입힘의 옷이 같은 밤의 두 끝에 놓임.
- 소재의 결: 처음은 떠오름(그 밤·일기·읽힘·고발·못 받음), 가운데는 영예(존귀·왕복·말·거리·외침), 끝은 뒤집힘과 가라앉음(손수 입힘·번뇌·머리 쌈·엎드러짐).
- 형식 소재: 존귀하게 함(yaqar 3·6·7·9·11절)의 거듭됨, 자기를 위해 그린 영예(왕복·말 8절)와 원수에게 놓인 영예(10~11절)의 어긋남, 묻힌 기록(2절)과 떠오른 보상(11절)의 마주 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고요한 한 밤의 공기 — 잠이 달아나 두루마리를 읽히고(1절), 묻혔던 한 공이 소리로 천천히 떠오름.
- 어긋난 헤아림의 시림 — 자기를 높이려 영예를 늘어놓는데(6~9절), 그 영예가 어디로 갈지 독자가 이미 짐작함.
- 뒤집힌 거리의 환함 — 자기 손으로 원수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고삐를 끄는 한 동작(11절).
- 가라앉는 한 집의 무거움 — 머리를 싸고 돌아오고(12절), 한 예고가 떨어짐(13절).
- 고요('그 밤에' 1절)·어긋남('나 외에 누구리요' 6절)·뒤집힘('이같이 할 것이라' 11절)의 세 어조.
-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니라'(12절) — 의기양양하던 자가 한 사람의 영예 끝에 가라앉아 더 무거움.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 한 사람의 잠이 달아나는 작은 데서 열려, 한 사람이 급히 잔치로 끌려가는 데로 닫힘 — 묻힘이 떠오르는 시작과 다음이 시작되는 끝.
- '그 밤에'(1절)는 한 작은 우연, '엎드러지리이다'(13절)는 한 큰 몰락의 예고 — 본문은 왜 하필 그 밤에 잠이 달아났는지를 적지 않고 사건을 잇댐.
- 1절(불면)과 14절(부름) 사이에 3절(받지 못한 영예)과 11절(채워진 영예)이 묻힘과 떠오름으로 마주 봄.
- 고요한 침소(1~3절)에서 급한 문간(13~14절)으로 — 한 밤이 묻힌 공을 떠올리고, 영예가 뒤집혀 거리를 지나, 예고가 떨어지자 다음 잔치로 불려 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왕 아하수에로(잠이 달아나 일기를 읽히고·묻힌 공을 발견해 물음·하만을 불러 명함), 모르드개(묻힌 고발의 주인·상 못 받은 충신·왕복을 입고 말에 오름), 하만(나무를 구하러 온 손님·'나 외에 누구리요' 헤아림·손수 말고삐를 끔·머리를 싸고 번뇌함), 두 내시 비그단과 데레스(일기에 적힌 음모의 배경 인물), 세레스와 지혜자들(머리를 싼 하만에게 몰락을 예고함), 왕의 내시들(하만을 급히 잔치로 데려감), 그리고 무대 뒤의 이름 — 이 장에도 한 번도 불리지 않은 한 분.
- 중심 사상: '미뤄졌던 보상과 떠오른 보상'과 '자기를 위함과 원수를 위함' — 상 못 받은 모르드개의 공(3절)이 마침 그 밤에 떠올라 정확히 그에게 보상이 돌아오고(11절), 자기를 높이려 그린 하만의 영예(6~9절)가 그대로 원수의 머리에 놓임(10~11절). 본문이 그 뒤집힘에 판단을 길게 붙이지 않음.
- 두 국면의 물음: 왕의 물음(6절,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랴)과 하만의 답(7~9절, 왕복·말·외침의 항목) — 속의 자만이 먼저 적히고 입의 목록이 그 위에 쌓임.
- 묻힘과 떠오름의 마주 봄: 못 받았던 영예의 빈 곳(3절)와 정확히 그 사람에게 채워지는 영예(11절) — 미뤄졌던 보상이 한 밤에 채워짐.
- 두루마리(1절)·왕복(8절)·말(8절): 묻힌 공을 떠올린 종이와 그 공에 입혀진 옷과 그가 오른 말이 한 장에 놓임.
- yaqar(존귀 6절)와 naphal(엎드러짐 13절): 한 사람에게 채워지는 영예와 한 사람에게 예고된 추락이 한 장의 두 끝에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잠 못 든 밤의 발견 — 잠이 안 와 일기를 읽힘(1), 모르드개의 고발이 적혀 있음(2), "무슨 존귀를 받았느냐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나이다"(3).
- 컷 2 (4~5절): 마침 뜰에 든 하만 — "누가 뜰에 있느냐"(4), 마침 나무에 달기를 구하러 든 하만을 들이라 함(5).
- 컷 3 (6~9절): 어긋난 물음과 답 —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랴"(6), '나 외에 누구리요' 헤아리고 왕복·말·외침을 늘어놓음(7~9).
- 컷 4 (10~11절): 뒤집힌 거리의 영예 — "속히 모르드개에게 그대로 행하라"(10), 손수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 거리로 이끌며 외침(11).

• 컷 5 (12~14절): 머리를 싸고 떨어진 예고 — 모르드개는 대궐 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머리를 싸고 집으로 감(12), "반드시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13), 내시들이 하만을 잔치로 급히 데려감(14).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enah*(שְׁנָה) — 잠(1절). 왕에게서 달아난 잠. / *nadad*(נָדַד) — 달아나다(1절).

• *sefer hazzikronot*(סֵפֶר הַזִּכְרֹנוֹת) — 역대 일기·기념의 책(1절). 묻힌 공이 적힌 두루마리.

• *yeqar*(יְקָר) — 존귀·영예(3·6절). 왕이 묻고 거리에서 외쳐진 그 영예. / *gedullah*(גְּדוּלָּה) — 높임·큼(3절).

• *lebush malkut*(לְבוּשׁ מַלְכוּת) — 왕복(8절). 한 사람에게 입혀진 옷. / *sus*(סוּס) — 말(8절). 영예의 표지.

• *qara*(קָרָא) — 외치다·선포하다(9절). 거리에서 큰 소리로. / *chaphah*(חָפָה) — 가리다·싸다(12절). 머리를 쌈.

• *naphal*(נָפַל) — 엎드러지다(13절). 세레스가 예고한 동작. / *chakam*(חָכָם) — 지혜자(13절). / *Zeresh* — 세레스(13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불면의 밤(1~3절)→어긋난 물음과 답(4~9절)→뒤집힌 영예와 예고(10~14절)의 삼분 구조 — 형태 관찰.

• 물음의 두 국면: 왕의 물음(6절, 어떻게 하랴)→하만의 답(7~9절, 왕복·말·외침) — 속말이 먼저, 항목이 그 위에 길게 쌓임.

• 자기를 위함과 원수를 위함의 어긋남: 하만이 그린 영예(6~9절)와 모르드개에게 놓인 영예(10~11절) — 그린 입과 입은 어깨가 어긋남.

• 묻힘과 떠오름: 못 받은 공(2~3절)과 떠올라 채워진 보상(11절)이 같은 밤의 두 끝에서 마주 봄 — 미뤄짐과 펼쳐짐의 대비.

• 존귀와 엎드러짐: 채워지는 영예(yaqar 6·11절)와 예고된 추락(naphal 13절)의 거리 — 한 사람의 높임과 다른 결의 낮춤,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역대 일기 — 페르시아 궁정에서 왕의 치세와 공적을 적어 두던 공식 기록, 충신의 공과 상이 등재되던 행정 정황. 1~2절의 배경.

• 왕복과 왕의 말 — 왕의 의복과 말을 신하에게 입히고 태우는 일이 최고의 궁정 영예로 베풀어지던 정황. 8~9절의 배경.

• 거리의 선포 — 한 사람을 말에 태워 거리로 끌며 그 영예를 큰 소리로 알리던 공개 의례 정황. 11절의 배경.

• 바깥뜰의 알현 — 이른 아침 뜰에 들어 왕에게 청을 올리려 기다리던 궁정 출입 정황. 4절의 배경.

• 머리를 쌈 — 수치와 슬픔에 머리를 가리던 동방의 관습 정황. 12절의 배경.

• 지혜자의 자문 — 권세가가 길흉을 묻던 자문 집단이 궁정과 가문에 딸려 있던 정황. 13절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에 6장 ↔ 에 5:14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오십 규빗 나무를 세움 — 6:4에서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러 들어옴, 직전 장의 배경)

• 에 6:2-3 ↔ 에 2:21-23 (모르드개가 두 내시의 음모를 고발해 역대 일기에 기록됨 — 발견의 복선)

- 에 6:10-11 ↔ 에 3:1-2 (왕이 하만을 높여 모든 신하 위에 둠 — 그 높임이 모르드개에게 돌아가는 역전의 배경)
- 에 6:13 ↔ 에 7:9-10 (하만이 세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림 — 6장 굴욕의 다음 걸음)
- 에 6:1 ↔ 시 121:4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 잠 못 든 한 밤과 닿는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6:13 ↔ 삼상 2:7-8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손 — 영예가 갈리는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6:6 ↔ 잠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 — 자기를 높이려다 원수를 높인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6:11 ↔ 잠 27:2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라 — 자기를 그린 입의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6장 ↔ 에 9:22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 — 부림절 회상에서 이 역전이 거두어지는 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고요한 한 밤의 침소. 자막 —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힌다. 등불 아래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모르드개가 두 내시 비그단과 데레스의 시해 음모를 고발한 일이 거기 적혀 있음이 읽힌다. 자막 — 왕이 묻는다, 이 일로 모르드개가 무슨 존귀와 관작을 받았느냐. 신하들이 답한다 —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묻는다 —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구하러 바깥뜰에 들어와 있다. 왕이 그를 들이라 한다. 화면이 왕 앞으로 옮겨 간다. 왕이 하만에게 묻는다 —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마음에 이른다 — 왕이 나 외에 누구를 높이려 하랴. 하만이 답한다 — 왕복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며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가장 존귀한 신하 중 하나가 그 옷과 말을 가져다가 그를 성중 거리로 이끌며 그 앞에서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자막 — 왕이 이른다, 너는 네 말대로 속히 그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그대로 행하되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라. 화면이 성중 거리로 간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손수 그 말을 끌며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외친다 —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화면이 두 사람의 갈림길에서 멈춘다. 모르드개는 대궐 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간다. 화면이 한 집의 방으로 옮겨 간다. 하만이 그 당한 일을 다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한다. 그의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 세레스가 이른다 — 모르드개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자막 — 그들이 아직 말하는 중에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간다. 화면이 급히 끌려 나가는 한 문간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잠 못 드는 한 밤 — 미뤄졌던 보상이 펼쳐지고 자기를 높이려던 자가 원수를 높이는 장"**
- 초벌 부제: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히다가 모르드개가 상 못 받은 일이 드러나고(6:3), 마침 나무에 그를 달기를 구하러 든 하만이 자기를 높이려는 줄로 알고 답한 그 영예를 도리어 손수 모르드개에게 입혀 거리에서 외치게 되며(6:11), 머리를 싸고 돌아온 그에게 세레스와 지혜자들이 '반드시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6:13) 예고하는, 잠 못 드는 작은 밤이 권 전체의 경첩이 되고 그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henah·nadad·sefer hazzikronot·yeqar·gedullah·lebush malkut·sus·qara·chaphah·naphal·chakam·Zeresh 등 12+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yaqar의 어긋난 여정 + 네 번 겹친 '마침' + 삼분 구조 + ANE 역대 일기·왕복·거리 선포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6:1의 잠 못 듦을 '하나님이 잠을 거두신 섭리'로 단정하지 않고, 왕에게서 잠이 달아나 역대 일기를 읽힌 본문 형태로만 둠. 이름의 부재는 적되 그 의미는 비워 둠.
- 6:3의 못 받은 보상을 '하나님이 때를 위해 아껴 두신 상'으로 닫지 않고, 모르드개가 고발하고도 아무 존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그 밤에 드러난 형태로만 기록. 그 까닭은 비워 둠.
- 6:6의 '나 외에 누구리요'를 '하만의 악함의 본성'으로 단정하지 않고, 같은 물음을 듣고 자기를 떠올린 본문 형태로만 둠.
- 6:11의 손수 입힌 왕복을 '자업자득의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명령대로 손수 입히고 끌고 외쳤다는 동작 형태로만 보존 — 그 마음은 비워 둠.
- 6:13의 세레스와 지혜자들의 예고를 '하나님의 판결의 대언'으로 미리 평하지 않고, 그들이 '반드시 엎드러지리이다' 말했다는 본문 형태로만 둠 — 그 예고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이 장에서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더 6장은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여 역대 일기를 자기 앞에서 읽히다가 모르드개가 시해 음모를 고발하고도 아무 존귀를 받지 못한 일이 드러나고(6:3), 마침 자기가 세운 나무에 그를 달기를 구하러 든 하만이 '왕이 나 외에 누구를 높이려 하랴' 헤아리며 왕복·말·거리의 외침을 늘어놓되(6:6-9), 왕이 그 영예를 그대로 대궐 문의 모르드개에게 행하라 명하매 하만이 손수 왕복을 입히고 말을 끌며 거리에서 외치고(6:11),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돌아온 그에게 아내 세레스와 지혜자들이 '반드시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6:13) 예고하니 말이 끝나기 전에 내시들이 그를 잔치로 급히 데려가는, 잠 못 드는 작은 밤이 권 전체를 한 바퀴 돌려세우고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장이다.

한 문단: 고요한 한 밤의 침소. 잠이 달아난 왕이 역대 일기를 읽힌다. 묻혀 있던 한 공이 소리로 다시 떠오른다 — 모르드개가 시해 음모를 고발했으나 아무 상도 받지 못했다. 마침 그때 하만이 나무에 그를 달기를 구하러 뜰에 들어와 있다. 왕이 그를 불러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랴" 묻는다. 하만은 자기를

떠올리며 왕복과 말과 거리의 외침을 늘어놓는다. 그런데 왕은 그 영예를 그대로 모르드개에게 행하라 명한다. 하만이 손수 왕복을 입히고, 말을 끌며, 거리에서 외친다. 화면이 두 사람의 갈림길에서 멈춘다 — 한 사람은 대궐 문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머리를 싸고 집으로 간다. 아내와 지혜자들이 한 몰락을 예고하자, 말이 끝나기 전에 내시들이 그를 잔치로 급히 데려간다. 한 장이 급히 끌려 나가는 한 문간에서 멈춘다 —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로.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잠 못 든 침소→마침 하만이 든 바깥뜰→왕복을 입은 한 사람이 지나는 거리→머리를 싼 한 집으로 옮겨 다니는 무대. 역대 일기·묻힌 고발·왕의 말·왕복·거리의 외침·싸맨 머리 — 떠오름과 영예에서 뒤집힘과 가라앉음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고요한 한 밤. 어긋난 헤아림의 시림. 뒤집힌 거리의 환함. 가라앉는 한 집. 고요·어긋남·뒤집힘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그 밤에'(1절)로 열려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14절)로 닫힘. 작은 우연과 큰 예고 사이에 받지 못한 영예(3절)와 채워진 영예(11절)가 마주 봄.
4 등장인물·사상	잠이 달아나 일기를 읽힌 왕. 묻힌 공이 떠올라 왕복을 입은 모르드개. 자기를 그리다 원수를 높이고 머리를 싼 하만. 음모의 배경 두 내시. 몰락을 예고한 세레스와 지혜자들. 중심은 미뤄졌던 보상과 떠오른 보상, 자기를 위함과 원수를 위함. 그 이름의 부재.
5 장면 컷	불면의 밤과 발견(1~3)/마침 든 하만(4~5)/어긋난 물음과 답(6~9)/뒤집힌 거리의 영예(10~11)/머리를 싼 예고(12~14) 다섯 컷. 컷 3·4는 발견과 예고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존귀(yaqar)의 어긋난 여정(빈 곳·자기 그림·원수의 머리). 네 번 겹친 '마침'의 맞물림. 6:1의 비워진 까닭. 손수 끈 말고삐의 비워진 마음. 이름의 부재.
7 동영상	잠 못 든 밤의 발견 → 마침 든 하만 → 어긋난 물음과 답 → 뒤집힌 거리의 영예 → 머리를 싼 예고와 급한 부름.
8 초벌 제목·부제	"잠 못 드는 한 밤 — 미뤄졌던 보상이 펼쳐지고 자기를 높이려던 자가 원수를 높이는 장"
9 기도·내면	내가 그리는 영예가 정작 누구를 향해 있는지, 묻힌 듯한 공도 떠올려 주실 한 밤을 기다리는지, 작은 밤이 큰 경첩이 되고 그 이름은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이 정확히 맞물려 가던 자국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묻힌 기록과 떠오른 보상**: 6장은 한 두루마리로 열린다. 잠이 달아난 왕 앞에서 역대 일기가 읽히자(6:1), 오래전 묻혔던 한 공이 다시 소리가 된다 — 모르드개가 시해 음모를 고발했으나 아무 존귀도 받지 못했다(6:3). 빈 곳가 드러나는 순간, 본문은 곧장 그 빈 곳를 채운다. 같은 밤에 왕복이 그에게 입혀지고(6:11), 못 받았던 보상이 정확히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본문은 그 공이 왜 그토록 오래 묻혀 있었는지를 설명으로 메우지 않는다 — 다만 묻힘은 한 빈 곳로, 떠오름은 한 동작으로 적을 뿐이다. 미뤄졌던 보상이 어떻게 마침 그 밤에 채워지는지 — 본문은 그 묻힘과 떠오름을 같은 밤의 두 끝에 둔다.

2. **결 2 — 자기를 그린 입과 어긋난 머리**: 본문의 또 한 갈림은 '누구를 위한 영예인가'다. 왕은 한 물음을 던진다 —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랴"(6:6). 하만은 그 물음을 자기 것으로 읽는다 — '나 외에 누구리요' 헤아리며 왕복·말·거리의 외침을 길게 늘어놓는다(6:7-9). 그런데 그 그림은 그대로 다른 머리에 놓인다 — 왕이 "모르드개에게 그대로 행하라"(6:10) 명하고, 하만은 손수 그 옷을 원수에게 입힌다. 본문은 그

어긋남의 까닭을 풀지 않는다 — 왜 하만이 자기를 떠올렸는지, 손수 끌 때 무엇을 느꼈는지 적지 않는다. 다만 자기를 그린 입과 그 그림이 놓인 어깨가 한 박자 어긋났다는 사실만 또렷이 적는다.

3. **결 3 — 작은 우연과 정확한 맞물림**: 6장의 사건들은 한 어귀에 정확히 모인다. 마침 그 밤에 왕의 잠이 달아나고(6:1), 마침 그 묻힌 기록이 읽히고(6:2), 마침 모르드개가 상을 못 받은 것이 드러나고(6:3), 마침 그때 하만이 나무를 구하러 뜰에 들어와 있다(6:5). '마침'이 네 번 겹친다. 본문은 이 맞물림에 '섭리다'라고 이름 붙이지 않는다 — 다만 한 박자도 어긋나지 않게 우연들을 잇대어 적을 뿐이다. 그리고 그 우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 진멸을 향하던 흐름이 여기서 역전을 향해 돌아선다. 본문은 그 이름을 끝내 비워 두되, 우연들이 정확히 한 어귀에 모이는 그 결만 담담히 적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에 5:14 —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오십 규빗 나무를 세움 — 6:4에서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러 든 직전 장의 배경.
- 에 2:21-23 — 모르드개가 두 내시의 음모를 고발해 역대 일기에 기록됨 — 6:2-3 발견의 복선.
- 에 3:1-2 — 왕이 하만을 높여 모든 신하 위에 둠 — 그 높임이 모르드개에게 돌아가는 역전의 배경.
- 에 7:9-10 — 하만이 세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림 — 6장 굴욕의 다음 걸음.
- 시 121:4 —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 잠 못 든 한 밤(6:1)과 닿는 한 결, 배경으로만.
- 삼상 2:7-8 —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손 — 영예가 갈리는 한 결, 배경으로만.
- 잠 16:18 — 교만은 패망의 선봉 — 자기를 높이려다 원수를 높인 6:6의 한 결, 배경으로만.
- 잠 27:2 —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라 — 자기를 그린 입의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9:22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 — 부림절 회상에서 6장의 역전이 거두어지는 절.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6:1의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에서 시작한다 — 한 사람의 눈이 감기지 않는 그 작은 밤의 어귀에 선다.
- **멈춤 1**: 6:3에서 멈춘다 — '무슨 존귀를 받았느냐,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나이다.' 묻혀 있던 한 공의 빈 곳을 쥔다.
- **멈춤 2**: 6:11에서 멈춘다 —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입히고.' 자기를 위해 그린 영예를 손수 원수에게 베푸는 그 어긋난 동작을 쥔다.
- **끝**: 6:13에서 멈춘다 —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잠 못 든 한 밤이 한 큰 몰락의 예고로 닫힌 그 자국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잔치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불면의 밤과 발견(1~3)·마침 든 하만(4~5)·어긋난 물음과 답(6~9)·뒤집힌 거리의 영예(10~11)·머리를 싼 예고(12~14)의 다섯 컷 완결
- [x] 존귀(yaqar 3·6·11절)의 어긋난 여정과 네 번 겹친 '마침'(1·2·3·5절)·불면→물음→역전의 삼분 구조
- [x] 역대 일기(6:1)와 왕복(6:11)·존귀와 엎드러짐(6:3·13)·자기를 그린 입과 원수의 머리(6:6·10)의 소품 다리
- [x] 권 흐름(EST flow)의 넷째 국면 '불면의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 첫 장(회전축) 정박과 9:22 부림절과의 거리
- [x] 7장의 나무 역전(6:13 예고)·둘째 잔치(6:14 급한 부름)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EST flow 닻)

에스더서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며, destination은 9:22에 두어진 부림절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 절기다. 권의 흐름은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1~2장), 하만의 조서와 부르(제비)(3장), '이 때를 위함'과 잔치(4~5장), 불면의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 반전의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8~10장)로 움직인다. 6장은 그 넷째 국면, '불면의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의 첫 장 — 권 전체의 회전축이다. 직전 5장에서 에스더가 한 청을 두 번 미뤄 다음 밤을 향해 한 틈을 벌려 두었다면, 6장은 그 틈으로 들어온 잠 못 드는 밤이 권 전체를 정확히 한 바퀴 돌려세우는 결로 채워진다 — 진멸의 제비가 던져진 권에서, 흐름이 처음으로 역전을 향해 돌아선다. 권의 intent('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불면의 밤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심')가, 6장에서는 달아난 잠과 떠오른 보상과 뒤집힌 영예로 그 회전을 시작한다. 그런데 6장은 그 역전을 단번에 끝내지 않고 한 예고로 둔다 — 세레스와 지혜자들의 '반드시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6:13)가 7장의 몰락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밀고, 내시들의 급한 부름(6:14)이 둘째 잔치를 향해 또 한 손잡이를 내민다. 권의 heart인 '침묵 속에서도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마음'이, 6장에서는 이름이 불리지 않는 채로 우연들이 정확히 한 방향으로 맞물려 가는 결로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6장의 잠 못 든 밤은 끝이 아니라 경첩이다 — 미뤄졌던 보상이 펼쳐지고, 자기를 높이려던 자가 원수를 높이며, 멀리 9:22의 부림절이 권의 끝에서 그 결을 다 거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잠이 달아난 한 밤에 묻힌 공이 떠오르는 데(6:1-3)에서, 자기를 높이려 그린 영예가 원수에게 그대로 뒤집혀 놓이는 데(6:10-11)로, 다시 머리를 싸고 한 몰락이 예고되는 데(6:13)로, 작은 우연이 권 전체의 경첩이 된 채로 / 한 문간의 급한 부름에서 다음 잔치의 역전으로(6:14) — 이름을 숨기신 손이 불면과 떠오름과 뒤집힘을 정확히 한 방향으로 엮어 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6장은 한 사람의 잠이 달아난 작은 우연이 묻힌 공을 떠올려 미뤄졌던 보상을 채우고, 자기를 높이려던 한 사람이 그 영예를 도리어 원수에게 손수 베풀며, 머리를 싼 굴욕 끝에 한 몰락이 예고되는 데로 흘러가는 운동이다. 고요한 침소의 발견(1~3절)이 어긋난 물음으로(6~9절), 뒤집힌 거리로(10~11절), 싸맨 머리와 예고로(12~13절) 빠져나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에스더서는 1~2장의 등극에서 시작해 3장의 제비, 4~5장의 잔치, 8~10장의 부림절로 움직이며 9:22의 뒤집힘에 닿는데, 6장은 그 흐름이 처음으로 역전을 향해 돌아서는 회전축이다 — 진멸을 향하던 권이 여기서 구원을 향해 한 바퀴 돈다. 그런데 6장의 벡터는 닫히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두 손잡이를 내민다 — 13절의 '엎드러지리이다'가 7장의 그 몰락을 향해 한 예고를 던져 두고, 14절의 '잔치로 급히'가 에스더의 둘째 잔치로 곧장 이어진다. 한 장이 한 문간에서 멈추고, 그 멈춤이 다음 잔치를 향해 두 손을 내민 채 선다. 예고와 부름이 두 장의 이음매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불면의 밤과 한 어긋난 물음과 한 뒤집힌 영예다 — 잠이 달아나고, 헤아리고, 손수 입히고, 머리를 싼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을 정확히 엮어 가는 한 손이다. 본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 — 달아난 잠도, 읽힌 두루마리도, 마침 든 하만도, 뒤집힌 왕복도 다 사람의 동작과 우연으로만 적힌다. 그런데 그 우연들이 한 박자도 어긋나지 않고 한 어귀에 모인다 — '마침'이 네 번 겹친다(6:1-5). 둘째, 미뤄졌던 보상이 정확히 그 밤에 펼쳐지는 한 결이다. 2장에서 묻혔던 모르드개의 공이, 6장의 한 밤에 떠올라 그에게 왕복으로 입혀진다(6:11) — 빈 곳가 한 동작으로 채워진다. 셋째, 자

기를 높이려던 자가 도리어 원수를 높이게 되는 역전의 아이러니다. 하만이 자기를 위해 그린 영예가 그대로 모르드개의 머리에 놓이고(6:10), 그가 손수 그 옷을 입힌다 — 그린 입과 입은 어깨가 한 박자 어긋난다.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불면과 시간차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는 권인데, 6장은 그 엮임이 마침내 한 바퀴를 도는 회전축이다 — 미뤄졌던 보상과 뒤집힌 영예와 예고된 몰락이 각각 다음 장의 결말을 향해 한 걸음씩 돌아선다. 그 이름을 끝내 적지 않은 채, 본문은 우연들이 정확히 한 방향으로 모이는 그 결을 들고 한 문간에서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 나는 내가 그리는 영예가 정작 누구를 향해 있는가 — '나 외에 누구리요' 헤아리는 그 한순간이, 도리어 다른 한 사람의 머리에 영예를 그려 주는 손은 아닌가. 그리고 내 공이 묻혀 있는 듯한 때에도, 그것을 떠올려 주실 한 밤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가 — 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겸손한 사람이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잠이 달아난 한 밤에 묻힌 공을 떠올린 한 손을 보여 주고, 자기를 높이려 영예를 그리다 도리어 원수를 높이게 된 한 마음을 보여 주고, 손수 왕복을 입히고 말고삐를 끌던 그 어긋난 동작을 보여 주고, 머리를 싸고 돌아와 한 예고를 듣던 그 어귀를 새겨 둔다. 불면과 떠오름과 뒤집힘이 한 장에 겹친 이 침묵 — 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그 침묵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그리는 영예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보는 일, 묻힌 듯한 공도 떠올려 주실 한 밤을 기다릴 수 있는지 묻는 일, 그리고 이름이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우연들이 정확히 한 방향으로 엮여 가는 그 결 앞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잠 못 든 밤으로 열려 급히 끌려 나가는 한 문간에서 멈추는데 — 그 문간 너머로 한 예고(6:13)가 다음 장의 몰락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밀었고, 멀리 권의 끝에서 부림절(9:22)이 진멸을 구원으로 뒤집은 채 드러난다. 그 멈춤과 그 뒤집힘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6장이 머리를 싼 굴욕과 예고된 몰락(6:13)으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말이 그치기도 전에 내시들이 하만을 잔치로 급히 데려가니(6:14), 다음 장은 에스더의 둘째 잔치에서 하만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가 세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는 역전으로 넘어가, 이 밤에 시작된 뒤집힘이 손에 잡히는 결말로 향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enah* — 달아난 잠, 역전이 열린 한 밤.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고요한 한 밤의 침소. 자막 —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힙니다. 등불 아래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모르드개가 시해 음모를 고발한 일이 읽힙니다. 자막 — 왕이 묻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개가 무슨 존귀를 받았느냐.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묻습니다 —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나무에 그를 달기를 구하러 바깥뜰에 들어와 있습니다. 화면이 왕 앞으로 옮겨 갑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랴. 하만이 속으로 헤아립니다 — 나 외에 누구리요. 하만이 왕복과 말과 거리의 외침을 늘어놓습니다. 자막 — 왕이 이릅니다, 속히 그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그대로 행하라. 화면이 성중 거리로 갑니다. 하만이 손수 왕복을 모르드개에게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손수 끌며 외칩니다 — 이같이 할 것이라. 화면이 두 사람의 갈림길에서 멈춥니다. 모르드개는 대궐 문으로 돌아가

고, 하만은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화면이 한 집의 방으로 옮겨 갑니다. 하만이 당한 일을 다 말하자, 세레스와 지혜자들이 이릅니다 —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자막 — 말이 아직 그치기 전에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잔치로 급히 데려갑니다. 화면이 급히 끌려 나가는 한 문간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잠이 달아난 한 밤에 묻힌 공이 떠오르는 데서 열려, 자기를 높이려던 한 사람이 그 영예를 도리어 손수 원수에게 입히고 거리로 끄는 데로 뒤집히며 — 머리를 싸고 돌아온 그에게 한 예고가 떨어지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잔치로 급히 불려 가는, 급히 끌려 나가는 한 문간에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잠 못 드는 한 밤 — 미뤄졌던 보상이 펼쳐지고 자기를 높이려던 자가 원수를 높이는 장"

P02 이진우: "헤아린 영예와 어긋난 머리 — 자기를 그린 입이 원수를 높이다"

P04 최현국: "고요한 침소에서 급한 문간으로 — 떠오른 보상이 굴욕으로 뒤집히다"

P05 김미영: "떠올린 두루마리와 입혀진 왕복 — 묻힌 공이 한 밤에 채워지다"

P07 오지혜: "네 번의 '마침' — 우연들이 한 어귀에 정확히 모이는 밤"

P11 나경아: "*yeqar · naphal* — 채워진 존귀, 예고된 엎드러짐"

부제 제안: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히다가 모르드개가 상 못 받은 일이 드러나고(6:3), 마침 나무에 그를 달기를 구하러 든 하만이 자기를 높이려는 줄로 알고 답한 그 영예를 도리어 손수 모르드개에게 입혀 거리에서 외치게 되며(6:11), 머리를 싸고 돌아온 그에게 세레스와 지혜자들이 '반드시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6:13) 예고하는, 잠 못 드는 작은 밤이 권 전체의 경첩이 되고 그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잠이 달아난 한 밤에 묻힌 공을 떠올린 그 손 곁으로, 자기를 높이려 영예를 그리다 도리어 원수를 높이게 된 그 마음 곁으로, 손수 왕복을 입히고 말고삐를 끌던 그 동작 곁으로, 그리고 머리를 싸고 돌아와 한 예고를 듣던 그 어귀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잠이 달아난 한 밤에 묻혀 있던 한 공이 다시 떠올라 정확히 그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 미뤄졌던 것이 한 밤에 채워지는 그 맞물림을요. 또 자기를 높이려 영예를 그리던 한 사람이, 그 그림을 도리어 자기 손으로 원수에게 입히고 거리로 끌던 그 어긋남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리는 영예가 정작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그리고 제 공이 묻혀 있는 듯한 때에도 그것을 떠올려 주실 한 밤을 기다리는 마음을 들고 머물겠습니다. 잠 못 드는 작은 밤이 큰 뒤집힘의 경첩이 되고,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이 정확히 한 방향으로 맞물려 가던 그 결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6장은 **잠 못 든 한 밤에 묻힌 공이 떠오르는 데서, 자기를 높이려 그린 영예가 원수에게 뒤집혀 놓이는 데로, 다시 머리를 싸고 한 몰락이 예고되는 데로** 움직여요. 1~3절이 불면의 밤과 발견, 4~5절이 마침 든 하만, 6~9절이 어긋난 물음과 답, 10~11절이 뒤집힌 거리의 영예, 12~14절이 싸맨 머리와 예고예요. 에스더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2장이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3장이 하만의 조서와 부르(제비), 4~5장이 '이 때를 위함'과 잔치, 6~7장이 불면의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 8~10장이 반전의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예요. 권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고요. 6장은 그 넷째 국면인 **'불면의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의 첫 장이에요 — 권의 회전축이에요. 5장에서 미룬 잔치가 한 틈을 벌려 두었다면, 6장은 그 틈으로 들어온 잠 못 드는 밤이 권 전체를 정확히 한 바퀴 돌려세우는 결이에요 — 진멸을 향하던 흐름이 여기서 역전을 향해 돌아서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6:3과 6:11의 *yeqar*(존귀)가 한 장의 두 어귀에서 호응해요 — 한 번은 받지 못한 영예의 빈 곳로(3절), 한 번은 정확히 그 사람에게 채워지는 영예로(11절). 미뤄졌던 한 존귀가 그 밤에 그 머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6:1의 *nadad*(달아난 잠)가 그 모든 맞물림의 첫 단추예요 — 한 사람의 잠이 떠난 그 작은 일에서 권의 역전이 열려요. 또 하나, 6:13의 *naphal*(엎드러지다)이 한 장의 끝에 한 번 놓여, 다음 장에서 그 예고가 어디로 가는지를 향해 한 결을 미리 둬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불면의 밤과 한 어긋난 물음과 한 뒤집힌 영예예요 — 잠이 달아나고, 헤아리고, 손수 입히고, 머리를 싸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을 정확히 엮어 가는 한 손 같아요. 본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 달아난 잠도, 읽힌 두루마리도, 마침 든 하만도, 뒤집힌 왕복도 다 사람의 동작과 우연으로만 적혀요. 그런데 그 우연들이 한 박자도 어긋나지 않고 한 어귀에 모여요 — '마침'이 네 번 겹쳐요(1·2·3·5절).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잔치와 시간차와 불면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는 권인데, 6장은 그 엮임이 마침내 한 바퀴를 도는 회전축이에요 — 미뤄졌던 보상이 떠오르고, 자기를 높이려던 자가 원수를 높이며, 진멸을 향하던 흐름이 구원을 향해 돌아서요. 권의 끝(9:22)에서야 진멸의 제비가 부림절로 다 거둬지는데, 6장은 그 뒤집힘이 처음으로 손에 잡히는 한 매듭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1절)와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13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한 사람의 눈이 감기지 않은 작은 우연이고, 한쪽은 한 사람의 큰 몰락이 예고된 어귀예요. 같은 장에서 한 작은 밤이 한 큰 뒤집힘을 열어요. 더 큰 긴장은, 모든 일이 사람의 동작과 우연으로만 적히는데 그 우연들이 정확히 한 방향으로 맞물린다는 거예요 — 이름은 불리지 않는데, 달아난 잠도 마침 든 하만도 어긋난 헤아림도 다음의 무언가를 향해 정확히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예고된 그 '엎드러짐'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다음 장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잠 못 든 한 밤의 발견에서 머리를 싸고 떨어진 한 예고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고요한 침소의 발견(1~3절)이 어긋난 물음으로(6~9절), 뒤집힌 거리로(10~11절), 싸맨 머리와 예고로(12~13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6장이 끝나며 한 문간에 서요 — 급히 끌려 나가는 그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고가, 그리고 그 급한 부름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두 손잡이를 내밀어요** — 13절의 '엎드러지리이다'가 7장의 그 몰락을 향해 한 예고를 던져 두고, 14절의 '급히 잔치로'가 에스더의 둘째 잔치(다음 장)로 곧장 이어져요. 한 장이 한 문간에서 멈추는데, 그 멈춤이 다음 잔치를 향해 두 손을 내민 채 서 있어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13절과 14절이 다음을 미는 두 손 같아요. 13절의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와 14절의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요. 잠 못 든 밤도, 떠오른 보상도, 뒤집힌 영예도 다 한 사람의 몰락을 향해 한 걸음 돌아섰어요. 저는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 그린 영예를 손수 원수에게 입힌 그 어긋남이 무거워요 — 그린 입과 입은 어깨가 갈린 그 자국이요. 그런데 바로 그 어긋남과

그 예고가 다음 장의 잔치를 향해 서 있어요. 그 이음이 어디로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잠 못 든 밤의 발견에서 뒤집힌 거리의 영예로, 머리를 싼 굴욕에서 떨어진 예고로 — 그 예고와 그 급한 부름이 곧바로 다음 잔치의 역전을 향해 두 손을 내미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잠 못 드는 한 밤이라는 작은 우연이 권 전체의 경첩이 되어 미뤄졌던 보상이 펼쳐지고 자기를 높이려던 자가 원수를 높이게 되었어도, 그 엮임은 권의 끝(9:22)에서야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힌 부림절로 그 결을 다 거둡니다. 다음 장은 에스더의 둘째 잔치에서 하만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가 세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는 역전으로 이어지며, 이 밤에 시작된 몰락이 손에 잡히는 결말로 향합니다.

에스더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6:1 — 잠 못 든 그 밤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자기 앞에서 읽힌다(1절). 본문은 왜 하필 그 밤에 잠이 달아났는지를 풀어 적지 않는다 — 무엇이 그를 깨워 두었는지, 왜 하필 그 두루마리를 택했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하나님이 잠을 거두신 섭리의 증거'로 닫지 않고, 한 사람의 잠이 달아나 일기를 읽힌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이름은 여기서도 불리지 않은 채 둔다.

Q2. 6:3 — 미뤄졌던 보상의 빈 곳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왕이 "이 일로 모르드개가 무슨 존귀를 받았느냐" 물으매, 신하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나이다"(3절) 답한다. 본문은 왜 그 공이 그토록 오래 묻혀 있었는지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잊혔는지, 미뤄졌는지, 아껴졌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때를 위해 예비된 상'으로 미리 닫지 않고, 고발하고도 아무 존귀를 못 받은 사실과 그것이 마침 그 밤에 드러난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까닭은 비워 둔다.

Q3. 6:6 — 자기를 떠올린 헤아림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랴" 묻자, 하만이 마음에 이르되 "왕이 나 외에 누구를 높이려 하랴"(6절) 여기고 그 영예의 항목을 늘어놓는다. 본문은 그가 왜 그렇게 헤아렸는지를 길게 풀지 않는다. 이 일을 '악인의 본성'으로 단정하지 않고, 같은 물음을 듣고 자기를 떠올린 본문 형태로만 보존 — 속말은 한 어구로 짧게 비추고, 그 판단은 비워 둔다.

Q4. 6:10-11 — 원수에게 손수 베푼 영예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왕이 "속히 모르드개에게 그대로 행하라"(10절) 명하매, 하만이 손수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 거리로 이끌며 외친다(11절). 본문은 그 순간 하만의 마음을 적지 않는다 —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얼굴이었는지에 어떤 말도 붙이지 않는다. 이 일을 '자업자득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명령대로 손수 입히고 끌고 외쳤다는 동작 형태로만 보존 — 그 비워진 마음을 그대로 둔다.

Q5. 6:13 — 세레스와 지혜자들의 예고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아내 세레스와 지혜자들이 "모르드개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13절) 한다. 본문은 그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단정했는지를 길게 풀지 않는다 — 두려움이었는지, 길흉의 판단이었는지 적지 않는다. 이 일을 '하나님의

판결의 대언'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고, 그들이 '반드시 엎드러지리이다' 말했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예고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이 장에서 비워 둔다.

Q6. 6장 전체 — 이름의 부재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달아난 잠도(1절), 떠오른 보상도(3·11절), 마침 든 하만도(5절), 뒤집힌 영예도(11절) 다 사람의 동작과 우연으로만 적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 장에도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 본문은 그 부재를 설명하거나 메우지 않는다 — '숨어 계심'이라고도, '부재'라고도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한 신학으로 닫지 않고, 우연들이 정확히 한 방향으로 맞물리되 그 이름은 적히지 않은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침묵을 그대로 둔다. 다음 장의 역전을 향한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에스더 7장)*으로 이월한다.

에스더 7장

EST-007 · 역사서 · 히브리어

> 둘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마침내 미루지 않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7:3)* 하여 숨겼던 자기 민족을 한 단어로 드러내고,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7:6)* 가리키니 — 왕이 진노하여 후원으로 나가고, 하만은 왕후의 침상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다 강박하는 줄로 오해받으며 — 하르보나가 하만이 세운 나무를 아뢰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 왕의 노가 그치는*(7:10)*, 5장에서 스스로 세운 덫이 정확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역전이 완결되고 그 이름은 끝까지 불리지 않는 장.

관찰된 사실

에스더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둘째 잔치의 포도주 상(1~6절)→진노한 왕이 잠시 물러난 왕궁 후원(7절)→다시 그 잔치의 상으로 돌아와 한 나무 앞에서 멈추는 마당(8~10절)으로 옮겨 다님. 환대의 상에서 처형의 끝으로.
- 무대의 방향: 환한 잔치의 폭로가 진노로 팽팽해졌다가, 후원의 어스름을 한 바퀴 돌아, 불려 나온 한 나무 앞에서 한 점으로 닫힘.
- 소품: 포도주의 잔치 상(1~2절), '내 생명과 내 민족'의 두 단어(3절), 가리키는 손가락(6절), 왕궁 후원(7절), 기댄 의자·침상(8절), 오십 규빗 나무(9~10절).
- 소품의 도드라짐: 생명과 민족을 묶은 두 단어(3절)와 세워졌다 돌아온 나무(9~10절) — 청원의 두 말과 역전의 막대가 같은 장의 두 끝에 놓임.
- 소재의 결: 처음은 폭로(내 생명·내 민족·대적·이 악한 하만), 가운데는 진노와 혼란(일어남·후원·구걸·엎드림·오해), 끝은 역전(하르보나·세운 나무·매달라·노가 그침).
- 형식 소재: 왕의 같은 물음('소원이 무엇이냐 절반의 나라라도' 7:2)이 5장(5:3·6)에서 셋째로 건너옴, 5:14의 세워진 나무가 7:9-10에서 돌아옴, 진노(chemah 7절)가 shakak(그침 10절)로 가라앉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눌러 둔 폭로의 터짐 — 두 번 미룬 청이 셋째 물음에서 마침내 풀림(2~3절).
- 날 선 지목의 직면 —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6절), 한 손가락이 한 사람을 짚음.
- 어수선한 진노와 혼란 — 왕이 일어나 후원으로 나가고, 하만이 침상에 엎드려 구걸하다 오해받음(7~8절).
- 단호한 역전의 닫힘 — 세운 나무가 불려 나와 자기에게 돌아가고, 왕의 노가 그침(9~10절).
- 풀림('마침내 답함' 3절)·직면('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6절)·단호함('노가 그치니라' 10절)의 세 어조.
-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4절) — 한 호흡에 쌓인 세 동사가 폭로의 무게를 짙게 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 10절: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 왕과 하만이 함께 한 잔치에 나아가는 데서 열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매달리는 데로 닫힘 — 나란히 앉은 시작과 매달린 끝.
- '함께 또'(1절)는 한 상에 나란한 결, '나무에 다니'(10절)는 한 사람이 끊어진 결 — 본문은 그 사이 왕의 마음과 하만의 엎드림의 까닭을 풀지 않고 일을 잇댐.
- 1절(함께 앉음)과 10절(매달림) 사이에 3절(생명과 민족의 청원)과 6절(대적의 지목)이 두 입을 둘로 가름.
- 환한 잔치(1~2절)에서 어두운 한 나무 앞(10절)으로 — 한 잔치가 폭로로 팽팽해지고, 진노를 거쳐, 한 나무가 불려 나와 한 사람이 매달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에스더(셋째 물음에 미루지 않고 자기 생명과 민족을 드러냄·대적을 짚음), 왕 아하수에로(셋째로 소원을 묻고·진노하여 후원으로 나갔다 돌아와 오해하고·처형을 명함), 하만(청함받은 손님·짚인 대적·침상에 엎드려 구걸함·자기 나무에 매달림), 하르보나(세운 나무를 아뢴 내시), 무대 밖의 모르드개(그를 위해 세워졌던 나무가 그를 죽이려던 자에게로 돌아감), 그리고 무대 뒤의 이름 — 이 장에도 한 번도 불리지 않은 한 분.
- 중심 사상: '드러냄과 돌아옴' — 숨겨 온 민족이 한 단어로 드러나고(3절), 짚지 않던 대적이 한 손으로 가리켜짐(6절). 5장에서 세워진 나무가 정확히 세운 사람에게로 돌아감(9~10절). 본문이 그 돌아옴에 '자업자득'의 평을 붙이지 않음.
- 두 단의 폭로: 민족의 드러냄(1~4절, 묻고 생명·민족을 청하며 진멸을 알림)과 대적의 지목(5~6절, "누구냐" 묻고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짚음) — 미룬 같은 물음이 셋째로 와서야 풀림.
- 떼이지 않는 생명과 민족: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3절) — 자기 목숨과 백성을 한 호흡에 묶음.
- 두 단어(3절)·나무(9~10절): 생명과 민족을 묶은 청원과 세웠다 돌아온 막대가 한 장에 놓임.
- chemah(진노 7절)와 shakak(그침 10절): 일어난 진노가 역전의 끝에서 가라앉는 두 결이 한 장의 처음과 끝에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다시 묻는 둘째 잔치 — 왕과 하만이 또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감(1), 포도주의 국면에서 셋째로 소원을 물으며 절반의 나라라도 함(2).
- 컷 2 (3~4절): 드러난 민족 — 미루지 않고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청하고(3), 우리가 팔려서 죽임·도륙·진멸을 당하게 되었다 알림(4).
- 컷 3 (5~6절): 짚인 대적 — 왕이 "누구며 어디 있느냐" 물으매(5),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가리키니 하만이 두려워함(6).
- 컷 4 (7~8절): 진노와 엎드림과 오해 — 왕이 진노하여 일어나 후원으로 나가고, 하만이 생명을 구하려 침상에 엎드림(7), 돌아온 왕이 강박으로 오해하매 하만의 얼굴이 싸임(8).
- 컷 5 (9~10절): 불려 나온 나무와 매달림 — 하르보나가 하만이 세운 오십 규빗 나무를 아뢰매(9), 왕이 명하여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니 왕의 노가 그침(10).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ishteh*(מִשְׁתֶּה) — 잔치(2절). 폭로와 역전이 한 마당. / *yayin*(יַיִן) — 포도주(2절).
- *shealah*(שְׁאֵלָה) — 소원(2절). / *baqashah*(בַּקָּשָׁה) — 요구(2절). / *chatsi malkut* — 나라의 절반(2절).
- *nefesh*(נֶפֶשׁ) — 생명(3절). 먼저 청한 자기 목숨. / *am*(עַם) — 민족(3절). 같은 호흡에 묶은 백성.
- *makar*(מָכַר) — 팔리다(4절). / *shamad*(שָׁמַד) — 진멸하다(4절). / *harag*(הָרַג) — 죽이다(4절). 한 호흡에 쌓인 세 동사.
- *tsar*(צַר) — 대적(6절). / *oyeb*(אוֹיֵב) — 원수(6절). / *ra*(רַע) — 악한(6절). 하만을 짚은 세 말.
- *chemah*(חֵמָה) — 진노(7절). / *ginnah*(גִּנָּה) — 후원(7절). / *mittah*(מִטָּה) — 침상(8절). / *ets*(עֵץ) — 나무(9절). / *talah*(תָּלָה) — 매달다(10절). / *shakak*(שָׁכַךְ) — 그치다(10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폭로(1~6절)→진노와 혼란(7~8절)→역전(9~10절)의 삼분 구조 — 형태 관찰.
- 폭로의 두 단: 민족의 드러냄(1~4절, 묻고 생명·민족을 청하며 진멸을 알림)→대적의 지목(5~6절, "누구냐" 묻고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짚음) — 미룬 물음이 셋째로 풀림.
- 5장과의 호응: 왕의 같은 물음(5:3·6→7:2)이 셋째로 건너오고, 세워진 나무(5:14→7:9-10)가 돌아옴 — 두 시간차가 한 장에서 거둬짐.
- 두 단어와 나무: 생명·민족을 묶은 청원(3절)과 세웠다 돌아온 막대(9~10절)가 장의 두 끝에서 마주 봄 — 묶음과 돌아옴의 대비.
- 진노와 그침: chemah(일어난 진노 7절)와 shakak(가라앉은 노 10절)의 거리 — 한 분이 솟았다 가라앉는 액자,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포도주의 잔치 — 궁정 연회가 청원과 결정이 오가던 정치적 국면이었던 정황. 1~2절의 배경.
- 나라의 절반 — 왕이 환대의 절정에서 쓰던 과장된 하사 어법. 2절의 배경.
- 왕궁 후원 — 왕궁에 딸린 정원, 진노한 왕이 잠시 물러난 공간. 7절의 배경.
- 기댄 의자·침상 — 페르시아 연회에서 비스듬히 기대어 먹고 마시던 와상 정황. 8절의 배경.
- 교수와 나무 — 죄인을 높은 장대 위에 본보기로 내걸던 페르시아 형벌 정황. 9~10절의 배경.
- 왕의 진노와 즉결 — 왕이 진노하면 신하의 생사가 곧바로 갈리던 궁정 정황. 7·10절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에 7장 ↔ 에 5:14 (하만이 모르드개를 위해 오십 규빗 나무를 세움 — 7:9-10에서 그 나무가 자기에게로 돌아온 역전의 배경)
- 에 7:2 ↔ 에 5:4-8 (에스더가 첫 잔치로 또 둘째 잔치로 두 번 미룸 — 7장이 그 미룬 청을 마침내 푸는 배경)
- 에 7:4 ↔ 에 3:8-11 (하만이 한 민족을 진멸하려 은을 내고 조서를 받음 —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나이다'의 배경)
- 에 7장 ↔ 에 6:1-14 (왕이 잠 못 이룬 밤에 모르드개의 공을 발견하고 하만이 도리어 그를 높임 — 몰락의 직전 복선)

- 에 7:10 ↔ 에 6:13 (세레스가 '하만이 그 앞에 엎드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함 — 몰락의 예고)
- 에 7:10 ↔ 에 9:25 (하만의 악한 꾀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 그를 나무에 단 일 — 부림절 회상에서 그 나무를 거두는 절)
- 에 7장 ↔ 에 9:22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부림절 — 이 장의 역전이 향하는 권의 destination)
- 에 7:10 ↔ 시 7:15-16 (웅덩이를 파고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짐 —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린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7:10 ↔ 잠 26:27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짐 — 같은 결, 배경으로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둘째 날의 잔치 상. 자막 —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간다. 둘째 날에 잔치의 포도주를 마실 때에 왕이 다시 묻는다 —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번에는 에스더가 미루지 않는다. 그가 대답한다 —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막 —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른다, 감히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리킨다 —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한다. 자막 — 왕이 진노하여 일어나 잔치 상을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간다. 화면이 잔치 상에 홀로 남은 하만에게 머문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보고, 일어나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한다. 화면이 다시 후원에서 돌아온 왕에게로 옮겨 간다. 왕이 잔치 상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댄 의자에 엎드려 있다. 자막 — 왕이 이른다, 그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싼다. 그때 내시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뢴다 —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을 한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하만이 세운 오십 규빗 높이의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왕이 이른다 —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 화면이 한 마당으로 옮겨 간다. 사람들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단다. 자막 — 그제야 왕의 노가 그친다. 화면이 그 나무에 매달린 한 사람 앞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내 생명과 내 민족 — 미룬 청이 풀리고 세운 나무가 돌아온 장"**
- 초벌 부제: "에스더가 둘째 잔치의 셋째 물음에 마침내 미루지 않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7:3) 하여 숨겼던 민족을 한 호흡에 드러내고,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7:6) 가리키니 — 왕이 진노하여 후원으로 나가고 하만이 침상에 엎드려 구걸하다 강박으로 오해받으며 — 하르보나가 세운 나무를 아뢰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 왕의 노가 그치는, 스스로 세운 덫이 정확히 돌아오고 그 이름은 끝까지 불리지 않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mishteh·yayin·shealah·baqashah·nefesh·am·makar·shamad·harag·tsar·oyeb·ra·chemah·ginnah·mittah·kabash·ets·talah·shal 등 19+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나무의 두 방향 + 5장과의 호응 + 삼분 구조 + ANE 잔치·후원·교수형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7:3의 생명과 민족을 묶은 청을 '믿음의 본보기'로 단정하지 않고, 셋째 물음에 미루지 않고 자기 목숨과 백성을 한 호흡에 청한 본문 형태로만 둠. 이름의 부재는 적되 그 의미는 비워 둠.
- 7:6의 대적 지목을 '정의의 승리'로 닫지 않고, 그동안 짚지 않던 이름을 당사자 앞에서 한 손으로 가리킨 사실의 형태로만 기록. 그 동기는 비워 둠.
- 7:7-8의 진노와 후원과 오해를 '하나님의 개입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고, 진노하여 나갔다 돌아와 침상에 엎드린 하만을 강박으로 본 본문 형태로만 둠 — 그 짧은 사이 왕의 마음은 비워 둠.
- 7:9의 하르보나의 아룀을 '섭리의 손'으로 끌고 가지 않고, 마침 그곳의 한 내시가 그 나무를 아뢨다는 한 사실로만 보존.
- 7:10의 '왕의 노가 그치니라'와 돌아온 나무를 '자업자득의 교훈'으로 미리 평하지 않고,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고 그제야 노가 그쳤다는 본문 형태로만 둠 — 그 돌아옴을 일으킨 손은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더 7장은 둘째 잔치의 셋째 물음에 에스더가 마침내 미루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7:3) 하여 그동안 숨겨 온 자기 민족을 목숨과 한 호흡에 묶어 드러내고, "우리가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7:4) 하매 — 왕이 진노하여 "누구냐" 묻고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7:6) 가리키니 하만이 두려워하며, 왕이 일어나 후원으로 나간 사이 하만이 침상에 엎드려 생명을 구하다 돌아온 왕에게 강박하는 줄로 오해받고(7:7-8), 내시 하르보나가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세운 나무를 아뢰매 왕이 명하여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다니 왕의 노가 그치는(7:10), 폭로와 진노와 역전이 한 장에 겹치고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장이다.

한 문단: 둘째 날의 잔치 상. 왕과 하만이 또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간다. 포도주를 마실 때 왕이 셋째로 "절반의 나라라도" 묻는다. 이번에 에스더는 미루지 않는다. 자기 목숨을 청하면서 같은 호흡에 자기 백성을 묶는다 — 내 생명을, 내 민족을. 그러고는 진멸의 위기를 세 동사로 쌓는다. 왕이 진노하여 "누구냐" 묻자, 에스더가 한 손으로 짚는다 —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왕이 일어나 후원으로 나간다. 잔치 상에 홀로 남은 하만이 침상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한다. 돌아온 왕이 그 광경을 강박으로 본다. 그때 하르보나가 한 나무를 아뢴다. 왕이 명한다 — 그 나무에 매달라.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세워진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린다. 그제야 왕의 노가 그친다 —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로.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둘째 잔치의 포도주 상→진노한 왕의 왕궁 후원→다시 그 상으로 돌아와 한 나무 앞에서 멈추는 무대. 포도주 상·'내 생명과 내 민족'·가리키는 손가락·후원·기댄 의자·오십 규빗 나무 — 폭로에서 역전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눌러 둔 폭로의 터짐. 날 선 지목의 직면. 어수선한 진노와 혼란. 단호한 역전의 닫힘. 풀림·직면·단호함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함께 또'(1절)로 열려 '나무에 다니'(10절)로 닫힘. 함께 앉은 상과 매달린 나무 사이에 생명·민족의 청원(3절)과 대적의 지목(6절)이 두 입을 가름.
4 등장인물·사상	미루지 않고 생명·민족을 드러내 대적을 짚은 에스더. 진노하여 처형을 명한 왕. 짚여 구걸하다 자기 나무에 매달린 하만. 나무를 아뢴 하르보나. 무대 밖의 모르드개. 중심은 드러냄과 돌아옴. 그 이름의 부재.
5 장면 컷	다시 묻는 둘째 잔치(1~2)/드러난 민족(3~4)/짚인 대적(5~6)/진노와 엎드림과 오해(7~8)/불려 나온 나무와 매달림(9~10) 다섯 컷. 컷 4는 폭로와 역전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나무(ets)의 두 방향(세움·돌아옴). 떼이지 않는 생명과 민족. 7·8절 사이의 비워진 마음. 마침 그 곁의 하르보나. 이름의 부재.
7 동영상	다시 묻는 둘째 잔치 → 드러난 민족 → 짚인 대적 → 진노와 엎드림과 오해 → 불려 나온 나무와 매달림.
8 초벌 제목·부제	"내 생명과 내 민족 — 미룬 청이 풀리고 세운 나무가 돌아온 장"
9 기도·내면	미뤄 둔 채 드러내지 못한 한 청은 없는지, 누군가를 끊으려 세워 둔 한 나무는 없는지, 드러난 민족과 돌아온 나무가 겹치고 그 이름은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이 엮여 가던 자국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세운 나무가 돌아옴**: 7장은 5장에서 세워진 한 나무로 닫힌다. 5:14에서 하만은 모르드개를 끊으려 오십 규빗 높이의 한 나무를 좋게 여겨 세웠다. 그 나무가 7장에서 다시 불려 나온다 — 하르보나가 아뢰고(7:9), 왕이 명하여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매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7:10). 같은 한 나무가, 한 장에서는 한 사람을 끊으려는 도구였다가, 다음 장에서는 세운 사람을 끊는 도구가 된다. 본문은 그 돌아옴에 '자업자득'이라는 평을 붙이지 않는다 — 그 역전을 일으킨 손이 누구인지도 적지 않는다. 세움(5:14)과 매달림(7:10) 사이에 6장의 밤이 끼어 있을 뿐, 본문은 그 호를 사람의 동작으로만 잇댄다. 세워진 나무가 어떻게 세운 사람에게로 돌아오는지 — 본문은 그 두 절을 한 호로 마주 둔다.

2. **결 2 — 세 번 묻고 마침내 답함**: 본문의 또 한 갈림은 '미룸이 끝나는 대목'다. 왕은 같은 물음을 세 번째로 던진다 —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7:2)는 5:3·6의 그 물음이다. 5장에서 에스더는 두 번 다 미뤘다 — 오늘 잔치로, 다시 내일 잔치로. 7장에서는 미루지 않는다 —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7:3). 같은 물음이 세 번째로 와서야 답으로 풀린다. 본문은 그가 왜 이번엔 미루지 않았는지를 풀지 않는다 — 6장의 밤을 알았는지, 때가 무르익었다 여겼는지 적지 않는다. 그런데 그 미룸이 끝나는 한 박자가, 곧 역전의 문을 연다. 두 번 미룬 같은 물음이 셋째로 풀리는 그 매듭을, 본문은 까닭을 비워 둔 채 또렷이 적는다.

3. **결 3 — 떼이지 않는 생명과 민족**: 7장의 에스더는 두 단어를 떼지 않는다. 자기 목숨만 구할 수도 있었으련만, 그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7:3) 하여 자기와 백성을 한 호흡에 묶는다. 그리고 그 민족이 처한 처지를 세 동사로 쌓는다 —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7:4). 한 사람의 생명 청원이, 한 민족의 진멸 위기와 떼이지 않고 한 문장에 묶인다. 본문은 그 묶음에 칭찬도 평가도

붙이지 않고, 생명과 민족이 한 호흡에 청해진 그 사실만 적는다. 그리고 그 떼이지 않음이 곧 한 대적을 짚는 데까지 흘러간다 — 자기와 백성을 묶은 그 결을, 본문은 평가 없이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에 5:14 — 하만이 모르드개를 위해 오십 규빗 나무를 세움 — 7:9-10에서 그 나무가 자기에게로 돌아온 역전의 배경.
- 에 5:4-8 — 에스더가 첫 잔치로 또 둘째 잔치로 두 번 미룸 — 7장이 그 미룬 청을 마침내 푸는 둘째 잔치의 배경.
- 에 3:8-11 — 하만이 한 민족을 진멸하려 은을 내고 조서를 받음 — 7:4의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나이다'의 배경.
- 에 6:1-14 — 왕이 잠 못 이룬 밤에 모르드개의 공을 발견하고 하만이 도리어 그를 높임 — 7장 몰락의 직전 복선.
- 에 6:13 — 세레스가 '하만이 그 앞에 엎드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함 — 7장 몰락의 예고.
- 에 9:25 — 하만의 악한 꾀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 그를 나무에 단 일 — 부림절 회상에서 7:10의 나무를 거두는 절.
- 에 9:22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부림절 — 7장의 역전이 향하는 권의 destination.
- 시 7:15-16 — 웅덩이를 파고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짐 —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린 7:10의 한 결, 배경으로만.
- 잠 26:27 —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짐 — 7:10의 한 결, 배경으로만.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7:1의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에서 시작한다 — 어제도 함께였고 오늘도 함께 앉는 그 둘째 잔치의 상에 선다.
- **멈춤 1**: 7:3에서 멈춘다 —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기 목숨과 백성을 한 호흡에 묶어 청하는 그 떼이지 않는 두 단어를 쥔다.
- **멈춤 2**: 7:6에서 멈춘다 —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동안 짚지 않던 이름을 당사자 앞에서 한 손으로 가리키는 그 직면을 쥔다.
- **끝**: 7:10에서 멈춘다 —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세운 나무가 세운 사람에게로 돌아온 그 자국이 어디로 가는지, 아직 거리에 살아 있는 조서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다시 묻는 둘째 잔치(1~2)·드러난 민족(3~4)·짚인 대적(5~6)·진노와 엎드림과 오해(7~8)·불려 나온 나무와 매달림(9~10)의 다섯 컷 완결
- [x] 왕의 같은 물음의 셋째(5:3·6→7:2)와 떼이지 않는 생명·민족(3절)·폭로→진노→역전의 삼분 구조
- [x] 생명·민족의 청원(7:3)과 돌아온 나무(7:10)·진노와 그침(7:7·10)·대적의 지목(7:6)의 소품 다리
- [x] 권 흐름(EST flow)의 넷째 국면 '불면의 밤·역전·하만 몰락(6~7장)' 정박과 5:14 세움·9:22 부림절과의 거리
- [x] 8장의 반전 조서(7:4 남은 위기)·9:25 나무 회상(7:10)으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EST flow 닻)

에스더서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며, destination은 9:22에 두어진 부림절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 절기다. 권의 흐름은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1~2장), 하만의 조서와 부르(제비)(3장), '이 때를 위함'과 잔치(4~5장), 잠 못 이루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 반전의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8~10장)로 움직인다. 7장은 그 넷째 국면, '불면의 밤·역전·하만 몰락(6~7장)'의 완성이다. 직전 6장에서 왕이 잠 못 이룬 밤에 모르드개의 공을 발견하고 하만이 도리어 그를 거리로 인도하며 첫 뒤집힘이 시작됐다면, 7장은 그 뒤집힘이 하만의 몰락으로 완결되는 결로 채워진다 — 5장에서 스스로 세운 나무가 정확히 자기에게로 돌아온다(7:10). 권의 intent('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잔치·시간차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심')가, 7장에서는 미룬 청이 풀리는 폭로와 후원의 오해와 돌아온 나무로 그 엮임을 한 매듭으로 거둔다. 그런데 7장은 권을 곧장 닫지 않고 한 위기를 남긴다 — 하만은 끊어졌어도 그가 받아 낸 진멸의 조서(7:4)가 아직 거리에 살아 있다. 권의 heart인 '침묵 속에서도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마음'이, 7장에서는 이름이 불리지 않는 채로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맞물려 역전이 완결되는 결로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7장의 매달린 나무는 끝이 아니라 다리다 — 5장의 세움(5:14)이 7장의 매달림으로 거둬지고, 남은 조서(7:4)가 8장의 반전을 향해 한 틈을 두며, 멀리 9:22의 부림절이 권의 끝에서 그 결을 다 거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미뤄 온 한 청이 셋째 물음에서 마침내 풀리는 폭로(7:3·6)에서, 진노하여 후원으로 나간 왕과 침상에 엎드린 하만의 혼란(7:7-8)으로, 다시 스스로 세운 나무가 정확히 돌아오는 역전(7:10)으로, 폭로와 진노와 매달림이 한 장에 거둬진 채로 / 한 마당의 매달린 나무에서 다음 장의 반전 조서로(7:4·10) — 이름을 숨기신 손이 미룬 청과 세운 나무를 한 매듭으로 거두어 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7장은 두 번 미룬 한 청이 셋째 물음에서 풀리며 민족이 드러나고 대적이 짚이는 폭로에서, 진노와 후원과 오해의 혼란을 거쳐, 한 사람이 스스로 세운 나무에 매달리는 역전으로 흘러가는 운동이다. 환한 잔치의 폭로(1~6절)가 후원의 진노와 혼란으로(7~8절), 불려 나온 나무와 매달림으로(9~10절) 빠져나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에스더서는 1~2장의 등극에서 시작해 3장의 제비, 4~5장의 잔치, 8~10장의 부림절로 움직이며 9:22의 뒤집힘에 닿는데, 7장은 그 넷째 국면의 완성이다 — 5장에서 벌어진 두 틈(미룬 잔치·세운 나무)이 한꺼번에 닫히는 국면. 그런데 7장의 벡터는 닫히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두 손잡이를 내민다 — 4절의 진멸 위기가 아직 거리에 살아 있어 8장의 반전 조서를 부르고, 10절의 돌아온 나무가 9:25의 부림절 회상을 향해 한 결을 둔다. 한 장이 한 나무 앞에서 멈추고, 그 멈춤이 다음 장의 반전을 향해 두 틈을 벌린 채 선다. 거둠과 미완이 두 장의 이음매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폭로와 한 진노와 한 처형이다 — 민족이 드러나고, 왕이 진노하고, 한 사람이 매달린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을 엮어 가는 한 손이다. 본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 — 드러난 민족도, 진노한 왕도, 마침 그 곁의 하르보나도, 돌아온 나무도 다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힌다. 그런데 그 동작들이 묘하게 한 방향으로 맞물린다 — 6장의 밤이 마침 하만의 자랑을 꺾어 두었고, 후원의 그 짧은 사이가 마침 오해를 빚었고, 하르보나가 마침 그 나무를 알았다. 둘째, 스스로 세운 덫이 정확히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 회귀다. 5장에서 좋게 여겨 세운 나무(5:14)가, 7장에서 세운 사람을 매단다(7:10) — 누구를 끊으려던 도구가 끊는 자에게로 돌아선다. 셋째, 떼이지 않은 생명과 민족, 그리고 거둬졌으나 아직 남은 위기다. 에스더가 자기 목숨과 백성을 한 호흡에 묶어 청하고(7:3), 한 대적이 끊어졌으나(7:10)

그가 세운 진멸의 조서(7:4)는 아직 거리에 살아 있다.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잔치와 시간차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는 권인데, 7장은 그 엮임이 한 매듭으로 거둬지는 국면이다 — 5장에서 벌어진 두 틈이 여기서 한꺼번에 닫힌다. 그 이름을 끝내 적지 않은 채, 본문은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모여 역전이 완결되는 그 결을 들고 한 나무 앞에서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 나는 미뤄 둔 채 차마 드러내지 못한 한 청은 없는가 — 셋째 물음이 와서야 풀린 그 입처럼. 그리고 누군가를 끊으려 스스로 세워 둔 한 나무는 없는가 — 그것이 정확히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회귀 앞에서. 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용감한 고발자가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미룬 청을 마침내 풀며 자기 생명과 백성을 한 호흡에 청한 한 왕후를 보여 주고, 그 청 앞에 진노하여 일어선 한 왕을 보여 주고, 그동안 짚지 않던 대적을 한 손으로 가리킨 그 손가락을 보여 주고, 자기가 세운 나무에 매달린 한 사람을 새겨 둔다. 폭로와 진노와 역전이 한 장에 거둬진 이 침묵 — 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그 침묵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미뤄 둔 채 드러내지 못한 한 청이 어디인지 보는 일, 누군가를 끊으려 세워 둔 한 나무가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이름이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엮여 역전이 완결되는 그 결 앞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풀린 청으로 열려 매달린 나무 앞에서 멈추는데 — 그 나무 너머로 아직 남은 진멸의 조서(7:4)가 다음 장의 반전을 향해 한 틈을 벌려 두었고, 멀리 권의 끝에서 부림절(9:22)이 슬픔을 기쁨으로 뒤집은 채 드러난다. 그 멈춤과 그 뒤집힘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7장이 돌아온 나무와 그친 노여움(7:10)으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우리가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7:4) 한 그 진멸의 조서가 아직 거리에 살아 있으니, 다음 장은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아가, 흩어진 백성을 살리기 위한 반전의 조서로 넘어가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ets* — 세운 사람에게로 돌아온 나무.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둘째 날의 잔치 상. 자막 — 왕과 하만이 또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갑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왕이 다시 묻습니다 —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번엔 에스더가 미루지 않습니다 —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막 — 왕이 묻습니다, 감히 이렇게 한 자가 누구며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리킵니다 —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두려워합니다. 자막 — 왕이 진노하여 일어나 후원으로 나갑니다. 화면이 잔치 상에 홀로 남은 하만에게 머뭅니다. 하만이 일어나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화면이 돌아온 왕에게로 옮겨갑니다. 왕이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댄 의자에 엎드려 있습니다. 자막 — 왕이 이릅니다, 그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박까지 하려는가. 그 말이 나오매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쌉니다. 하르보나가 아룁니다 —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하만이 세운 오십 규빗 나무가 그 집에 서 있나이다. 왕이 이릅니다 —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라.

화면이 한 마당으로 옮겨 갑니다. 사람들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답니다. 자막 — 그제야 왕의 노가 그칩니다. 화면이 그 나무에 매달린 한 사람 앞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함께 앉은 한 잔치에서 미룬 청이 마침내 풀리며 민족이 드러나고 대적이 짚이는 데서 열려, 진노한 왕이 후원으로 나갔다 돌아와 침상에 엎드린 한 사람을 오해하고 — 하르보나가 세운 나무를 아뢰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한 사람이 매달려 왕의 노가 그치는, 그 나무 앞에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내 생명과 내 민족 — 미룬 청이 풀리고 세운 나무가 돌아온 장"

P02 이진우: "세 번 묻고 마침내 답한 한 청 — 미룸의 시간차가 끝나는 둘째 잔치"

P04 최현국: "환한 잔치에서 한 나무 앞으로 — 폭로가 역전으로 닫히다"

P05 김미영: "세웠다 돌아온 나무 — 모르드개를 위한 장대가 세운 사람에게로"

P07 오지혜: "드러난 민족과 짚인 대적 — 숨긴 것이 드러나고 세운 것이 돌아오다"

P11 나경아: "*ets · shakak* — 돌아온 나무, 그친 노여움"

부제 제안: "에스더가 둘째 잔치의 셋째 물음에 마침내 미루지 않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7:3) 하여 숨겼던 민족을 한 호흡에 드러내고,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7:6) 가리키니 — 왕이 진노하여 후원으로 나가고 하만이 침상에 엎드려 구걸하다 강박으로 오해받으며 — 하르보나가 세운 나무를 아뢰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 왕의 노가 그치는, 스스로 세운 덫이 정확히 돌아오고 그 이름은 끝까지 불리지 않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미룬 청을 마침내 풀며 자기 생명과 백성을 한 호흡에 청하던 한 왕후 곁으로, 그 청 앞에 진노하여 일어선 왕 곁으로, 그동안 짚지 않던 대적을 한 손으로 가리킨 그 손가락 곁으로, 그리고 자기가 세운 나무에 매달린 한 사람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미뤄 온 한 청이 셋째 물음에서 마침내 풀리며,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면서 같은 호흡에 자기 백성을 묶어 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한 그 떼이지 않는 두 단어를요. 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끊으려 세운 나무에, 그 세운 사람이 정확히 매달리고 그제야 노여움이 그치는 그 돌아옴도 보았습니다. 제가 미뤄 둔 채 차마 드러내지 못한 한 청은 없는지, 제가 누군가를 끊으려 세워 둔 한 나무는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드러난 민족과 돌아온 나무가 한 장에 놓이고,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이 엮여 가던 그 결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7장은 **미뤄 온 한 청이 마침내 풀리는 폭로에서, 한 사람을 향한 진노와 혼란으로, 다시 스스로 세운 나무가 돌아오는 역전으로** 움직여요. 1~2절이 다시 묻는 둘째 잔치, 3~4절이 드러난 민족, 5~6절이 짚인 대적, 7~8절이 진노와 엎드림과 오해, 9~10절이 불려 나온 나무와 매달림이에요. 에스더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2장이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3장이 하만의 조서와 부르(제비), 4~5장이 '이 때를 위함'과 잔치, 6~7장이 잠 못 이루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 8~10장이 반전의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예요. 권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고요. 7장은 그 넷째 국면인 **'불면의 밤·역전·하만 몰락(6~7장)'**의 완성이에요. 6장이 잠 못 이룬 밤의 뒤집힘이었다면, 7장은 그 뒤집힘이 하만의 몰락으로 완결되는 결이에요 — 5장에서 세워진 나무가 정확히 돌아오고, 9:22의 부림절을 향한 결정적 한 매듭이 풀려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7:6의 *tsar·oyeb*(짚인 대적과 원수)와 7:9-10의 *ets*(돌아온 나무)가 한 장의 두 결로 호응해요. 한 입은 대적을 짚고, 한 막대는 그 대적을 끊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chemah*(진노 7절)와 *shakak*(그침 10절)이에요 — 한 진노가 솟았다가 역전의 끝에 가라앉아요. 또 하나, *ets*(나무)가 5:14에서 세워졌다가 7:10에서 돌아오는 그 두 절이 한 호를 그려요 — 세움과 매달림 사이에 6장의 밤이 끼어 있어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폭로와 한 진노와 한 처형이에요 — 민족이 드러나고, 왕이 진노하고, 한 사람이 매달려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가는 한 손 같아요. 본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 드러난 민족도, 진노한 왕도, 마침 그 곁의 하르보나도, 돌아온 나무도 다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혀요. 그런데 그 동작들이 묘하게 한 방향으로 맞물려요 — 6장의 밤이 마침 하만의 자랑을 꺾어 두었고, 후원의 그 짧은 사이가 마침 오해를 빚었고, 하르보나가 마침 그 나무를 알았어요.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잔치와 시간차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는 권인데, 7장은 그 엮임이 한 매듭으로 거둬지는 국면이에요 — 5장에서 벌어진 두 틈(미룬 잔치·세운 나무)이 7장에서 한꺼번에 닫혀요. 권의 끝(9:22)에서야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힌 부림절로 그 결이 다 거둬지는데, 7장은 그 뒤집힘이 결정적으로 굳는 한 국면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3절)와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10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한 백성을 살려 달라 청한 입이고, 한쪽은 그 백성을 죽이려던 자가 끊어진 끝이에요. 같은 장에서 한 민족이 진멸의 위기에서 풀려나고, 그 진멸을 꾀하던 한 사람이 자기 나무에 매달려요. 더 큰 긴장은, 모든 일이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히는데 그 동작들이 묘하게 한 방향으로 맞물린다는 거예요 — 이름은 불리지 않는데, 미룬 청도 세운 나무도 다 이 한 장에서 거둬져요. 그런데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하만은 매달렸어도, 진멸의 조서는 아직 거리에 살아 있어, 다음 장들을 읽어야 그 결이 닫혀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풀린 한 청에서 돌아온 한 나무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환한 잔치의 폭로(1~6절)가 후원의 진노와 혼란으로(7~8절), 불려 나온 나무와 매달림으로(9~10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7장이 끝나며 한 마당의 나무 앞에 서요 — 모르드개를 위해 세워졌다 하만이 매달린 그 장대예요. **그런데 그 매달림이, 그리고 그친 노여움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두 손잡이를 내밀어요** — 하만은 끊어졌으나 그가 받아낸 진멸의 조서가 아직 거리에 살아 있고, 모르드개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 장이 한 나무 앞에서 멈추는데, 그 멈춤이 다음 장의 반전 조서를 향해 두 틈을 벌린 채 서 있어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4절과 10절이 다음을 미는 두 손 같아요. 4절의 '우리가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와 10절의 '왕의 노가 그치니라'요. 미뤄 온 청도, 드러난 민족도, 돌아온 나무도 다 이 한 장에서 거둬졌어요. 저는 한 사람이 매달려 노여움은 그쳤어도, 4

절의 그 진멸 위기는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채 남는 그 결이 무거워요 — 대적은 끊어졌으나 그가 세운 조서는 아직 거리에 서 있는 그 자국이요. 그런데 바로 그 남은 위기가 다음 장의 반전을 향해 서 있어요. 그 이음이 어디로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미뤄 온 청이 풀리는 폭로에서 진노와 혼란으로, 다시 스스로 세운 나무가 돌아오는 역전으로 — 그 매달림과 그친 노여움이 곧바로 다음 장의 반전 조서를 향해 두 틈을 벌리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미룬 청이 풀리고 세운 나무가 돌아와 한 대적이 끊어졌어도, 그 엮임은 권의 끝(9:22)에서야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힌 부림절로 그 결을 다 거둡니다. 다음 장은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아가, 아직 거리에 살아 있는 진멸의 조서를 거두기 위한 반전의 조서로 이어집니다.

에스더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7:3 — 생명과 민족을 한 호흡에 묶은 청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둘째 잔치의 셋째 물음에 에스더가 미루지 않고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3절) 한다. 본문은 그가 왜 자기 목숨과 백성을 한 호흡에 묶었는지를 풀어 적지 않는다 — 그 마음의 결을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믿음의 본보기'로 닫지 않고, 셋째 물음에 미루지 않고 생명과 민족을 떼지 않고 청한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이름은 여기서도 불리지 않은 채 둔다.

Q2. 7:5-6 — 대적을 짚은 지목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왕이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자가 누구며 어디 있느냐"(5절) 묻되,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6절) 하고 가리킨다. 본문은 그가 그동안 짚지 않던 이름을 왜 이때 가리켰는지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때를 보았는지, 6장의 밤을 알았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정의의 승리'로 닫지 않고, 당사자 앞에서 한 손으로 대적을 짚은 사실의 형태로만 보존 — 그 동기는 비워 둔다.

Q3. 7:7-8 — 진노한 왕의 후원과 오해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왕이 진노하여 일어나 후원으로 나갔다가(7절), 돌아와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에 엎드린 것을 보고 "왕후를 강박까지 하려는가"(8절) 한다. 본문은 그 짧은 사이 왕 안에서 무엇이 굳었는지, 그 오해가 진심인지 핑계인지를 풀지 않는다. 이 일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단정하지 않고, 진노하여 나갔다 돌아와 엎드린 하만을 그렇게 본 본문 형태로만 보존 — 후원의 그 사이 마음만 비워 둔다.

Q4. 7:9 — 마침 그 곁의 하르보나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내시 하르보나가 마침 그때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세운 오십 규빗 나무가 그 집에 서 있나이다"(9절) 아뢴다. 본문은 그가 그 나무를 어떻게 알았는지, 왜 마침 그때 아뢰었는지를 풀지 않는다. 이 일을 '섭리의 손'으로 닫지 않고, 마침 그곳의 한 내시가 그 나무를 아뢨고 왕이 곧바로 명했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겹친 우연을 그대로 둔다.

Q5. 7:10 — 돌아온 나무와 그친 노여움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매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10절) 한다. 본문은 이 돌아옴을 옳다거나 자업자득이라고 평하지 않는다 — 그 역전을 일으킨 손이 누구인지도 적지 않는다. 이 일을 '인과의

교훈'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고,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고 그제야 노가 그쳤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돌아옴의 까닭은 비워 둔다.

Q6. 7장 전체 — 이름의 부재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드러난 민족도(3절), 짚인 대적도(6절), 돌아온 나무도(9~10절) 다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 장에도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 본문은 그 부재를 설명하거나 메우지 않는다 — '숨어 계심'이라고도, '부재'라고도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한 신학으로 닫지 않고,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맞물려 역전이 완결되되 그 이름은 적히지 않은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침묵을 그대로 둔다. 다음 장의 반전 조서를 향한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에스더 *8*장*)*으로 이월한다.

에스더 8장

EST-008 · 역사서 · 히브리어

> 그 날에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거둔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내려 그를 왕 앞에 세우니,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진멸의 조서를 그치게 하기를 간구하나 — 왕의 이름으로 쓰고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으므로*(8:8)*, 취소 대신 유다인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도록 허락하는 맞서는 조서를 모르드개로 반포하게 하고 — 모르드개가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왕 앞에서 나오매 유다인에게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임하고*(8:16)*, 그 땅 백성이 다 유다인이 되니 이는 유다인을 두려워함이라*(8:17)* — 되돌릴 수 없는 법의 한계 안에서 진멸이 맞섬으로 뒤집히고, 그 이름은 여전히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을 엮어 가는 장.

관찰된 사실

에스더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어전의 한 손바꿈(1~2절)→발 앞의 울음과 막힌 법(3~8절)→각 지방으로 달리는 새 조서(9~14절)→수산과 각 읍의 빛과 잔치(15~17절)로 넓어짐. 좁은 어전에서 온 제국으로.
- 무대의 방향: 어전의 한 결정이 명마를 탄 급사로 각 지방에 번지고, 한 백성의 빛과 기쁨이 온 읍으로 퍼짐.
- 소품: 거둔 왕의 반지(2절), 두 통의 조서(5·8·9절), 다시 내밀어진 금 규(4절), 왕의 명마와 급사(10·14절), 모르드개의 조복·금관·자색 베(15절), 각 읍의 잔치 상(17절).
- 소품의 도드라짐: 거둔 반지(2절)와 입혀진 조복(15절) — 한때 대적의 것이던 권세와 영예가 한 백성의 사람에게 옮겨 가, 같은 장의 두 끝에 놓임.
- 소재의 결: 처음은 넘겨받음(하만의 집·거둔 반지·모르드개에게 줌·관리), 가운데는 맞섬(그치게 함·취소할 수 없음·새 글·함께 모여 생명 보호), 끝은 빛(조복·금관·빛·기쁨·즐거움·존귀·잔치).
- 형식 소재: 조서(dat 5·8·13·17절)의 거듭됨, 진멸을 쓴 옛 글과 맞섬을 쓴 새 글의 거울(3장↔8장), 거둔 반지(2절)와 입혀진 조복(15절)의 마주 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풀리지 않던 긴장 —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하나(3절), '취소할 수 없음'(8절)의 한계가 답을 막아섬.
- 다른 길로 트인 안도 — 거두지는 못해도 맞서는 새 조서가 쓰여 백성이 스스로를 지키게 됨(11절).
- 제국으로 번지는 환함 — 명마를 탄 급사가 각 지방으로 달리고(14절), 조복의 모르드개가 나옴(15절).
- 잇대어 임한 빛 — 빛·기쁨·즐거움·존귀가 한 절에 한꺼번에 백성에게 임함(16절).
- 눈물('발 앞에 엎드려 울며' 3절)·막힘('취소할 수 없음' 8절)·빛('빛과 기쁨' 16절)의 세 어조.

-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17절) — 죽이려던 자들 앞에서 떨던 백성이, 뭇 백성이 그 편이 되기를 구하는 백성으로 바뀌어 묘하게 깊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모르드개는 왕 앞에 나오니."
- 17절: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좋은 날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 한 대적의 집이 한 왕후에게 넘어가는 데서 열려, 온 땅의 백성이 한 백성의 편이 되는 데로 닫힘 — 한 손바꿈의 시작과 온 읍의 번짐의 끝.
- '그 날에'(1절)는 한 대적이 무너진 결,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17절)는 그 너머로 빛이 번진 결 — 본문은 두려움이 개종으로 가는 까닭을 한 어구로만 적음.
- 1절(넘겨받음)과 17절(번짐) 사이에 8절(취소할 수 없음)과 16절(임한 빛)이 막힌 법과 임한 빛으로 마주 섬.
- 좁은 어전(1~2절)에서 온 제국의 잔치(17절)로 — 한 반지가 손을 바꾸고, 맞서는 조서가 달려 나가, 빛이 온 읍에 임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모르드개(거둔 반지를 받음·새 조서를 씀·조복과 금관을 입고 나옴), 에스더(발 앞에 엎드려 울며 두 번째로 간구함·새 조서를 청함), 왕 아하수에로(집을 주고 반지를 옮기며 금 규를 내밀고 불가역의 법을 말한 뒤 새 조서를 허락함), 하만(이미 무너진 대적, 그 집과 반지가 거두어진 이름), 서기관과 급사(각 지방의 문자로 쓰고 명마로 달려 전함), 각 지방의 유다인과 본토 백성(빛을 입은 백성과 그 편이 된 뭇 백성), 그리고 무대 뒤의 이름 — 이 장에도 한 번도 불리지 않은 한 분.
- 중심 사상: '거두지 못함과 맞섬'과 '애통과 빛' — 진멸의 조서는 거둘 수 없으나(8절), 같은 권위로 맞서는 조서가 쓰여 백성이 함께 모여 스스로를 지킴(11절). 4장의 굵은 베와 부르짖음이(배경) 빛·기쁨·즐거움·존귀로 뒤집힘(16절). 본문이 그 뒤집힘에 까닭을 길게 붙이지 않음.
- 두 국면의 조서: 막힘과 트임(3~8절, 거두기를 청하나 거둘 수 없고 새 글을 쓰게 됨)과 반포(9~14절, 각 지방의 문자로 쓰여 명마로 달려 전해짐) — 같은 틀이 옛 진멸을 옛 형식 그대로 뒤집음.
- 거둠 아닌 맞섬의 결: 옛 조서(거둘 수 없는 위협)와 새 조서(거둘 수 없는 보호)가 같은 dat의 불가역으로 마주 섬 — 한 법이 위협과 보호로 갈림.
- 반지(2절)·조서(8절)·조복(15절): 손을 바꾼 권세와 마주 선 두 글과 입혀진 영예가 한 장에 놓임.
- orah(빛 16절)와 pachad(두려움 17절): 한 백성에게 임한 빛과, 그 백성을 향해 번진 뭇 백성의 두려움이 한 단락의 두 결로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넘겨받은 집과 반지 — 하만의 집이 에스더에게(1), 거둔 반지가 모르드개에게 가고 그로 그 집을 관리하게 함(2).
- 컷 2 (3~6절): 발 앞의 울음과 막힌 법 — 다시 발 앞에 엎드려 울며 진멸의 꾀를 그치게 하기를 간구함(3), 금 규를 내밀매 일어서서 조서를 거두기를 청함(4~6).

- 컷 3 (7~8절): 맞서는 새 조서 — 인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음을 말하고(8 앞), 대신 모르드개에게 유다인을 위하여 새로 쓰게 함(8 뒤).
- 컷 4 (9~14절): 제국으로 달리는 급사 — 각 지방의 문자와 방언으로 새 조서를 쓰고(9) 반지로 인쳐(10) 명마를 탄 급사들이 각 지방으로 달려 전함(10·14), 그 글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함(11~13).
- 컷 5 (15~17절): 조복의 등극과 임한 빛 — 모르드개가 조복과 금관과 자색 베를 입고 나오매 수산이 즐거이 부름(15), 빛·기쁨·즐거움·존귀가 임하고(16), 각 읍이 잔치를 베풀매 백성이 다 유다인이 됨(17).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tabbaat*(טַבַּעַת) — 반지·인장(2절). 하만에게서 거두어 모르드개에게 간 그 인장. / *chalah*(חָלָה) — 간구하다(3절).
- *katab*(כָּתַב) — 쓰다(5절). / *dat*(דָּת) — 조서·법(8절). 진멸과 맞섬을 같이 가리키는 어휘.
- *chatam*(חָתַם) — 인치다(8절). 왕의 반지로 찍는 동작. / *shub*(שׁוּב) — 되돌리다·취소하다(8절).
- *qahal*(קָהַל) — 모이다(11절). 흩어진 백성이 함께 모여 스스로를 지킴. / *achashteranim*(אֲחַשְׁתְּרָנִים) — 왕의 명마(10절).
- *takelet*(תְּכֵלֶת) — 푸른 빛(15절). 조복의 빛깔. / *orah*(אוֹרָה) — 빛(16절). simchah·sason·yeqar와 잇대어 옴.
- *mityahadim*(מִתְיַהֲדִים) — 유다인이 되다(17절). / *pachad*(פַּחַד) — 두려움(17절). 그 번짐의 까닭으로 적힌 한 어구.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손바꿈(1~2절)→간구와 막힌 법(3~8절)→새 조서의 반포(9~14절)→빛의 임함(15~17절)의 사분 구조 — 형태 관찰.
- 조서의 두 국면: 막힘과 트임(3~8절, 거두기를 청하나 거둘 수 없어 새 글을 쓰게 됨)→반포(9~14절, 각 지방의 문자로 쓰여 명마로 전해짐) — 청원이 한 번 꺾여 다른 길로 열림.
- 3장과 8장의 거울: 왕이 반지를 하만에게 주고 하만이 진멸을 쓴 일(3장)과, 왕이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주고 모르드개가 맞섬을 쓰는 일(8장)이 같은 틀로 마주 봄.
- 거둔 반지와 입혀진 조복: 손을 바꾼 권세(2절)와 입혀진 영예(15절)가 장의 두 끝에서 마주 봄 — 대적의 것이 한 백성의 사람에게로.
- 애통과 빛: 4장의 굵은 베와 부르짖음(배경)과 8:16의 빛·기쁨·즐거움·존귀의 거리 — 권의 두 폭에 마주 선 두 어조,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왕의 반지·인장 — 페르시아 궁정에서 칙령에 왕의 권위를 찍던 표지, 반지를 받는 자가 곧 위임을 받은 자. 2·8절의 배경.
- 메대·바사 법의 불가역 — 왕의 이름으로 인친 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관념, 다니엘서에도 닿음. 8절의 배경.
- 왕의 명마·급사 — 제국이 칙령을 각 지방에 빠르게 전하던 역참 제도. 10·14절의 배경.
- 조복과 금관 — 왕이 신하를 높일 때 입히던 왕족 빛깔의 예복과 관. 15절의 배경.
- 각 지방의 문자와 방언 — 다민족 제국이 칙령을 동시에 반포하던 행정 정황. 9절의 배경.
- 수산 성 —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이자 칙령이 처음 반포되던 행정 중심. 14~15절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에 8장 ↔ 에 3:10-13 (왕이 반지를 하만에게 주고 하만이 진멸의 조서를 보냄 — 8장이 같은 틀로 뒤집는 배경)
- 에 8:8 ↔ 에 1:19 (메대·바사 규례는 변개할 수 없음 — 불가역의 배경)
- 에 8:1 ↔ 에 7:9-10 (하만이 자기 나무에 달림 — '그 날에'의 직전 사건)
- 에 8:15-16 ↔ 에 4:1-3 (모르드개가 굵은 베를 입고 부르짖고 유다인이 슬퍼함 — 빛·기쁨과 마주 보는 직전의 애통)
- 에 8:11 ↔ 에 9:1-5 (유다인이 새 조서를 따라 함께 모여 스스로를 방어함 — 허락이 행해진 다음 장)
- 에 8:16 ↔ 에 9:22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 부림절 — 빛과 기쁨이 앞당겨 비추는 destination)
- 에 8:8 ↔ 단 6:8·15 (메대·바사 법은 고치지 못함 — 불가역의 또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8:17 ↔ 슥 8:23 (열국 백성이 유다 사람과 함께 가기를 구함 — 두려움이 동행으로 번지는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8:15 ↔ 에 6:11 (모르드개가 왕복을 입고 거리에서 높여짐 — 조복과 금관의 복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왕의 어전. 자막 — 그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준다.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그와 자기의 관계를 아뢰었음이라.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주고, 에스더는 모르드개로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한다. 자막 —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한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꾸민 악한 꾀를 그치게 하소서. 왕이 금 규를 그에게 내민다. 에스더가 일어서서 아뢴다 —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이 모든 지방에 보낸 진멸의 조서를 거두는 글을 내리소서. 왕이 답한다 — 보라 내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하만은 나무에 달렸느니라. 그러나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으니, 너희는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유다인을 위하여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라. 화면이 서기관의 방으로 옮겨 간다. 시완월 이십삼일에 서기관이 모르드개의 명대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으로 새 조서를 쓴다. 왕의 반지로 인치고, 명마를 탄 급사들이 그 글을 받아 각 지방으로 달려 나간다. 자막 — 그 글은, 왕이 각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기들을 치려 하는 자를 막게 함이라. 화면이 수산 성으로 간다.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온다.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른다. 자막 — 유다인에게는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더라. 화면이 각 지방 각 읍으로 넓어진다. 조서가 이르는 곳마다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좋은 날로 삼는다. 자막 —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화면이 잔치를 베푸는 한 읍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거두지 못한 조서를 맞서는 조서로 — 법의 한계 안에서 진멸이 뒤집힌 장"**
- 초벌 부제: "그 날에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거둔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내려 그를 왕 앞에 세우니, 에스더가 발 앞에 엎드려 울며 진멸의 조서를 그치게 하기를 간구하나 — 왕의 이름으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으므로(8:8), 거둠 대신 유다인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도록 허락하는 맞서는 조서를 모르드개로 반포하게 하고 — 모르드개가 조복과 금관을 입고 나오매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백성에게 임하고(8:16), 그 땅 백성이 다 유다인이 되니 이는 유다인을 두려워함이라(8:17), 되돌릴 수 없는 법 안에서 진멸이 맞섬으로 뒤집히고 그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abbaat·chalah·katab·dat·chatam·shub·qahal·achashteranim·takelet·orah·simchah·sason·yeqar·mityahadim·pachad 등 15+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조서의 두 국면 + 3장과 8장의 거울 + 사분 구조 + ANE 반지·불가역·역참·조복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8:2의 옮겨진 반지를 '하나님의 보상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고, 왕이 거둔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주고 에스더가 그로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한 본문 형태로만 둠. 이름의 부재는 적되 그 의미는 비워 둠.
- 8:8의 '취소할 수 없음'을 '섭리의 묘한 우회'로 닫지 않고, 인친 조서는 거둘 수 없어 대신 맞서는 새 글을 쓰게 된 본문 형태로만 기록. 왜 거둠이 아니라 맞섬인지는 비워 둠.
- 8:11의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를 '정당방위의 교훈'으로 단정하지 않고, 진멸을 꾀하는 자에 맞서 백성이 모여 스스로를 지키도록 허락한 본문 형태로만 둠.
- 8:16의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를 '구원의 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굵은 베를 입던 백성에게 네 단어가 잇대어 임했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그 절기는 9:22로 이월.
- 8:17의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를 '참 신앙의 확산' 또는 '형편을 좇은 변신'으로 미리 평하지 않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그 편이 된 본문 형태로만 둠 — 그 두려움의 결은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더 8장은 그 날에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거둔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내려 그를 왕 앞에 세우매(8:1-2), 에스더가 다시 발 앞에 엎드려 울며 진멸의 조서를 그치게 하기를 간구하나 — 왕의 이름으로 쓰고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으므로(8:8), 거둠 대신 모르드개로 유다인을 위하여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도록 허락하는 맞서는 조서를 쓰게 하여 명마를 탄 급사로 각 지방에 반포하고(8:9-14) —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과 큰 금관과 자색 가는 베를 입고 왕 앞에서 나오매 수산이 즐거이 부르고 유다인에게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임하며(8:15-16), 그 땅 백성이 다 유다인이 되니 이는 유다인을 두려워함이라(8:17), 되돌릴 수 없는 법 안에서 진멸이 맞섬으로 뒤집히고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장이다.

한 문단: 왕의 어전. 하만이 무너진 그 날, 그의 집이 에스더에게 넘어가고 거둔 반지가 모르드개에게 간다. 에스더가 다시 발 앞에 엎드려 운다 — 자기 안전이 확보된 뒤에도, 조서가 여전히 각 지방에 살아 있는 한 백성을 위해. 왕이 금 규를 내민다. 에스더가 일어서서 그 조서를 거두기를 청하나, 왕은 "인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다" 하며 거두는 대신 맞서는 한 통을 더 쓰게 한다. 같은 반지, 같은 서기관, 같은 급사가 이번에는 진멸 아니라 맞섬을 각 지방으로 실어 나른다. 모르드개가 조복을 입고 나오매 수산이 즐거이 부르고, 굵은 베를 입던 백성에게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한꺼번에 임한다. 각 읍이 잔치를 베푼다. 한 장이 잔치를 베푸는 한 읍 앞에 멈춘다 —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로.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어전의 손바꿈→발 앞의 울음과 막힌 법→각 지방으로 달리는 새 조서→수산과 각 읍의 빛과 잔치로 넓어지는 무대. 거둔 반지·두 통의 조서·금 규·명마·조복·잔치 상 — 넘겨받음과 맞섬에서 빛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풀리지 않던 긴장. 다른 길로 트인 안도. 제국으로 번지는 환함. 잇대어 임한 빛. 눈물·막힘·빛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그 날에'(1절)로 열려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17절)로 닫힘. 넘겨받음과 번짐 사이에 취소할 수 없는 법(8절)과 임한 빛(16절)이 마주 섬.
4 등장인물·사상	높여진 모르드개. 두 번째로 엎드려 운 에스더. 불가역의 법을 둔 채 새 조서를 허락한 왕. 무너진 대적 하만. 중심은 거두지 못함과 맞섬, 애통과 빛. 그 이름의 부재.
5 장면 컷	넘겨받은 집과 반지(1~2)/발 앞의 울음과 막힌 법(3~6)/맞서는 새 조서(7~8)/제국으로 달리는 급사(9~14)/조복의 등극과 임한 빛(15~17) 다섯 컷. 컷 2·3은 청원과 반포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조서(dat)의 두 얼굴(위협의 굴레·보호의 방패). 애통과 빛의 마주 봄. 8:8의 거둠 아닌 맞섬의 비워진 까닭. 두려움이 동행으로 번지는 비워진 결. 이름의 부재.
7 동영상	넘겨받은 집과 반지 → 발 앞의 울음과 막힌 법 → 맞서는 새 조서 → 제국으로 달리는 급사 → 조복의 등극과 온 읍의 잔치.
8 초벌 제목·부제	"거두지 못한 조서를 맞서는 조서로 — 법의 한계 안에서 진멸이 뒤집힌 장"
9 기도·내면	거둘 수 없는 위협 앞에서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기보다 맞설 길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거두지 못한 조서 위에 임한 빛과 그 이름은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이 엮여 가던 자국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거둘 수 없는 법과 맞서는 조서**: 8장의 답은 '취소'가 아니라 '역전'이다. 에스더는 진멸의 조서를 거두기를 청하나(8:5), 왕은 "왕의 이름으로 쓰고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8:8) 한다. 위협은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대신 같은 권위로 맞서는 한 통이 더 쓰여, 백성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게 된다(8:11). 본문은 이 우회의 까닭을 길게 풀지 않고, 메대·바사 법의 불가역이라는 한계만 잇대어 적는다. 그런데 그 같은 불가역이, 한 글에게는 거둘 수 없는 위협이 되고 다른 한 글에게는 거둘 수 없는 보호가 된다. 거둘 수 없는 법이 어떻게 위협의 굴레인 동시에 맞섬의 방패가 되는지 — 본문은 그 한 법의 양날을 마주 둔다.

2. **결 2 — 같은 틀, 정반대 내용**: 본문의 또 한 갈림은 3장과 8장의 거울이다. 3장에서 왕은 반지를 하만에게 주고, 하만은 서기관을 불러 각 지방의 문자로 진멸을 쓰고, 급사가 그 글을 각 지방으로 나른다. 8장은 그 한 틀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 같은 반지가 모르드개에게 가고(8:2), 같은 서기관이 같은 각 지방의 문자로 맞섬

을 쓰고(8:9), 같은 급사가 그 글을 각 지방으로 나른다(8:14). 같은 형식이 정반대 내용을 실어 한 번 더 돈다. 본문은 옛 조서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으면서, 그 옛 형식 위에 맞섬의 내용을 얹어 진멸을 진멸의 도구로 뒤집는다. 같은 인장과 같은 파발이 한 번은 죽음을, 한 번은 보호를 실어 나르는 그 거울을, 본문은 평가 없이 마주 둔다.

3. **결 3 — 애통과 잇대어 임한 빛**: 8장의 백성은 두 폭으로 적힌다. 4장에서 그들은 굵은 베를 입고 재 가운데 부르짖었다(배경). 8장에서 같은 백성에게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는지라"(8:16)가 한 절에 잇대어 온다. 네 단어가 숨도 쉬지 않고 따라붙는다. 본문은 그 빛이 임한 까닭을 길게 풀지 않고, 거두지 못한 위협 위에 임한 한 빛을 적을 뿐이다. 그리고 그 빛이 곧 각 읍의 잔치로, 다시 본토 백성이 그 편이 되는 데까지 번진다(8:17). 굵은 베가 빛으로 뒤집히는 그 거리를, 본문은 평가 없이 둔다 — 권의 끝(9:22)에서야 그 결을 다 거둘 한 빛이, 여기서 미리 임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에 3:10-13 — 왕이 반지를 하만에게 주고 하만이 진멸의 조서를 보냄 — 8장이 같은 틀로 뒤집는 배경.
- 에 1:19 — 메대·바사의 규례는 변개할 수 없음 — 8:8 불가역의 배경.
- 에 7:9-10 — 하만이 자기 나무에 달림 — 8:1 '그 날에'의 직전 사건.
- 에 4:1-3 — 모르드개가 굵은 베를 입고 부르짖고 유다인이 슬퍼함 — 8:15-16의 빛·기쁨과 마주 보는 직전의 애통.
- 에 9:1-5 — 유다인이 새 조서를 따라 함께 모여 스스로를 방어함 — 8:11의 허락이 행해진 다음 장.
- 에 9:22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부림절 — 8:16 '빛과 기쁨'이 앞당겨 비추는 destination.
- 단 6:8·15 — 메대·바사 법은 고치지 못함 — 8:8 불가역의 또 한 결, 배경으로만.
- 슥 8:23 — 열국 백성이 유다 사람과 함께 가기를 구함 — 두려움이 동행으로 번지는 8:17의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6:11 — 모르드개가 왕복을 입고 거리에서 높여짐 — 8:15 조복과 금관의 복선.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8:1의 '그 날에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니라'에서 시작한다 — 한 대적이 무너진 바로 그 날, 권세와 집이 손을 바꾸는 그 어귀에 선다.
- **멈춤 1**: 8:3에서 멈춘다 — '에스더가 다시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하니.' 자기 안전 너머로, 한 백성을 위해 두 번째로 무릎 꿇은 그 울음을 쥔다.
- **멈춤 2**: 8:8에서 멈춘다 — '인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위협을 거두지 못한 채 맞설 길을 여는 그 한 한계를 쥔다.
- **끝**: 8:16에서 멈춘다 —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거두지 못한 조서 위에 잇대어 임한 그 빛이 어디로 번지는지, 다음 장의 그 날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넘겨받은 집과 반지(1~2)·발 앞의 울음과 막힌 법(3~6)·맞서는 새 조서(7~8)·제국으로 달리는 급사(9~14)·조복의 등극과 임한 빛(15~17)의 다섯 컷 완결
- [x] 조서(dat)의 두 얼굴(8·13·17절)과 3장↔8장의 거울·손바꿈→청원→반포→빛의 사분 구조
- [x] 거둔 반지(8:2)와 입혀진 조복(8:15)·취소할 수 없는 법과 임한 빛(8:8·16)·두려움과 개종(8:17)의 소품 다리

- [x] 권 흐름(EST flow)의 다섯째 국면 '반전의 조서(8~10장)' 첫머리 정박과 4장 애통·9:22 부림절과의 거리
- [x] 9장의 그 날(8:11 허락)·9:22 부림절(8:16 빛)으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EST flow 닻)

에스더서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며, destination은 9:22에 두어진 부림절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 절기다. 권의 흐름은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1~2장), 하만의 조서와 부르(제비)(3장), '이 때를 위함'과 잔치(4~5장), 잠 못 이루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 반전의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8~10장)로 움직인다. 8장은 그 다섯째 국면, '반전의 조서(8~10장)'의 첫머리다. 직전 7장에서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려 몰락했다면, 8장은 그 한 사람의 몰락 너머로 그가 보낸 진멸의 조서 자체를 맞서는 조서로 뒤집는 결로 채워진다 — 대적은 무너졌으나 그가 쏘아 보낸 진멸의 글은 각 지방에 살아 있었고, 이 장이 그 글을 같은 권위의 맞서는 글로 마주 세운다. 권의 intent('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조서·반전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심')가, 8장에서는 옮겨진 반지와 거둘 수 없는 법과 맞서는 조서로 그 엮임의 한 매듭을 짓는다. 그런데 8장은 그 보존을 곧장 완성하지 않고 한 허락으로 둔다 — 8:11이 9장의 그 날을 향해 한 길을 열어 두고, 절하지 않던 한 사람을 향한 옛 두려움이 8:17에서는 한 백성을 향한 새 두려움으로 번진다. 권의 heart인 '침묵 속에서도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마음'이, 8장에서는 이름이 불리지 않는 채로 진멸의 조서가 보호의 조서로 뒤집혀 가는 결로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8장의 빛과 기쁨(8:16)은 끝이 아니라 앞당겨진 비춤이다 — 맞서는 조서(8:11)가 9장의 그 날을 향해 한 허락을 마련하고, 임한 빛(8:16)이 9:22의 부림절을 한 걸음 미리 비추며, 권의 끝에서 그 결을 다 거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한 대적의 집과 반지가 손을 바꾸는 데(8:1-2)에서, 발 앞에 엎드린 울음과 거둘 수 없는 법(8:3·8)으로, 다시 그 법의 한계 안에서 맞서는 조서(8:11)와 잇대어 임한 빛(8:16)으로, 진멸의 글이 보호의 글로 뒤집힌 채로 / 한 읍의 잔치에서 다음 장의 그 날과 권의 절기로(8:11·16) — 이름을 숨기신 손이 넘겨받음과 맞섬과 빛을 한 방향으로 엮어 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8장은 거둘 수 없는 한 위협이 없던 일이 되지 않은 채로, 같은 권위의 맞서는 조서로 뒤집히고, 굵은 베를 입던 백성에게 빛이 잇대어 임하는 데로 흘러가는 운동이다. 어전의 손바꿈(1~2절)이 발 앞의 울음으로(3~6절), 막힌 법과 트인 새 글로(7~8절), 제국으로 달리는 반포로(9~14절), 조복의 등극과 임한 빛으로(15~17절) 넓어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에스더서는 1~2장의 등극에서 시작해 3장의 제비, 6~7장의 역전, 8~10장의 반전으로 움직이며 9:22의 뒤집힘에 닿는데, 8장은 그 다섯째 국면의 첫 매듭이다 — 진멸의 조서 자체가 보호의 조서로 마주 세워지는 국면. 그런데 8장의 벡터는 닫히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두 손잡이를 내민다 — 11절의 '함께 모여 스스로를 지키라'가 9장의 그 날을 향해 한 허락을 마련해 두고, 16절의 빛과 기쁨이 9:22의 부림절을 향해 한 절기를 앞당겨 비춘다. 한 장이 한 읍의 잔치 앞에서 멈추고, 그 멈춤이 다음 장을 향해 한 허락과 한 빛을 내민 채 선다. 맞섬과 빛이 두 장의 이음매에서 모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손바꿈과 한 청원과 한 반포와 한 빛이다 — 반지가 옮겨 가고, 울며 청하고, 새 글이 달려 나가고, 빛이 임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을 엮어 가는 한 손이다. 본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 — 거둔 반지도, 맞서는 조서도, 임한 빛도 다 왕과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힌다. 그런데 그 동작들이 묘하게 한 방향으로 맞물린다 — 진멸을 쓴 바로 그 반지(8:2)가 마침 맞섬

을 쓰게 되고, 굵은 베를 입던 백성이 마침 빛을 입게 된다. 둘째, 거두지 못한 위협 위에서도 보호의 길이 열린다는 본질이다. 메대·바사 법은 진멸의 글을 거두지 못하지만(8:8), 같은 법이 맞서는 글을 거두지 못하게도 한다 — 한 한계가 위협의 굴레인 동시에 보호의 방패가 된다. 셋째, 두 번째로 무릎 꿇은 한 사람의 울음이다. 자기 안전이 확보된 뒤에도 에스더는 한 백성을 위해 다시 발 앞에 엎드려 운다(8:3) — 보존은 한 사람의 거듭된 간구를 통과해 흐른다.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조서와 반전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는 권인데, 8장은 그 엮임이 진멸의 조서 자체를 뒤집는 한 국면이다 — 넘겨받음과 맞섬과 빛이 각각 다음 장의 그 날과 권의 절기를 향해 한 걸음씩 미리 둔다. 그 이름을 끝내 적지 않은 채, 본문은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그 결을 들고 한 읍의 잔치 앞에서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 나는 거둘 수 없는 한 위협 앞에서,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기를 구하기보다 맞설 길을 분별해야 할 대목은 어디인가 —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도. 그리고 내 안전이 확보된 뒤에도, 여전히 위태로운 한 백성을 위해 다시 무릎 꿇어야 할 대목은 어디인가 — 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강한 변호자가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한 백성을 위해 두 번째로 발 앞에 엎드려 운 한 왕후를 보여 주고, 거둘 수 없는 위협 앞에서 거둠 대신 맞섬의 길을 연 한 답을 보여 주고, 진멸을 쓴 그 반지로 맞섬을 인친 한 거울을 보여 주고, 굵은 베를 입던 백성에게 한꺼번에 임한 빛을 새겨 둔다. 넘겨받음과 맞섬과 빛이 한 장에 겹친 이 침묵 — 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그 침묵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거둘 수 없는 한 위협 앞에서 맞설 길을 분별하는 일, 안전이 확보된 뒤에도 위태로운 한 백성을 위해 다시 무릎 꿇어야 할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이름이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엮여 가는 그 결 앞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거둔 반지로 열려 한 읍의 잔치 앞에서 멈추는데 — 그 잔치 너머로 맞서는 조서(8:11)가 다음 장의 그 날을 향해 한 길을 열어 두었고, 멀리 권의 끝에서 부림절(9:22)이 슬픔을 기쁨으로 뒤집은 채 드러난다. 그 멈춤과 그 뒤집힘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8장이 맞서는 조서와 임한 빛(8:11·16)으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게 하라"(8:11) 한 그 허락이 다음 장의 그 날을 향해 한 길을 열어 두니, 다음 장은 그 조서가 허락한 날에 유다인이 함께 모여 스스로를 지키는 사건으로 넘어가,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돌아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orah* — 잇대어 임한 빛.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왕의 어전. 자막 — 그 날에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고, 왕이 거둔 반지를 그에게 줍니다. 자막 — 에스더가 다시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합니다, 진멸의 꾀를 그치게 하소서. 왕이 금 규를 내밉니다. 에스더가 일어서서 청합니다 — 그 조서를 거두소서. 왕이 답합니다 — 인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으니, 너희 좋을 대로 새로 쓰고 반지로 인치라. 화면이 서기관의 방으로 옮겨 갑니다. 각 지방의 문자로 새 조서가 쓰이고, 반지로 인쳐 명마를 탄 급사들이 각 지방으로 달려 나갑니다. 자막 — 그 글은 유다인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게 함이라. 화면이 수산 성으로 갑니다. 모르드개가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베를 입고 왕 앞에서 나옵니다. 수산이 즐거이 부릅니다. 자막 — 유다인에게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더라. 화면이 각 읍으로 넓어집니다. 조서가 이르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본토 백성이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집니다. 화면이 잔치를 베푸는 한 읍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한 대적의 집과 반지가 손을 바꾸는 데서 열려, 발 앞의 울음이 거둘 수 없는 법에 한 번 막히고, 그 막힘 너머로 맞서는 조서가 명마를 타고 각 지방으로 달려 나가며 — 조복을 입은 한 사람이 왕 앞에서 나오매 빛과 기쁨이 백성에게 임하고, 온 읍의 잔치 가운데 본토 백성이 그 편이 되는, 잔치를 베푸는 한 읍에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거두지 못한 조서를 맞서는 조서로 — 법의 한계 안에서 진멸이 뒤집힌 장"

P02 이진우: "같은 반지, 같은 틀, 정반대 내용 — 3장의 조서를 8장이 거울처럼 뒤집다"

P04 최현국: "좁은 어전에서 온 제국으로 — 한 결정이 명마를 타고 각 읍에 번지다"

P05 김미영: "거둔 반지와 입혀진 조복 — 대적의 것이 한 백성의 사람에게로"

P07 오지혜: "굵은 베에서 빛·기쁨·즐거움·존귀로 — 애통이 마주 본 한 절"

P11 나경아: "*dat · orah* — 거둘 수 없는 법, 잇대어 임한 빛"

부제 제안: "그 날에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거둔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내리니, 에스더가 발 앞에 엎드려 울며 진멸의 조서를 그치게 하기를 간구하나 — 왕의 이름으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으므로(8:8), 거둠 대신 유다인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도록 허락하는 맞서는 조서를 모르드개로 반포하게 하고 —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백성에게 임하며 그 땅 백성이 다 유다인이 되는, 되돌릴 수 없는 법 안에서 진멸이 맞섬으로 뒤집히고 그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한 백성을 위해 두 번째로 발 앞에 엎드려 울던 한 왕후 곁으로, 거둘 수 없는 법 앞에서 거둠 대신 맞섬의 길을 연 그 답 곁으로, 명마를 타고 각 지방으로 달려간 그 새 글 곁으로, 그리고 굵은 베를 입던 백성에게 한꺼번에 쏟아진 빛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거둘 수 없는 한 위협 앞에서, 그 위협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맞설 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 같은 법이 한 백성에게는 굴레가 되고 한 백성에게는 방패가 되던 그 결을요. 또 굵은 베를 입고 부르짖던 한 백성에게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한꺼번에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 삶의 거둘 수 없는 한 위협 앞에서도,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기를 구하기보다 맞설 길을 분별하는 마음을 들고 머물겠습니다. 거두지 못한 조서 위에 임한 그 빛과,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이 엮여 가던 그 결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8장은 **한 대적의 집과 반지가 손을 바꾸는 데서, 거둘 수 없는 법에 막힌 청원으로, 다시 그 법의 한계 안에서 맞서는 조서로 뒤집히는 데로** 움직여요. 1~2절이 넘겨받은 집과 반지, 3~6절이 발 앞의 울음, 7~8절이 막힌 법과 트인 새 글, 9~14절이 제국으로 달리는 반포, 15~17절이 조복의 등극과 임한 빛이에요. 에스더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2장이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3장이 하만의 조서와 부르(제비), 4~5장이 '이 때를 위함'과 잔치, 6~7장이 잠 못 이루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 8~10장이 반전의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예요. 권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고요. 8장은 그 다섯째 국면인 **'반전의 조서(8~10장)'**의 첫머리예요 — 7장에서 하만이 몰락했다면, 8장은 그가 보낸 진멸의 조서 자체를 맞서는 조서로 뒤집는 결이에요. 그리고 그 빛과 기쁨(8:16)이 곧 9:22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향해 한 걸음 앞당겨 비춰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8:8의 *dat*(거둘 수 없는 법)와 8:16의 *orah*(잇대어 임한 빛)가 한 장의 두 결로 호응해요. 한 법은 위협을 거두지 못하게도 맞섬을 거두지 못하게도 하고, 한 빛은 그 거두지 못한 위협 위에 임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tabbaat*(반지 2·8·10절)예요 — 같은 인장이 3장에서는 진멸을, 8장에서는 맞섬을 인쳐요. 또 하나, *mityahadim*(유다인이 됨 17절)이 *pachad*(두려움)와 잇대어 와, 진멸의 대상이던 백성을 향해 두려움이 동행으로 번지는 한 결을 미리 둬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손바꿈과 한 청원과 한 반포와 한 빛이에요 — 반지가 옮겨 가고, 울며 청하고, 새 글이 달려 나가고, 빛이 임해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가는 한 손 같아요. 본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 거둔 반지도, 맞서는 조서도, 임한 빛도 다 왕과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혀요. 그런데 그 동작들이 묘하게 한 방향으로 맞물려요 — 진멸을 쓴 그 반지가 마침 맞섬을 쓰게 되고, 굵은 베를 입던 백성이 마침 빛을 입게 돼요.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조서와 반전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는 권인데, 8장은 그 엮임이 진멸의 조서 자체를 뒤집는 한 매듭이에요. 권의 끝(9:22)에서야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힌 부림절로 그 결이 다 거둬지는데, 8장의 빛과 기쁨(8:16)이 그 절기를 한 걸음 앞당겨 비춰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왕의 이름으로 인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8절)와 "유다인에게는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는지라"(16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위협을 거두지 못하는 법의 한계고, 한쪽은 그 한계 위에 임한 빛이에요. 같은 장에서 위협은 사라지지 않은 채 살아 있고, 빛은 그 위협 위에 쏟아져요. 더 큰 긴장은, 모든 일이 왕과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히는데 그 동작들이 묘하게 한 방향으로 맞물린다는 거예요 — 이름은 불리지 않는데, 옮겨진 반지도 맞서는 조서도 임한 빛도 한 백성의 보존을 향해 서 있어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맞서는 조서가 허락한 그 날(9장의 날)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다음 장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거두지 못한 한 위협에서 임한 한 빛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어전의 한 손바꿈(1~2절)이 발 앞의 울음으로(3~6절), 막힌 법과 트인 새 글로(7~8절), 제국으로 달리는 반포로(9~14절), 조복의 등극과 임한 빛으로(15~17절) 넓어져요. 그리고 8장이 끝나며 잔치를 베푸는 한 읍 앞에 서요 — 본토 백성이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그 읍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와 그 새 조서가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8:11의 '함께 모여 스스로를 지키라'가 9장의 그 날을 향해 한 허락을 마련해 두고, 8:16의 빛과 기쁨이 9:22의 부림절을 향해 한 절기를 앞당겨 비춰요. 한 장이 한 잔치 앞에서 멈추는데, 그 멈춤이 다음 장을 향해 한 허락과 한 빛을 내민 채 서 있어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11절과 16절이 다음을 미는 두 손 같아요. 11절의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와 16절의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요. 거둘 수 없는 위협도, 맞서는 새 조서도, 임한 빛도 다 9장의 그 날과 9:22의 절기를 향해 한 걸음씩 미리 둬요. 저는 한 백성을 위해 두

번째로 울던 그 왕후의 눈물이, 마침내 온 읍의 빛으로 번지는 그 결이 따뜻해요 — 굵은 베와 빛이 권의 두 폭에 마주 선 그 자국이요. 그런데 바로 그 허락과 그 빛이 다음 장의 그 날을 향해 서 있어요. 그 이음이 어디로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거둘 수 없는 위협에서 맞서는 조서로, 발 앞의 울음에서 임한 빛으로 — 그 허락과 그 빛이 곧바로 다음 장의 그 날과 권의 끝(9:22)을 향해 한 걸음 앞당겨 비추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진멸의 조서를 거두지 못한 채 맞서는 조서로 뒤집고, 빛과 기쁨이 한 백성에게 임했어도, 그 엮임은 권의 끝(9:22)에서야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힌 부림절로 그 결을 다 거둡니다. 다음 장은 맞서는 조서가 허락한 그 날에 유다인이 함께 모여 스스로를 지키는 사건으로 이어지며, 8:16의 빛이 9:22의 절기로 모입니다.

에스더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8:1-2 — 옮겨진 반지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그 날에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1절),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주며 에스더가 그로 그 집을 관리하게 한다(2절). 본문은 그 옮겨짐이 어떻게 왕의 마음에서 결정됐는지를 풀어 적지 않는다 — 보상인지 신임인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하나님의 보상의 증거'로 닫지 않고, 거둔 반지가 모르드개에게 가고 그 집이 에스더에게 넘어간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이름은 여기서도 불리지 않은 채 둔다.

Q2. 8:8 — 거둠이 아니라 맞섬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에스더가 진멸의 조서를 거두기를 청하나(5절), 왕은 "왕의 이름으로 쓰고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8절) 하며 거두는 대신 새 글을 쓰게 한다. 본문은 왜 그 위협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는지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메대·바사 법의 불가역이라는 한계만 잇대어 적는다. 이 일을 '섭리의 묘한 우회'로 닫지 않고, 거둘 수 없는 법 안에서 맞서는 한 글이 쓰인 본문 형태로만 보존 — 왜 거둠이 아니라 맞섬인지는 비워 둔다.

Q3. 8:11 —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새 조서는 왕이 각 고을의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기들을 치려 하는 자에 맞서게 함이다(11절). 본문은 이 허락에 옳다 그르다 판단을 붙이지 않는다 —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이 일을 '정당방위의 교훈'으로 단정하지 않고, 진멸을 꾀하는 자에 맞서 백성이 모여 스스로를 지키도록 허락된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날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날지는 다음 장으로 이월.

Q4. 8:16 — 잇대어 임한 빛·기쁨·즐거움·존귀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유다인에게는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는지라"(16절). 네 단어가 숨도 쉬지 않고 잇대어 온다. 본문은 그 빛이 임한 까닭을 길게 풀지 않는다 — 굵은 베를 입던 백성에게(4장 배경) 한꺼번에 쏟아진 그 네 단어만 적는다. 이 일을 '구원의 확정'으로 닫지 않고, 거두지 못한 위협 위에 빛이 잇대어 임한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절기로의 완성은 9:22로 이월.

Q5. 8:17 — 두려움이 개종으로 번진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각 읍에서 유다인이 잔치를 베풀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17절) 한다. 본문은 이 일을 옳다거나 그르다고 평하지 않는다 — 그 두려움이 참 신앙인지 형편을 좇은 변신인지를 풀어 적지 않는다. 이 일을 한 신학으로 닫지 않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그 편이 된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두려움이 어떻게 동행으로 번지는지, 그 결은 비워 둔다.

Q6. 8장 전체 — 이름의 부재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옮겨진 반지도(2절), 거둘 수 없는 법 안의 맞서는 조서도(8절), 잇대어 임한 빛도(16절) 다 왕과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 장에도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 본문은 그 부재를 설명하거나 메우지 않는다 — '숨어 계심'이라고도, '부재'라고도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한 신학으로 닫지 않고,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맞물리되 그 이름은 적히지 않은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침묵을 그대로 둔다. 다음 장의 그 날과 권의 절기(9:22)를 향한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에스더 9장)*으로 이월한다.

에스더 9장

EST-009 · 역사서 · 히브리어

> 정한 그 날, 진멸이 시행되게 된 바로 그 날에 정반대가 일어나 — 대적이 유다인을 제거하기를 바랐던 그 날, 도리어 유다인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벗어나*(9:1)* 각 고을에서 함께 모여 스스로를 지키고, 두려움이 임하매 관원들이 그들을 돕는다. 수산에서 이틀을 싸워 오백과 삼백을 치고 하만의 열 아들을 나무에 매달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며*(9:10·15)*,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이 두 날을 해마다 지키게 하여 — 하만이 던진 부르*(pur 곧 제비)*에서 이름을 따 부림이라 하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9:22)* 그 달에 잔치를 베풀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한다.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히고, 그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은 채 역전 그 자체가 침묵의 손길로 비치는, 권이 수렴하는 장.

관찰된 사실

에스더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정한 날의 각 지방(1~5절)→수산 이틀의 싸움(6~15절)→평안과 잔치의 각 지방·각 읍(16~19절)→부림을 새기는 온 제국(20~32절)으로 넓어지고 닫힘. 한 정한 날에서 한 책의 글로.
- 무대의 방향: 진멸이 시행되게 된 날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그 뒤집힘이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로 글에 새겨짐.
- 소품: 던진 제비(pur 24절), 셈해진 수(오백·삼백·칠만 오천·열 6·15·16절), 매달린 나무(열 아들의 시체 14절), 손대지 않은 노략물(10·15·16절), 잔치 상과 예물(22절), 두 서신과 한 책(20·29·32절).
- 소품의 도드라짐: 던진 제비(24절)와 새겨진 책(32절) — 진멸의 날을 정하려던 추첨물과, 그 뒤집힘을 영영 기억할 글이 같은 장의 두 끝에 놓임.
- 소재의 결: 처음은 뒤집힘과 싸움(정한 날·역전·맞섬·셈해진 수), 가운데는 절제(재산에 손대지 아니함의 세 번 비움), 끝은 절기(평안·잔치·예물·구제·부림·슬픔이 기쁨으로·책에 기록).
- 형식 소재: 뒤집힘(hapak 1절)을 새긴 한 동사, 부르(pur 24절)와 부림(purim 26절)의 거울, 9:22의 정확한 대구(슬픔↔기쁨·애통↔길한 날).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팽팽한 뒤집힘의 긴장 — 진멸이 시행되게 된 정한 날에 칼끝이 정반대로 돌아섬(1절).
- 묵직하게 가라앉은 셈 — 오백·삼백·칠만 오천이 이어지고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림(6·14·15·16절).
- 다른 결로 트인 평안 — 대적에게서 벗어나 쉼을 얻음(16~17절).
- 환하게 새겨진 기쁨 — 잔치·예물·구제, 그리고 해마다 지키도록 글에 굳힘(22·27절).
- 긴장('도리어 뒤집혀' 1절)·절제('재산에 손대지 아니함' 10·15·16절)·기쁨('슬픔이 기쁨으로' 22절)의 세 어조.

• 칼과 잔치 사이의 비움 — 이겼는데도 노략에 손대지 않는 세 번의 멈춤이 한 결을 지킴(10·15·16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아달월 십삼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도리어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 날이라."

•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 한 정한 날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데서 열려, 그 뒤집힘이 한 책에 견고하게 새겨지는 데로 닫힘 — 한 날의 역전의 시작과 한 책의 새김의 끝.

• '도리어 뒤집혀'(1절)는 정한 날의 칼이 방향을 거꾸로 돌린 결, '책에 기록되었더라'(32절)는 그 날이 영영 기억될 절기가 된 결 — 본문은 뒤집힘의 손을 적지 않음.

• 1절(뒤집힘)과 32절(새김) 사이에 22절(슬픔이 기쁨으로)이 날의 역전을 정서의 역전으로 옮겨 마주 섬.

• 넓은 정한 날(1~2절)에서 한 책의 글(29~32절)로 — 한 날이 방향을 뒤집고, 이긴 백성이 노략에 손대지 않고, 평안 위에 잔치가 오고, 그 날이 글에 새겨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유다인(각 고을에서 함께 모여 맞섬·노략에 손대지 않음·평안을 얻어 잔치함·절기를 받아들임), 모르드개(점점 창대해짐·이 일을 기록하고 서신을 보내 절기를 세움), 에스더(이튿날과 열 아들의 매닮을 청함·두 번째 서신으로 규례를 굳게 세움), 하만(이미 무너진 대적, 그 열 아들이 치이고 시체가 매달린 이름), 각 지방의 관원과 방백(두려움이 임하매 유다인을 도움), 그리고 무대 뒤의 이름 — 권의 끝까지 와서도 한 번도 불리지 않은 한 분.

• 중심 사상: '뒤집힘과 절제'와 '애통과 기쁨' — 정한 날에 일이 정반대로 돌아가되(1절), 이긴 백성이 노략에 손대지 않고 세 번 거듭 비워 둠(10·15·16절). 권 첫머리의 굵은 베와 부르짖음이(배경) 슬픔이 기쁨으로·애통이 길한 날로 정확히 뒤집힘(22절). 본문이 그 뒤집힘의 손을 적지 않음.

• 두 국면의 절기: 모르드개의 첫 서신(20~28절, 이 일을 기록하고 두 날을 지키게 함)과 에스더·모르드개의 두 번째 서신(29~32절, 규례를 굳게 세워 책에 새김) — 한 사건이 한 절기가 되어 글로 보존됨.

• 뒤집힘의 결: 진멸의 제비(pur)가 구원의 절기 이름(purim)이 되고(24·26절), 진멸의 정한 날이 보존의 잔칫날이 됨 — 대적의 도구가 백성의 기쁨으로 갈림.

• 제비(24절)·노략물(10·15·16절)·잔치 상(22절)·책(32절): 던져진 추첨물과 손대지 않은 탈취물과 차려진 상과 새겨진 글이 한 장에 놓임.

• hapak(뒤집힘 1절)와 yom tob(길한 날 22절): 정한 날에 임한 역전과, 애통이 건너간 길한 날이 한 장의 두 결로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정한 날의 뒤집힘 — 십삼일 그 날에 일이 정반대로 돌아가(1), 각 고을에서 함께 모여 맞서니 당할 자가 없고(2), 두려움이 임하매 관원이 도움(3~5).

• 컷 2 (6~12절): 수산 첫날과 열 아들 — 오백 인을 치고 하만의 열 아들을 치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고(6·10), 왕이 에스더에게 더 청할 것을 물음(12).

• 컷 3 (13~15절): 이튿날과 매달린 시체 — 에스더가 이튿날도 행하고 열 아들의 시체를 매달기를 청함(13), 또 삼백 인을 치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함(15).

- 컷 4 (16~19절): 평안과 잔치의 각 지방 — 칠만 오천 인을 치되 재산에 손대지 아니하고(16),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함(17~19).
- 컷 5 (20~32절): 부림의 제정과 책의 기록 — 모르드개가 기록하고 서신을 보내 두 날을 지키게 하고(20~23), 부르에서 이름하여 부림이라 하며(24~26), 두 번째 서신으로 규례를 굳게 세워 책에 새김(29~32).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hapak*(הָפַךְ) — 뒤집히다·변하다(1절). 정한 일이 그 반대로 돌아가는 동사. / *nahaphok*(נַהֲפוֹךְ) — 도리어 뒤집혀(1절, 그 수동 형태).
- *qahal*(קָהַל) — 모이다(2절). 함께 모여 맞섬. / *pachad*(פַּחַד) — 두려움(2절). 백성에게 임한 두려움.
- *bizzah*(בִּזָּה) — 노략물·탈취물(10절). / *shalach yad* — 손을 대다(10·15·16절). 세 번 거듭 비워 둔 어구.
- *nuach*(נוּחַ) — 평안·쉼(16절). 대적에게서 벗어나 얻은 쉼. / *mishteh*(מִשְׁתֶּה) — 잔치(17절).
- *yagon*(יָגוֹן) — 슬픔(22절). / *simchah*(שִׂמְחָה) — 기쁨 / *ebel*(אֵבֶל) — 애통 / *yom tob*(יוֹם טוֹב) — 길한 날(22절). 짝지어 뒤집히는 네 단어.
- *pur*(פּוּר) — 제비(24절). / *purim*(פּוּרִים) — 부림(26절). 진멸의 도구가 절기의 이름으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정한 날의 뒤집힘(1~5절)→수산 이틀의 싸움(6~15절)→평안과 잔치(16~19절)→부림의 제정과 기록(20~32절)의 사분 구조 — 형태 관찰.
- 절기의 두 국면: 첫 서신(20~28절, 모르드개가 기록하고 두 날을 지키게 함)→두 번째 서신(29~32절,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규례를 굳게 세워 책에 새김) — 한 사건이 한 절기로 보존됨.
- 부르(pur)와 부림(purim)의 거울: 하만이 진멸의 날을 정하려 던진 제비(3:7 배경)와,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의 이름(9:24·26)이 같은 단어로 마주 봄.
- 뒤집힘(hapak 1절)의 거둠: 정한 날·슬픔·진멸의 이름이 한 동사 위에서 다 그 반대로 돌아감 — 그 뒤집힘의 손은 비워 둠.
- 9:22의 대구: 슬픔(yagon)↔기쁨(simchah), 애통(ebel)↔길한 날(yom tob)의 정확한 짝 — 권 첫머리의 애통(4장 배경)과 마주 선 정서의 역전,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부르·제비 — 고대 근동에서 날을 정하려 던지던 추첨물('puru' 입방체 유물 정황). 하만이 진멸의 날을 정하려 던진 그 제비. 24절의 배경.
- 각 지방의 관원·방백 — 페르시아 제국이 둔 행정 관료 체계, 두려움이 임하매 유다인을 도움. 3절의 배경.
- 시체를 나무에 매닮 — 처형한 자의 시신을 공개하던 정황.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매단 14절의 배경.
- 절기의 서신 반포 — 절기 규례를 각 지방에 서신으로 보내 동시에 시행하게 한 행정. 20·30절의 배경.
- 예물과 구제의 절기 관행 — 절기에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정황. 22절의 배경.
- 도성과 지방의 날짜 차이 — 수산은 십사·십오일, 지방은 십삼·십사일로 하루 갈리는 행정 정황. 18~19절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에 9장 ↔ 에 3:7 (하만이 부르 곧 제비를 던져 진멸의 날을 정함 — 9:24-26 부림 이름의 직접 배경)

- 에 9:1 ↔ 에 3:13 (십삼일에 진멸하라는 첫 조서 — 정반대가 일어나는 그 정한 날)
- 에 9:2 ↔ 에 8:11 (왕이 함께 모여 스스로를 지키도록 허락함 — 그 허락의 시행)
- 에 9:22 ↔ 에 8:16-17 (빛과 기쁨이 임하고 잔치를 베풂 — 절기의 기쁨이 앞당겨 비친 직전 본문)
- 에 9:22 ↔ 에 4:1-3 (모르드개가 굵은 베를 입고 부르짖고 유다인이 슬퍼함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과 마주 보는 권 첫머리의 애통)
- 에 9:30 ↔ 에 1:1·8:9 (백이십칠 지방 — 부림 서신이 보내진 제국의 폭)
- 에 9:10·15·16 ↔ 삼상 15:3·9 (아말렉과 노략물을 진멸하라는 명과 사울이 노략물을 취함 — '재산에 손대지 아니함'이 닿는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9:24 ↔ 출 17:14-16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심 — 아각 사람 하만의 패망이 닿는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9:31-32 ↔ 에 9:20 (부림의 규례를 굳게 세워 책에 기록함 — 절기가 글로 새겨져 보존되는 권의 닫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각 지방. 자막 — 아달월 십삼일, 곧 왕의 조명이 시행되게 된 날이다. 유다인의 대적이 그들을 제압하기를 바랐으나, 일이 도리어 뒤집혀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압하게 된다. 흩어진 백성이 각 고을에서 함께 모여 자기를 해하려는 자에게 맞선다. 당할 자가 없으니, 모든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한 까닭이다. 각 지방의 관원과 방백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돕는다. 화면이 수산 성으로 좁혀진다. 자막 — 유다인이 첫 날에 오백 인을 치고 하만의 열 아들을 친다. 그러나 손을 그 재산에는 대지 아니한다. 왕이 에스더에게 묻는다 — 또 무엇을 구하느냐. 에스더가 청한다 — 이튿날도 그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튿날 또 삼백 인을 치되, 역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한다. 화면이 다시 각 지방으로 넓어진다. 각 지방의 유다인은 칠만 오천 인을 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한다. 그러고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그 날에 쉬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한다. 자막 — 십사일에 지방이, 십오일에 수산이 쉬며 잔치하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화면이 모르드개의 방으로 간다.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각 지방에 서신을 보내 이 두 날을 해마다 지키게 한다. 자막 — 이 달은 그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달이라. 하만이 던진 부르 곧 제비에서 이름하여,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한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두 번째 서신이 이 규례를 굳게 세운다. 자막 — 에스더의 명령이 부림의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화면이 한 책에 새겨진 그 글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정한 날이 정반대로 —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힌 장"**
- 초벌 부제: "아달월 십삼일, 진멸이 시행되게 된 그 날에 도리어 일이 뒤집혀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벗어나(9:1), 각 고을에서 함께 모여 맞서고 이기되 그 재산에는 세 번 거듭 손을 대지 아니하며(9:10·15·16) —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두 날을 해마다 지키게 하여 하만이 던진 부르 곧 제비에서 이름한 부림이라 하니(9:24·26),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9:22) 그 달에 잔치를 베풀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고,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힌 채 그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pur·purim·hapak·nahaphok·qahal·pachad·bizzah·nuach·mishteh·yagon·simchah·ebel·yom tob·mattanot·ebyonim·qum 등 16+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뒤집힘 한 동사의 거둠 + 부르와 부림의 거울 + 9:22 대구 + 사분 구조 + ANE 제비·관원·매닮·서신·절기 관행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9:1의 '도리어 뒤집혀'를 '하나님이 직접 칼을 돌리심'으로 단정하지 않고, 정한 날에 일이 그 반대로 돌아간 본문 형태로만 둠 — 그 뒤집힘의 손은 적지 않은 채 비워 둠. 이름의 부재는 적되 그 의미는 비워 둠.
- 9:10·15·16의 '재산에 손대지 아니함'을 '거룩한 절제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이긴 백성이 노략물을 세 번 거듭 비워 둔 본문 형태로만 기록. 그 비움의 까닭은 비워 둠.
- 9:13-14의 열 아들의 시체를 매단 일을 '잔혹의 정당화' 또는 '심판의 완성'으로 미리 평하지 않고, 에스더가 청하고 그 시체가 나무에 매달린 본문 형태로만 둠.
- 9:22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을 '구원의 교리적 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두 단어가 정확한 대구로 짝지어 뒤집힌 본문 형태로만 보존. 그 뒤집힘의 행위 주어는 비워 둠.
- 9:24-26의 부림이라는 이름을 '섭리의 의도된 반전'으로 미리 닫지 않고, 하만이 던진 제비(pur)에서 절기의 이름(purim)이 온 본문 형태로만 둠 — 어째서 대적의 무기가 절기 이름이 됐는지는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더 9장은 진멸이 시행되게 된 아달월 십삼일 그 날에 도리어 일이 뒤집혀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압하게 되고(9:1), 각 고을에서 함께 모여 맞서 이기되 그 재산에는 세 번 거듭 손을 대지 아니하며(9:10·15·16) —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그 날에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9:22),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두 서신으로 이 두 날을 해마다 지키게 하여 하만이 던진 부르 곧 제비에서 이름한 부림이라 굳게 세워 책에 새기니(9:24·26·32),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 달에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힌 채 그 이름은 끝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권 전체가 수렴하는 장이다.

한 문단: 정한 날의 각 지방. 진멸이 시행되게 돼 있던 십삼일 그 날에, 칼끝이 정반대로 돌아선다 — 대적이 유다인을 제압하려던 그 날에, 도리어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압한다. 두려움이 임하매 관원들이

그들을 돕는다. 화면이 수산으로 좁혀진다. 첫날 오백 인과 하만의 열 아들, 이튿날 또 삼백 인 — 그러나 이긴 백성은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 세 번이나 그 어구가 거듭된다. 각 지방에서도 칠만 오천 인을 치되, 역시 노략에 손대지 않는다. 그러고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그 날에 쉬며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로 그 기쁨을 흘려보낸다.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이 두 날을 해마다 지키도록 글에 새긴다 — 하만이 던진 제비(pur)의 이름을 따 부림이라 한다.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길한 날로 건너간다. 한 장이 한 책에 새겨진 그 글 앞에 멈춘다 — 그 이름은 끝내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로.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정한 날의 각 지방→수산 이틀의 싸움→평안과 잔치→부림을 새기는 온 제국으로 넓어졌다 닫히는 무대. 던진 제비·셈해진 수·매달린 나무·손대지 않은 노략물·잔치와 예물·두 서신과 한 책 — 뒤집힘과 싸움에서 절제를 지나 절기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팽팽한 뒤집힘의 긴장. 묵직하게 가라앉은 셈. 다른 결로 트인 평안. 환하게 새겨진 기쁨. 긴장·절제·기쁨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도리어 뒤집혀'(1절)로 열려 '책에 기록되었더라'(32절)로 닫힘. 뒤집힘과 새김 사이에 9:22의 대구(슬픔↔기쁨·애통↔길한 날)가 마주 섬.
4 등장인물·사상	함께 모여 이긴 유다인. 점점 창대한 모르드개. 이튿날과 절기를 청·세운 에스더. 무너진 대적 하만. 중심은 뒤집힘과 절제, 애통과 기쁨. 권의 끝까지 와도 그 이름의 부재.
5 장면 컷	정한 날의 뒤집힘(1~5)/수산 첫날과 열 아들(6~12)/이튿날과 매달린 시체(13~15)/평안과 잔치의 각 지방(16~19)/부림의 제정과 책의 기록(20~32) 다섯 컷. 컷 4·5는 싸움과 새김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뒤집힘(hapak) 한 동사가 권을 거둠(그 손은 비워 둠). 손대지 않은 절제의 세 번 거듭. 9:22의 기쁨이 나눔으로 번지는 비워진 까닭. 대적의 무기가 절기 이름이 된 비워진 결.
7 동영상	정한 날의 뒤집힘 → 수산 이틀의 싸움과 손대지 않은 절제 → 평안과 잔치와 예물·구제 → 부림의 제정 → 한 책에 새겨진 글.
8 초벌 제목·부제	"정한 날이 정반대로 —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힌 장"
9 기도·내면	무엇이 그 반대로 돌아서기를 구하기보다 이미 돌아선 한 날을 다시는 잊지 않도록 새기는 마음으로, 진멸의 제비가 절기 이름이 된 뒤집힘과 그 이름은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이 한 방향으로 엮여 가던 자국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정한 날과 그 정반대**: 9장의 좌표는 '뒤집힘'이다. 3장에서 하만은 제비를 던져 진멸의 날을 정했고, 그 조서는 십삼일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라 했다(3:13 배경). 9:1은 바로 그 정한 날에 선다 —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 도리어 뒤집혀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압하게 된 그 날." 정해 둔 날이 그대로 오되, 그 안에서 일어날 일이 정반대로 돌아간다. 본문은 그 뒤집힘에 행위 주어를 적지 않는다 — '일이 뒤집혔다'는 수동형으로만 둔다. 정한 날의 칼끝이 거꾸로 돌아서는데, 그 돌림의 손은 비워 둔 채다. 같은 한 날이 진멸의 날인 동시에 보존의 날이 되는 그 역전을, 본문은 한 동사(hapak) 위에 새겨 둔다.

2. **결 2 — 이김과 손대지 않음**: 본문의 또 한 갈림은 이긴 백성의 절제다. 3장의 옛 조서는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했는데(3:13 배경), 9장의 백성은 이기고도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 본문은 이 한 어구를 세 번 거듭 적는다 — 수산 첫날(9:10), 수산 이튿날(9:15), 각 지방(9:16). 빼앗을 수 있는 국면에서, 빼앗으라 허

락된 대목에서, 세 번 거듭 비워 둔다. 본문은 그 비움의 까닭을 풀지 않고, 다만 거듭하여 도드라지게 둔다. 같은 날이 칼을 셈하면서도 노략은 비워 두는 그 절제를, 본문은 평가 없이 세 번 마주 둔다.

3. **결 3 — 슬픔이 건너간 기쁨**: 9장의 백성은 두 폭으로 적힌다. 권 첫머리에서 그들은 굵은 베를 입고 재 가운데 부르짖으며 금식했다(4:1-3 배경). 9:22에서 같은 백성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 달이 온다. 두 단어가 정확한 대구로 짝지어 건너간다 — 슬픔(yagon)↔기쁨(simchah), 애통(ebel)↔길한 날(yom tob). 본문은 그 건넘에 까닭을 길게 붙이지 않고, 그 기쁨을 자기 안에 가두지도 않는다 — 잔치에서 서로 예물로, 다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로 흘러가게 둔다(9:22). 굵은 베가 길한 날로 건너가는 그 거리를, 본문은 평가 없이 둔다 — 권 전체가 수렴하는 그 destination에서, 애통이 마침내 그 반대편에 닿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에 3:7 — 하만이 부르 곧 제비를 던져 진멸의 날을 정함 — 9:24-26 부림 이름의 직접 배경.
- 에 3:13 — 십삼일에 진멸하라는 첫 조서 — 9:1 정반대가 일어나는 그 정한 날.
- 에 8:11 — 왕이 함께 모여 스스로를 지키도록 허락함 — 9:2 모임이 그 허락의 시행.
- 에 8:16-17 — 빛과 기쁨이 임하고 잔치를 베풂 — 9:22 절기의 기쁨이 앞당겨 비친 직전 본문.
- 에 4:1-3 — 모르드개가 굵은 베를 입고 부르짖고 유다인이 슬퍼하며 금식함 — 9:22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과 마주 보는 권 첫머리의 애통.
- 에 9:31-32 — 부림의 규례를 굳게 세워 책에 기록함 — 절기가 글로 새겨져 보존되는 권의 닫힘.
- 삼상 15:3·9 — 아말렉과 노략물을 진멸하라는 명과 사울이 노략물을 취함 — 9:10·15·16 '재산에 손대지 아니함'이 닿는 한 결, 배경으로만.
- 출 17:14-16 —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심 — 아각 사람 하만의 패망이 닿는 한 결, 배경으로만.
- 신 25:17-19 —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 하만의 열 아들의 패망이 닿는 한 결, 배경으로만.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9:1의 '도리어 뒤집혀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압하게 된 그 날'에서 시작한다 — 정해 둔 한 날의 칼끝이 정반대로 돌아서는 그 어귀에 선다.
- **멈춤 1**: 9:10에서 멈춘다 — '손을 그 재산에는 대지 아니하니라.' 이기고도 빼앗지 않는, 세 번 거듭 비워 둔 그 절제를 쥔다.
- **멈춤 2**: 9:22에서 멈춘다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이라.' 굵은 베가 정확히 그 반대편으로 건너간 그 대구를 쥔다.
- **끝**: 9:26에서 멈춘다 —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니라.' 진멸의 제비가 영영 기뻐할 절기의 이름이 된 그 뒤집힘을, 한 책에 새겨진 글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정한 날의 뒤집힘(1~5)·수산 첫날과 열 아들(6~12)·이튿날과 매달린 시체(13~15)·평안과 잔치(16~19)·부림의 제정과 기록(20~32)의 다섯 컷 완결
- [x] 뒤집힘(hapak 1절) 한 동사의 거둠과 부르(pur)↔부림(purim)의 거울·정한 날→싸움→평안→절기의 사분 구조
- [x] 던진 제비(9:24)와 새겨진 책(9:32)·손대지 않은 노략물의 세 번 비움(9:10·15·16)·9:22의 정확한 대구의 소품 다리

- [x] 권 흐름(EST flow)의 destination 본문 정박 — 1장의 빈 왕후 처소·3장의 던져진 제비·4장의 '이 때'·6장의 불면의 밤이 9:22로 수렴함의 회수
- [x] 10장의 한 사람의 존귀(모르드개의 마무리)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EST flow 닻)

에스더서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며, destination은 9:22에 두어진 부림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 달이다. 권의 흐름은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1~2장), 하만의 조서와 부르(제비)(3장), '이 때를 위함'과 잔치(4~5장), 잠 못 이루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 반전의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8~10장)로 움직인다. 9장은 그 다섯째 국면, '반전의 조서(8~10장)'의 한복판이자 권 전체가 수렴하는 destination 본문이다. 1장의 빈 왕후 처소, 3장에서 하만이 던진 제비, 4장의 '이 때를 위함', 6장의 잠 못 이루는 밤이 — 흩어진 우연처럼 보이던 그 매듭들이 — 다 9:22의 한 좌표로 모인다. 진멸의 날을 정하려 던진 그 제비(pur)가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의 이름(purim)이 되고, 권 첫머리에서 굵은 베를 입던 백성의 애통(ebel)이 정확히 그 반대편의 길한 날(yom tob)로 건너간다. 권의 intent('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제비·반전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심')가, 9장에서는 뒤집힌 정한 날과 손대지 않은 절제와 글에 새겨진 절기로 그 엮임을 다 거둔다. 그런데 9장은 그 보존을 한 사건으로만 두지 않고 한 절기로 새긴다 — 9:20·29·31이 두 서신으로 그 두 날을 해마다 돌아오게 하고, 9:32가 그것을 책에 굳혀 다음 세대로 건넨다. 권의 heart인 '침묵 속에서도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마음'이, 9장에서는 이름이 불리지 않는 채로 진멸의 제비가 절기의 기쁨으로 뒤집혀 가는 결로 비친다 — 역전 그 자체가 침묵의 손길이 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8장의 빛과 기쁨(8:16)이 한 걸음 앞당겨 비춘 그 절기가, 여기 9:22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힌 부림으로 완성되고, 권의 마지막 한 장(10장)이 그 결을 한 사람의 존귀로 닫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진멸이 시행되게 된 정한 그 날(9:1)이 도리어 뒤집혀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벗어나는 데에서, 이기되 노략에 세 번 거듭 손대지 않는 절제(9:10·15·16)로, 다시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길한 날로 건너간 한 절기(9:22)와 책에 새겨진 부림(9:32)으로,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힌 채로 / 한 책의 글에서 다음 장의 한 사람의 존귀로(9:32→10장) — 이름을 숨기신 손이 권의 모든 우연을 한 좌표로 거두어 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9장은 정해 둔 한 날의 칼끝이 정반대로 돌아서고, 이긴 백성이 노략을 비워 두며, 굵은 베를 입던 애통이 길한 날로 건너가 영영 돌아올 절기로 새겨지는 데로 흘러가는 운동이다. 각 지방의 한 역전(1~5절)이 수산 이틀의 싸움으로(6~15절), 각 지방의 평안과 잔치로(16~19절), 부림의 제정과 책의 기록으로(20~32절) 넓어졌다 새겨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에스더서는 1~2장의 등극에서 시작해 3장의 제비, 6~7장의 역전, 8~10장의 반전으로 움직이며 9:22의 뒤집힘에 닿는데, 9장은 바로 그 닿는 좌표 — 권의 큰 호가 수렴하는 destination이다. 그런데 9장의 벡터는 destination에 닿고도 한 장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남긴다 — 절기는 글에 굳혀졌으나(9:32), 이름을 숨기신 채 백성을 보존한 그 결이 한 사람(모르드개)의 존귀로 어떻게 닫히는지는 다음 장에 남겨진다. 한 장이 한 책에 새겨진 글 앞에서 멈추고, 그 멈춤이 다음 장을 향해 한 인물의 마무리를 내민 채 선다. 뒤집힘과 새김이 권의 끝 매듭에서 모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역전과 한 싸움과 한 절제와 한 절기다 — 날이 뒤집히고, 백성이 맞서 이기고, 노략에 손대지 않고, 절기를 새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거둬진다. 첫째,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을 엮어 온 한 손이

마침내 그 엮임을 다 거두는 본질이다. 본문은 권의 끝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 — 뒤집힘도, 절제도, 절기도 다 백성과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힌다. 그런데 그 동작들이 마침내 한 좌표로 모인다 — 진멸하려고 던진 바로 그 제비(pur)가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의 이름(purim)이 되고, 굵은 베를 입던 백성의 애통이 마침 그 반대편의 길한 날로 건너간다. 역전 그 자체가, 적히지 않은 그 손의 침묵의 손길이 된다. 둘째, 이긴 국면에서도 더 가지지 않는 절제의 본질이다. 옛 조서는 노략을 허락했으나(3:13 배경), 백성은 그 노략을 세 번 거듭 비워 둔다(9:10·15·16) — 보존된 백성의 손이 약탈로 번지지 않게 멈춘다. 셋째, 살아난 기쁨이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는 본질이다. 9:22의 잔치는 서로 예물로, 다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로 번진다 — 뒤집힌 슬픔의 기쁨이 나눔의 모양을 입는다.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제비와 반전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는 권인데, 9장은 그 엮임이 다 거둬지는 destination이다 — 1장의 빈 처소, 3장의 제비, 4장의 '이 때', 6장의 불면이 여기 9:22로 모인다. 그 이름을 끝내 적지 않은 채, 본문은 우연들이 한 좌표로 거둬지는 그 결을 들고 한 책에 새겨진 글 앞에서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 나는 무엇이 정반대로 돌아서기를 구하기보다, 이미 한 번 돌아선 한 날을 다시는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야 할 대목은 어디인가 — 그 돌림의 손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그리고 무언가를 이긴 국면에서, 더 가질 수 있는데도 비워 두어야 할 노략은 무엇이며, 살아난 기쁨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가난한 한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야 할 대목은 어디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큰 승리를 거두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 둔 한 날의 칼끝이 정반대로 돌아선 한 뒤집힘을 보여 주고, 이기고도 노략에 세 번 거듭 손대지 않은 한 절제를 보여 주고, 굵은 베를 입던 애통이 정확히 그 반대편의 길한 날로 건너간 한 대구를 보여 주고, 진멸의 제비가 영영 기뻐할 절기의 이름이 된 한 새김을 새겨 둔다. 뒤집힘과 절제와 기쁨이 한 장에 거둬진 이 침묵 — 권의 destination에 와서도 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그 침묵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이미 돌아선 한 날을 잊지 않도록 새기는 일, 이긴 국면에서 비워 두어야 할 노략이 무엇인지 묻는 일, 살아난 기쁨을 가난한 한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야 할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이름이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우연들이 마침내 한 좌표로 거둬지는 그 결 앞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정한 날의 뒤집힘으로 열려 한 책에 새겨진 글 앞에서 멈추는데 — 슬픔이 기쁨으로 건너간 부림(9:22)이 권의 큰 호를 다 거두고, 멀리 다음 한 장에서 그 보존이 한 사람의 존귀로 닫힌다. 그 새김과 그 닫힘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9장이 부림의 절기와 책에 새겨진 규례(9:22·32)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힌 그 큰 호가 다 거둬졌으되, 이름을 숨기신 채 백성을 보존한 그 결이 한 사람의 존귀로는 아직 닫히지 않았으니, 다음 장은 점점 창대해진 모르드개가 왕 다음으로 존귀하게 되어 자기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 마무리로 넘어가, 권 전체가 한 사람의 높여짐으로 그 마지막 매듭을 거두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hapak* — 정한 날을 그 반대로 돌린 뒤집힘.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각 지방. 자막 — 아달월 십삼일, 진멸이 시행되게 된 그 날에 일이 도리어 뒤집힙니다. 유다인이 각 고을에서 함께 모여 맞서니 당할 자가 없고, 관원들이 그들을 돕습니다. 화면이 수산으로 좁혀집니다. 첫날 오백 인과 하만의 열 아들을 치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합니다. 왕이 묻고, 에스더가 이튿날과 열 아들의 매닮을 청합니다. 또 삼백 인을 치되 역시 손대지 아니합니다. 화면이 각 지방으로 넓어집니다. 칠만 오천 인을 치되 재산에 손대지 아니하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습니다. 그 날에 쉬며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화면이 모르드개의 방으로 갑니다. 그가 이 일을 기록하고 서신을 보내 두 날을 지키게 하니, 부르에서 이름하여 부림이라 합니다. 자막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더라. 에스더의 두 번째 서신이 규례를 굳게 세웁니다. 화면이 한 책에 새겨진 그 글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한 정한 날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데서 열려, 각 고을의 맞섬이 두려움 속에 이기고, 수산 이틀의 싸움 가운데 노략에 손대지 않는 절제가 세 번 거듭되며 — 대적에게서 벗어난 평안 위에 잔치와 예물과 구제가 오고, 그 두 날이 부림이라 이름하여 글에 새겨지는, 한 책에 새겨진 그 글에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정한 날이 정반대로 —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힌 장"

P02 이진우: "한 동사 위에 선 권 전체 — hapak, 날과 슬픔과 이름이 다 그 반대로 돌다"

P04 최현국: "정한 날의 칼에서 한 책의 절기로 — 한 사건이 해마다 돌아올 글이 되다"

P05 김미영: "던진 제비와 차려진 상 — 대적의 무기가 백성의 잔치로"

P07 오지혜: "이겼는데도 손대지 않은 — 세 번 거듭 비워 둔 노략물"

P11 나경아: "*pur · purim* — 진멸의 제비, 구원의 절기 이름"

부제 제안: "아달월 십삼일, 진멸이 시행되게 된 그 날에 도리어 일이 뒤집혀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벗어나(9:1), 각 고을에서 함께 모여 이기되 그 재산에는 세 번 거듭 손을 대지 아니하며(9:10·15·16) —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두 날을 해마다 지키게 하여 하만이 던진 부르 곧 제비에서 이름한 부림이라 하니(9:24·26),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9:22) 그 달에 잔치를 베풀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고,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힌 채 그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정한 날에 칼끝이 정반대로 돌아선 그 뒤집힘 곁으로, 이겼는데도 노략에 손대지 않고 세 번 거듭 비워 둔 그 절제 곁으로, 권 첫머리의 굵은 베가 길한 날로 건너간 그 대구 곁으로, 그리고 진멸의 제비가 영영 기뻐할 절기의 이름이 된 그 새김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정한 한 날에 일이 그 반대로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 진멸하려던 그 날이 보존의 날이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길한 날로 정확히 건너가던 그 대구를요. 또 이긴 백성이 노략에 손대지 않고 세 번 거듭 비워 두는 것도, 그 기쁨이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서로에게로,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 삶에서 무엇이 그 반대로 돌아서기를 구하기보다, 이미 돌아선 한 날을 다시는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는 일을 들고 머물겠습니다. 진멸의 제비가 절기의 이름이 된 그 뒤집힘과, 권의 끝까지 와서도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이 한 방향으로 엮여 가던 그 결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9장은 **한 정한 날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데서, 이기되 노략에 손대지 않는 절제로, 다시 그 뒤집힘을 해마다 돌아올 절기로 글에 새기는 데로** 움직여요. 1~5절이 정한 날의 역전, 6~15절이 수산 이틀의 싸움, 16~19절이 평안과 잔치, 20~32절이 부림의 제정과 기록이에요. 에스더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2장이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3장이 하만의 조서와 부르(제비), 4~5장이 '이 때를 위함'과 잔치, 6~7장이 잠 못 이루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 8~10장이 반전의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예요. 권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고요. 그런데 9장은 그냥 다섯째 국면의 한 장이 아니라, 권 전체가 수렴하는 **destination** 본문이에요 — 1장의 빈 왕후 처소, 3장의 던져진 제비, 4장의 '이 때', 6장의 불면의 밤이 다 9:22로 모여요. 진멸의 제비(pur)가 구원의 절기(purim)로 뒤집히는 그 좌표가 바로 여기예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9:1의 *hapak*(뒤집히다)가 권 전체의 운동을 한 동사에 담아요 — 정한 날도, 9:22의 슬픔도, 진멸의 이름도 다 그 한 동사 위에서 그 반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뒤집힘이 닿는 좌표가 *pur*(제비 24절)에서 *purim*(부림 26절)으로의 한 글자 늘어남이에요 — 하만이 던진 단수의 제비가, 백성이 영영 기뻐할 복수의 절기가 돼요. 9:22의 *yagon→simchah*(슬픔→기쁨), *ebel→yom tob*(애통→길한 날)의 두 대구가 그 뒤집힘을 정서로 옮겨 새기고요. 흥미로운 건, hapak의 행위 주어가 본문에 적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 일이 '뒤집혔다'고만 하고, 누가 뒤집었는지는 비워 둬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역전과 한 싸움과 한 절제와 한 절기예요 — 날이 뒤집히고, 백성이 맞서 이기고, 노략에 손대지 않고, 절기를 새겨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온 한 손이 마침내 그 엮임을 다 거두는 결 같아요. 본문은 권의 끝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 뒤집힘도, 절제도, 절기도 다 백성과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혀요. 그런데 그 동작들이 마침내 한 좌표로 모여요 — 진멸하려고 던진 그 제비가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의 이름이 되고, 굵은 베를 입던 백성의 애통이 정확히 그 반대편의 길한 날로 건너가요.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제비와 반전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는 권인데, 9장은 그 엮임이 다 거둬지는 destination이에요. 8장의 빛과 기쁨이 한 걸음 앞당겨 비춘 그 절기가, 여기 9:22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힌 부림으로 완성돼요 — 그 이름은 끝내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로.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셈해진 칼의 수(오백·삼백·칠만 오천)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22절)이 같이 있어요. 한쪽은 무거운 싸움의 셈이고, 한쪽은 그 너머의 잔치와 기쁨이에요. 같은 장에서 칼은 셈해지고, 그 칼이 멈춘 곳에 잔치가 차려져요 — 그런데 이긴 백성이 그 노략에는 세 번 거듭 손대지 않아, 칼과 잔치 사이에 한 절제가 끼어 있어요. 더 큰 긴장은, 권의 끝까지 와서도 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 뒤집힘도 절기도 다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히는데, 그 동작들이 마침내 한 백성의 보존과 한 절기의 기쁨으로 정확히 모여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거의 다 거둬졌는데도 한 장이 더 남아요 — 모르드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끝맺음은 다음 장(10장)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정한 날의 뒤집힘에서 해마다 돌아올 한 절기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각 지방의 한 역전(1~5절)이 수산 이틀의 싸움으로(6~15절), 각 지방의 평안과 잔치로(16~19절), 부림의 제정과 책의 기록으로(20~32절) 넓어졌다 새겨져요. 그리고 9장이 끝나며 한 책에 새겨진 그 글 앞에 서요 — 부림을 굳게 세워 기록한 그 글이에요. **그런데 권이 destination에 닿았는데도 한 장이 더 손잡이를 내밀어요** — 절기는 새겨졌으나 한 사람의 끝맺음(모르드개의 존귀)이 아직 적히지 않았어요. 한 장이 한 책의 글 앞에서 멈추는데, 그 멈춤이 다음 장을 향해 한 인물의 마무리를 남겨 둔 채 서 있어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22절과 32절이 다음을 미는 두 손 같아요. 22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과 32절의 '책에 기록되었더라'요. 권의 큰 뒤집힘은 여기서 다 거둬졌어요 — 진멸의 제비가 절기가 되고, 애통이 길한 날로 건너갔어요. 저는 권 첫머리에서 굵은 베를 입고 금식하던 그 백성의 애통이, 마침내 해마다 돌아올 잔치로 새겨지는 그 결이 따뜻해요 — 굵은 베와 길한 날이 권의 두 끝에 마주 선 그 자국이요. 그런데 그 새김 다음에도 한 장이 남아, 이름을 숨기신 채 백성을 보존한 그 결이 한 사람의 존귀로 어떻게 닫히는지를 봐야 해요. 그 마무리가 어디로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정한 날의 뒤집힘에서 해마다 돌아올 한 절기로, 셈해진 칼에서 새겨진 기쁨으로 —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히며 권의 큰 호가 9:22에서 다 거둬지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힌 부림이 책에 새겨졌어도, 권은 한 장을 더 남겨 둡니다. 다음 장은 이름이 불리지 않는 채로 백성을 보존한 그 결이, 한 사람(모르드개)의 존귀로 어떻게 닫히는지로 이어지며, 9:22의 절기가 권의 마지막 매듭으로 거둬집니다.

에스더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9:1 — '도리어 뒤집혀'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정한 그 날에 대적이 유다인을 제압하기를 바랐으나, 일이 도리어 뒤집혀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압하게 된다(1절). 본문은 그 뒤집힘의 손을 적지 않는다 — '누가 일을 거꾸로 돌렸는가'를 풀지 않고 수동형으로만 둔다.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칼을 돌리심'으로 닫지 않고, 정한 날에 일이 그 반대로 돌아간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이름은 여기서도 불리지 않은 채 둔다.

Q2. 9:10·15·16 — '재산에 손대지 아니함'의 세 번 거듭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유다인이 이기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한다 — 수산 첫날(10절), 수산 이튿날(15절), 각 지방(16절)에 세 번 거듭 적힌다. 본문은 그 비움의 까닭을 풀어 적지 않는다 — 다만 세 번 거듭하여 도드라지게 둘 뿐이다. 이 일을 '거룩한 절제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이긴 백성이 노략물을 세 번 거듭 비워 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옛 조서가 허락한 탈취(3:13 배경)와의 거리는 비워 둔다.

Q3. 9:13-14 — 이튿날과 열 아들의 매닮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에스더가 이튿날도 그 조서대로 행하게 하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기를 청한다(13절). 본문은 이 청에 옳다 그르다 판단을 붙이지 않는다 — 왜 이튿날이 더해지고 시체가 공개되는지를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이 일을 '심판의 완성' 또는 '잔혹의 정당화'로 단정하지 않고, 에스더가 청하고 그 시체가 매달린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결은 비워 둔다.

Q4. 9:22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이 달은 그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이라"(22절). 두 단어가 정확한 대구로 짝지어 뒤집힌다. 본문은 그 뒤집힘에 행위 주어를 적지 않고, 그 까닭을 길게 풀지 않는다 — 권 첫머리의 애통(4장 배경)이 바로 그 반대편으로 건너간 대구만 적는다. 이 일을 '구원의 교리적 확정'으로 닫지 않고,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길한 날로 짝지어 뒤집힌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손은 비워 둔다.

Q5. 9:24-26 — 진멸의 제비가 절기의 이름이 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하만이 진멸을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던졌으므로(24절), 그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한다(26절). 본문은 이 이름 짓기에 설명을 길게 붙이지 않는다 — 어째서 대적의 무기 이름이 백성의 절기 이름이 됐는지를 풀어 적지 않는다. 이 일을 '섭리의 의도된 반전'으로 닫지 않고, 던진 제비(pur)에서 절기의 이름(purim)이 온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뒤집힘의 까닭은 비워 둔다.

Q6. 9장 전체 — 권의 끝에 와서도 이름의 부재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뒤집힌 정한 날도(1절), 세 번 비워 둔 노략물도(10·15·16절), 짝지어 뒤집힌 슬픔과 기쁨도(22절), 부림이라 새겨진 절기도(26절) 다 백성과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히고, 하나님의 이름은 권의 destination에 와서도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 본문은 그 부재를 설명하거나 메우지 않는다 — '숨어 계심'이라고도, '부재'라고도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한 신학으로 닫지 않고, 우연들이 마침내 한 좌표로 모이되 그 이름은 적히지 않은 본문 형태로만 보존 — 역전 그 자체가 침묵의 손길로 비치는 그 결을 그대로 둔다. 한 사람의 존귀로 닫힐 다음 장(10장)을 향한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에스더 *10*장*)*으로 이월한다.

에스더 10장

EST-010 · 역사서 · 히브리어

> 세 절뿐인 종결부.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에 부역을 정하고*(10:1)*, 그가 행한 권세의 모든 일과 모르드개를 높인 그 위대함이 연대기에 적히며*(10:2)*, 유다인 모르드개가 왕의 다음 곧 둘째 지위에 올라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한다*(10:3)* — 호화로운 왕의 권세 기록 곁에서, 버금의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이 백성의 복리와 온 종족의 화평을 구하는 섬김으로 권이 닫히고, *1*장의 호화로운 잔치로 열렸던 권이 백성을 안위하는 섬김으로 수미상관을 이루며, 그 이름은 끝내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을 엮어 가던 한 권을 닫는다.

관찰된 사실

에스더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제국 전체의 부감(부역, 본토와 바다 섬들 1절)→한 권의 연대기로 좁혀지는 봉인(2절)→둘째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의 클로즈업과 그가 향한 한 백성(3절). 광대한 권세에서 한 사람으로, 다시 한 백성으로.
- 무대의 방향: 위로 향한 왕의 권세(부역·연대기)가, 그 다음의 한 사람을 거쳐, 아래로 향한 섬김(백성의 이익·종족의 화평)으로 내려감.
- 소품: 부역·조공(1절), 메대와 바사 왕들의 연대기(2절), 왕 다음의 둘째 지위(3절). 형체 있는 소품은 적으나 무게가 갈림 — 권세의 표지와 백성을 향한 한 지위.
- 소품의 도드라짐: 부역(1절, 위로 거두는 권세)과 둘째 지위(3절, 아래로 베푸는 섬김) — 위와 아래의 두 방향이 같은 종결부의 두 끝에 놓임.
- 소재의 결: 처음은 권세(부역·권세·능력·위대함·연대기·메대·바사), 끝은 섬김(백성·이익·도모함·종족·안위함·화평). 둘을 잇는 한 단어가 '다음·둘째 지위(mishneh)' — 가장 높은 한 분 아래의 지위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향함.
- 형식 소재: 1장 호화로운 잔치와 10장 권세 기록의 거울(수미상관), '연대기(sefer divre hayyamim)'의 종결 봉인(2·6장↔10장), 위로 향한 부역과 아래로 향한 둘째 지위의 마주 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짧으나 무게 실린 공기 — 세 절로 빠르게 지나다 마지막 절 '안위하였더라'(3절)에서 발이 멈춤.
- 광대함과 가까움의 겹침 — 본토와 섬들의 부역(1~2절)과 한 백성을 안위하는 한 사람의 온기(3절)가 나란함.
- 닫힘의 차분함 — 6~9장의 빠른 역전·반전·절기가 가라앉고, 큰 사건 없이 권세 요약과 한 섬김으로 잔잔히 닫음.
- 부감에서 클로즈업으로 — 넓은 권세의 화면(1~2절)에서 한 사람의 얼굴, 그 시선이 백성으로 향하는 가까운 화면(3절)으로.

- 권세('toqep' 2절)·둘째 지위('mishneh' 3절)·안위('nacham' 3절)의 세 어조.
- '안위하였더라'(3절) — 진멸로 위협받던 종족이 화평을 듣는 종족으로 끝나, 마지막 온기가 오래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 3절: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 한 왕의 광대한 부역으로 열려, 한 사람이 백성을 안위하는 데로 닫힘 — 가장 높은 한 사람의 권세의 시작과, 그 다음의 한 사람이 백성을 향한 섬김의 끝.
- 1장(호화로운 잔치)으로 열린 권이 10장(백성의 안위)으로 닫힘 — 같은 왕의 광대함이 권의 두 끝에 마주 서되, 한쪽은 빈 처소로, 한쪽은 위로받는 백성으로.
- 1절(위로 향한 권세)과 3절(아래로 향한 섬김) 사이에 2절(둘을 다 적은 한 권의 연대기)이 봉인으로 놓임.
- 넓은 부감(1절)에서 가까운 클로즈업(3절)으로 — 왕의 권세가 한 사람의 높임을 거쳐 한 백성의 화평으로 내려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모르드개(왕이 높여 존귀하게 함·왕의 다음 곧 둘째 지위에 오름·크게 존경받고 사랑받음·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함), 왕 아하수에로(본토와 섬들에 부역을 정하고 권세를 행하며 모르드개를 높임), 유다인과 허다한 형제와 모든 종족(존경하고 사랑하며 이익을 도모받고 안위받는 백성), 그리고 무대 뒤의 이름 — 이 권의 마지막 절에도 한 번도 불리지 않은 한 분.
- 중심 사상: '권세와 섬김'과 '높임과 안위' — 앞 두 절은 왕의 권세(부역·권능·위대함 1~2절), 마지막 절은 둘째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이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종족을 안위함(3절). 본문이 마지막 무게를 섬김에 둠 — 권의 마지막 동사가 '안위하다(nacham)'.
- 두 단의 종결: 권세의 보도(1~2절, 부역과 연대기, 그 한가운데 모르드개의 높임)와 한 사람의 섬김(3절, 둘째 지위에서 백성을 안위함) — 등극은 3절 앞 절반, 안위는 3절 뒤 절반, 마지막 점은 안위에 찍힘.
- 위대함의 향방: 2절의 gedullah(왕이 베푼 높임)에서 3절의 gadol(백성 가운데 큰 자)로, 같은 큼이 군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향방을 틂.
- 부역(1절)·연대기(2절)·둘째 지위(3절): 위로 거두는 권세와 둘을 적은 한 책과 아래로 베푸는 한 지위가 한 종결부에 놓임.
- mishneh(둘째 지위 3절)와 nacham(안위함 3절): 가장 높은 한 분 아래의 한 지위와, 그 지위로 백성을 위로한 한 섬김이 한 절의 두 결로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제국에 미친 부역 —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에까지 조공·부역을 정함, 가장 넓은 부감.
- 컷 2 (2절): 연대기에 적힌 권세와 높임 — 왕의 권세의 모든 일과, 왕이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위대함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됨, 한 권의 책으로 좁혀지는 봉인.
- 컷 3 (3절): 둘째 지위에서 백성을 안위함 — 모르드개가 왕의 다음 곧 둘째 지위가 되어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으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함, 한 사람의 클로즈업, 그 시선이 백성으로.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as*(מַס) — 부역·조공(1절). 본토와 섬들에 정해진 노역. / *toqep*(תֹּקֶף) — 권세·위력(2절). 왕이 행한 힘.
- *gedullah*(גְּדֻלָּה) — 위대함·존귀(2절). 왕이 모르드개를 높인 큼. / *giddel*(גִּדֵּל) — 높이다·크게 하다(2절).
- *sefer divre hayyamim*(סֵפֶר דִּבְרֵי הַיָּמִים) — 연대기·왕들의 사적(2절). 종결의 봉인이 된 책.
- *mishneh*(מִשְׁנֶה) — 다음·둘째(3절). 왕 다음의 한 지위, 요셉의 둘째 지위와 닿음. / *gadol*(גָּדוֹל) — 큰·위대한(3절).
- *ratsuy*(רָצוּי) — 존경받는·받아들여진(3절). / *tob*(טוֹב) — 이익·복리(3절). 모르드개가 도모한 백성의 복.
- *shalom*(שָׁלוֹם) — 화평(3절). / *nacham*(נָחַם) — 안위하다·위로하다(3절). 권을 닫는 마지막 동사.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권세의 보도(1~2절)→한 사람의 섬김(3절)의 두 단 구조, 그 한가운데(2절 뒤) 모르드개의 높임이 끼임 — 형태 관찰.
- 한 칸씩 내려가는 결: 왕의 권세(1~2절 앞)→모르드개의 높임(2절 뒤)→둘째 지위(3절 앞)→백성의 안위(3절 뒤) — 권세에서 섬김으로 한 칸씩 하강.
- 1장과 10장의 거울(수미상관): 아하수에로 왕의 호화로운 잔치와 광대한 판도(1장)와, 같은 왕의 부역과 권세 기록(10장)이 권의 두 끝에서 마주 봄 — 한쪽은 빈 처소로, 한쪽은 안위받는 백성으로.
- 위대함(gadol·gedullah·giddel)의 거듭됨과 그 향방의 꺾임: 왕이 베푼 높임(2절)에서 백성을 섬기는 큼(3절)으로.
- 연대기(sefer divre hayyamim)의 봉인: 2장(모르드개의 공이 적힘)과 6장(왕이 그 책을 읽고 기억함)에서 등장한 그 책이, 10:2에서 그의 높임을 적은 종결의 봉인이 됨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부역·조공 — 페르시아 제국이 본토와 바다 섬들까지 노역과 공물을 정하던 광대한 조세 행정의 정황. 1절의 배경.
- 왕들의 연대기 — 페르시아·메대 왕실이 통치의 일들을 사적에 기록하던 관행, 2·6장에도 등장. 2절의 배경.
- 둘째 지위(mishneh) — 페르시아 궁정에서 왕 다음 가는 재상의 지위, 요셉이 애굽에서 오른 둘째 지위와 닿음. 3절의 배경.
- 바다 섬들 — 제국이 본토 너머 지중해 연안과 섬들까지 부역을 미치던 광대한 판도의 정황. 1절의 배경.
- 허다한 형제 —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다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 한 종족 전체를 형제로 부름. 3절의 배경.
- 권의 종결 형식 — 열왕기·역대기가 '그 남은 사적은 연대기에 기록되니라' 형식으로 통치를 닫던 관행과 닮은, 10:2의 종결 정형. 배경으로만.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에 10장 ↔ 에 1:1-9 (아하수에로 왕의 호화로운 잔치와 광대한 판도 — 10:1 부역·권세 기록이 수미상관으로 닫는 권의 첫 무대)
- 에 10:2 ↔ 에 2:23 (모르드개가 왕을 구한 일이 궁중 일기에 적힘 — '연대기에 기록됨'과 닿는 책)

- 에 10:2 ↔ 에 6:1-3 (왕이 잠 못 이뤄 연대기를 읽다 모르드개의 공을 발견함 — 그 책으로 권이 닫히는 복선)
- 에 10:2-3 ↔ 에 8:15 (모르드개가 조복과 금관을 입고 높여짐 — 그 높임이 둘째 지위로 종결되는 직전 결)
- 에 10:3 ↔ 에 9:22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부림절 — 안위와 화평이 그 절기 뒤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destination)
- 에 10:3 ↔ 에 3:1 (왕이 하만을 높여 모든 지위 위에 둠 — 모르드개가 그 비운 둘째 지위에 오른 마주 봄, 배경으로만)
- 에 10:3 ↔ 창 41:40-43 (요셉이 애굽에서 왕 다음의 둘째 지위에 오름 — mishneh의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10:3 ↔ 렘 29:7 (사로잡혀 간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 화평을 말한 한 섬김이 닿는 디아스포라의 한 결, 배경으로만)
- 에 10장 ↔ 느 1:1-4 (흩어진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 무릎 꿇는 한 사람 — 에스더가 닫힌 뒤 귀환 공동체로 이어지는 다음 운동, 배경으로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제국의 부감. 자막 —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한다. 카메라가 광대한 판도 위를 천천히 훑는다 — 본토에서 멀리 바다의 섬들까지, 왕의 권세가 미친 땅들이다. 화면이 한 권의 책으로 좁혀 들어간다. 자막 — 왕이 행한 권세의 모든 일과, 왕이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그 위대함의 자세한 기록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니라. 그 책장 위에 한 이름이 적힌다 — 권세의 일과 한 사람의 높임이 같은 책에 나란히 놓인다. 화면이 다시 한 사람의 얼굴로 가까이 간다. 자막 —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더라. 왕 바로 아래의 한 지위에 한 사람이 선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시선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향한다. 자막 — 그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더라. 화면이 그 한 사람에게서 한 백성에게로 넓어진다. 흩어진 형제들, 모든 종족이 그 시선 안에 들어온다. 자막 — 그가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화면이 한 사람이 백성을 향해 화평을 말하는 한 장면에서 멈춘다 — 그 이름은 끝내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로.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왕의 권세 곁에서 백성을 안위한 둘째 지위 — 호화로움으로 연 권이 섬김으로 닫히다"**
- 초벌 부제: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에 부역을 정하고(10:1) 그가 행한 권세의 모든 일과 모르드개를 높인 위대함이 연대기에 적히며(10:2), 유다인 모르드개가 왕의 다음 곧 둘째 지위에 올라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으며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니(10:3) — 호화로운 왕의 권세 기록 곁에서 버금의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이 백성의 복리와 온 종족의 화평을 구하는 섬김으로 권이 닫히고, 1장의 호화로운 잔치가 백성의 안위로 수미상관을 이루며, 그 이름은 끝내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 한 권을 닫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mas·toqep·gevurah·gedullah·giddel·sefer·divre hayyamim·mishneh·gadol·ratsuy·tob·shalom·nacham·zera 등 14+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두 단 구조 + 1장과 10장의 수미상관 거울 + 한 칸씩 하강 + ANE 부역·연대기·둘째 지위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권 종결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0:1의 왕의 부역을 '세상 권세의 헛됨'으로 단정하지 않고,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에 조공을 정한 본문 형태로만 둠. 권세로 종결부를 연 까닭은 비워 둠.
- 10:2의 '연대기에 기록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로 닫지 않고, 왕의 권세의 일과 모르드개의 높임이 메대·바사 왕들의 사적에 적힌 본문 형태로만 기록.
- 10:3의 '둘째 지위(mishneh)'를 '요셉형 구속사 모형의 성취'로 단정하지 않고, 모르드개가 왕의 다음 지위에 오른 본문 형태로만 둠. 요셉과의 닿음은 배경으로만.
- 10:3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안위하였더라'를 '섬기는 지도자의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둘째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이 백성의 복리와 종족의 화평을 구한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권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적히지 않은 점을 '숨어 계심의 신학'으로 미리 닫지 않고, 마지막 절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은 채 권이 닫힌 본문 형태로만 둠 — 그 부재의 결은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더 10장은 왕 아하수에로가 본토와 바다 섬들에 부역을 정하고(10:1), 그가 행한 권세의 모든 일과 왕이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그 위대함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며(10:2), 유다인 모르드개가 왕의 다음 곧 둘째 지위에 올라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니(10:3) — 호화로운 왕의 권세 기록 곁에서 버금의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이 백성의 복리와 온 종족의 화평을 구하는 섬김으로, 1장의 호화로운 잔치가 백성의 안위로 수미상관을 이루며 그 이름은 끝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권의 닫는 장이다.

한 문단: 제국의 부감. 왕이 본토에서 멀리 바다의 섬들에까지 부역을 정한다 — 광대한 권세가 한 화면에 펼쳐진다. 카메라가 한 권의 연대기로 좁혀 든다. 그 책에 왕의 권세의 일과, 왕이 모르드개를 높인 위대함이 나란히 적힌다. 다시 화면이 한 사람의 얼굴로 가까이 간다 — 왕 다음의 둘째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시선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향한다. 흩어진 형제들, 모든 종족이 그 시선 안에 들어온다. 그가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온 종족을 안위한다. 권의 마지막 동사가 '안위하였더라'이다. 진멸의 제비로 떨던 한 종족이, 화평을 듣는 종족으로 닫힌다. 한 권이 한 사람의 섬김 앞에서 멈춘다 — 그 이름은 끝내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로.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제국의 부감(부역 1절)→한 권의 연대기(2절)→둘째 지위에 오른 한 사람과 그가 향한 백성(3절). 부역·연대기·둘째 지위 — 위로 거두는 권세에서 아래로 베푸는 섬김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짧으나 무게 실린 공기. 광대함과 가까움의 겹침. 닫힘의 차분함. 부감에서 클로즈업으로. '안위'의 마지막 온기.
3 시작과 끝	왕의 부역(1절)으로 열려 백성의 안위(3절)로 닫힘. 1장 호화로운 잔치와 10장 권세 기록의 수미상관 — 한쪽은 빈 처소로, 한쪽은 위로받는 백성으로.
4 등장인물·사상	높여지되 섬기는 모르드개. 권세를 행하고 그를 높인 왕. 존경하고 사랑하며 안위받는 백성. 중심은 권세와 섬김, 높임과 안위. 끝까지 불리지 않은 이름.
5 장면 컷	제국에 미친 부역(1)/연대기에 적힌 권세와 높임(2)/둘째 지위에서 백성을 안위함(3) 세 컷. 컷 2는 권세와 섬김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위대함(gadol)의 꺾인 향방(왕이 베푼 높임→백성을 섬기는 큼). 권세와 화평의 마주 봄. 10:1 권세로 연 까닭과 마지막 '안위'의 비워진 내용. 이름의 부재.
7 동영상	제국의 부역 → 연대기에 봉인된 권세와 높임 → 둘째 지위의 한 사람 → 백성을 향한 시선 → 화평을 말하는 한 장면에서 멈춤.
8 초벌 제목·부제	"왕의 권세 곁에서 백성을 안위한 둘째 지위 — 호화로움으로 연 권이 섬김으로 닫히다"
9 기도·내면	주어진 권이나 지위를 자기 위로 쌓기보다 한 사람을 안위하는 데로 돌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절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은 채 우연이 엮여 백성을 보존한 침묵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위로 향한 권세와 아래로 향한 섬김**: 10장의 종결은 두 방향을 한 화면에 둔다. 1절은 위에서 아래로 거두는 권세다 —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에 부역을 정한다. 3절은 한 사람이 백성에게 아래로 베푸는 섬김이다 — 둘째 지위에 오른 모르드개가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온 종족을 안위한다. 본문은 이 두 방향의 거리를 풀이하지 않고, 광대한 권세의 부감 곁에 한 백성을 향한 클로즈업을 나란히 둔다. 그런데 권의 마지막 시선은 권세가 아니라 섬김에 머문다 — 권을 닫는 동사가 '안위하다(nacham)'이고, 권을 닫는 대상이 흩어진 한 백성이다. 가장 높은 한 분 아래의 둘째 지위가 군림으로 가지 않고 백성의 화평으로 향하는 그 향방을, 본문은 평가 없이 마지막 점으로 찍는다.

2. **결 2 — 호화로움으로 열려 섬김으로 닫힘(1장↔10장)**: 본문의 또 한 갈림은 권의 두 끝이 이루는 거울이다. 1장에서 권은 아하수에로 왕의 호화로운 잔치, 백팔십 일의 광대함으로 열렸고(에 1장 배경) — 그 잔치 끝에 빈 왕후 처소가 남았다. 10장은 같은 왕의 광대한 부역과 권세 기록으로 닫히되(10:1-2), 그 광대함 곁에는 빈 처소가 아니라 안위받는 한 백성이 있다(10:3). 같은 호화로운 권세가 권의 두 끝에 마주 서는데, 한쪽은 비움으로 이어졌고 한쪽은 채움으로 닫힌다. 본문은 그 수미상관을 굳이 풀이하지 않고, 1장의 왕과 10장의 왕을 같은 광대함으로 적어 그 거리만 마주 둔다 — 호화로움으로 연 권이 한 백성의 안위로 점을 찍는 그 거리를.

3. **결 3 — 진멸로 위협받던 종족이 위로받는 종족으로**: 10장의 백성은 권 전체의 끝에서 한 번 더 비춰진다. 권 내내 그들은 진멸의 제비 앞에서 떨던 종족, 굵은 베를 입던 백성이었다(배경). 10:3에서 같은 종족이 '백성의 이익을 도모받고 모든 종족이 안위받는' 백성으로 적힌다. 권의 마지막 두 어휘가 백성의 복리(tob)와 화평(shalom)이고, 마지막 동사가 안위(nacham)다. 본문은 그 안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길게 풀지 않고, 위협받던 한

종족 위에 임한 한 화평을 적을 뿐이다. 진멸의 제비로 열린 위협이 백성의 화평으로 닫히는 그 거리를, 본문은 평가 없이 둔다 — 9:22의 부림절에서 뒤집힘이 일어난 뒤, 여기서 그 결이 한 백성의 보존된 일상으로 가라앉아 봉인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에 1:1-9 — 아하수에로 왕의 호화로운 잔치와 광대한 판도 — 10:1 부역·권세 기록이 수미상관으로 닫는 권의 첫 무대.
- 에 2:23 — 모르드개가 왕을 구한 일이 궁중 일기에 적힘 — 10:2 '연대기에 기록됨'과 닿는 책.
- 에 6:1-3 — 왕이 잠 못 이뤄 연대기를 읽다 모르드개의 공을 발견함 — 10:2 그 책으로 권이 닫히는 복선.
- 에 8:15 — 모르드개가 조복과 금관을 입고 높여짐 — 10:2-3 그 높임이 둘째 지위로 종결되는 직전 결.
- 에 9:22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부림절 — 10:3 안위와 화평이 그 절기 뒤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destination.
- 에 3:1 — 왕이 하만을 높여 모든 지위 위에 둠 — 10:3 모르드개가 그 비운 둘째 지위에 오른 마주 봄, 배경으로만.
- 창 41:40-43 — 요셉이 애굽에서 왕 다음의 둘째 지위에 오름 — 10:3 mishneh의 한 결, 배경으로만.
- 렘 29:7 — 사로잡혀 간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 10:3 화평을 말한 한 섬김이 닿는 디아스포라의 한 결, 배경으로만.
- 느 1:1-4 — 흩어진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 무릎 꿇는 한 사람 — 에스더가 닫힌 뒤 귀환 공동체로 이어지는 다음 운동, 배경으로만.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0:1의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에 부역을 정하였더라'에서 시작한다 — 한 백성의 이야기를 닫는 대목에 펼쳐진 광대한 제국의 권세 부감 앞에 선다.
- **멈춤 1**: 10:2에서 멈춘다 — '왕이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그 위대함이 연대기에 기록되니라.' 권세의 일과 한 사람의 높임이 한 책에 나란히 봉인된 그 대목을 쥔다.
- **멈춤 2**: 10:3 앞에서 멈춘다 — '모르드개가 왕의 다음이 되고.' 가장 높은 한 분 아래의 둘째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을 본다 — 그런데 그 시선이 아래로 향한다.
- **끝**: 10:3 뒤에서 멈춘다 —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권을 닫는 마지막 동사 곁에서, 진멸로 위협받던 종족이 위로받는 종족으로 닫히는 그 화평을, 그 이름이 끝내 불리지 않은 채로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제국에 미친 부역(1)·연대기에 적힌 권세와 높임(2)·둘째 지위에서 백성을 안위함(3)의 세 컷 완결
- [x] 권세의 보도(1~2)와 한 사람의 섬김(3)의 두 단·권세→높임→지위→안위의 한 칸씩 하강 구조
- [x] 위로 향한 부역(10:1)과 아래로 향한 둘째 지위(10:3)·위대함의 꺾인 향방·1장↔10장 수미상관의 다리
- [x] 권 흐름(EST flow)의 다섯째 국면 '반전의 조서·부림절·존귀(8~10장)' 종결 정박과 9:22 부림절·1장 잔치와의 거리
- [x] 안위받은 흩어진 백성의 귀환·재건(느헤미야·귀환 공동체)으로 열린 이월(권을 닫으며 다음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EST flow 닻)

에스더서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며, destination은 9:22에 두어진 부림절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 절기다. 권의 흐름은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1~2장), 하만의 조서와 부르(제비)(3장), '이 때를 위함'과 잔치(4~5장), 잠 못 이루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6~7장), 반전의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8~10장)로 움직인다. 10장은 그 다섯째 국면의 **종결 장**이다 — destination인 9:22의 뒤집힌 부림절 직후의 닫는 대목. 8장이 진멸을 맞서는 조서로 뒤집었고, 9장이 그 날의 방어와 부림절 제정으로 destination에 닿았다면, 10장은 그 뒤집힘이 가라앉은 한 일상에서 둘째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의 섬김으로 권을 봉인한다 — 모르드개의 안위(10:3)가 9:22의 뒤집힌 절기를 보존된 백성의 일상으로 이어 간다. 권의 intent('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조서·반전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심')가, 10장에서는 광대한 권세 곁에 둘째 지위로 백성을 안위하는 한 사람을 세워 그 엮임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다. 그리고 1장의 호화로운 왕의 잔치(빈 왕후 처소로 이어진)와 10장의 권세 기록(백성의 안위로 닫히는)이 수미상관으로 마주 서, 권 전체를 한 거울 안에 가둔다. 권의 heart인 '침묵 속에서도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마음'이, 10장에서는 마지막 절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는 채로 흩어진 종족이 화평을 듣는 종족으로 봉인되는 결로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0장은 한 권을 닫되 끝이 아니다 — 안위받은 디아스포라 백성(10:3)이 흩어진 본토의 회복을 향한 한 갈망을 남기고, 그 보존된 백성이 느헤미야·에스라의 귀환 공동체로 이어지는 다음 운동을 향해 선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광대한 왕의 권세와 부역(10:1)에서, 연대기에 봉인된 한 사람의 높임(10:2)으로, 다시 둘째 지위에 오른 그 한 사람이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온 종족을 안위하는 섬김(10:3)으로, 위로 거두는 권세가 아래로 베푸는 화평으로 내려간 채로 / 한 사람의 섬김에서 흩어진 백성의 귀환과 재건으로(10:3) — 이름을 숨기신 손이 권세와 높임과 섬김을 백성의 보존으로 엮어 한 권을 닫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0장은 광대한 제국의 권세 부감이 한 백성을 안위하는 한 사람의 클로즈업으로 좁혀 가는 운동이다. 제국의 부역(1절)이 한 권의 연대기로(2절), 다시 둘째 지위에 오른 한 사람과 그가 향한 백성으로(3절) 좁혀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에스더서는 1~2장의 등극에서 시작해 3장의 제비, 6~7장의 역전, 8~9장의 반전과 부림절로 움직이며 9:22의 뒤집힘에 닿는데, 10장은 그 닿음 직후의 종결 매듭이다 — 뒤집힘이 한 사람의 섬김과 한 백성의 화평으로 안착하는 국면. 그런데 10장의 벡터는 권을 닫는 동시에 한 손잡이를 다음으로 내민다 — 안위받은 흩어진 종족(10:3)이 본토의 회복을 향한 한 갈망을 남기고, 1장의 빈 왕후 처소로 열린 권이 백성을 안위하는 한 섬김으로 봉인되며 귀환 공동체의 다음 권을 향해 선다. 한 권이 한 사람의 섬김 앞에서 멈추고, 그 멈춤이 흩어진 백성을 귀환과 재건의 다음 운동을 향해 보존한 채 선다. 섬김과 화평이 권의 끝과 다음 운동의 이음매에서 모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권세와 한 높임과 한 섬김이다 — 부역이 정해지고, 한 사람이 높여지고, 그가 백성을 안위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권 전체를 닫으며 그 이름을 끝내 적지 않은 한 손이다. 본문은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 — 부역도, 둘째 지위도, 백성의 안위도 다 왕과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힌다. 그런데 권을 통째로 돌아보면, 진멸의 제비가 마침 구원의 절기로 뒤집혔고, 위협받던 종족이 마침 화평을 듣는 종족으로 닫힌다. 둘째, 높여진 권이 군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향하는 본질이다. 모르드개는 왕 다음의 둘째 지위에 올랐으되(10:3 앞), 그 지위의 시선을 위가 아니라 아래의 한 백성으로 돌린다(10:3 뒤) — 같은 위대함이 왕이 베푼 높임에서 백성을 섬기는 큼으로 향방을 튼다. 셋째, 한 권이 호화로움으로 열

려 섬김으로 닫히는 거울이다. 1장의 광대한 잔치가 빈 처소로 이어졌다면, 10장의 광대한 권세 곁에는 안위받는 한 백성이 선다 — 같은 호화로움이 한 번은 비움으로, 한 번은 채움으로 적힌다.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조서와 반전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는 권인데, 10장은 그 엮임이 한 백성의 보존된 일상으로 가라앉아 봉인되는 마지막 매듭이다 — 권세와 높임과 섬김이 다 백성의 화평을 향해 한 방향으로 모인다. 그 이름을 끝내 적지 않은 채, 본문은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그 결을 들고 한 사람이 백성을 안위하는 한 장면 앞에서 권을 닫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 내게 어떤 권이나 지위가 주어진 대목은 어디인가 —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 위로 쌓고 있는가, 한 사람의 화평을 위해 아래로 돌리고 있는가. 진멸의 제비로 떨던 한 종족이 안위받는 종족으로 닫히듯, 내 곁의 위태로운 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의 복리를 구해야 할 대목은 어디인가 — 그 이름이 끝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높은 지위에 오르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왕 다음의 둘째 지위에 올라 그 시선을 백성으로 돌린 한 사람을 보여 주고, 위로 거두는 권세 곁에서 아래로 베푸는 화평을 보여 주고, 진멸로 위협받던 종족이 위로받는 종족으로 닫히는 한 봉인을 보여 주고, 마지막 절까지 끝내 불리지 않은 한 이름의 침묵을 새겨 둔다. 권세와 높임과 섬김이 한 종결부에 겹친 이 침묵 — 그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그 침묵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게 주어진 권이나 지위를 한 사람의 화평을 위해 아래로 돌리는 일, 내 곁의 위태로운 한 사람을 안위하고 그의 복리를 구해야 할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이름이 불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엮여 백성을 보존하는 그 결 앞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일. 한 권이 호화로운 권세로 열려 한 사람의 섬김 앞에서 멈추는데 — 그 섬김 너머로 안위받은 흩어진 백성(10:3)이 본토의 회복을 향한 한 갈망을 남겨 두었고, 멀리 그 다음에 귀환 공동체가 흩어진 백성을 본토로 다시 모으는 운동으로 드러난다. 그 멈춤과 그 귀환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권으로 미는 운동 한 줄: 10장이 둘째 지위의 섬김과 백성의 안위(10:3)로 한 권을 닫는 그 끝 너머 —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한 그 화평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백성을 보존한 채 남겨 두니, 다음은 그 보존된 백성이 본토로 돌아가 성벽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귀환 공동체의 운동으로 넘어가, 침묵 속에서 보존된 한 백성이 그 본토에서 다시 부름받는 데로 한 걸음 더 돌아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acham* — 백성을 안위함.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제국의 부감. 자막 —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에 부역을 정한다. 카메라가 광대한 판도를 천천히 훑습니다. 화면이 한 권의 연대기로 좁혀 들어갑니다. 자막 — 왕의 권세의 모든 일과, 왕이 모르드개를 높인 위대함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책에 기록되니라. 책장에 권세의 일과 한 사람의 높임이 나란히 적힙니다. 화면이 한 사람의 얼굴로 가까이 갑니다. 자막 — 유다인 모르드개가 왕의 다음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의 시선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향합니다. 화면이 그에게서 한 백성에게로 넓어집니다 — 흩어진 형제들, 모든 종족

이 그 시선 안에 들어옵니다. 자막 — 그가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화면이 한 사람이 백성을 향해 화평을 말하는 한 장면에서 멈춥니다. 그 이름은 끝내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로.

성령일 선교사: 광대한 제국의 부역으로 열려, 권세의 일과 한 사람의 높임이 한 권의 연대기에 봉인되고, 왕의 다음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의 시선이 위가 아니라 아래의 한 백성으로 향하며 — 그가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한 사람이 화평을 말하는 한 장면에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그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은 채로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왕의 권세 곁에서 백성을 안위한 둘째 지위 — 호화로움으로 연 권이 섬김으로 닫히다"

P02 이진우: "권세에서 섬김으로 한 칸씩 — 부역과 연대기를 지나 백성의 화평에 점을 찍다"

P04 최현국: "광대한 부감에서 한 사람의 얼굴로 — 제국의 권세가 한 백성의 안위로 좁혀지다"

P05 김미영: "위로 거두는 부역, 아래로 베푸는 둘째 지위 — 권의 마지막 동사는 '안위하였더라'"

P07 오지혜: "강한 권세와 따뜻한 화평 — 진멸로 위협받던 종족이 위로받는 종족으로 닫히다"

P11 나경아: "*mishneh · nacham* — 왕 다음의 한 지위로 백성을 안위한 한 사람"

부제 제안: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에 부역을 정하고(10:1) 그 권세의 일과 모르드개를 높인 위대함이 연대기에 적히며(10:2), 유다인 모르드개가 왕의 다음 곧 둘째 지위에 올라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으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니(10:3) — 호화로운 권세 곁에서 버금의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이 백성의 복리와 온 종족의 화평을 구하는 섬김으로, 1장의 호화로운 잔치가 백성의 안위로 수미상관을 이루며 그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는 권의 닫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광대한 왕의 권세 곁에서 둘째 지위에 오른 한 사람 곁으로, 그 높은 지위의 시선을 위가 아니라 아래의 한 백성으로 돌린 그 결 곁으로, 진멸로 위협받던 종족에게 건네진 화평의 말 곁으로,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끝내 불리지 않은 그 이름의 침묵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한 권이 광대한 권세로 열려 한 백성의 안위로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가장 높은 한 분 아래의 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 그 지위를 자기 위가 아니라 백성 아래로 쓰던 그 결을요. 또 진멸로 위협받던 종족이 화평을 듣는 종족으로 권을 닫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게 어떤 권이나 지위가 주어진 대목이 있다면, 그것을 제 위로 쌓기보다 한 사람을 안위하는 데로 돌리는 마음을 들고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는데도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엮여 백성을 보존한 그 침묵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권을 닫으며 무엇을 다음으로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0장은 **광대한 왕의 권세에서, 그 권세 곁에 적힌 한 사람의 높임으로, 다시 그 한 사람이 백성을 안위하는 섬김으로** 한 칸씩 내려가요. 1절이 제국의 부역, 2절이 연대기에 봉인된 권세와 높임, 3절이 둘째 지위에서 백성을 안위함이에요. 에스더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2장이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3장이 하만의 조서와 부르(제비), 4~5장이 '이 때를 위함'과 잔치, 6~7장이 잠 못 이루는 밤과 역전과 하만의 몰락, 8~10장이 반전의 조서와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존귀예요. 권의 spine은 '이름을 숨기신 채 우연들을 엮어, 진멸의 제비를 구원의 절기로 뒤집어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심'이고요. 10장은 그 다섯째 국면인 **'반전의 조서·부림절·존귀(8~10장)'의 종결**이에요 — destination인 9:22의 뒤집힌 부림절 직후의 닫는 장이지요. 8장이 맞서는 조서, 9장이 그 날의 방어와 부림절 제정이었다면, 10장은 그 뒤집힘이 가라앉은 일상에서 한 사람의 둘째 지위와 백성의 안위로 권을 봉인해요. 그리고 1장의 호화로운 잔치(빈 왕후 처소로 이어진)와 10장의 권세 기록(백성의 안위로 닫히는)이 수미상관으로 마주 서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0:3의 *mishneh*(왕 다음의 둘째 지위)와 *nacham*(안위하다)이 한 절의 두 결로 호응해요. 가장 높은 한 분 아래의 한 지위가, 군림이 아니라 백성을 위로하는 데로 향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게 *gedullah·gadol*(위대함·큼 2·3절)이에요 — 왕이 베푼 높임이, 백성을 섬기는 큼으로 향방을 틀어요. 또 하나, *tob*(백성의 이익)와 *shalom*(화평)이 권의 마지막 두 어휘로 와, 진멸의 제비로 열린 위협이 백성의 복리와 온 종족의 화평으로 닫히는 한 결을 봉인해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권세와 한 높임과 한 섬김이에요 — 부역이 정해지고, 한 사람이 높여지고, 그가 백성을 안위해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권 전체를 닫으며 그 이름을 끝내 적지 않은 한 손 같아요. 본문은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 부역도, 둘째 지위도, 백성의 안위도 다 왕과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혀요. 그런데 권을 통째로 돌아보면, 진멸의 제비가 마침 구원의 절기로 뒤집혔고, 위협받던 종족이 마침 화평을 듣는 종족으로 닫혀요. 권 전체로 보면 에스더서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조서와 반전 같은 우연을 엮어 백성을 보존하는 권인데, 10장은 그 엮임이 한 백성의 보존된 일상으로 가라앉아 봉인되는 마지막 매듭이에요. 9:22의 부림절에서 뒤집힘이 다 일어난 뒤, 10장은 그 뒤집힘이 한 사람의 섬김과 한 백성의 화평으로 안착하는 데서 권을 닫아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종결부 안에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에 부역을 정하였더라"(1절)와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3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위에서 백성을 묶는 제국의 권세고, 한쪽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로하는 섬김이에요. 같은 종결부에서 강한 권세는 광대하게 펼쳐지고, 따뜻한 화평은 한 백성에게 가까이 가요. 더 큰 긴장은, 권 전체가 왕과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히는데 그 동작들이 묘하게 한 방향으로 — 백성의 보존으로 — 맞물린다는 거예요.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는데, 부역도 둘째 지위도 안위도 한 백성의 화평을 향해 서 있어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닫히되, 흩어진 백성과 그 본토의 회복은 다 풀리지 않은 채 남아요 — 안위받은 디아스포라 백성이 그 본토로 돌아가는 결은, 다른 권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광대한 권세의 부감에서 한 백성을 안위하는 클로즈업으로** 좁혀 가는 운동이에요. 제국의 부역(1절)이 한 권의 연대기로(2절), 다시 둘째 지위에 오른 한 사람과 그가 향한 백성으로(3절) 좁혀져요. 그리고 10장이 끝나며 한 사람이 백성을 향해 화평을 말하는 한 장면 앞에 서요 — 진멸로 위협받던 종족이 위로받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권이 여기서 닫히면서, 한 손잡이를 다음으로 내밀어요** — 안위받은 한 백성, 화평을 들은 디아스포라 종족이, 흩어진 그 본토의 회복을 향한 한 갈망을 남겨 둬요. 한 권이 한 섬김 앞에서 멈추는데, 그 멈춤이 귀환과 재건을 향한 다음 운동을 향해 한 백성을 보존한 채 서 있어요.

P05 김미영: 한 권이 닫히며 무엇을 다음으로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3절의 두 동사가 다음을 미는 두 손 같아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함(tob)'과 '모든 종족을 안위함(nacham)'이요. 위협으로 흩어졌던 한 백성이, 한 사람의 섬김으로 복리와 화평을 얻은 채 권을 닫아요. 저는 진멸의 제비로 떨던 그 종족이, 마침내 위로받는 종족

으로 닫히는 그 결이 따뜻해요 — 1장의 빈 왕후 처소로 열린 권이 백성을 안위하는 한 섬김으로 닫히는 그 거리요. 그런데 바로 그 안위받은 백성이, 흩어진 본토로 돌아가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서 있어요. 그 이음이 어디로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권을 닫고 다음 권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광대한 권세에서 한 백성의 안위로, 위로 거두는 부역에서 아래로 베푸는 둘째 지위로 — 그 섬김과 화평이 권을 닫되, 안위받은 흩어진 백성을 귀환과 재건의 다음 운동을 향해 보존한 채 세워 두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한 권을 닫습니다. 진멸의 제비가 구원의 절기로 뒤집히고(9:22), 둘째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이 백성을 안위했어도, 그 이름은 끝내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채로 권이 봉인됩니다. 이 권은 침묵 속에서도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한 마음을 흩어진 종족의 보존으로 적어 두고, 그 보존된 백성이 본토로 돌아가는 다음 — 느헤미야와 귀환 공동체로 이어지는 운동을 향해 한 걸음을 내밉니다.

에스더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0:1 — 권세로 연 종결부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권의 마지막 종결부가 모르드개가 아니라 왕의 부역으로 열린다 —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에 조공을 정한다(1절). 본문은 왜 한 백성의 이야기를 닫는 대목에 한 제국의 권세 기록을 먼저 두는지를 풀어 적지 않는다 — 그 까닭을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세상 권세의 헛됨'으로 닫지 않고, 왕이 광대한 부역을 정한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권세로 열어 섬김으로 닫는 그 결의 까닭은 비워 둔다.

Q2. 10:2 — 연대기에 적힌 봉인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왕의 권세의 일과, 왕이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위대함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된다(2절). 본문은 그 책에 적힘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다만 권세의 일과 한 사람의 높임이 한 책에 나란히 적혔다고만 적는다. 이 일을 '신실하심의 증거'로 닫지 않고, 두 일이 같은 사적에 봉인된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봉인이 가리키는 결은 비워 둔다.

Q3. 10:3 앞 — 둘째 지위(mishneh)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곧 둘째 지위가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는다(3절 앞). 본문은 이 둘째 지위에 신학적 의미를 붙이지 않는다 — 요셉의 둘째 지위(창 41장)와의 닿음을 단정해 풀지 않는다. 이 일을 '구속사 모형의 성취'로 닫지 않고, 한 사람이 왕 다음의 지위에 올라 존경과 사랑을 받은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지위의 결은 비워 둔다.

Q4. 10:3 뒤 —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안위하였더라'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모르드개가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한다(3절 뒤). 권을 닫는 마지막 동사가 '안위하다(nacham)'이다. 본문은 그가 무엇으로 백성을 안위했는지를 풀어 적지 않는다 — 그저 그가 백성의 복리를 구하고 온 종족에게 화평을 말했다고만 잇대어 둔다. 이 일을 '섬기는 지도자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둘째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이 백성을 위로한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안위의 내용은 비워 둔다.

Q5. 1장↔10장 — 호화로움으로 열려 섬김으로 닫히는 거울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권은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호화로운 잔치와 광대한 판도로 열렸고(에 1장 배경), 10장은 같은 왕의 광대한 부역과 권세 기록으로 닫힌다(10:1-2). 같은 호화로운 권세가 권의 두 끝에 마주 서되, 한쪽은 빈 왕후 처소로 이어졌고 한쪽 곁에는 백성을 안위하는 한 사람이 선다(10:3). 본문은 이 수미상관을 굳이 풀이하

지 않는다. 이 거울을 한 신학으로 닫지 않고, 1장의 호화로움과 10장의 광대함이 마주 선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거리의 의미는 비워 둔다.

Q6. 권 전체 — 끝까지 불리지 않은 이름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부역도(1절), 연대기에 적힌 높임도(2절), 둘째 지위와 백성의 안위도(3절) 다 왕과 사람의 동작으로만 적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 권의 마지막 절에도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 본문은 그 부재를 설명하거나 메우지 않는다 — '숨어 계심'이라고도, '부재'라고도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한 신학으로 닫지 않고, 우연들이 한 방향으로 맞물려 백성을 보존하되 그 이름은 끝내 적히지 않은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침묵을 그대로 둔다. 흩어진 백성의 귀환과 본토의 회복을 향한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에스더 한 권을 닫고, 권 차례로 이월한다.